

[천체학-상] 3-1 '국어의 역사'

상3(1) 국어의 역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국어-1

[가] 고대의 국어 생활



- 선사 시대,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나] 한자의 차용¹⁾과 보급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소나(素那)[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 <삼국사기>, 권 제47

[어휘 풀이] 1) 차용 - 빌려 씀.

1. 선사 시대 '암각화'를 보고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을 이용해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 ② 몸짓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했을 것이다.
- ③ 선사 시대 언어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 ④ 문자는 없지만 생각을 남기려는 욕구가 있었다.
- ⑤ 선사 시대에는 주로 사냥, 채집을 통해 생활하였을 것이다.

2. 위 그림을 보고 문자가 없을 당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기록을 남겼는지 이야기해 보자.

3. [서술형] 한자를 차용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시오.

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입말은 있으나 우리 글말이 없었다.
- ② 한자의 소리를 빌려 이름을 적었다.
- ③ 한자의 뜻을 빌려서 이름을 적기도 하였다.
- ④ 문자가 없어서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야 했다.
- ⑤ 한자를 이용하여 사람 이름과 땅 이름을 중국식으로 표기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金川'은 한자의 뜻을 빌려 쓴 것이다.
- ② '素那'는 한자의 소리를 빌린 표기이다.
- ③ '素那'와 '金川'은 같은 소리로 발음했을 것이다.
- ④ 한 사람의 이름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⑤ '소나'를 표기하기 위해 처음에는 '金川'으로 표기하다 이후 '素那'로 표기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1] 먼저 '밤'과 '골'로 읽히는 한자를 찾아야지. 아, '밤'은 '漚(수령 밤)', '골'은 '骨(뼈골)'을 쓰면 되겠어. 따라서 '漚骨'로 쓰고 읽을 때는 '밤골'로 읽으면 돼.

[학생2] 먼저 '밤'과 '골'의 뜻을 가진 한자를 찾아야지. '밤'은 '栗(밤나무 울)', '골'은 '州(고을 주)'를 쓰면 되겠다. 따라서 '栗州'라고 쓰고 읽을 때는 '밤골'로 읽으면 돼.

6. 다음은 '밤골'이라는 지명을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표기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각 학생이 무엇을 빌려 표기한 것인지 말해 보자.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7. [학생1]과 [학생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栗州’는 ‘밤꿀’을 뜻으로 표기한 것이군.
- ② ‘湍骨’은 뜻으로 읽지 않고 소리로 읽었군.
- ③ ‘밤꿀’은 ‘湍骨’와 ‘栗州’를 모두 쓸 수 있겠군.
- ④ ‘밤꿀’은 ‘栗州’로 쓰다가 점차 ‘湍骨’로 쓰였겠군.
- ⑤ ‘밤꿀’을 ‘湍骨’로 표기하든, ‘栗州’로 표기하든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겠군.

■ ‘길동군’과 ‘영동군’은 같은 마을을 지칭하는 다른 표기이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보자.

①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 <삼국사기>, 권 제34

8. ‘길동군(吉同郡)’과 ‘영동군(永同郡)’은 각각 한자의 소리와 뜻 중 어떤 것을 차용한 표기인지 생각해 보자.

9. 이를 통해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10. 다음 중, 경덕왕이 고치도록 명령한 지명 방식과 동일한지 않은 것은?

- ① 서울 → 한성(漢城)
- ② 안골 → 내리(內里)
- ③ 벌말 → 평촌(坪村)
- ④ 새재 → 조령(鳥嶺)
- ⑤ 곰나루 → 웅진(雄鎭)

11.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永同郡’보다 ‘吉同郡’이 먼저 있었던 지명이야.
- ② ‘吉同郡’은 한자의 소리를, ‘永同郡’은 한자의 뜻을 빌려 쓴 경우야.
- ③ ‘永同郡’은 비록 한자어를 빌려 썼지만, 우리 고유어라고 할 수 있어.
- ④ ‘吉同郡’의 ‘吉’은 같은 음인 ‘佾, 桔, 拮’ 중 아무것이나

써도 상관없겠어.

- ⑤ ‘永同郡’의 ‘永’은 ‘길다’라는 뜻이므로 ‘長(길다 장)同郡’으로 써도 괜찮겠어.

12. [서술형] ‘吉同郡’을 ‘永同郡’으로 바꾼 결과를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국어-2

[가] 국어식 한문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若此事失天大罪得誓

[나]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활용한 표기 - 향찰(鄉札)

㉠ 서동요(薯童謠)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 몰래 결혼하고

薯童房乙

맛둥서방을

夜矣乙抱遺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가다.

- <삼국유사>, 권 제2

13. 위 <임신서기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등은 생략되었다.
- ② 한자의 뜻을 중심으로 빌려 쓴 문장이다.
- ③ 내용으로 볼 때 조건을 넣어 만든 서약문에 해당한다.
- ④ 우리말이 아닌 한자를 빌려 썼으므로 차자 표기 체제이다.
- ⑤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다음은 <임신서기석>의 한 부분과 그것을 현대어로 풀어 놓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자.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若此事失天大罪得誓
만약 이를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얻게 됨을 맹세한다.
※ 만약 약, 이 차, 일 사, 잃다 실, 하늘 천, 크다 대, 죄 죄, 언다 득, 맹세하다 서

14. 한자의 소리와 뜻 중 어떤 것을 빌려 적고 있는가?

15. 이 표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16. [서술형] 고유 명사 표기와 비교하여 <임신서기석>의 표기가 가지는 의의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17. [서술형] <임신서기석>과 <서동요>에 쓰인 표기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요나 동요처럼 불리던 것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 ② 형식 형태소가 발달하지 않아 실질 형태소만 표기했다.
- ③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어순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 ④ 노래의 형식은 4구체 향가이며, 참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⑤ 역사적 인물인 백제 무왕과 선화 공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 다음 중, ‘隱’과 같이 문법적 요소를 표기하기 위해 차용된 글자는?

- ① 他
- ② 嫁
- ③ 署

- ④ 乙
- ⑤ 夜

20. 위 <서동요>의 표기 방식 중, 음독과 훈독을 모두 사용하는 한자를 찾아 쓰시오.

21. <서동요>의 한자 표기와 현대어 풀이를 참조하여, 소리를 빌려 쓴 글자와 뜻을 빌려 쓴 글자를 구분해 보자.

	善	化	公	主	主	隱	
소리	선	화	공	주	주	은	
뜻	착하다	되다	귀인	님	님	숨나다	
	他	密	只	嫁	良	置	古
소리	타	밀	지	가	량	치	고
뜻	남	몰래	다만	시집가다	어질다	두다	옛

[22~24] <서동요>의 향찰 표기를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22. 향찰 표기에서 소리를 빌려 쓴 글자와 뜻을 빌려 쓴 글자는 각각 어떤 부분에 주로 사용되었는지 적어보자.

23. 위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향찰 표기의 특성은 무엇인가?

24. 향찰 표기의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25. 다음 중, 국어사 시대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대 국어 : 원시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 ② 전기 중세 국어 : 고려 시대부터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

- ③ 후기 중세 국어 : 훈민정음 창제부터 임진왜란까지
- ④ 근대 국어 : 임진왜란 이후부터 병자호란까지
- ⑤ 현대 국어 : 갑오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소나(素那)[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 <삼국사기>, 권 제47

[나]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 <삼국사기>, 권 제34

[다] ①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만약에 이 일을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얻게 됨을 맹세한다.

* 만약 약, 이 차, 일 사, 잃다 실, 하늘 천, 크다 대, 죄 죄, 얻다 득, 맹세하다 서

[라]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 몰래 결혼하고

薯童房乙 맛둥서방을

夜矣乙抱遣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가다.

- <삼국유사>, 권 제2

2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素那’와 ‘金川’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
- ② 당시 사람들은 ‘素那’와 ‘金川’을 같은 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 ③ ‘素那’는 한자의 음을, ‘金川’은 뜻을 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素那’와 ‘金川’은 둘다 한자를 빌려 우리말 이름을 표기한 것이다.
- ⑤ ‘素那’와 ‘金川’처럼 표기하는 데에 지역적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27. [서술형] [가]~[라]에 나타난 표기상 공통점을 서술하시

오.

28.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읽었을 때,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경덕왕은 신라 제35대 왕(재위 742~765)으로 관제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757년에는 우리말로 된 지명(地名)을 두 글자의 한자(漢字)로 된 중국식 지명으로 바꾸었으며, 759년에는 중앙 관부의 관직 이름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 ① 한자어가 본격적으로 우리말에 들어온 계기가 되었겠군.
- ② 경덕왕의 조치로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에서 고유어가 불리해졌겠군.
- ③ ‘곰나루’는 ‘부여(夫餘)’로, ‘열우물’은 ‘십정동(十井洞)’으로 바뀌었겠군.
- ④ ‘吉同郡’은 우리말이고, ‘永同郡’은 한자로 된 중국식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경덕왕이 지명과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바꾼 것은 일종의 사대주의(事大主義)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군.

29. [서술식] [나]의 표기상의 특징을 주체성의 측면에서 [다]와 [라]와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30. [라]를 읽고 중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의 표기 방식의 특징을 들어 설명하십시오.

31. ㉮은 ㉮을 뜻 중심으로 표기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을 [라]의 표기 방식으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隱 : 숨을 은
古 : 옛 고
乙 : 새 을
矣 : 어조사 의
如 : 다 여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面 : 면 면

- ① 若隱此事乙失如
- ② 若矣此事乙失古
- ③ 若矣此事乙失面
- ④ 若此隱事乙失面
- ⑤ 若此事乙失隱如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세 국어-1.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

世·생·宗·중·御·영·製·정·訓·훈·민·민·正·정·음·음

나·랏 : 말·ㅅ·미 中·동·國·궐·㉠·에 ㉡·달·아 文·문·字·중·와·로 서·르

㉢·스·믈·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

르·고·져 ·홀·배 이·셔·도 ㅁ·츰·내 제 ·쁘·들 시·러 꺾·디 : ㅁ·훈

·노·미 하·나·라

[1] 자주 정신

·내 ·이·를·爲·왕·ᄒ·야 : 어·엿·비 너·겨

[2] 애민 정신

·새·로 ㉤·스·믈·여·들 字·중·를 ㅁ·ᄒ·노·니

[3] 창조 정신

: 사·름·마·다 : 하·여 : 수·비 나·겨 ·날·로 ㉥·뿌·메 便·편·安·안·히

㉦·ᄒ·고·져 홀 썩·르·미·나·라

-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 세조(世祖) 5년(1459)

[4] 실용 정신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3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주·애민·창조·실용 정신이 나타난다.
- ② 방점을 사용하여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었다.
- ③ 한자어의 경우,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였다.
- ④ 현대 국어와 달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현실음에 가깝게 표기했다.

33. [서술형] 위 글에서 대조적으로 사용된 단어를 찾아 보시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오.

34. 다음 밑줄 친 말 중,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 ① 잡스와 두어리마나논 / 선희면 아니 올세라 /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 <가시리>

- ② 아으, 君(군)다이 臣(신)다이 民(민)다이 ᄒᆞᆫᆞᆫ / 나라악 太平(태평)ᄒᆞ니잇다.

- <안민가>

- ③ 들하 노피곶 도드샤 / 어기야 머리곶 비취오시라 / 어기야 어강도리 / 아으 다룻도리 / 저재 너러신고요

- <정읍사>

- ④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 넬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청산별곡>

- ⑤ 청산리 벽계수 |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 일도 창해ᄒᆞ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 明月(明月)이 만공산ᄒᆞ니 수여간들 엇더리

- 황진이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 ②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난다.
- ③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다.
- ④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사용되었다.
- ⑤ 끊어 적기를 하지 않고, 이어 적기를 하였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ㄹㅇ형’ 활용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달라’가 되어 ‘ㄹ르형’으로 활용한다.
- ② ㉢ : 8종성법으로 표기하였고,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③ ㉣ : 현대 국어에서 ‘이르고자’로 쓰이므로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았다.
- ④ ㉤ : 현대 국어에서 ‘스물’로 쓰이므로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⑤ ㉥ : 현대 국어에서의 ‘하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37. 의미 변화의 유형에는 ‘의미의 축소, 이동, 확대’가 있다. 위 글에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단어들을 찾아 쓰고 유형별로 정리하시오.

38. 이 자료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38~40]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자.

39. 글자 왼쪽에 찍힌 점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40. 다음 표기가 현대 국어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변화와 관련되는 설명을 연결하여 보자.

[중세 국어 → 현대 국어]

- ① 퍼·디 → 퍼지
- ② 스·물 → 스물
- ③ 니르·고·져 → 이르고자
- ④ .쁘·들, .뿌·메 → 뽏을, 쑤에
- ⑤ :수·빔 → 쉬이(쉽게)
- ⑥ 서르 → 서로

[음운상 변화]

- a 어두 자음군 소실 : 어두 자음군이 대부분 된소리로 바뀜.
- b ‘ㄴ, ㅁ, ㅇ’ 등의 음운 소실
- c 구개음화 : ‘ㅣ’ 계열 모음에 선행하는 ‘ㄷ’이 ‘ㅈ, ㅊ’으로 바뀜.
- d 원순 모음화 : 순음 ‘ㅁ, ㅂ, ㅍ’ 아래에서 ‘ㅡ’가 ‘ㅜ, ㅜ’로 바뀜.
- e 두음 법칙 적용 : 모음 ‘ㅣ’ 앞 ‘ㄴ’이 탈락되어 ‘ㅇ’으로 바뀜.

f 모음 조화 불규칙 : 음성 모음과 양성 모음이 어울림.

41. 다음 밑줄 친 조사의 쓰임에 주목하여 현대 국어와 어떤 문법상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중세 국어	나랏 :말쑥·미 中·國·국· <u>에</u> 달·아
현대 국어	우리나라 말이 중국 <u>과</u> 달라

→ 중세 국어에는 () (을/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가 쓰였다.

42. 다음 단어들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각각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비교해 보자.

어·린		어린	나이가 어린
어엿·비		어여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2. 소학언해(小學諺解)

孔·공·자·지 曾·증·자·지·려 닐·러 곶·옴·샤·되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①·술·훈 父·부·모·:·썩· 존·온 거·시·라 敢·감·히 혈·위 상·하·오·디 아·니 :홈 ·이 :효·도·익 匹·르·소·미·오 ·몸·을 세·워 道·도·를 行·행·하·야 일·홈·을 後 :후·세·세·예 :베·퍼 ·뼈 父·부·모·:모·를 :현·더·케 :홈·이 :효·도·익 ㅁ·춤·이·나·라

[1] 효도의 시작과 끝

孔子謂曾子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 <소학언해(小學諺解)> 권 제2, 선조(宣祖) 20년(1587)

[현대어 풀이]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니, 감히 험하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입신(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이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니라.

43. <소학언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두 자음군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 ② ‘ㄱㄴ형’ 활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③ 모음 조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 ④ 이어 적기 표기만 계속 지켜지고 있다.
- 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44. [서술형] <소학언해>에서 명사형 어미 ‘-음/-음’의 혼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 일어난 단어를 찾아 혼란이 일어난 이유를 서술하시오.

45. 다음 중, ㉠과 같은 받침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은?

- ① 암탉
- ② 수컷
- ③ 안팎
- ④ 휘파람
- ⑤ 불쾌한

46. <훈민정음>과 <소학언해>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언어의 특성으로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신생·성장·소멸하기도 한다.
- ② 언어 기호와 의미는 자의적으로 결합된다.
- ③ 언어는 공통 속성을 뽑아 내는 과정을 거친다.
- ④ 언어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다.
- ⑤ 언어는 여러 단위로 나누어지고 결합할 수 있다.

47. [서술형] <훈민정음>을 15세기, <소학언해>를 16세기 국어라고 할 때, 16세기 국어의 특징을 ‘음운, 문법, 표기’ 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설명하시오.

48. [서술형] <보기>를 참고하여 국어의 역사를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 언어의 중심지는 개성이 되었다. 이때의 언어는 고구려어의 흔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신라어를 계승하여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의 건국으로 언어의 중심지가 서울로 옮겨졌으나 언어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고려의 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중세 국어라고 부른다. 중세 국어를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하는데,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한글로 적은 문헌 자료가 많이 나온 시기가 후기에 해당하고, 그 이전 시기가 전기에 해당한다.

49. <소학언해>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한자성어로 나타내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자유친(父子有親)
- ② 입신양명(立身揚名)
- ③ 반포지효(反哺之孝)
- ④ 사친이효(事親以孝)
- ⑤ 출장입상(出將入相)

50. <소학언해>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당시의 가치관과 연결지어 이야기해 보자.

내용	가치관

51. <훈민정음>과 <소학언해>는 약 14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국어 자료이다. <훈민정음>과 <소학언해>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훈민정음		소학언해	
	특징	예	특징	예
음운	‘ங’ 존재	:엷+.이 > :쉬.비 > :수.비	①	②
	모음조화 규칙적	:이.를, .쁘.들, 서르, .뿌.메	모음 조화 불규칙	③
문법	명사형 어미 ‘-음/-음’의 규칙적 출현	:쁘.(다)+.음+.에 > .뿌.메	④	⑤
표기	연철(이어 적기) 보편적	:말쑈.미, 쑈.르.미 나라	분철 (끊어 적기) 확대	⑥
	‘ㅇ’ 유지	:흙, 흙	‘ㅇ’ 소실	⑦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世·생宗중御·영製·정訓·훈민민正·정음음

나.랏 ㉠:말쑈.미 中등國·국·에 달.아 文문字·중·와로 서르 스
 못.디 아.니 흙.썩 .이런 전.초.로 ㉡:어.린 百·씩姓·성.이 니르.고.
 저 .흙.배 이셔.도 믈.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몬흙 ㉢:노.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미 ㉔하·나·라 내 이·를 爲·왕·하·야 ㉕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듬 字·중·를 명·ᄃ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너·겨 날·로 부·메 便·便·安·한·키 하·고·져 흙 썩·르·미·나·라

-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 세조(世祖) 5년(1459)

[나] 孔·공·자·지 曾·중·자·득·려 날·려 곁·으·샤·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 며 슬·흐 父·부·母·의 畏·온 거·사·라 敢·감·히 혈·위 상·하·오·디 아·니 :흙 이 :효·도·의 罔·르·소·마·오 몸·을 세·워 道·도·를 行·행·하·라 일·흙·을 後 :후·世·세·에 :베·퍼 父·부·母·모·를 顯·더·게 :흙·이 :효·도·의 罔·춤·이·나·라

孔子謂曾子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 <소학언해(小學諺解)> 권 제2, 선조(宣祖) 20년(1587)

52. [가]와 [나]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 ㉡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사용되었다.
- ㉢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기하였다.
- ㉣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사용되었다.
- ㉤ 받침 규정은 8종성법이 적용되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53. [가]에 나타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네 가지 쓰시오.

54. [서술형] [가]와 [나]에서 용언의 활용형이 차이가 나는 것을 찾아, 활용의 형태를 구별하여 서술하시오.

55.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가], [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성조(聲調)는 소리의 높낮이를 통하여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말소리의 특징이다. 평성은 점이 없으며 낮은 소리이고, 거성은 점을 하나 찍고 높은 소리이며, 상성은 점을 두 개 찍고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는 높아지는 소리이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 긴 소리로 바뀌어 소리 난다. 입성은 종성이 ‘ㄱ, ㄷ, ㅂ’로 끝나는 음절들로 짧고 빨리 끝나는 소리이다.

- ① ‘敢·감·히’의 ‘감’은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되겠군.
- ② ‘나·랏’의 ‘나’는 낮은 소리이고, ‘랏’은 높은 소리이겠군.
- ③ ‘말·쌔·미’의 ‘말’이 현대 국어에서는 긴 소리가 되겠군.
- ④ ‘잘·흐·느’의 ‘잘’은 낮은 소리인 평성이 되겠군.
- ⑤ ‘받·즈·온’의 ‘받’은 받침이 ‘ㄷ’로 끝나므로 입성이며 높은 소리가 나겠군.

56. [서술형] [나]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단어를 찾아, 바뀐 뜻과 의미의 변화 유형을 서술하시오.

57.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어의 의미 변화에는 축소, 확대, 이동이 있다. 가령, ‘중생’은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인간’만을 가리키므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 ‘세수’의 경우, ‘손을 씻다’는 의미였으나, 현재는 ‘손과 얼굴을 씻다’는 의미이므로 의미의 확대가 일어난 것이다. 한편, ‘방송(放送)’은 예전에는 ‘석방’의 의미였으나, 현재는 ‘전파를 통해 영상을 보내다’는 의미이므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 ① ㉠ : ‘말[言語]’의 의미였으나, 오늘날에는 ‘말’의 높임말로 쓰이므로 의미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거야.
- ② ㉡ : ‘어리석다’의 의미였으나,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는 의미이므로 의미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 : ‘보통 사람’의 뜻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남자’의 비속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의미의 축소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 : ‘맑다’는 뜻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떤 행위를 하다’의 의미이므로 의미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⑤ ㉔ : ‘불쌍하게’의 뜻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예쁘게’의 의미므로 의미가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국어-1. 동명일기

홍식¹⁾이 거룩하야²⁾ ㉑**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㉒**높히** 하야 나를 불러 저기 ㉓**물밧줄** 보라 웨거늘³⁾ 급히 눈을 드러 보니 ㉔**물밧** 홍운을 헤ات고 큰 실오리 굵은 줄이 ㉕**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굵은 것이 촌촌 나 손바닥 너비 굵은 것이 그믐밤의 보는 ㉖**솟불** **빛** 굵더라. 촌촌 나오더니 그 우흐로 적은 회오리밤 굵은 것이 붉기 호박⁴⁾ 구슬 굵고 맑고 통낭⁵⁾기⁵⁾는 호박㉗**도곤** 더 굵더라

[1] 해뜨기 직전의 모습

그 붉은 우흐로 훌훌 움죽여 도는데 처음 낫던 붉은 기운이 빅지 반 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굵던 기운이 희되야 촌촌 커 가며 큰 정만만하야 붉웃붉웃 번듯번듯 뛰놀며 적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몬져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시며⁶⁾ 희 흔들며 뛰놀기 더욱 조로⁷⁾ 하며 항⁸⁾ 굵고 독 굵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⁹⁾이 어즐하야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아고 텨둥¹⁰⁾의 정만 굵은 것이 수레박회 굵하야 물속으로서¹¹⁾ 치미러 밧치드시 올라 ㉘**붓흐며** 항독 굵은 기운이 스러디고¹²⁾ 처음 붉어 것줄 밧취던 거슨 모혀 소허터로¹³⁾ 드리워 물 속의 풍덩 싸디는듯 시브더라 일식¹⁴⁾이 도요¹⁵⁾하며 ㉙**물결**의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시며 일광이 청낭¹⁶⁾하니 만고 텨하의 그런 장관은 뒤두¹⁷⁾홀 더 업슬 듯하더라

- <의유당관북유람일기(意幽堂關北遊覽日記)>, 영조 48년(1772)

[2] 해돋이의 장관과 감상

[어휘 풀이] 1) 홍식 - 붉은 색. 2) 거룩하야 - 매우 아름다워. 3) 웨거늘 - 외치거늘. 4) 호박 - 호박(琥珀). 5) 통낭기는 - 속까지 비치어 환하기는. 6) 가시며 - 없어지며. 7) 조로 - 자주. 8) 항 - 항아리. 9) 낭목 - 두 눈. 10) 텨둥 - 하늘 한가운데. 11) 으로서 - 으로부터. 12) 스러디고 - 사라지고. 13) 소허터로 - 소의 허처럼. 14) 일식 - 해의 빛깔. 15) 도요 - 밝게 비쳐서 빛남. 16) 청낭 - 맑고 명량. 17) 뒤두홀 - 대두(對頭), 적이나 어떤 세력, 힘 따위와 맞서 겨룸, 비교함.

[현대어 풀이] 홍색(紅色)이 거룩하여 ㉑**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놀더니**, 이랑이 크게 소리를 질러 나를 불러, “자기 물 밑을 보십시오.”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밑 홍운(紅雲)을 헤치고 ㉖**큰 실오리 같**

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眞紅) 같은 것이 촌촌 나 ㉗**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솟불 빛 같더라. 촌촌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琥珀) 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朗)하기는 호박보다 더 굵더라. 그 붉은 위로 훌훌 움죽여 도는데, 처음 낫던 붉은 기운이 백지(白紙) 반 장 너비만큼 반듯이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해 되어 촌촌 커 가며, 큰 정만만 하여 불긋불긋 번듯번듯 뛰놀며, 적색(赤色)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촌촌 없어지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 하며, ㉘**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황홀(恍惚)히 번득여 두 눈이 어질하며, 붉은 기운이 명량하여 첫 홍색을 헤치고, 하늘 한가운데 정만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서 물속에서 치밀어 밧치듯이 올라붙으며, 항아리, 독 같은 기운이 없어지고, 처음 붉게 걸을 비추던 것은 모여 ㉙**소의 혀**처럼 드리워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싶더라. ㉚**일색(日色)**이 조요(照耀)하며 물결에 붉은 기운이 촌촌 없어지며, 일광(日光)이 청량(淸朗)하니, 만고 천하(萬古天下)에 그런 장관은 건줄 데 없을 듯하더라.

58. 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았다.
- ②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④ 이어 적기 방식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 ⑤ 15세기 국어의 표기는 ‘불근’이었을 것이다.

59. ㉔은 하나의 음소를 두 개의 음소로 쪼개어 표기하는 ‘재음소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를 위 글에서 두 개 찾아 쓰시오.

60. ㉙은 ‘물밧줄 > 물밧톨 > 물밧톨 > 물밧톨 > 물밧줄’로 바뀐 것이다. 이에 나타난 음운 현상을 모두 설명하시오.

61. 다음 중, ㉚와 쓰임이 유사한 것은?

- ① 밤도 늦었는데 비**까지** 내린다.
- ②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
- ③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다.
- ④ 철수는 영화**보다** 걸음이 훨씬 빠르다.
- 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된다.

62. ㉑~㉙ 중, 원순 모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 ① ㉑
- ② ㉒
- ③ ㉓
- ④ ㉔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63. ‘해’를 비유한 것을 찾아서 변화한 순서대로 쓰시오.

64. ㉔에 사용된 표현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다.
- ②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다.
- ③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 ④ 피 끓는 젊은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랴?
- ⑤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65. ㉔~㉔ 중, 가리키는 것이 다른 하나는?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6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② 여성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우아한 필치가 돋보인다.
- ③ 순수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여 일출의 장관을 묘사하고 있다.
- ④ 후보식 구성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⑤ 다양한 색채어와 관념적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67. [서술형] ‘재음소화’ 현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재음소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를 예로 들어 서술하시오.

68. 이 글이 중세 국어와 달라진 점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알맞은 예를 찾아 적어 보자.

	달라진 점	예
음운	모음 조화 파괴가 심하게 나타난다.	①
	‘△’이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문법	명사형 어미 ‘-기’가 활발하게 쓰였다.	③
어휘	고유어가 많이 나타난다.	④
	감각어나 색채어가 활발하게 쓰였다.	⑤
표기법	방점이 사용되지 않았다.	⑥
	거듭 적기가 나타난다.	⑦
	재음소화 표기가 나타난다.	⑧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국어-2. 독립신문 창간사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㉔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제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 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1] 독립신문의 국문 사용과 띄어쓰기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¹⁾ 본국 ㉔국문을 몬저 비화 능통후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는 법인디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하는 까닭에 ㉔국문을 잘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 신고하니 첫지는 비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돌지는 이 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아서 빅스²⁾을 한문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아보기가 쉬홀터이라 ㉔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하³⁾ 까닭에 국문만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로혀 잘 아러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알 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하리요

[2] 한문에 비해 국문이 우수한 점

또 ㉔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름이 아니라 첫지는 말마디을 제이지 아니하고 그저 줄줄너려 쓰는 까닭에 글 즉가 우회 부터는지 아리 부터는지 몰나서 몇번 일거 본후 에야 글즉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편지 혼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조 아니 쓰는 고로 셔틀어서 잘못봄이라 그런고로 정부에서 너리는 명녕과 국가 문적⁴⁾을 한문으로

만 쓴즉 한문못하는 인민은 나모⁵⁾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 줄 알고 이편이 친이 그글을 못 보니 그사름은 무단이⁶⁾ 병신이 됨이라

[3] 국문을 알아보기 힘든 이유

한문 못 한다고 그사름이 무식한사름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⁷⁾과 학문이잇스면 그사름은 한문만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업는 사름 보다 유식하고 능한 사름이 되는 법이라 조선 부인네도 ㉔국문을 잘하고 각식 물정과 학문을 비화 소견이 높고 형실이 정직하면 무론 빈부 귀천간에 그부인이 한문은 잘하고도 다른것 물으는 귀족 남작보다 능한 사름이 되는 법이라 우리 신문은 빈부 귀천을 다름업시 이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너지 소경을 알게 하라는 뜻이니 남녀 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호로 걸너 몇돌간 보면 새지각과 새학문이 싱길걸 미리 아노라

- <독립신문>(1896)

[4] 독립신문 구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어휘 풀이] 1) 무론하고 - 막론하고. 2) 백수 - 백사(百事) : 모든 일. 3) 폐한 - 사용하지 않은. 4) 문적 - 문서와 서적. 5) 나모 - 남의. 6) 무단이 - 아무 까닭도 없이. 7) 물정 - 세상 형편.

6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문은 한문보다 배우기가 쉬워 우수하다.
- ② 띄어쓰기를 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 ③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국의 문자를 먼저 배운다.
- ④ 국문이 어려운 이유는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국문을 알아보기 힘든 이유는 세로 쓰기와 이어 적기 때문이다.

70. ㉔의 상황을 한자성어로 나타내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 ④ 목불식징(目不識丁)
- ⑤ 다다익선(多多益善)

71. ㉔~㉔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72. <보기>는 위 글을 작성하기 전에 만든 개요이다. ㉔~㉔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론	
독립신문의 국문 사용의 의의	
가. 국문 전용 - 넓은 독자층 확보	㉔
나. 띄어쓰기 - 독해가 쉬움.	
본론	
1. 한문보다 우수한 조선 국문	
가. 배우기가 쉬움.	㉔
나. 알아보기가 쉬움.	
2. 기존 국문 사용의 문제점	
가. 띄어 쓰지 않아 읽기 어려움.	㉔
나. 자주 사용하지 않아 서툰.	
3. 해결 방안 - 국문 사용 교육 강화	㉔
결론	
독립신문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㉔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73. [서술형] 독립신문의 표기상의 특징 중, 중세 국어의 요소가 남아 있는 부분을 설명하시오.

74. 위 글의 내용을 '신문 사설'의 표제와 부제로 나타내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한문 혼용을 극복한 한글 전용
 - 기존 국한문의 난점을 극복한 국어 전용
- ②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 우리말의 우수함을 세상에 알릴 터
- ③ 한문의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말 신문
 - 가로쓰기를 사용해 읽기가 한결 쉬워
- ④ 한글 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 많아
 -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아주 용이해져
- 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길 열어
 -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를 사용해 읽기가 쉬워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75. [서술형] 위 글의 ‘띄어쓰기’에 대해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평가하시오.

76. [서술형] 당시 국문이 한문보다 우수한 이유와 국문을 알아보기 힘든 이유를 각각 두 가지 쓰시오.

77. 이 글을 바탕으로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78. 이 글의 어법이나 표기법이 오늘날의 글과 다른 점을 정리해 보자.

어 법	
표기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쐬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히 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을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아고 큰 실오리 갓흔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갓흔 것이 촌촌 나 손바닥 너비 갓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솟불빛 갓더라. 촌촌 나오더니 그 우흐로 적은 회오리밤 갓흔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갓고 붉고 통낭하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흐로 홀홀 읊죽여 도는디 처엄 낮던 붉은 기운

이 빅지 반 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갓던 기운이 희되야 촌촌 커 가며 큰 정반만하야 붉은붉은 번듯번듯 쐬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몬져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시며 희 흔들며 쐬놀기 더욱 즈로 하며 항 갓고 독 갓흔 것이 좌우로 쐬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아고 텃툽의 정반 갓흔 것이 수레박회 갓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 올라 붓흐며 항독 갓흔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줄 밧취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 속의 풍덩 싸디는듯 시브더라 일식이 도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시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디두홀 디 업슬 듯하더라

- <의유당관북유람일기(意幽堂關北遊覽日記)>, 영조 48년(1772)

[나]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세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각국에서는 사림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몬져 비화 능통흔 후에야 외국 글을 빅오는 법인디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빅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야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하니 첫지는 빅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들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아서 빅스를 한문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 보고 알아보기가 쉬흔터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흔 까닭에 국문만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로혀 잘 아려보지못하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하리오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름이 아니라 첫지는 말마디를 세이지 아니하고 그저 줄줄너려 쓰는 까닭에 글자가 우회 부터는지 아리 부터는지 ㉣물나서 몇번 일거 본후에야 글자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편지 혼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조 아니 쓰는 고로 셔틀어서 잘못봄이라 그런고로 정부에서 너리는 명녕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만 쓴즉 한문못하는 인민은 나모 말만 듯고 무슴 명녕인줄 알고 이편이 친이 그글을 못 보니 그사름은 무단이 병신이 됴이라 한문 못 하다고 그사름이 무식하사름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결과 학문이잇스면 그사름은 한문만하

滿開(만피)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업는 사람 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조선 부인네도 국문을 잘하고 각식 물정과 학문을 비화 소견이 ㉠높고 형실이 정직하면 무론 빈부 귀천 간에 그부인이 한문은 잘하고도 다른것 물으는 귀족 남주 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우리 신문은 빈부 귀천을 다름업시 이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너지 스정을 알게 하라는 뜻이니 남녀 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호로 걸너 몇들간 보면 새지각과 새학문이 싱길걸 미리 아노라

- <독립신문>(1896)

7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음소화 표기가 나타난다.
- ② 받침 표기는 주로 7종성법을 적용하였다.
- ③ 명사형 어미 ‘-기’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 ④ 끊어 적기가 확대되고 거듭 적기도 사용되었다.
- ⑤ 의고적인 표현과 한문 문장의 번역투가 엿보인다.

80. [서술형] [가]에서 현대 국어와 다른 활용 형태를 보이는 것을 찾아 현대 국어의 활용형과 15세기 활용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81. <보기>는 [나]의 첫머리에 있는 내용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느니 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

- ①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느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창간사임을 알 수 있다.
- ② ‘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라고 하여 신문 논조(論調)를 미리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 주의’는 남녀 평등 사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 주의’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라고 할 수 있다.
- ⑤ ‘독립신문’이 한글 전용으로 표기하는 것은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8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았고, 이어 적기를 하였다.
- ② ㉡ : ‘막론하고’ 혹은 ‘구별없이’의 의미이다.
- ③ ㉢ : ‘좋은’의 의미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④ ㉣ : ‘몰라서’의 뜻으로 ‘ㄹㅓ’ 형 활용을 하고 있다.
- ⑤ ㉤ : ‘높고’를 ‘눅고’로 표기한 것으로 재음소화 현상에 해당한다.

[천체학-상] 3-2 '훈민정음 체차원리'

[천체학-상] 3-2 '한글의 독창성'

상3(2) 한글의 독창성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

[가]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우리말을 적는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삼국 시대에는 뜻글자인 중국의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한자로 적기도 하고, 한자의 음(音)과 새김¹⁾[釋]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차자²⁾ 표기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자 및 차자 표기법으로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다. 한자는 처음부터 우리말과 다른 중국말을 적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것으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는 애당초 한계가 있었다. 한자로 우리말의 음절을 적는 차자 표기법도 음절의 수가 많은 우리말을 적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들은 오래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1443년 12월 세종이 우리말의 소리를 적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말의 음운³⁾을 적는 문자였다.

[1] 우리말을 적기 위한 노력

말의 소리를 적는 문자를 만들려면, 먼저 말의 소리 즉 음운에 대한 이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문자 체계의 바탕이 되는 음운 이론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 음운 이론 중 훈민정음의 제자(制字)⁴⁾와 관련한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음운 이론을 갖춘 훈민정음

[나] 첫째,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셋으로 분석하였다.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나’, ‘는’, ‘학’, ‘교’, ‘에’, ‘간’, ‘다’가 각각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것이다. 이때 ‘나’와 ‘는’의 음절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 ‘ㄴ/ㅏ’
‘는’ - ‘ㄴ/-/ㄴ’

[다] 즉, 우리말의 음절은 한 번에 소리를 낼 때 ‘나’와 같이 둘로 분석되거나 ‘는’과 같이 셋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이에 음절을 셋으로 분석하고 첫소리를 초성, 그다음 소리를 중성, 끝소리를 종성이라 하였다.

[3] 한 음절을 초·중·종성으로 분석

[라] 둘째, 초성과 중성은 구분하여 따로 글자를 만들었으나 종성을 적는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이는 초성과 종성이 음운론적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즉, 초성과 종성의 소리의 특성이 유사하기에 따로 종성을 적는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 임용기,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4] 초성·중성은 따로 만들고 종성은 초성 글자를 사용함.

[어휘 풀이] 1) 새김 - 낱알의 한자를 읽을 때, 한자의 음(音) 앞에 풀이하여 놓은 뜻. 2) 차자 - 자기 나라 말을 적는데 남의 글자를 빌려 씀. 또는 그 글자. 3)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4) 제자 - 글자를 만들.

8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말과 중국말은 원래 차이가 있다.
- ② 우리말인 훈민정음은 음운 문자에 해당한다.
- ③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운 이론이 필요하다.
- ④ 차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온전히 적을 수 있다.
- 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식을 차자 표기법이라고 한다.

84. <보기 1>은 차자 표기법의 종류이다. <보기 2>의 ㉠~㉣의 예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 서기체 : 조사나 어미 따위의 표기 없이 우리말 어순에 따라 적는 표기법
- ㉡ 구결 : 한문을 읽을 때 그 뜻이나 독송(讀誦)을 위하여 각 구절 아래에 달아 쓰던 문법적 요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향찰 :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보기

- ㉠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식불 불기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
- ㉡ 二人并誓記 天前誓(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하기를 하늘 앞에 맹세했다.)
- ㉢ 天地之間 萬物之中 唯人 崔貴(天地之間 萬物之中 唯人)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唯人伊 崔貴爲尼)

- ① 가 - a, 나 - b, 다 - c
- ② 가 - b, 나 - c, 다 - a
- ③ 가 - b, 나 - a, 다 - c
- ④ 가 - a, 나 - c, 다 - b
- ⑤ 가 - c, 나 - a, 다 - b

85. [A]의 ‘중성’ 규정에 해당하는 제자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7종성법(七終聲法)
- ② 8종성법(八終聲法)
- ③ 초성독용8자(初聲獨用八字)
- ④ 8종성가죽용(八終成可足用)
- ⑤ 중성부용초성법(終聲復用初聲)

86. [서술형] 위 글을 참조하여 한자와 훈민정음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서 살펴본 예를 활용해 보면, ‘학’은 ‘ㅎ/ㅏ/ㄱ’으로 분석되는데 ‘ㅎ’은 초성, ‘ㅏ’는 중성, ‘ㄱ’은 종성이다. ‘ㄱ’은 종성이지만 초성 글자를 그대로 썼다. 이처럼 중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훨씬 적은 문자로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한글은 적은 수의 문자로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음.

[나] “훈민정음 해례본”(1446) ‘제자해’ 첫머리에서 “이제 훈민정음을 지은 것도 처음부터 온갖 지혜를 다 부려 쓰거나 힘써 찾은 것이 아니고, 다만 말소리를 따라 그 이치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말소리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 내었다는 사실을 잘 알려 주고 있다.

[2] 말소리에 맞는 문자 창조

2.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방법

[다]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글자 수는 모두 28자인데,

초성이 17자, 중성이 11자이다. 훈민정음의 핵심적인 제자 원리는 상형(象形)¹⁾이다. 28자 가운데 기본이 되는 글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고, 나머지는 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그것들을 합성²⁾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나아가 이것들을 다시 ㉡가로로 나란히 쓰거나 ㉢세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글자를 더 만들었다.

[3] 훈민정음의 글자 수와 제자 원리

2-1. 초성의 제자 원리와 방법

[라] ㉣초성을 적는 글자³⁾는 모두 17자이다. 이러한 초성의 제자 원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초성은 가장 세지 않은 소리를 적는 글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를 초성의 기본 글자라 한다. 이러한 기본 글자는 소리를 낼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여 만들었는데, 그것이 ‘ㄱ, ㄴ, ㄹ, ㅁ, ㅂ, ㅇ’ 등의 다섯 글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곧, “초성은 무릇 17자인데, 아음³⁾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설음⁴⁾ ‘ㄴ’은 혀가 위턱에 붙는 모양을 본떴고, 순음⁵⁾ ‘ㄹ’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 치음⁶⁾ ‘ㅁ’은 이의 모양을 본떴고, 후음⁷⁾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 임용기,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4] 발음 기관을 상형한 기본자

[어휘 풀이] 1) 상형(相形) -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뜬. 2) 합성 -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이룸. 3) 아음 - 어금닛소리. 4) 설음 - 혓소리. 5) 순음 - 입술소리. 6) 치음 - 잇소리. 7) 후음 - 목구멍소리.

87.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성은 현대 국어의 모음을 말해.
- ② 훈민정음은 ‘상형’의 원리가 핵심이군.
- ③ 훈민정음은 초성이 중성보다 글자수가 많군.
- ④ 초성과 중성은 현대 국어의 자음에 해당하는군.
- ⑤ 초성의 기본 글자는 가장 세지 않은 소리이므로 모두 울림소리이겠군.

88. ㉠에 해당하는 훈민정음 창제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주 정신, 창조 정신
- ② 자주 정신, 애민 정신
- ③ 창조 정신, 애민 정신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④ 창조 정신, 실용 정신
- ⑤ 실용 정신, 자주 정신

8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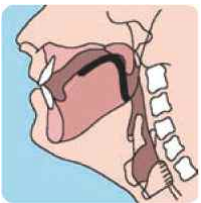
- ① 병서법(竝書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합용 병서는 현대 국어에서도 어두에 쓰인다.
- ③ 합용 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는 것이다.
- ④ 중세 국어에서는 ‘ㅇ’이나 ‘ㅎ’을 병서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
- ⑤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는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된소리에 해당한다.

90. [서술형] ㉡의 규정을 설명하고, 현대 국어에서의 사용 여부를 서술하시오.

91. [서술형] ㉢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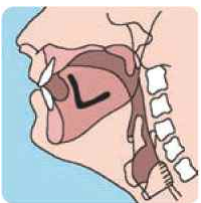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를 풀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금닛소리 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ㄱ’ 소리를 발음할 준비를 하고 혀의 모양을 생각해 보자. 이를 옆에서 본다면 혀의 뒷부분, 즉 뿌리 부분이 입천장에 살짝 닿으면서 ‘ㄱ’자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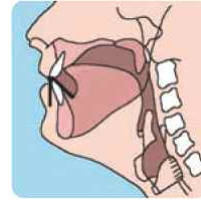
“혓소리 자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ㄴ’를 발음해 보자. 혀의 앞쪽 끝이 윗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진다. 혀가 윗잇몸에 붙는 순간 ‘ㄴ’자 모양이 된다.

“입술소리 자 ‘ㄹ’은 입의 모양을 본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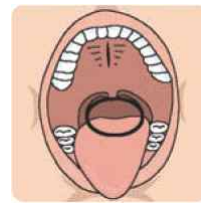
‘ㄹ’를 발음해 보면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며 소리가 난다. 따라서 입술의 모양을 본떠 ‘ㄹ’을 만든 것이다.

다른 글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잇소리 자 ‘ㅇ’은 이의 모양을 본떴다.”

‘스’를 발음할 때 혀끝과 윗잇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 내보내며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목구멍소리 자 ‘ㅗ’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으’를 발음해 보면 혀가 작용하지 않고 목구멍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목구멍의 동그란 단면을 상형하여 ‘ㅗ’을 만든 것이다.

[1] ‘ㄱ, ㄴ, ㄹ, ㅇ, ㅏ, ㅑ’ 상형

[나] 이처럼 무엇인가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원리를 ‘상형’이라 한다. 이때 다른 것이 아닌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였기에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초성은 발음 기관을 상형

[다] 둘째,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들을 만들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형의 원리로 기본 글자 다섯 자를 만들었고 이후 다른 글자들은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이렇게 획을 더한 원리를 ‘가획(加劃)’¹⁾이라 한다.

- 임용기,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3] 가획 글자

[어휘 풀이] 1) 가획(加劃) - 원래 글자에 획을 더함.

92. 위 글을 토대로 ‘훈민정음 강연회’를 한다고 할 때, ‘강연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성을 사랑한 세종 대왕
- ② 발음 기관의 상형, 훈민정음의 초성
- ③ 신비한 소리, 훈민정음 초성의 세계



- ④ 훈민정음 초성, 그 음가(音價)의 세계
- ⑤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중세 국어로의 여행

93. ㉠에 해당하는 초성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 ① ㅂ, ㅃ, ㅍ
- ② ㅈ, ㅉ, ㅊ
- ③ ㄴ, ㄷ, ㄹ
- ④ ㄹ, ㅍ, ㅎ
- ⑤ ㅎ, ㅍ, ㅊ

94. [서술형] 초성의 제자 원리를 고려할 때, 위 글의 초성들을 무엇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95. [서술형] 초성 17자 중에서 ㉡에 해당하는 글자를 모두 쓰시오.

96. [서술형] ㉢을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그 의의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저 소리가 세어짐에 따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ㆆ’ 등의 **아홉 글자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곧 “‘ㄱ’은 ‘ㄱ’에 비해서 소리가 좀 세게 나기 때문에 획을 더한다. ‘ㄴ’과 ‘ㄷ’, ‘ㄷ’과 ‘ㄹ’, ‘ㄹ’과 ‘ㅁ’, ‘ㅁ’과 ‘ㅂ’, ‘ㅂ’과 ‘ㅅ’, ‘ㅅ’과 ‘ㅈ’, ‘ㅈ’과 ‘ㅊ’, ‘ㅊ’과 ‘ㅋ’, ‘ㅋ’과 ‘ㆁ’, ‘ㆁ’과 ‘ㆆ’들은 그 소리에 따라 획을 더한 뜻이 모두 같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즉,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모두 같은 글자에서 변형된 것으로 비슷한 모양인 것이다. 이른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특성이다.

[1] 소리의 세어짐에 따라 가획함.

[나] 그 밖에 ‘ㅇ’과 ‘ㄹ, ㅅ’ 등을 만들었는데, 이것들 역시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획을 더한 뜻은 앞의 경우와는 다르다. ‘ㅇ, ㄹ, ㅅ’은 비슷하게 발음되는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ㅇ, ㄴ, ㅅ’ 보다 더 센 소리임을 나타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이 ‘ㅇ, ㄹ, ㅅ’을

㉡‘**이체자**’¹⁾라 한다.

[2] 이체자를 만들.

[다] 셋째, 초성 17자에는 속하지 않으나 다양한 소리를 적기 위해 기존의 글자를 합성하여 쓰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3] 글자를 합성하여 쓰는 방법

[라]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이나 ㉢**중국 한자음**, 또는 그 밖의 외국말을 적기 위하여, 필요하면 더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쓸 수 있게 하였다. 이미 만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거나, 아니면 세로로 나란히 이어 쓰는 방법이 그것인데, 앞의 것을 병서(並書)라고 하고, 뒤의 것을 연서(連書)라고 한다. 초성의 경우,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ㄱ, ㄴ, ㅂ, ㅅ, ㅈ, ㅊ’의 각자 병서(各字並書)와 다른 글자들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ㅅ, ㅈ, ㅊ, ㅋ, ㆁ, ㆆ,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ㆆ’의 합용병서(合用並書), 그리고 순음(唇音) 아래 ‘ㅇ’을 세로로 이어 쓰는 ‘ㅇ, ㄹ, ㅅ, ㅈ, ㅊ, ㅋ, ㆁ, ㆆ’의 연서(連書) 등이 있다.

- 임용기,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4] 병서법과 연서법

[어휘 풀이] 1) 이체자 - 체제나 형상이 다른 것.

97. 초성의 ‘상형’과 ‘가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성의 상형자는 기본자에 해당한다.
- ② 초성의 가획자는 기본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
- ③ 상형자와 가획자는 소리의 세기에 차이가 난다.
- ④ 상형자와 가획자는 모두 초성의 제자 원리에 따른다.
- ⑤ 초성의 상형자와 그에 따른 가획자는 소리나는 위치가 다르다.

98. [서술형] ‘이체자’ 중, 기본자와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른 글자를 찾고 소리 나는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99. ㉢은 기본자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기본자가 만든 가획자의 개수가 다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ㅁ
- ④ ㅅ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0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 ② 현대 국어에서 유성음에 해당한다.
- ③ 기본자보다 소리의 세기가 더 강하다.
- ④ 가획자와는 가획의 뜻이 달라 이체(異體)로 구별하였다.
- ⑤ 소리가 세어짐에 따라 획을 더한 가획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101. 다음 중, ㉠을 사용한 표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小學 論語 孟子를 강호노라
- ② 孔·공자·지 曾·증자·즈득·려 聃·려 聃·려 聃·려 聃·려
- ③ 蚩·칠·봉·봉·쥬·쥬·쥬·쥬·아 ·나·나 소·리 ㉠·트니·라
- ④ 直·딕·흔 ·이·를 :번·헉·며, :신·실·흔 ·이·를 :번·헉·며
- ⑤ 父·부·모·모·모 :현·더·케 :흙·이 :효·도·익 ㉠·츄·이니·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2. 중성의 제자 원리와 방법

[가] 중성을 적는 글자는 모두 11자이다. 이러한 중성의 제자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상형하여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중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는 세 가지이다. 이 세 소리를 적기 위해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상형하여 ‘·, 一, 丨’의 세 글자를 만들었다. 이들은, 초성의 경우처럼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게 아니다. 중성은 초성과는 달리, 그것을 발음할 때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입안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성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 수가 없다.

[1] 중성은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를 상형함.

[나] 이에 대해 ‘제자해’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소리 내고 그 소리는 깊으

니……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는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소리 내고 소리는 깊지도 알지도 않으니…… 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다.”

“丨’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調音)¹⁾하고 소리가 알으니…… 그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2] 중성 기본자 ‘·, 一, 丨’의 상형

[다] 둘째,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다. 그 밖의 나머지 여덟 글자는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는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이 그것이다. 합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一 → ㄱ

· + 丨 → ㄴ

一 + · → ㄷ

丨 + · → ㄹ

이처럼 ‘·’가 하나만 쓰인 ‘ㄱ, ㄴ, ㄷ, ㄹ’를 초출자(初出字), 각각의 초출자에 ‘·’가 하나씩 더 붙어 만들어진 ‘ㅁ, ㅂ, ㅅ, ㅇ’를 재출자(再出字)라 한다.

[3] 초출자와 재출자의 제자 원리

[라] 셋째, 중성 11자에는 속하지 않으나 다양한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글자를 합성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를 합성하여 ‘ㄱ, ㅋ, ㆁ, ㆁ’ 등의 합용자를 만들었고,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합용자에 ‘丨’를 합성한 글자를 만들었다.

- 임용기,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4] 합용자의 제자 원리

[어휘 풀이] 1) 조음(調音) - 말소리의 산출에 관여하는 발음 기관 즉, 성대, 목젖, 혀, 이, 입술 따위의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102. 중성의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성은 발음 기관을 상형할 수 없다.
- ② 중성도 초성과 마찬가지로 기본자는 상형했다.
- ③ 기본자를 합성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 ④ 소리의 깊이는 ‘· > 一 > 丨’ 순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중성은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는 ‘무성음(無聲音)’이다.

103. <보기>를 참고할 때, 중세 국어의 ‘중성’에 대한 설명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의 단모음은 ‘·, ㅏ, ㅑ, ㅓ, ㅕ, ㅗ, ㅛ’ 7개이다. 이들 모음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린다.

- ① 중성의 기본자는 단모음에 해당한다.
- ② 중성의 초출자도 단모음에 해당한다.
- ③ 중성의 재출자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④ ‘나’는 기본자인 ‘ㄴ’과 ‘ㅏ’를 합성한 합용자로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 ⑤ ‘소느, 소느’는 양성 모음끼리, ‘머근, 머그니’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예이다.

104.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 : 하늘의 둥근 모양 → 혀를 오그려 소리를 깊게 냄.
- ㉡ ‘ㅓ’ : 땅의 평평한 모양 → 혀를 조금 오그려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음.
- ㉢ ‘ㅗ’ : 사람이 서 있는 모양 → 혀를 오그리지 않아 소리가 얕음

- ① ㉠은 소리를 깊게 내는 것으로 보아 후설 모음일 거야.
- ② ㉡은 소리를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내므로 중설 모음일 거야.
- ③ ㉢은 소리가 얕다는 것은 입 가까이 소리 나는 전설 모음일 거야.
- ④ ㉠은 혀를 오그려서, ㉡은 혀를 조금 오그려서 발음하므로 각각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일 거야.
- ⑤ ㉢은 중성 모음이지만, 양성 모음과 어울리는 경향이 강할 거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음절 합자와 방점

[가]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을 적을 때는 반드시 초·중·종성을 가로로 나란히 풀어 쓰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한데 모아 적고, 거기에 다시 성조(聲調)¹⁾를 나타내는 방점(傍點)을 글자의 왼쪽에 찍도록 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본문의 “·, ㅓ, ㅑ, ㅗ, ㅛ, ㅕ” 따위는 초성 아래 붙여 쓰고, ‘ㅏ, ㅑ, ㅓ, ㅕ, ㅗ, ㅛ’ 따위는 초성의 오른쪽에 붙

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해야만 음을 이룬다[음절 합자].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去聲)이고, 둘이면 상성(上聲)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입성(入聲)은 점을 더하는 것은 같으나 축급하다[방점].”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1] 음절 합자와 방점

3.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효용성

[나] 이처럼 훈민정음은 우리말의 초·중·종성 등을 단위로 하여 만든 ㉠음운 문자²⁾이면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초·중·종성 등을 구성하고 있는 음운 자질까지 반영하고 있는 ㉡자질 문자²⁾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다시 음절로 모아 쓰는 ㉢음절 문자이기도 하다. 그 시대로서는 대단히 앞섰던 과학적인 음운 이론을 근거로 당시의 우리말 소리를 분석하여 짜임새는 물론, 중국의 한자음까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대단히 과학적인 문자인 것이다.

[2] 훈민정음의 과학성 - 음운, 자질, 음절 문자

[다] “훈민정음 언해본”(1459)에서는 ‘훈민정음’을 “백성을 가르치는 정(正)한 소리”라 하고, “석보상절” 서(1459)에서는 “정음(正音)은 정(正)한 소리니, 우리나라 말을 정(正)히, 반드시, 옳게 쓰는 글이므로 그 이름을 정음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도 우리는 당시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적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말을 바르게 적기 위해 만든 훈민정음

[라] 지금까지 우리는 훈민정음의 여러 측면을 두루 살펴 보았다.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이 어떠했을 까를 생각해 보면 훈민정음의 가치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종을 존경하고, 또 ‘한글날’을 정해 한글 창제를 기리는 것이다.

- 임용기,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4] 훈민정음의 효용성과 가치

[어휘 풀이] 1) 성조(聲調) -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 기준을 가짐. 2) 자질문자 - ‘변별 자질’을 갖춘 문자로, 하나의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성질을 지닌 문자.

105. 다음은 [가]를 읽고 보인 학생들의 반응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규 : 음절 단위로 적으라는 말은 ‘소리의 덩어리’로 끊어서 적으라는 것이군.
- ② 지윤 : 음절 단위로 적되, ‘우리말’을 ‘ㅇㄷㄹㅣㅁㅏㄹ’처럼 적지 말라는 얘기군.
- ③ 지애 : ‘ㅇㄷㄹㅣㅁㅏㄹ’처럼 적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거야.

- ④ 성호 : 맞아, 가독성을 고려하여 음절 단위로 초·중·종성을 한데 모아서 적었다니 참으로 과학적이야.
- ⑤ 채경 : 그림, 방점을 찍는 것도 글을 빨리 읽는데 도움이 되므로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군.

106. [서술형]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음운적 특성의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보기

“훈민정음 해례본”의 종성해에는, 입성은 촉급하므로 ‘ㅇ, ㄴ, ㄹ, ㅇ, ㄹ, ㅅ’ 6자는 입성의 종성이 되지 못한다. 다만, 그 나머지는 다 입성이 된다고 하였다.

107. [서술형] ㉠~㉣을 고려하여 국어와 로마자(영어)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우리말을 적는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삼국 시대에는 뜻글자인 중국의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한자로 적기도 하고, 한자의 음(音)과 새김[釋]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자 및 차자 표기법으로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다. 한자는 처음부터 우리말과 다른 중국말을 적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것으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는 애당초 한계가 있었다. ㉠한자로 우리말의 음절을 적는 차자 표기법도 음절의 수가 많은 우리말을 적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들은 오래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1443년 12월 세종이 우리말의 소리를 적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말의 음운을 적는 문자였다.

[나] 말의 소리를 적는 문자를 만들려면, 먼저 말의 소리 즉 ㉡음운에 대한 이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문자 체계

계의 바탕이 되는 음운 이론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 음운 이론 중 훈민정음의 제자(制字)와 관련한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셋으로 분석하였다.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나’, ‘느’, ‘학’, ‘교’, ‘에’, ‘간’, ‘다’가 각각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것이다. 이때 ‘나’와 ‘느’의 음절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 ‘ㄴ/ㅏ’

‘느’ - ‘ㄴ/ㅡ/ㄴ’

즉, 우리말의 음절은 한 번에 소리를 낼 때 ‘나’와 같이 둘로 분석되거나 ‘느’와 같이 셋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이에 음절을 셋으로 분석하고 첫소리를 초성, 그다음 소리를 중성, 끝소리를 종성이라 하였다.

- 임용기,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108. 이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②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이미 입말과 글말이 일치했다.
- ③ 음운 이론에 조예가 있어야 소리 문자를 만들 수 있다.
- ④ 훈민정음은 우리말의 소리에 맞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 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썼다.

109.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한다면, 음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로서, 말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 불, 굴, 둘 꼴……

㉣ 발, 볼 벌, 별……

㉣ 말[말] : 말과의 포유류

㉣ 말[말:] :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에서 ‘ㅂ, ㄱ, ㄷ, ㅌ’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것을 보니, 자음은 음운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② ㉡에서 ‘ㅏ, ㅑ, ㅓ, ㅕ’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 모음도 음운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와 ㉣를 보니, 표기는 같지만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소리의 길이도 음운의 기능을 해.
- ④ ㉠~㉣를 보니, 음운은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소리이므로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울음소리, 기침 소리, 재채기 등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와 같은 음운이라고 할 수 없겠어.

1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절의 수와 모음의 수는 항상 일치한다.
- ② 낱말의 형태와 음절의 형태는 항상 일치한다.
- ③ 우리말은 음절 단위로 마디를 이루어서 발음된다.
- ④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한다.
- ⑤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이므로 글자 수와 음절 수는 일치한다.

111. [서술형] 위 글을 참고하여 ㉤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글자 수는 모두 28자인데, 초성이 17자, 중성이 11자이다. 훈민정음의 핵심적인 제자 원리는 상형(象形)이다. 28자 가운데 기본이 되는 글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고, 나머지는 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그것들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나아가 이것들을 다시 가로로 나란히 쓰거나 세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글자를 더 만들었다.

[나] ㉠초성은 가장 세지 않은 소리를 적는 글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를 초성의 기본 글자라 한다. 이러한 기본 글자는 소리를 낼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여 만들

었는데, 그것이 ‘ㄱ, ㄴ, ㄷ, ㅌ, ㄹ’ 등의 다섯 글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곧, “초성은 무릇 17자인데,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설음 ‘ㄴ’은 혀가 위턱에 붙는 모양을 본떴고, 순음 ‘ㄷ’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 치음 ‘ㅌ’은 이의 모양을 본떴고, 후음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무엇인가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원리를 ㉤‘상형’이라 한다. 이때 다른 것이 아닌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였기에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들을 만들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형의 원리로 기본 글자 다섯 자를 만들었고 이후 다른 글자들은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이렇게 획을 더한 원리를 ‘가획(加劃)’이라 한다. 먼저 소리가 세어짐에 따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ㅋ, ㆁ, ㅌ,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ㅟ, ㅠ’ 등의 아홉 글자를 만들었다.

[라] 그 밖에 ‘ㅇ’과 ‘ㄹ, ㅍ’ 등을 만들었는데, 이것들 역시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획을 더한 뜻은 앞의 경우와는 다르다. ㉤‘ㅇ, ㄹ, ㅍ’은 비슷하게 발음되는 ‘ㅇ, ㄴ, ㅍ’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ㅇ, ㄴ, ㅍ’보다 더 센소리임을 나타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이 ‘ㅇ, ㄹ, ㅍ’을 ‘이체자’라 한다.

[마] 초성 17자에는 속하지 않으나 다양한 소리를 적기 위해 기존의 글자를 합성하여 쓰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이나 중국 한자음, 또는 그 밖의 외국말을 적기 위하여, 필요하면 더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쓸 수 있게 하였다. 이미 만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거나, 아니면 세로로 나란히 이어 쓰는 방법이 그것인데, 앞의 것을 병서(並書)라고 하고, 뒤의 것을 연서(連書)라고 한다. 초성의 경우,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ㄱ, ㆁ, ㅌ,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ㅟ, ㅠ’의 각자 병서(各字並書)와 다른 글자들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ㅅ, ㅆ, ㅈ, ㅊ, ㅍ, ㅑ, ㅓ,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ㅟ, ㅠ’의 합용 병서(合用並書), 그리고 순음(唇音) 아래 ‘ㅇ’을 세로로 이어 쓰는 ‘ㄹ, ㅍ, ㅖ, ㅗ’의 연서(連書) 등이 있다.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12.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훈민정음의 글자 수와 제자 원리
- ② [나] : 발음 기관을 상형한 초성의 기본자
- ③ [다] : 가획에 의한 초성의 제자 원리
- ④ [라] : 이체에 의한 초성의 제자 원리
- ⑤ [마] : 병서와 연서의 장점

1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훈민정음 초성 17자는 된소리를 제외한 것이다.
- ② ‘ㄴ’은 한자음에만 쓰였으므로 초성 17자에서 제외되었다.
- ③ 훈민정음 초성 중에는 소실되어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
- ④ ‘ㄹ, ㅇ’은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자음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으로 나뉜다.

114. [서술형] ㉠을 한자와 한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하시오.

115. ㉠의 특성을 지닌 문자를 지칭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질 문자
- ② 음운 문자
- ③ 음절 문자
- ④ 그림 문자
- ⑤ 표의 문자

116. [서술형] ㉠이 가진 소리의 공통점을 쓰시오.

117.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용병서는 어두 자음군으로 쓰인다.

- ② 연서법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 ③ 합용 병서는 현대 국어에서 모두 쓰이지 않는다.
- ④ 각자 병서는 현대 국어에서 모두 된소리로 쓰인다.
- ⑤ 합용 병서는 ‘ㄸ계’, ‘ㅃ계’, ‘ㅆ계’로 나눌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중성을 적는 글자는 모두 11자이다. 이러한 중성의 제자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상형하여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중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는 세 가지이다. 이 세 소리를 적기 위해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상형하여 ㉠ ‘·, 一, |’의 세 글자를 만들었다. 이들은, 초성의 경우처럼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게 아니다. 중성은 초성과는 달리, 그것을 발음할 때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입안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성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제자해’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소리 내고 그 소리는 깊으니……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一’는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소리 내고 소리는 깊지도 알지도 않으니……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다.”

“|’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調音)하고 소리가 얕으니……그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둘째,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다. 그 밖의 나머지 여덟 글자는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는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이 그것이다. 합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一 → ㄱ

· + | → ㄴ

一 + · → ㄷ

| + · → ㄹ

이처럼 ‘·’가 하나만 쓰인 ‘ㄱ, ㄴ, ㄷ, ㄹ’를 초출자(初出字), 각각의 초출자에 ‘·’가 하나씩 더 붙어 만들어진 ㉠

‘ㄱ, ㆁ, ㅍ, ㅋ’를 재출자(再出字)라 한다.

셋째, 중성 11자에는 속하지 않으나 다양한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글자를 합성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를 합성하여 ‘나, 파, 거, 꺾’ 등의 합용자를 만들었고,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합용자에 ‘ㅣ’를 합성한 글자를 만들었다.

[나]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을 적을 때는 반드시 초·중·종성을 가로로 나란히 풀어 쓰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한데 모아 적고, 거기에 다시 성조(聲調)를 나타내는 방점(傍點)을 글자의 왼쪽에 찍도록 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본문의 “‘ㄷ, ㄴ, ㄹ, ㅁ, ㅂ, ㅅ, ㅇ’ 따위는 초성 아래 붙여 쓰고, ‘ㅣ, ㆁ, ㆅ, ㆆ, ㆏’ 따위는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해야만 음을 이룬다[음절 합자].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去聲)이고, 둘이면 상성(上聲)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입성(入聲)은 점을 더하는 것은 같으나 축급하다[방점].”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 임용기,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118.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ㅣ’는 소리가 얕으므로 전설 고모음이다.
- ② ‘ㄴ’는 소리가 깊으므로 후설 저모음이다.
- ③ ‘ㅇ’는 양성 모음으로 대립적 음성 모음은 ‘ㅣ’이다.
- ④ 가장 기본이 되는 중성이며 초출자를 만드는 데 쓰인다.
- ⑤ ‘ㆁ’는 소리가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으므로 중설 고모음이다.

119. [서술형] ㉠의 제자 원리와 현대 국어에서의 소릿값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20. <보기>는 ㉠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보기

로마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표기하는 문자로 한글과 비슷하다. 그러나 로마 알파벳은 나열식 배열을 하기 때문에 음절을 식별하기 어려운데 반해, 한글은 음절을 식별하기 쉽다. 왜냐하면, 한글은 초성·중성·종성의 삼분법을 문자 창제의 주요 원리로 삼았기 때문

이다. 가령, ‘league’는 몇 음절인지 겉으로만 보아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리그’는 2음절임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도 초성·중성·종성을 모아 음절 단위로 표기하기 때문에 음절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매우 독특한 체계이다.

- ① 로마 알파벳은 한글과 마찬가지로 음운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이다.
- ② 로마 알파벳은 한글과 달리 음운 문자이지만, 음절이 명확하지 않다.
- ③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눌 수 있어야 비로소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 ④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눈 것은 가로로 나란히 나열하는 이점이 있다.
- ⑤ 초성·중성·종성의 삼분법은 음운 문자와 음절 단위의 표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글이 각광을 받고 있다. 물론 로마자에 비한다면 아직 정보화 시대의 최적 문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어의 가나 문자나 중국어의 한자에 비한다면 아시아권에서는 최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의 가나 문자는 40개의 문자로 200여개의 음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중국어의 한자는 5만 자 이상의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기할 수 있는 음절은 제한되어 있다. 더구나 중국 한자와 일본 가나의 경우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뒤 해당 문자로 변환시켜야 한다. 컴퓨터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 즉시 기록되는 한글은 한자나 일본 가나에 비해 7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나] 한글은 9개나 12개의 자판만으로 문자를 입력해야 하는 휴대 전화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우리나라 휴대 전화의 문자 입력 방식들은 조음 방법과 문자 모양에서 연관성이 있는 글자를 하나의 자판에 모으고 모음과 자음을 구별하는 등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판 배열은 한글이 그 모양과 가획의 원리를 통해 조음 기관의 모양과 조음 방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 한글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이미 문이 열리기 시작한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가전과 통신, 컴퓨터, 로봇 등 대부분의 정보화 기기와 인공지능이 음성을 신호로 받아 움직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 **한글의 일자 일음(一字一音)** 원칙이 이러한 기술 발전에 큰 이점을 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영어에 비해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의 숫자가 적은 편이어서 음성 인식률에서 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로 인정받고, 새로운 패션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정보화 시대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문자 체계인 한글의 미래는 밝다.

[라] 또 그동안 가장 효과적인 입력 방식 모색에 큰 역할을 했던 ㉡ **휴대 전화 자판도 표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그 체계성을 인정받는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이 이토록 다양하다 못해 중구난방식인 것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거리의 상점 간판 가운데는 외국어를 단지 한글로 적어 놓은 경우가 많다. 한글로 간판을 적은 그 뜻은 좋으나, 그 자체로 참된 한글 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두가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시대에 이름도 세계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서일지 모르지만 ㉢ **회사명이나 상품명을 외국어나 외국어 느낌이 나는 우리말로 짓는 경향**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121. <보기>는 ㉠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말소리를 제대로 반영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른바 1자 1음, 1음 1자의 성질이다. 훈민정음은 말소리(음운)와 문자의 대응 관계가 거의 일치한다. 문자로 소리를 적고, 적은 것을 다시 소리로 내야한다면, 한 글자가 한 음운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① 한글은 대체로 한 음운이 한 문자로 표현된다.
- ② ‘ㅏ’는 [a]로 소리 나고, [a]는 ‘ㅏ’로 적을 수 있다.
- ③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대응 관계 또한 거의 일치한다.
- ④ 한글은 음운을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읽을 수 있다.
- ⑤ 한 음운이 여러 소리를 낸다면 표기할 때 혼동이 생길 수 있다.

122. [서술형] ㉡의 이유를 <보기>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보 기

문자의 표준화는 기원전부터 대제국의 건설과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 왔듯이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적 생존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표준으로 채택된 승자에게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계 시장 선점은 물론 막대한 사용료 수입이라는 전리품이 뒤따른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나라가 휴대 전화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을 자체 개발해 이를 국제 표준화하려는 ‘한글공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3. 글쓴이의 관점에서 볼 때, ㉢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 ① 사대주의(事大主義)
- ② 국수주의(國粹主義)
- ③ 보편주의(普遍主義)
- ④ 자격지심(自激之心)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천체박]4-1 규약문 읽기

4(1) 규약문 읽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초고속 인터넷 온라인 가입 센터(이하 “회사”라 한다.)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화면에 ㉠온라인으로 게시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과 이용자에게 고지¹⁾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법령에 위배²⁾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후에도 거부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개인 정보 보호 정책)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제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수집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 사항으로 합니다.

- 회원 ID
- 비밀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직장/주택)
- 휴대 전화 번호
- e-mail 주소

-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어휘 풀이] 1) 고지 -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2) 위배 -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

1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과 기업 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한다.
- ② 규약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 ③ 규약의 목적과 배경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 ④ 정확한 용어와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규약 내용에 대한 규약 주체의 동의가 전제된다.

125. 위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터넷 서비스 가입의 확대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절차 준수
- ③ 인터넷 서비스 이용 문화의 개선
- ④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회원의 화합
- ⑤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규정

126. 위 글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이용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③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선정하고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 ④ 약관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구속력이 없다.
- ⑤ 약관에 동의하면 회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다.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27.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비스 접속 화면에 팝업 창 공지
- ② 약관 내용에 대한 ARS 안내
- ③ 약관 내용에 대한 문자 메시지 발송
- ④ 약관의 내용이 담긴 전자 메일 발송
- ⑤ 약관 내용에 대한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128. <보기>를 참고하여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 기

최근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건이 많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9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¹⁾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²⁾, 증여³⁾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이용 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온라인을 통한 해지 절차를 통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종료하거나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제10조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어휘 풀이] 1) 명시적 -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2) 양도 -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 줌. 3) 증여 -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무상으로 남에게 넘겨 줌.

129.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제9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원은 관계 법령보다 약관을 반드시 우선시 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이다.
-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사와 회원의 책임이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다.
- ④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부정 사용을 인지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서비스 이용 권한과 이용 계약상의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130.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원은 온라인 상에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회사와 관계없이 이용 계약 해지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④ 회원의 비정상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중지 시간이 결정된다.
- ⑤ 타인에게 심한 모욕을 준 회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131. ㉠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타인의 글을 평가하는 댓글을 남긴 이용자
- ② 서비스 종료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③ 해외에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
- ④ 고객 불만 게시판에 불만 내용을 남긴 이용자
- ⑤ 군 복무 기간 내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

132. 위 글에서 의미가 애매하고 불명확하여,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구절들을 모두 찾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 람사르 협약

- 제 1 조 -

1. 이 협약의 목적상, 습지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함수이든 관계없이 습토·소택지·토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이에는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함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말한다.

- 제 2 조 -

1. 각 체약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 영역 내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고, 동 목록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에 의하여 유지된다. 각 습지의 경계는 정확히 기술되고 지도상에 표시되어야 하며, 물새 서식처로서 중요한 경우에는 습지에 인접한 강기슭 및 연안 지대, 습지 내에 있는 섬 및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는 해역이 포함될 수 있다.
2. 습지는 그 생태학상, 식물학상, 동물학상, 육수학상 또는 수문학상의 국제적 중요성에 따라서 목록에 선정된다. 무엇보다도 우선 물새에게 어느 계절에나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는 포함되어야 한다.
5. 어느 체약 당사국이나, 그 영역 내에 위치한 습지를 목록에 추가하거나,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또는 ㉠긴급한 국가 이익 때문에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삭제하거나 축소할 권리

를 가지며, 그러한 변경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제8조에 명시된 상설 사무국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 또는 정부에 통지한다.

- 제 4 조 -

1. 각 체약 당사국은 목록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 보호구를 설치하여 습지와 물새의 보전을 촉진하고 그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체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습지 자원의 상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특히 동일 지역 또는 여타 지역에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자연 보호구를 설정한다.

- 제 6 조 -

3. 체약 당사국은 습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단계의 사람들에 대해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당사국 총회의 ㉡권고가 통보되고, 고려되도록 한다.
6. 정기 당사국 총회의 회의에 출석, 투표하는 체약 당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분담금 비율에 따라 각 체약 당사국은 예산에 대한 분담금을 제공한다.

- 제 10 조 -

1. 이 협약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7개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4개월 후 ㉢발효¹⁾한다.
2. 그 후 이 협약은 ㉣비준²⁾ 조건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³⁾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각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 11 조 -

1. 이 협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체약 당사국이라도 협약이 그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탁처에 대한 서면 ㉥통고⁴⁾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그 통고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71. 2. 2. 람사르에서 채택)

- <람사르 협약>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어휘 풀이] 1) 발효 - 조약, 법, 공문서 따위의 효력이 나타남. 2) 비준 -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 3) 기탁 -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겨 둠. 4) 통고 -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

1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간의 규약을 규정한 협약문이다.
- ②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규약 주체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 ④ 객관적이고 설명적인 성격을 지닌 실용문이다.
- ⑤ 사용된 용어들이 대부분 사전적 의미로 해석된다.

134. 체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보호해야 할 습지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보호해야 할 습지를 선정하되, 보호 목록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보호해야 할 습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지도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보호해야 할 습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설 사무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보호해야 할 습지를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상실을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135. [서술형] 람사르 협약 제1조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136. 제4조 2항의 내용 중, 체약 당사국이 보호해야 할 습지를 개발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어구를 모두 찾아 쓰시오.

137. ㉠과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판단의 주체는 상설 사무국이다.
- ② 국가 안보나 재해 복구로 한정된다.
- ③ 다른 규약 주체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 ④ 체약 당사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 ⑤ 체약 당사국이 신속히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138. 람사르 협약 제6조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체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습지 보전과 관리에 대해 교육할 의무가 있다.
- ② 당사국 총회의 권고는 체약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강제적 규범으로 볼 수 있다.
- ③ 정기 당사국 총회는 체약 당사국의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④ 장기 당사국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체약 당사국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정기 당사국 총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체약 당사국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39. 람사르 협약 제11조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목적에 부합한다.
- ② 협약의 의무 가입을 규정한 것은 불공정하다.
- ③ 협약 폐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
- ④ 기탁처에 협약 폐기를 통고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⑤ 협약 폐기의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여 효율적이다.

140. 체약 당사국의 분담금 비율 결정 방식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141. [서술형] 협약이 발효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중심으로 제10조 1항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142.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 ② ㉡ : 조약, 법 따위의 효력이 나타남.
- ③ ㉢ : 조약 체결을 위해 당사국이 제시하는 조건.

- ④ ㉔ :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겨 둬.
- ⑤ ㉕ :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초고속 인터넷 온라인 가입 센터(이하 “회사”라 한다.)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화면에 온라인으로 게시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과 이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후에도 거부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개인 정보 보호 정책)

-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③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㉔**제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수집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 사항으로 합니다.

• 회원 ID

- 비밀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직장/자택)
- 휴대 전화 번호
- e-mail 주소

제9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 등 회사가 ㉔**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④ 회원은 회사의 ㉕**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㉔**양도**, ㉕**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이용 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온라인을 통한 해지 절차를 통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종료하거나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제10조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143. 위와 같은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滿開(만개) : 끝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사용할 용어의 개념과 의미를 분명히 이해한다.
- ② 예상 독자의 관심과 수준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한다.
- ③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글쓰이의 견해를 분명히 제시한다.
- ④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주제인지 판단한다.

144.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제2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약관의 효력은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 ② 회사는 회원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고지 방법을 마련하였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④ 변경된 약관에 대한 회원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다.
- ⑤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 절차는 회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145. [서술형]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5조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5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146. [서술형]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제9조 1항의 내용이 어떤 규약 주체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47. 위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회원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군.
- ② 회사에 대한 내용은 주로 회원을 규제하는 내용이야.
- ③ 회사의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 ④ 전반적으로 회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 ⑤ 회사와 회원 간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반영되어 있어.

148. 규약 주체들이 위 글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한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동섭은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 메일에 시달려야만 했다.
- ② 민아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정 사용된 사실을 신고했지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다.
- ③ 경석은 회사가 새로 만든 온가족 할인 요금제에 가입하여 어머니의 우수 고객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④ 진희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 1개월분을 미리 납부하여, 그로부터 1달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 ⑤ 명석은 6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기존의 최우수 고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149. ㉠~㉥ 중, 그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필수적인.
- ② ㉡ : 세상에 널리 알림.
- ③ ㉢ :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 ④ ㉣ :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 ⑤ ㉤ : 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나 지위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람사르 협약

- 제 1 조 -

1. 이 협약의 목적상, 습지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함수이든 관계없이 습토·소택지·토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이에는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함된다.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 이 협약의 목적상,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말한다.

- 제 2 조 -

1. 각 협약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 영역 내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고, 동 목록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에 의하여 유지된다. 각 습지의 경계는 정확히 기술되고 지도상에 표시되어야 하며, 물새 서식처로서 중요한 경우에는 습지에 인접한 강기슭 및 연안 지대, 습지 내에 있는 섬 및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는 해역이 포함될 수 있다.

2. 습지는 그 생태학상, 식물학상, 동물학상, 육수학상 또는 수문학상의 국제적 중요성에 따라서 목록에 선정된다. 무엇보다도 우선 물새에게 어느 계절에나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는 포함되어야 한다.

5. 어느 협약 당사국이나, 그 영역 내에 위치한 습지를 목록에 추가하거나,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또는 긴급한 국가 이익 때문에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삭제하거나 축소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변경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제8조에 명시된 상설 사무국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 또는 정부에 통지한다.

- 제 4 조 -

1. 각 협약 당사국은 목록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 보호구를 설치하여 습지와 물새의 보전을 촉진하고 그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습지 자원의 상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특히 동일 지역 또는 여타 지역에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자연 보호구를 설정한다.

- 제 6 조 -

3. 협약 당사국은 습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단계의 사람들에 대해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당사국 총회의 권고가 통보되고, 고려되도록 한다.

6. 정기 당사국 총회의 회의에 출석, 투표하는 협약 당사

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분담금 비율에 따라 각 협약 당사국은 예산에 대한 분담금을 제공한다.

- 제 10 조 -

1. 이 협약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7개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4개월 후 발효한다.

2. 그 후 이 협약은 비준 조건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각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 11 조 -

1. 이 협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협약 당사국이라도 협약이 그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탁처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그 통고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람사르 협약>

15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 ② 규약과 관련된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 ③ 규약의 목적이 명시적인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규약 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다.
- ⑤ 규약에 사용된 용어들이 대체로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151. 위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규약의 목적을 상기하며, 자신의 생각과 비교한다.
- ② 규약 내용이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③ 규약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 ④ 문맥을 고려하여 글에 사용된 용어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다.
- ⑤ 규약 내용이 규약 주체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52. 협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보호해야 할 습지를 지정한다.
- ② 보호해야 할 습지의 목록을 유지한다.
- ③ 긴급한 국가 이익상 습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모든 습지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습지 구획을 축소할 경우, 적절한 상응 조치를 취한다.

153. 람사르 협약 제4조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② 협약 당사국이 협약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 ③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협약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 ④ 목록의 변경에 대해 협약 당사국의 자의적 판단과 행위가 가능하다.
- ⑤ 협약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여 당사국 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154. <보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람사르 협약 제6조, 제10조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람사르 협약은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습지 및 물새 보전에 관한 국제적 협약이다.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고 환경 보전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람사르 협약의 가입국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람사르 협약 가입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158개국에 달하고 있다.

- ① 협약 당사국이 크게 증가하여 당사국 총회의 권고가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있겠군.
- ② 협약 당사국이 크게 증가하여, 각 협약 당사국의 분담금 비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겠군.
- ③ 협약 당사국이 크게 증가하여,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 ④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제10조 1항의 '7개국'이라는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 ⑤ 협약 당사국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비준 조건 없이 서명한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기 때문이야.

155. [서술형] 협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람사르 협약 제11조 2항의 문제점을 5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천체박]4-2 휴대전화 사용 어두운 이면

4(2) 시평 쓰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있다. 칼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도구이지만 잘못 쓰이면 나를 다치게 하기도 한다. ‘양날의 칼’은 이렇듯 편리성과 위험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도구의 양면성을 뜻하는 말이다.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예이다. 노벨상으로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노벨은 광산 노동의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도구로 쓰였고, 다이너마이트 공장을 세웠던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 처음 : 편리성과 위험성을 지닌 도구적 양면성(인용, 예시)

[나] 휴대 전화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휴대 전화는 전화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명된 도구이다. 휴대 전화 덕분에 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친구와 쉽게 만날 수 있고, 갑자기 만난 위험 상황에서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직장과 학교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휴대 전화 덕분에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요즘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부모님들이 휴대 전화를 사 주시곤 한다.

[다] 그렇지만 휴대 전화의 보급이 늘면서 휴대 전화 중독의 폐해도 함께 늘고 있다. 휴대 전화가 없으면 정서 불안 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심각할 경우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전자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느껴지는 등의 정신 착란 증세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늘 휴대 전화를 손에 쥐고 있다시피 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휴대 전화 의존도가 너무 높아 휴대 전화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2] 가운데 : 도구적 양면성을 지닌 휴대 전화(유추, 대조)

[라] 편리한 통신 생활의 도구인 휴대 전화가 이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도구는 인간이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본래 그 목적에 맞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 휴대 전화도 마찬가지이다. 휴대 전화가 ‘양날의 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 전화 사용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휴대 전화를 어

떻게 사용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 김세민(학생), <휴대 전화 사용, 그 어두운 이면>

[3] 끝 : 휴대 전화의 현명한 사용과 휴대 전화 사용 습관에 대한 반성 촉구

15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시의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다.
- ②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작성한 글이다.
- ③ 제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 ④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문이다.
- ⑤ 제재와 관련한 사회, 문화적 맥락이 확인된다.

157. 위 글의 궁극적인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도구에는 양면성이 있다.
- ② 휴대 전화를 현명하게 사용하자.
- ③ 위험한 도구의 사용은 지양하자.
- ④ 휴대 전화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 ⑤ 휴대 전화의 도구적 양면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158. 위 글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결론이 연역적으로 제시되었다.
- ② 경험과 깨달음의 2단 구조로 제시하였다.
- ③ 처음 부분에는 귀납적 구성 방식이 사용되었다.
- ④ 각 문단이 인과적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었다.
- ⑤ ‘처음-가운데-끝’의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59. 위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는 시평의 주제로 적절하다.
- ② 사용된 표현의 의미가 다양하다.
- ③ 사회 문제에 공정하게 접근하였다.
- ④ 독자의 삶과 밀접한 제재가 사용되었다.
- ⑤ 사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60. [나], [다]에서 휴대 전화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내용 전개 방식을 모두 쓰시오.

161. [서술형] 위 글의 독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있다. 칼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도구이지만 잘못 쓰이면 나를 다치게 하기도 한다. ‘양날의 칼’은 이렇듯 편리성과 위험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도구의 양면성을 뜻하는 말이다.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예이다. 노벨상으로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노벨은 광산 노동의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도구로 쓰였고, 다이너마이트 공장을 세웠던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 휴대 전화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휴대 전화는 전화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명된 도구이다. 휴대 전화 덕분에 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친구와 쉽게 만날 수 있고, 갑자기 만난 위험 상황에서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직장과 학교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휴대 전화 덕분에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요즘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부모님들이 휴대 전화를 사 주시곤 한다.

[다] 그렇지만 휴대 전화의 보급이 늘면서 휴대 전화 중독의 폐해도 함께 늘고 있다. 휴대 전화가 없으면 정서 불안 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심각할 경우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전자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느껴지는 등의 정신 착란 증세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늘 휴대 전화를 손에 쥐고 있다시피 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휴대 전화 의존도가 너무 높아 휴대 전화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라] 편리한 통신 생활의 도구인 휴대 전화가 이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도구는 인간이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본래 그 목적에 맞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 휴대 전화도 마찬가지이다. 휴대 전화가 ‘양날의 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 전화 사용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휴대 전화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 김세민(학생), <휴대 전화 사용, 그 어두운 이면>

162.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 ② 합리적인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 ③ 분명하고 정확한 용어와 명료한 표현을 사용한다.
- ④ 사회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
- ⑤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163. 위 글을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목이 글쓴이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 ② 휴대 전화 사용이 생활화된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이다.
- ③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 ④ 독자들이 경험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64.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비교와 예시의 방식을 활용하여 핵심 제재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의 논의를 발전시켜, 핵심 제재의 속성을 일반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핵심 제재가 지닌 공통적 속성을 대등하게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다]는 [나]에 제시된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라]는 핵심 제재와 관련한 [나], [다]의 내용을 집약하고, 글쓴이의 궁극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65. 위 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
수집한 자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휴대 전화로 위급한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한 사례
- ② 우리나라의 휴대 전화 보급률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
- ③ 청소년들의 휴대 전화 사용 시간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
- ④ 휴대 전화 의존도가 높은 사람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한 자료
- ⑤ 휴대 전화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의 인터뷰 자료

166. [서술형] 위와 같은 글이 독자들의 많은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1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천체박] 4단원 추가

4(종합) 언어와 상호 작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이용 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온라인을 통한 해지 절차를 통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종료하거나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10조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나]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습지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

이든 기수이든 함수이든 관계없이 습토·소택지·토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이에는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함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말한다.

-제2조-

1. 각 협약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 영역 내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고, 동 목록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에 의하여 유지된다. 각 습지의 경계는 정확히 기술되고 지도상에 표시되어야 하며, 물새 서식처로서 중요한 경우에는 습지에 인접한 강기슭 및 연안 지대, 습지 내에 있는 섬 및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는 해역이 포함될 수 있다.

2. 습지는 그 생태학상, 식물학상, 동물학상, 육수학상 또는 수문학상의 국제적 중요성에 따라서 목록에 선정된다. 무엇보다도 우선 물새에게 어느 계절에나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는 포함되어야 한다.

5. 어느 협약 당사국이나, 그 영역 내에 위치한 습지를 목록에 추가하거나,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또는 긴급한 국가 이익 때문에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삭제하거나 축소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변경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제8조에 명시된 상설 사무국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 또는 정부에 통지한다.

- <람사르 협약>

16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글이다.
- ② 단정적 진술을 사용하여 규약 주체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③ 제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이든 책임이 따른다.
- ④ [가]는 [나]에 비해 특정한 규약 주체가 지켜야 할 의무가 많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규약 주체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요소가 많다.

168. [서술형] [가]의 제9조 1항과 제15조 2항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100자 내외로 서술 하시오.

169. [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9조 1항에서 회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하다.
- ② 제9조 2항은 회원이 자신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다.
- ③ 제9조 4항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과 지위를 양도할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불공정하다.
- ④ 제15조 1항에서 이용 계약의 해지 절차를 온라인으로 제한한 것은 회사에 유리하므로 불공정하다.
- ⑤ 제15조 2항에서 다른 이용자를 모욕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회원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170. [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습지와 물새의 개념에 대한 정의
- ② 목록에 포함될 습지를 선정하는 주체
- ③ 목록에 포함될 습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조건
- ④ 지정된 습지를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과 사례
- ⑤ 지정된 습지의 구획을 조절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

171. <보기>는 [가]와 관련된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가]에 제시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 묶어 놓은 것은?

보기

- ㉠ 동진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 주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상희는 6개월간의 해외 출장 중 해당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를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다.
- ㉢ 현준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였다.
- ㉣ 두호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 개선되지 않자, 해당 인터넷 서비스 게시판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172. [나]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려고 한다.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쓴다.
- ② 제2조의 내용을 모두 제1조의 하위 항목으로 통합한다.
- ③ 지정될 습지가 갖추어야 할 물리적 범위를 제1조에 삽입한다.
- ④ 협약 당사국의 권리를 축소하고 상설 사무국의 권리를 강화한다.
- ⑤ 상설 사무국의 관리 소홀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조항에 삽입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4조-

- 1. 각 협약 당사국은 목록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 보호구를 설치하여 습지와 물새의 보전을 촉진하

滿開(만개) : 끝까지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고 그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체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습지 자원의 상실을 보상 하여야 하며, 특히 통일 지역 또는 여타 지역에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자연 보호구를 설정한다.

-제6조-

3. 체약 당사국은 습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단계의 사람들에게 대해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당사국 총회의 권고가 통보되고, 고려되도록 한다.

6. 정기 당사국 총회의 회의에 출석, 투표하는 체약 당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분담금 비율에 따라 각 체약 당사국은 예산에 대한 분담금을 제공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7개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4개월 후 발효한다.

2. 그 후 이 협약은 비준 조건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각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1조-

1. 이 협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체약 당사국이라도 협약이 그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탁처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그 통고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람사르 협약>

[나] 제1관 ①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금후 양국이 ②화친의 성의를 표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써 상대할 것이며 ③추호도 경계를 넘어 침입하거나 시기하여 싫어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선 종전의 우의를 저해하는 화근이던 제 법규를 고치고 없애며, 관대하고 널리 통하는 법규를 만들고 확대하여 쌍방의 영원한 안녕을 기한다.

제4관 조선국 부산의 초량항(草梁港)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다년간 양국 인민의 통상지였다. 금후 종전의 관례와 세전선 등의 문제를 개혁하고 이번에 새로 의결되는 조관

을 기준으로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㉔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기재하는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앞의 장소에서 토지를 ㉕임차하여 가옥을 짓거나 또는 조선 인민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각자의 뜻에 맡긴다.

제7관 조선국 연해 도서의 ㉖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하지 않은 까닭에 위험하므로 ㉗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㉘명세히 하여 도지(圖誌)를 편찬하고 양국의 선객(船客)이 위험을 피하고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한다.

제10관 ㉙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에 재류 중 만약 죄를 범하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의한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하고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 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원이 수사 재판한다. 단 쌍방이 다 각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하되 조금도 잘못을 ㉚비호하지 않고 공평 타당한 재판을 한다.

- <강화도 조약>

173. 위와 같은 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약문에 사용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개념을 이해한다.
- ② 규약 주체의 권리, 의무, 효력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 ③ 규약 주체의 의무 불이행 방지를 위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④ 규약문이 규약 주체가 지닌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⑤ 규약 내용이 특정 규약 주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검토한다.

174. [가]의 내용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한다고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각오하여야 한다.
- ② 협약의 최초 발효 조건으로 인해, 7개국과 다른 체약 당사국 간의 국제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 ③ 협약 가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체약 당사국의 분담금 의무를 결정하는 방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④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준서와 가입서의 형태로 인해 체약 당사국 내부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 ⑤ 습지가 두 당사국의 영토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체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국 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175. <보기>는 [가]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것이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하여 협약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람사르 협약의 목적은 습지와 물체를 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약 내용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체약 당사국의 권리가 상당히 큰 데 비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하여 협약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 사실이다.

- ① 제4조 1항에 제시된 불필요한 표현으로 인해 체약 당사국의 의무 이행이 부실한 수준에 머물 수 있다.
 ② 제4조 2항에는 체약 당사국의 의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약 당사국이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
 ③ 제4조 2항은 체약 당사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습지를 개발하고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용인하고 있다.
 ④ 제6조 3항과 6항의 내용을 체약 당사국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⑤ 제11조 2항의 협약 폐기 절차를 보면, 체약 당사국이 협약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쉽고 단순하다.

176. [서술형] [나]의 제10관에서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하는 주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77. [나]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조약을 통해 조선과 일본의 평등한 관계가 수립되었

다.

- ② 일본인들은 조선 내에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일본인은 조선 정부의 허가를 얻어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④ 조선에서 발생한 모든 일본인 범죄는 조선 관원이 수사할 수 있다.
 ⑤ 조선 정부는 무역 활동을 하는 일본인을 위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한다.

178.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던 대원군이 조선 조정 내의 권력투쟁으로 물러나자 이러한 국내의 정황을 탐문한 일본은 통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군함 운요호를 동원하여 무력 시위를 하는 한편 강화도 앞바다에 출동시켜 조지진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였다. 1876년 일본 정부는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힐문하면서 개항을 강요하였고, 결국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부산 외에 인천, 원산 2개 항을 개항하게 되었고,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 ① ㉠ : 조선과 일본을 평등한 관계로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규약의 내용에는 불평등한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② ㉡ : 상호 불가침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조선 침략을 감주기 위한 위선적 거짓에 불과하다.
 ③ ㉢ : 쌍방 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 자유 무역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다.
 ④ ㉣ : 일본인이 주권 국가인 조선의 지리와 해안을 무단으로 측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내용이다.
 ⑤ ㉤ : 조선 내 일본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일본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79. ㉠~㉤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② ㉞ :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 ③ ㉟ :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나 산호.
- ④ ㊱ : 세상에 명명백백히 밝혀.
- ⑤ ㊲ : 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있다. 칼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도구이지만 잘못 쓰이면 나를 다치게 하기도 한다. ‘양날의 칼’은 이렇듯 편리성과 위험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도구의 양면성을 뜻하는 말이다.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예이다. 노벨상으로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노벨은 광산 노동의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도구로 쓰였고, 다이너마이트 공장을 세웠던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휴대 전화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휴대 전화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명된 도구이다. 휴대 전화 덕분에 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친구와 쉽게 만날 수 있고, 갑자기 만난 위험 상황에서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직장과 학교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휴대 전화 덕분에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요즘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부모님들이 휴대 전화를 사 주시곤 한다.

그렇지만 휴대 전화의 보급이 늘면서 휴대 전화 중독의 폐해도 함께 늘고 있다. 휴대 전화가 없으면 정서 불안 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심각할 경우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 전자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느껴지는 등의 정신 착란 증세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늘 휴대 전화를 손에 쥐고 있다시피 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휴대 전화 의존도가 너무 높아 휴대 전화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편리한 통신 생활의 도구인 휴대 전화가 이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도구는 인간이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본래 그 목적에 맞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 휴대 전화도 마찬가지이다. 휴대 전화가 ‘양날의 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 전화 사용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휴대 전화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 보는 것

은 어떨까?

- <휴대 전화 사용, 그 어두운 이면>

[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草野)에서도 구하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수 중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창고지기를 등용키도 했다. 이들은 다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治績)이 날로 융성케 된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중국같이 큰 나라도 인재를 빠뜨릴까 걱정하여 늘 그 일을 생각한다. 잠자리에서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에도 탄식(歎息)한다.

어찌하여 숲 속과 연못가에서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영결찬 인재가 하급 구실아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도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도 또한 어렵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부터 걱정거리였다. 더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비록 덕이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宰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科擧)로써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첩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조막만 하고 더욱이 양쪽 사이에 끼여 있는 이 나라에서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라고 탄식한다.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면서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참으로 이웃 나라가 알까 두렵다.

한낱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의 마음이 언짢아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홀어미가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화평한 기운을 불러 오기는 어려우리라.

옛날에 어진 인제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많이 나왔었다. 그때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법을 썼다면, 범중엄(范仲淹)이 재상 때에 이룬 공업(功業)이 없었을 것이요, 진관(陳瓘)과 반양귀(范良貴)는 곧은 신하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사마양저(司馬穰苴), 위청(衛青)과 같은 장수와 왕부(王符)의 문장도 끝내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이 냈는데도 사람이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고도 하늘에 나라를 길이 유지하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들어 행하면 나라의 명맥(命脈)을 훌륭히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허균, <유재론(遺在論)>

18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독자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가], [나]는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소재로 한다.
- ③ [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 ④ [가]는 [나]에 비해 글쓴이의 감정이 절제된 듯한 인상을 준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판의 요소가 두드러진다.

181.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용을 통해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② [가]는 제재의 속성을 유추의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③ [나]는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④ [가], [나]는 모두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예시를 사용하였다.
- ⑤ [가], [나] 모두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182. [서술형]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휴대 전화의 '도구적 양면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83. [가]의 글쓴이가 위 글을 쓸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찾아보아야겠어.
- ② 요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쟁점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아야겠어.
- ③ 독자에게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내용을 구상하도록 고민해 보아야겠어.
- ④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제로서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어.
- ⑤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온 것 중,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자 했던 생각을 주제로 삼아야겠어.

184.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가]의 내용을 보완하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에게 보다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교체한다.
- ② 산만한 내용 전개 방식을 하나의 효과적인 방식으로 통일한다.
- ③ 가운데 부분을 처음과 끝의 분량과 균형을 이루도록 축소한다.
- ④ 핵심 제재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일상생활에서 휴대 전화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85.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다. [나]의 내용에서 <보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신분과 과거로 제한되어 있는 인재 등용 방식을 개혁하자.

- ①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 인재가 부족하다.
- ② 현재의 인재 등용 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많다.
- ③ 과거의 융성한 국가들은 인재 등용에 차별이 없었다.
- ④ 주변국들이 우리의 인재 부족 상황을 알게 되면 위험하다.
- ⑤ 역사적으로 미천한 신분과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사례가 많다.

186. [서술형]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적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187. [나]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적인 인재 부족 상황이 더 심화되었다.
- ② 고위 공직자는 철저하게 과거 성적으로 선발하였다.
- ③ 능력이 있음에도 인재로 등용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 ④ 가문이 미천하여 등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 ⑤ 당시의 인재 등용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188. [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심화 학습하고자 한다.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시대의 관리 등용 방식을 조사해 본다.
- ② 조선 시대 인재난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해 본다.
- ③ 조선 시대 서얼 출신들이 지니고 있던 불만에 대해 조사해 본다.
- ④ 이 글을 쓸 당시의 조선과 주변국의 인재 등용 방식을 비교해 본다.

⑤ 조선과 고려의 과거 제도가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해 본다.

189. [나]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생긴 사회 불만 세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은?

- 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집 노비
- ②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자식을 양육하는 여인
- ③ 재주는 있으나 재가한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
- ④ 당과 싸움으로 인해 권력을 잃고 유배당한 선비
- ⑤ 학식이 뛰어나지만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

상4(서술형) 언어와 상호 작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제9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나] 람사르 협약

-제2조-

5. 어느 계약 당사국이나, 그 영역 내에 위치한 습지를 목록에 추가하거나,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또는 긴급한 국가 이익 때문에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삭제하거나 축소할 권리를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핀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가지며, 그러한 변경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제8조에 명시된 상설 사무국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 또는 정부에 통지한다.

-제4조-

2. 계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습지 자원의 상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특히 동일 지역 또는 여타 지역에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자연 보호구를 설정한다.

- <람사르 협약>

[다] 강화도 조약[朝日修好條規]

제7관 조선국 연해 도서의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하지 않은 까닭에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명세히 하여 도지(圖誌)를 편찬하고 양국의 선객(船客)이 위험을 피하고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에 재류 중 만약 죄를 범하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의한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하고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원이 수사 재판한다. 단 쌍방이 다 각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하되 조금도 잘못을 비호하지 않고 공평 타당한 재판을 한다.

- <강화도 조약>

[라] 그렇지만 휴대 전화의 보급이 늘면서 휴대 전화 중독의 폐해도 함께 늘고 있다. 휴대 전화가 없으면 정서 불안 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심각할 경우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전자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느껴지는 등의 정신 착란 증세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늘 휴대 전화를 손에 쥐고 있다시피 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휴대 전화 의존도가 너무 높아 휴대 전화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편리한 통신 생활의 도구인 휴대 전화가 이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도구는 인간이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본래 그 목적에 맞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 휴대 전화도 마찬가지이다. 휴대 전화가 ‘양날의 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 전화 사용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휴대 전화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 <휴대 전화 사용, 그 어두운 이면>

[마]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科擧)로써 제한하니 인제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첩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조막만 하고 더욱이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여 있는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나라에는 인제가 없다.”라고 탄식한다.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참으로 이웃 나라가 알까 두렵다.

한날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의 마음이 언짢아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홀어미가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화평한 기운을 불러 오기는 어려우리라.

하늘이 냈는데도 사람이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고도 하늘에 나라를 길이 유지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들어 행하면 나라의 명맥(命脈)을 훌륭히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허균, <유재론(遺才論)>

190. [가]와 [나]에서 규약문에 사용된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여 규약 주체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조건>

- [가], [나]에서 구체적 어휘 구절 등을 찾아 제시할 것.
- [가], [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191. [가], [다]의 내용을 읽고, 규약 주체 간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통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조건>

- 공통적 문제점은 1가지만 제시할 것.
-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는 어구를 반드시 사용할 것.

192. [라], [마]를 읽고, 제재와 관련한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조건>

-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여 서술할 것.
- 각 지문 별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할 것.

193. [라], [마]와 같은 글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조건>

- [라], [마]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장르적 속성에 주목하여 서술할 것.
-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3가지 이상 제시할 것.

[천재박] 5-1가시리/진달래꽃

5(1) 가시리 / 진달래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벗리고¹⁾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글가 太平盛代(대평성덕)

[1연(기)] 이별의 확인

날러는²⁾ 엇디 살라 호고

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글가 太平盛代(대평성덕)

[2연(승)] 허탈감과 슬픔

잡스와³⁾ 두어리마느는⁴⁾

선후면⁵⁾ 아니 올세라.

위 증글가 太平盛代(대평성덕)

[3연(전)] 감정의 절제와 체념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글가 太平盛代(대평성덕)

- 작자 미상, <가시리>

[4연(결)]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

[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1연(기)] 이별에 따른 체념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2연(승)] 임에 대한 축복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3연(전)] 원망을 초극한 희생적 사랑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4연(결)] 인고의 의지

[어휘 풀이] 1) 벗리고 - 버리고, 버려 두고. 2) 날러는 - 나더러는, 나는. 3) 잡스와 - 붙잡아, 잡아. 4) 두어리마느는 - 두겠습니다만, 둘 것이지만. 5) 선후면 - 서운하면.

19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 ② '귀호곡(歸乎曲)'이라는 명칭으로 전한다.
- ③ 특정 시구를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 ④ 간접적인 표현과 우회적인 호소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이별의 정한과 재회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간절한 형식과 소박한 언어로 표현하였다.

195. [가]의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기원 - 좌절 - 원망 - 체념
- ② 원망 - 좌절 - 체념 - 기원
- ③ 원망 - 체념 - 좌절 - 기원
- ④ 좌절 - 원망 - 체념 - 기원
- ⑤ 좌절 - 체념 - 기원 - 원망

196. [서술형] [가]의 후렴구는 노래의 정서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하시오.

197. [나]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성적
- ② 염세적
- ③ 인종적
- ④ 전통적
- ⑤ 자기희생적

19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② 이별의 정한을 여성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 ③ 원망을 초극하는 희생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음악적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임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슬픈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논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잡스와 두어리마느논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설은 ㉦넝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덕)

- 작자 미상, <가시리>

[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199. [가]와 [나]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 : 임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 ② [나]의 화자 :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인고의 미덕을 발휘해야 해요.
- ③ [가]의 화자 : 네, 그래서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러면 임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 ④ [나]의 화자 : 임을 떠나 보낼 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슬픔으로 인해 눈물이 흐르겠지요?
- ⑤ [가]의 화자 : 저도 슬프지만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은 더 슬플 거예요.

200.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로 적절한 것은?

- ① 4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통해 리듬을 형성한다.
- ②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임과의 이별로 인한 정한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 ④ 이별의 상황을 내적으로 수용하며 아픔을 감내하고 있다.
- ⑤ 전통적 여인의 체념과 그리움 인한 비관적 태도가 드러난다.

201. [가]와 같은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고려 시대 궁중에서 불렸다.
- ② 주제를 함축하는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 ③ 귀족층의 풍부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3·3·2조의 음수율이 주로 나타나지만, 리듬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 ⑤ 분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으로 구성된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02. [나]를 절대론적 관점으로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은?

- ① 이 작품을 통해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
- ② 너무도 이기적이고 상대를 배려할 줄 몰랐던 나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어.
- ③ ‘아름 따다’를 통해 입을 사랑하는 시적 화자의 정감이 어느 정도 깊고 큰지 가늠할 수 있어.
- ④ ‘영변(寧邊)에 약산(藥山)’은 작가의 고향과 관련 있는 장소로, 작가의 유년의 추억이 반영되어 있어.
- 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쓰였기 때문에 개화기 이후 일본에서 도입된 음수율인 7·5조의 율격이 나타나고 있어.

203.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연에는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과 유사한 표현이 쓰였다.
- ② 길이가 다른 행을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호흡과 정서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③ 1연과 4연이 수미 상관을 이루어 구성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어.
- ④ ‘~우리라’의 각운이 사용되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적 대상에 대한 높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1연과 4연에는 ‘어인 귀쪼리 지는 들 새는 밤의 긴 소릿 자른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紗窓(사창) 여윈 즘을 슬쁘리도 씌오논고야.’와 같은 표현이 쓰였다.

슬쁘리도

204. [나]와 <보기>가 동일한 화자의 노래라고 가정할 경우, [나]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출하리 잠을 드러 꿈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님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天上(천상)의 牽牛織女(견우직녀) 銀河水(은하수) 막혀서도, 七月七夕(칠월 칠석) 一年一度(일년 일도) 失期(실기)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弱水(약수) 가렸관디, 오거나 가거나 消息(소식)조차 쓰쳤는고. 欄干(난간)의 비겨 서서 님 가신 뒤 바라보니, 草露(초로)는 맺쳐 있고 暮雲(모운)이 지나갈 제, 竹林(죽림) 푸른 고딕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世上)의 서툰 사람 수업다 흐려니와, 薄命(박명)흔 紅顏(홍안)이야 날 가트니 쏘 이 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흐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

- ① [나]의 ‘진달래꽃’과 <보기>의 ‘새’는 화자의 분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 ② [나]의 ‘임’은 ‘나’를 ‘역겨워’하며 떠났지만, <보기>의 ‘님’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났다.
- ③ [나]의 ‘약산’과 <보기>의 ‘약수’는 ‘나’와 ‘임’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장애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④ [나]는 정형성이 강한 작품인데 반해, <보기>는 자유로운 형식의 작품이나 품격 높은 시풍과 여성다운 섬세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 ⑤ [나]의 화자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보기>의 화자는 신세를 한탄하며 ‘님’을 원망하고 있으나 여성 화자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205. ㉠~㉥의 뜻풀이와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나는 -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절실하게 강조하고 있다.
- ② ㉡ : 어디에서 - 화자는 ‘님’이 없으면 살 곳이 없는 유랑민의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 잡아 둘 것이지마는 - ‘잡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보다는 ‘님’의 마음이 더욱 멀어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드러나 있다.
- ④ ㉣ : 선(善)하면 아니 오지는 않을 것이다. - 화자의 말하기 방식은 ‘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 ⑤ ㉤ : 보내 드리오니 - 주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옵-’이 ‘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06.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연의 기능을 한다.
- ② 시적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킨다.
- ③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 ④ 매 연 끝에 반복됨으로써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⑤ 반복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207. 밑줄 친 시어 중, 상황에 따른 ㉔의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넋 위한 탓이로세.
아뵈 아무리 일러도 임이 해여 보소서.
- 윤선도, <견회요>
- ② 千萬里(천만 리) 머나먼 길히 고은 넋 여회옵고,
넋 므음 둘 디 업서 냇그의 안자시니,
저 물도 넋 은 곳혀 우러 밤길 네놓다.
- 왕방연
- ③ 내 언제 信(신)이 업서 넋을 언제 소것판디,
月沈三更(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업넋.
秋風(추풍)의 디는 넋 소리야 낸들 어이 흐리오.
- 황진이
- ④ 鐵嶺(철령) 높은 峰(봉)을 쉬어 넘는 저 구름아,
孤臣冤淚(고신원루)를 비 삼아 띄어다가,
넋 계신 九重深處(구중심처)에 뿌려 본들 어떠리.
- 이항복
- ⑤ 가마귀 눈비 마자 회는 듯 김노미라.
夜光明月(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오라.
넋 向(향)흔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시라.
- 박팽년

208. ㉔가 표상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에 대한 순종
- ② 시적 화자의 분신
- ③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
- ④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 ⑤ 산화 공덕과 관련되는 경건함

209. [서술형] [나]와 <보기>의 공통점을 소재의 역할과 화

자가 처한 상황·정서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翩翩黃鳥 훨훨 나는 저 피끄리
雌雄相依 암수 정답게 노니는데,
念我之獨 외로울사 이 내 몸은
誰其與歸 누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천체학] 5-2 춘향전

상5(2) 춘향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속중 즉위 초, 전라도 남원에 사는 퇴기 월매는 성 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 한양에서 내려온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어느 단옷날, 경치를 구경하고자 광한루 오작교에 나왔다가 그녀를 타러 나온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날로 둘은 백년가약을 맺어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¹⁾ 교지를 받아 가족이 모두 남원을 떠나게 되자, 이몽룡은 후일을 기약하며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떠난다.

[1] 발단, 전개 : 춘향과 이몽룡의 만남과 이별

그 후, 새로운 남원 부사로 변학도가 부임하고, 춘향을 불러내어 수청을 강요한다. 춘향은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수청을 거부하고 정절을 지키다 결국 옥에 갇히고 만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여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농부들로부터 남원의 변 사도가 학정(虐政)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옥에 갇힌 춘향의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걸인의 행색으로 월매와 춘향을 만나는데, 그런 꼴을 보고도 춘향은 내일 죽게 될 자신의 처지보다 이몽룡을 걱정하며 월매에게 이몽룡을 부탁한다.

[2] 위기 : 옥에 갇히게 된 춘향과 여사가 된 이몽룡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난 다음 날 아침, 변 사도의 생일 잔치 장면에서부터 이 작품이 끝나는 데까지이며, 갈등이 해결되는 장면이다.

[나] 근읍(近邑) 수령이 모여든다. 운봉 영장(營將)²⁾,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좌편에 행수 군관(行首軍官), 우편에 청령 사령(廳令使令), 한 가운데 본관(本官)³⁾은 주인이 되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官廳色)⁴⁾ 불러 다담(茶啖)을 올리라. 육고자(肉庫子)⁵⁾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禮房) 불러 고인(鼓人)⁶⁾을 대령하고, 승발(承發)⁷⁾ 불러 차일(遮日)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잡인(雜人)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 제, 기치(旗幟) 군물(軍物)이며 육각 풍류(六角風流)⁸⁾ 반공에 떠 있고, 녹의홍상(綠衣紅裳) 기생들은 백수나삼(白手羅衫)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야자 두덩실 하는 소리 ㉡여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3] 본관 사또의 화려한 생일 잔치 준비

[다] “여봐라, 사령들아. 네의 ㉢원전(員前)⁹⁾에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효(酒肴)¹⁰⁾ 좀 얻어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 거동 보소.

“어느 양반이관대, 우리 안전(案前)¹¹⁾님 걸인 혼금(閹禁)¹²⁾ 하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

등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 운봉¹³⁾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에게 칭하는 말이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하는 말이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니 ‘마는’ 소리 홑입맛이 사납겠다. 여사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저라.’

운봉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듚시래라.”

- 작자 미상, <춘향전>

[4] 본관 사또 생일 잔치에 참석한 여사또

[어휘 풀이] 1) 동부승지 - 정삼품 벼슬. 2) 영장(營將) - ‘진영장’의 준말. ‘진영장’은 각 진영의 군사를 통솔하던 무관. 3) 본관(本官) - 고을의 수령. 4) 관청색(官廳色) - 조선 시대에 수령의 음식물을 맡아 보던 사령. 5) 육고자(肉庫子) - 지방 관청에 육류를 바치던 관노. 6) 고인(鼓人) -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7) 승발(承發) - 지방 관아에서 잡무에 종사하던 사람. 8) 육각 풍류(六角風流) - 여섯 악기(북, 장구, 해금, 피리, 태평소 한 쌍)를 함주함. 9) 원전(員前) - 고을 원님 앞. 10) 주효(酒肴) - 술과 안주. 11) 안전(案前) -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일컫는 대명사. 12) 혼금(閹禁) -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 13) 운봉 - 지명이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가리킴.

210.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후대에 관소리로 정착하였다.
- ② 다양한 이본(異本)이 존재한다.
- ③ 한문으로 창작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하고 있다.
- ④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경상도의 사투리와 해학 속에 잘 드러나 있다.
- ⑤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은 두드러지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11. [가]~[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변 사또는 혐오와 조소의 대상이다.
- ② 춘향은 반쪽 양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③ 이몽룡은 춘향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④ 이몽룡은 걸인 행색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양반처럼 행동하고 있다.
- ⑤ 이몽룡은 철없는 모습을 벗어 버리고, 늙름하고 의지적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12. [서술형] [가]에 나타난 갈등과 연결하여 위 작품의 표면적 주제를 쓰시오.

213. [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체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투적인 비유가 나타난다.
- ② 대구, 열거, 반복이 많이 쓰였다.
- ③ 4·4조의 운문체로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높인다.
- ⑤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가 섞여 나타난다.

214. ㉠~㉣ 중, 지향하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봐라, 사령들아. 네의 **원전(眞前)**에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결인**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효(酒肴) 좀 얻어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 거동 보소.

“어느 양반이관대, 우리 안전(案前)님 결인 혼금(閨禁)하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

㉠**등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 운봉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에게 청하는 말이

㉡**“저 결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하는 말이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니 ㉣**‘마는’ 소리 훑입맛이 사납것다.** 어사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저라.’**

운봉이 분부하여

“저 양반 덥시래라.”

[1] 본관 사또 생일 잔치에 참석한 어사또

[나] 어사또 들어가 단좌(端坐)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堂上)¹⁾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洋洋)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관에 닥채저뽕,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韻)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결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²⁾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렵(無廉)³⁾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2] 이동룡에 대한 휴대와 운봉의 작시 제안

[다] 운봉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⁴⁾을 운봉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

[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제(政體)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 작자 미상, <춘향전>

[어휘 풀이] 1)당상(堂上) - 대청 위. 2)추구권(抽句卷) - 잘 된 구절을 뽑아 적은 책. 3)무렴(無廉) - 염치가 없음. 4)필연(筆硯) - 붓과 베틀.

215. 다음 중 ㉠과 발상 및 표현이 유사한 것은?

- ① 세월이여!
소금보다 짜다는
인생을 안주하여
주막을 나서면,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③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④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은 뜨거운 것이다.
- ⑤ 너는 오랑캐꽃의 피 한 방울도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216. [서술형] ㉠~㉣ 중, ㉠에 드러나는 고전 소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 찾고, 그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217.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절인의 행색을 하고 있지만 같은 양반이라고 호의를 베풀고 있군.
- ②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 평등 사상을 지니고 있군.
- ③ 끼어들 때와 못 끼어들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겠군.
- ④ 본관의 마음을 간파하여 제안하는 것을 보니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관리이군.
- ⑤ 거지까지도 챙기는 모습을 통해 애민 정신을 모소 실천하는 관리가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군.

218. [서술형] ㉠에 담겨 있는 운봉의 의도를 서술하시오.

2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운봉의 제안을 마지못해 수용하고 있다.
- ② ㉡ :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기도 한다.
- ③ ㉢ : 열거법을 활용하여 본관 사또의 잔칫상과 대비됨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 :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어사또의 행동으로 독자들의 심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다.
- ⑤ ㉣ : 어사또는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작시(作詩)를 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政體)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A]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촌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1] 한시를 지어 본관 사또의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어사또

[나]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¹⁾에 ‘아빨싸, 일이 났다.’

이때, 어사또 하직하고 간 연후에 공형(公兄) 불러 분부하되,

“야야, 일이 났다.”

공방(工房) 불러 포진(鋪陳) 단속, 병방(兵房) 불러 역마(驛馬) 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 단속, 옥 형리(刑吏) 불러

[B] 죄인 단속, 집사(執事) 불러 형구(刑具) 단속, 형방(刑房) 불러 문부(文簿) 단속, 사령 불러 합번(合番) 단속, 한참 이리 요란할 제 물색없는 저 본관이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C] “소피(所避)하고 들어오오.”

본관이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고 주광(酒狂)²⁾이 난다.

[2] 어사 출도를 예감한 운봉과 눈치채지 못한 본관 사또

[다] 이때에 어사또 군호(軍號)할 제, 서리(胥吏) 보고 눈을 주니 서리, 중방(中房) 거동 보소. 역졸(驛卒)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 보소. 외울 망건(網巾), 공단(貢緞) 새기 새 평립(平笠) 둘러 쓰고 석 자 감발 새 짚신에 한삼(汗衫), 고의(袴衣)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산뜻 입고 육모방치 녹피(鹿皮) 끈을 손목에 걸어 쥐고 예
서 번뜻 제서 번뜻, 남원읍이 우군우군, 청과 역졸(靑坡驛
卒) 거동 보소. 달 같은 마패(馬牌)를 햇빛같이 번듯 들어
“암행어사 출도(出道)야!”

외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 초목 금수
(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라.

- 작자 미상, <춘향전>

[3] 암행어사 출도

[어휘 풀이] 1) 내념(內念) - 속마음. 2) 주광(酒狂) - 술주정.

2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대 민중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 ②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 ③ 지리산녀 설화를 근원 설화로 하고 있다.
- ④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렸다.
- ⑤ 춘향의 사랑과 정절이 이면적인 주제이다.

221. [나]에서 본관 사또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

222.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4조의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있다.
- ② 암행어사 출도의 위엄과 권위를 과장하고 있다.
- ③ ‘~보소’와 같이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어투를 사용
하고 있다.
- ④ 어사 출도 직전의 준비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 열거함으
로써 현장감을 획득하는 반면 긴장감은 떨어진다.
- ⑤ 둥그런 형태와 어둠을 밝혀 주는 기능을 하는 ‘달’, ‘해’
와 ‘마패’의 공통점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2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풍자하고 있다.
- ② 어사또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은유법, 대구법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 ④ 양반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동시에 드러난다.

⑤ 작품 전개상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224. [B]의 표현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관점의 다양화
- ② 문체의 간결화
- ③ 사건의 나열화
- ④ 인물의 희화화
- ⑤ 장면의 극대화

225. [서술형] [C]에서 질문에 내포된 본관의 심리와 운봉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문 서문 출도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공형 들라!”

외는 소리, 육방(六房)이 뉘을 잃어,

“공형이오.”

등채로 휘닥딱

“애고 중다¹⁾.”

“공방, 공방!”

공방이 포진 들고 들어오며,

“안 하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라?”

등채로 후닥딱

“애고, 박 터졌네.”

좌수, 별감 뉘을 잃고, 이방, 호방 실혼(失魂)하고, 삼색 나
졸(三色羅卒) 분주하네.

[1] 어사 출도로 뉘을 잃은 아전들

[나]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 보소. 인궤(印櫃) 잃고 과
줄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宕巾)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小盤)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
서지니 거문고요, 깨지느니 북, 장구라. 본관이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새앙쥐 눈 뜨듯 하고 내아(內衙)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졸 달려 들어 후닥닥

“애고, 나 죽네!”

[2] 어사 출도로 달아나는 본관 사또와 수령들

[다] 이때 수의 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환화(喧譁)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사처(徙處)하라.”

좌정(座定) 후에

“본관은 봉고파직(封庫罷職)²⁾하라.”

분부하니,

“본관은 봉고파직이오!”

- 작자 미상, <춘향전>

[3] 본관의 봉고파직

[어휘 풀이] 1) 중다 - 죽는다. 2) 봉고파직(封庫罷職) -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청의 창고를 봉쇄함.

226. [가]~[다]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리, 역졸 : 말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군.
- ② 수령 : 중요한 물건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③ 수의 사또 : 아버지에 대한 깊은 효심과 존경심을 지니고 있군.
- ④ 본관 사또 : 이 와중에 볼 일을 다 처리하다니, 정말 담력이 센 인물이로군.
- ⑤ 공방 : 공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시킨 것이라며 후회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군.

227.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학적 표현이 나타난다.
-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 ③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판소리 특유의 표현 방식이 나타난다.
- ⑤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표현 방식을 통해 현장감을 부각시킨다.

228. [서술형] [나]에서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잃고 ~들고(쓰고)’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드러내고자 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229. ㉠과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 ② 한참 당년에 무엇이나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 ③ “이부(李夫)를 섬겼네다.”
“뭇이! 이부(二夫)를 섬기고 어찌 열녀라 할꼬?”
- ④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 ⑤ 춘향이를 찾아간 이몽룡이 월매가 차려 주는 밥상 붙들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똑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대문에 방 붙이고 옥 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골 옥수(獄囚)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문죄(問罪) 후에 무죄자 ㉡방송(放送)할새,

㉢“저 계집은 무엇인다?”

형리 여짜오되,

“기생 월매 딸이온데, 관정(官庭)에 ㉣포악(暴惡)한 죄로 옥중에 있삽네다.”

“무슨 죄다?”

형리 아뢰되,

“본관 사또 수청(守廳)으로 불렀더니 수절(守節)이 정절(貞節)이라 수청 아니 들러 하고, 관전(官前)에 포악한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쓰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1]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는 어사또

[나]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名官)이로구나. ㉡수
의(繡衣) 사또 들조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
오.”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 제 천만 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2] 춘향의 굳은 절개

[다]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대상(臺上)을 살펴보니 걸객
(乞客)으로 왔던 낭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남원 읍내 추
절(秋節)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
춘풍(李花春風) 날 살린다. 꿈이나 생시나, 꿈을 깰까 염려
로다.”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모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說話)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쏘냐?

- 작자 미상, <춘향전>

[3] 춘향과 이몽룡의 재회

23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반의 한문 투가 주로 사용되었다.
- ②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 ③ 서술자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④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인물 간의 대화가 두드러진다.
- ⑤ 유사 음운의 반복을 통한 언어유희를 사용하였다.

231.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 : 놓아 보냄.
- ② ㉡ : 사납고 악함.
- ③ ㉢ : 정치를 잘 하여 이름이 난 관리
- ④ ㉣ : 사냥할 때 입는 옷
- ⑤ ㉤ : 높은 대의 위, 누대 위

232. ㉠~㉤ 중,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이몽룡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성격이 발전, 변모하는 인물이다. <중략> 후반부에서는 끈기 있고 의지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늙음하고 여유가 있으며 의리를 중히 여기나, 다소 능청스럽기도 하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향의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4·4조, 4음보의 율격이 사용되었다.
- ③ ‘잘한다! 형이 동생이나 울리고…….’와 같은 표현 방법이 쓰였다.
- ④ 쉽게 단정 내릴 수 없는 것을 의문의 형식으로 독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⑤ 대조되는 어휘를 활용하여 각각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34. [서술형] ㉣의 의미를 풀이하고, ‘이화 춘풍(李花春風)’의 두 가지 의미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사또 남원 공사(公事) 닦은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치행(治行)할 제, 위의(威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라.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새, 영귀(榮貴)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一喜一悲)가 아니 되랴.

“놀고 자던 부용당(芙蓉堂)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한루(廣寒樓), 오작교(烏鵲橋)며 영주각(瀛州閣)도 잘 있거라.

㉠춘초(春草)는 연년록(年年綠)하되 왕손(王孫)은 귀불귀(歸不歸)라, 날로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 제 만세 무량(萬歲無量) 하옵소서, 다시 보긴 ㉡망연(茫然)이라.”

[1] 남원을 떠나 서울로 가는 춘향

[나] 이때, 어사또는 좌우도(左右道) 순읍(巡邑)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어전(御前)¹⁾에 숙배(肅拜)하니, 삼당상(三堂上) ㉢입시(入侍)하사 문부(文簿)를 사정(査定) 후에 상²⁾이 대찬(大讚)하시고 즉시 이조 참의(吏曹參議) 대사성(大司成)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정렬 부인(貞烈夫人)³⁾을 봉하시니, 사은숙배(謝恩肅拜)⁴⁾하고 물러 나와 부모전에 뵈온대, 성은(聖恩)을 축수(祝壽)⁵⁾하시더라.

이때, 이판(吏判), 호판(戶判), 좌우영상(左右領相) 다 지내고, ㉣퇴사(退仕) 후 정렬부인으로 더불어 백 년 동락

[A] 할 새, 정렬 부인에게 삼남 이녀를 두었으니, 개개이 총명하여 그 부친을 ㉤압두(壓頭)하고 계계승승(繼繼承承)하여 직거일품(職居一品)으로 만세유전(萬世流傳) 하더라.

- 완판본(完板本) <열녀춘향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

- 작자 미상, <춘향전>

[2] 춘향과 이몽룡의 행복한 결말

235. 위 글 전체의 사상적 배경끼리 모두 묶인 것은?

- ㉠ 실학 사상
- ㉡ 평등 사상
- ㉢ 물질 만능주의
- ㉣ 사회 개혁 의지
- ㉤ 자유 연애 사상
- ㉥ 불교적 공 사상
- ㉦ 유교적 도덕 관념
- ㉧ 도교적 신선 사상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236. [나]를 판소리로 연창한다고 할 때, 판소리의 연창과 관련된 요소 중 어울리는 것은?

- ① 창
- ② 발림
- ③ 너름새
- ④ 아니리
- ⑤ 추임새

237. [A]에서 춘향과 남원 민중들이 느꼈을 감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명
- ② 불쾌함
- ③ 좌절감
- ④ 호기심
- ⑤ 부러움

238.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길을 떠날 행장을 차림.
- ② ㉡ :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함.
- ③ ㉢ :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알현하는 일
- ④ ㉣ : 벼슬에서 물러남.
- ⑤ ㉤ : 상대방을 누르고 첫째 자리를 차지함.

239. [서술형] ㉥는 당나라 시인 왕유의 ‘산중 송별(山中送別)’이라는 한시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춘향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 각하고 본관의 정체(政體)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중략>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아뽕싸, 일이 났다.’

이때, 어사또 하직하고 간 연후에 공형(公兄) 불러 분부하되,

“야야, 일이 났다.”

공방(工房) 불러 포진(鋪陳) 단속, 병방(兵房) 불러 역마(驛馬) 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 단속, 옥 형리(刑吏) 불러 죄인 단속, 집사(執事) 불러 형구(刑具) 단속, 형방(刑房) 불러 문부(文簿) 단속, 사령 불러 합번(合番) 단속, 한참 이리 요란할 제 물색없는 저 본관이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所避)하고 들어오오.”

[나] 이때에 어사또 군호(軍號)할 제, 서리(胥吏) 보고 눈을 주니 서리, 중방(中房) 거동 보소. 역졸(驛卒)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 보소. 외율 망건(網巾), 공단(貢緞) 싸기 새 평립(平笠) 눌러 쓰고 석 자 감발 새 짚신에 한삼(汗衫), 고의(袴衣) 산뜻 입고 옥모방치 녹피(鹿皮) 끈을 손목에 걸어 쥐고 예서 번뜻 제서 번뜻, 남원읍이 우군우군, 청과 역졸(靑坡驛卒) 거동 보소. 달 같은 마패(馬牌)를 햇빛같이 번뜻 들어 “암행어사 출도(出道)야!”

외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놓는 듯. ㉠초목(草木)금수(禽獸)인들 아니 떨랴.

- 작자 미상, <춘향전>

240. 위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 ② 시점상 독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 ③ 작품 속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 ④ 향유 계층이 다양하여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 ⑤ 애정 설화와 판타 민녀 설화, 암행어사 설화, 신원 설화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41. [서술형] 위 글에서 <보기>의 밑줄 친 것과 유사한 구실을 하는 공간을 찾아 쓰고, 그 기능을 서술하시오.

보기

- ‘단군 신화’ : 곰 → 굴 → 인간
- ‘심청전’ : 심청 → 인당수 → 황후

24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운봉은 암행어사 출도를 미리 눈치챘다.
- ② [가]에서 본관은 바쁘게 움직이는 운봉의 행동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다.
- ③ [나]는 판소리로 창을 할 때 빠른 장단이 어울리는 대목이다.
- ④ [가]와 [나] 모두 4·4조의 운문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⑤ [가]와 [나] 모두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가 실현되었다.

24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극적 위기감을 조성한다.
- ②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예고한다.
- ③ 5언 절구의 한시로 대구와 은유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 ④ 양반의 풍요로움과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상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⑤ 일종의 삽입 시로 소설 속에서 인물의 심리 상태나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244. ㉠과 ㉡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목소리와 유사한 것은?

- ① 춘랑이 다행하여 부인을 구호하매 차차 회생하니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② 애고 나 죽네, 소리 하고 물에 가 풍 빠졌다 하되 그리 하여서야 효녀 죽음 될 수 있나.
- ③ 하릴없이 이 뜻으로 최국양에게 전한대 최국양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장차 해할 뜻을 두더라.
- ④ 장준이 한 피를 행각하고 왕희와 의논하되 왕희 대희하여 길일을 받고 더불어 언약을 강제로 정하더라.
- ⑤ 비록 자부로되 공경하야 매사를 그 자부의 의논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고 또한 자부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 보소. 인궤(印櫃) 잃고 과줄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宕巾)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小盤)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거문고요, 깨지느니 북, 장구라. 본관이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새앙쥐 눈 뜨듯 하고 내아(內衙)로 들어가서 “어 추위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줄 달려 들어 후닥딱

“애고, 나 죽네!”

[나]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 수의(繡衣) 사또 듣조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 제 천만 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다]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대상(臺上)을 살펴보니 객(客)으로 왔던 낭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남원 읍내 추절(秋節)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춘풍(李花春風) 날 살린다. 꿈이나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라]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모 들어와서 가없이 즐거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說話)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쏘는가?

[마] 이때, 어사또는 좌우도(左右道) 순읍(巡邑)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어전(御前)에 숙배(肅拜)하니, 삼당상(三堂上) 입시(入侍)하사 문부(文簿)를 사정(査定) 후에 상이 대찬(大讚)하시고 즉시 이조 참의(吏曹參議) 대사성(大司成)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정렬 부인(貞烈夫人)을 봉하시니, 사은숙배(謝恩肅拜)하고 물러 나와 부모전에 뵈온대, 성은(聖恩)을 축수(祝壽)하시더라.

이때, 이판(吏判), 호판(戶判), 좌우영상(左右領相) 다 지내고, 퇴사(退仕) 후 정렬부인으로 더불어 백 년 동락할 새, 정렬 부인에게 삼남 이녀를 두었으니, 개개이 총명하여 그 부친을 압두(壓頭)하고 계계승승(繼繼承承)하여 직거일품(職居一品)으로 만세유전(萬世流傳) 하더라.

- 작자 미상, <춘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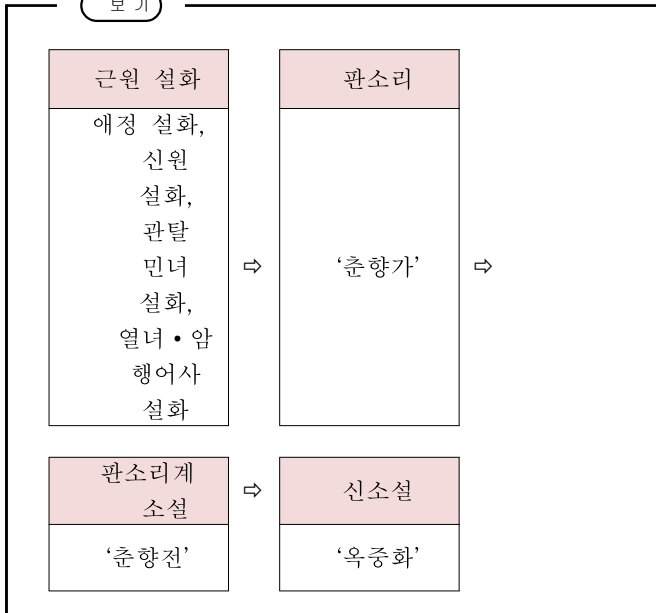
245. 위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학적, 풍자적 성격이 드러난다.
- ② 권선징악적 결말 구조로 되어 있다.
- ③ 서민 계층의 꿈을 그린 서민 문학이다.
- ④ 다급한 순간에도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엿볼 수 있다.
- ⑤ 몹시 놀라 엉뚱한 것을 들고 허둥대는 수령들의 모습은 양반에 대한 풍자 기능도 담당한다.

246. [서술형] <보기>는 위 작품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작품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47. [가]~[마]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② [나] : 반어적 표현으로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③ [다] : 비유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라] :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 ⑤ [마] : 보여 주기 기법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248. [나]의 중심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춘향의 관정 포악
- ② 춘향의 절개 확인
- ③ 춘향의 한시 짓기
- ④ 새로운 인물의 등장
- ⑤ 어사또의 정체 확인

249. [서술형] [마]에 제시된 춘향과 관련된 중요 사건을 바탕으로 ‘춘향전’의 두 가지 주제를 서술하시오.

[천체박] 5-3 봉산탈춤

5(3) 봉산탈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 6과장¹⁾ 양반춤

[가]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²⁾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³⁾에 복건(幅巾)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長竹)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1] 인물의 등장

[나]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어. (㉠)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찰량⁴⁾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⁵⁾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2] ‘양반’의 뜻풀이(재답 1)

[다] **말뚝이** 쉬어. (반주 그친다.) ㉡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잘다란 곱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廛)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래도 해서 양칠 간죽(洋漆竿竹), 자문죽(紫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각지, 회자죽(喜子竹), 오동 수복(梧桐壽福) 연변죽⁶⁾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⁷⁾ 낚시 걸 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⁸⁾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3] 담배와 흰화 금지(재답 2)

[어휘 풀이] 1) 과장 - 가면극에서 사용하는 용어. 서극식 연극의 ‘막’에 해당하는 개념. 2) 창옷 - ‘소창 옷’의 준말. 3) 쾌자 - 소매가 없는 옛 군복의 한 가지. 4) 개찰량 - 털이 붙어 있는 개의 가죽. 5) 개다리소반 -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흰 소반. 6) 옥모각지 회자죽, 오동수복 연변죽 - 담뱃대의 여러 종류들, 긴 담뱃대. 7) 거이 - 게. 8) 흰화 - 시끄럽게 지껄이며 떠들.

250.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대 장치가 따로 필요 없다.
- ② 관객이 능동적으로 극에 참여한다.
- ③ 민중성, 비판성, 골계성, 축제성을 띤다.
- ④ 인물의 대사 외에 춤과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⑤ 주제가 다른 각 과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51.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뚝이는 극을 이끌어 가는 주체이다.
- ② 도련님의 행동을 통해 양반의 권위가 실추된다.
- ③ 양반 삼 형제는 복장뿐 아니라 외모도 비정상적이다.
- ④ ‘병거지, 채찍’을 통해 말뚝이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부채, 장죽’을 통해 양반 삼 형제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252. ㉡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음악과 춤 멈춘다.
- ②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
- ③ 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 ④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 ⑤ 악공과 관객이 극에 개입한다.

25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유동적이다.
- ② 좀 더 신명나고 친근한 놀이판이 만들어진다.
- ③ 서양 연극과 다른 전통극의 특징 중 하나이다.
- ④ 극중 인물인 말뚝이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⑤ 극적 환상이 개입되어 현실적 비판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254. [서술형] ㉠가 ㉠를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속담을 쓰시오.

255. [서술형] 위 글에 나타난 말뚝이 재담 구조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뚝이 쉬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썽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흔들기 뽕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뽕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1] 바가지장단에 의한 양반 격하(재담 3)

[나] 생원 쉬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예에,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早

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활활 하여 말뚝이네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밟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째짤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녀도 생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2] 양반 찾기(재담 4)

<중략>

[다] 생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¹⁾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에,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쫓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났습디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字)로 오련각(五聯閣)과 입 구(口)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琥珀柱礎)²⁾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 연목(翡翠椽木)³⁾에 금파(金波) 도리⁴⁾를 걸고 입 구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天板子)⁵⁾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壯版房)이라. 화문석(花紋席) 찻다 펴고 부벽서(付壁書)⁶⁾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⁷⁾ 양반의 새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 제구(文房諸具) 불작시면 용장 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롱(函籠), 반닫이, 셋별 같은 낯요강, 낯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갈담배⁸⁾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났습디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⁹⁾를 꿀물에다 축여 났다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꿀물에다 축여 났다네. (긋거리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 (새처 안에 앉는다.)

<중략>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3] 새처 정하기(재답 5)

[어휘 풀이] 1) 새처 - '사처'의 방언, 손님이 길을 가다가 묵는 집. 2) 호박 주초(琥珀柱礎) - 전각의 두리 기둥 밑에 받치는, 동글게 다듬어 만든 주춧돌. 3) 비취 연목(翡翠椽木) - 비취로 만든 서까래. 4) 도리 - 기둥과 기둥 위에 건너 얹어 그 위에 서까래를 놓는 나무. 5) 천판자(天板子) - 위를 막은 널빤지. 6) 부벽서(付壁書) - 벽에 붙이는 글. 7) 가위 - 말할 것도 없이. 과연. 8) 삼털 같은 칼담배 - 거칠게 썬 담배. 9) 쇠털 같은 담배 - 소의 털같이 가늘고 좋은 담배

256.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뚝이가 양반들을 지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 ② 양반들에 대한 말뚝이의 조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 ③ '삼털 같은 칼담배'는 '양칠간죽, 자문죽'보다 더 고급스러운 담배이다.
- ④ 벽에 붙어 있는 글을 통해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북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도록 집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字)로 대들보를 다섯 줄로 놓아 집을 짓는 방식 등은 당시 집을 짓는 전형적인 방식임을 보여 주고 있다.

257. ㉠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극중 현실에 참여·개입한다.
- ② 말뚝이와의 관계는 우호적이다.
- ③ 놀이판의 배경 음악을 제공한다.
- ④ 등장인물의 물음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 장단을 맞출 수는 있다.
- ⑤ 말뚝이의 양반에 대한 조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258. [서술형] ㉡에 쓰인 표현 방법의 기능을 쓰시오.

259. ㉢을 통해 알 수 있는 양반과 말뚝이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 ① 우호적인 주종 관계
- ② 적대적인 친구 관계
- ③ 전형적인 주종 관계

- ④ 가부장적인 부자 관계
- ⑤ 동고동락하는 친구 관계

260.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새처방을 새로 짓는 중이다.
- ②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한다.
- ③ 양반 삼 형제는 새처방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
- ④ 양반 삼 형제가 들어가기에는 새처방이 비좁다.
- ⑤ 무대 장치를 설치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공연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원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1] 양반들의 시조 읊기

[나]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그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¹⁾를 내게.

서방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생원 동생, 한 ㉢귀 지어 보세.

서방 그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총’자, ‘못’잘세.

서방 아, 그 운자 벽자(僻字)²⁾로군. (한참 킁킁거리다가) 형님, 한 마디 들어 보십시오. (영시조로) “짚세기 앞층은

형뽕충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덜못이라.”

[2] 양반들의 운자 놀이

<중략>

[다] 생원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방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 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龍麻子)³⁾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부르께.

서방 눈두렁에 살피 쪼고 쪼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 임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3] 양반들의 파자 놀이

[어휘 풀이] 1) 운자(韻字) - 한시의 각 구의 끝을 맞춘 글자. 2) 벽자(僻字) - 흔히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 3) 피마자(龍麻子) - 피마자(아주까리)의 색깔과 모양에 착안함.

261. [A]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란 : ‘산’, ‘영’이라는 운자를 맞추긴 했군.
- ② 성진 : 지명을 무의미하게 나열한 것에 불과해.
- ③ 혜진 : 양반들의 의도는 양반 문화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것 같아.
- ④ 도영 : 말뚝이에 의한 직접적인 비판보다 비판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 ⑤ 인규 : 생원의 한시와 칭찬하는 서방의 말에서 학식과 교양이 허구적임이 드러나 있어.

262. [서술형] ㉠에 담겨 있는 양반들의 의도를 서술하시오.

263. [서술형] ㉠을 통해 풍자하고 있는 내용을 5어절로 쓰시오.

264.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과 유사한 것은?

- ① 항아리의 **귀**가 깨졌다.
- ② 거울의 한 **귀**가 깨지다.

③ 책에서 좋은 **귀**를 뽑아 인용하다.

④ 쌀 닷 섬 값이란 것 같으니 이천 냥에서 **귀**가 좀 빠지는 돈이야.

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원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¹⁾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의 심(힘)이 무량 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쟈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²⁾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었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쟈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쟈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쟈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 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 양반들의 위세와 탐욕 고발

[어휘 풀이] 1) 잘라먹은 - 중간에서 횡령한.

265. [가]에 나타난 시대정신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현실주의적 가치관이 싹트고 있다.
- ② 말뚝이는 시대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 ③ 당대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 단계에 이미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양반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양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직 존재한 양반의 권위를 이용해야 한다.

266. [서술형] [가]에서 실제 현실의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

26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몰락한 양반
- ② 신흥 상인 계층
- ③ 경제력 있는 양반
- ④ 서민을 가장한 암행어사
- ⑤ 족보를 매매한 서민 계층

268. ㉡의 효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정답 2개)

- ① 한자어를 통한 웃음 유발
- ② 생원과 말뚝이의 관계 부각
- ③ 양반들의 횡포를 단적으로 표현
- ④ 비속한 표현을 통한 양반의 권위 실추
- ⑤ 불가능한 상황 제시를 통한 환상성 고취

269. ㉢에 나타나는 말뚝이의 행동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미란 :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모양새 하고는.
- ② 호진 : 표리부동한 양반들을 비판·풍자하고 있군.
- ③ 병수 : 좌고우면하는 모습에서 고민의 깊이를 읽을 수 있어.
- ④ 진서 : 다다익선이라고 이왕 챙길 것 한 몫 단단히 잡으려 하고 있군.
- ⑤ 형빈 : 건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니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나] 생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예.

생원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의 심(힘)이 무량 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래이 비호(飛虎) 같은데, 센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생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기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생님도 좋고 나도 돈 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생님은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

27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대의 시대상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 ② 조선 후기 평민 의식 성장을 보여 준다.
- ③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 ④ 연행자의 말을 악공이 채록하여 대본으로 전하고 있다.
- ⑤ 공연 시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고 별다른 무대장치가 필요 없다.

271. [가]에서 양반의 호통에 대한 말뚝이의 반응과 관련된 사자성어는?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 ② 사필귀정(事必歸正)
- ③ 면중복배(面從腹背)
- ④ 조령모개(朝令暮改)
- ⑤ 회자정리(會者定離)

272.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사회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폐의 유통이 막 시작되고 있다.
- ② 양반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다.
- ③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 ④ 상인들이 상당한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 ⑤ 양반보다 양반을 수행하는 하인의 횡포가 더 심했다.

27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반의 권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양반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있다.
- ③ 서민들의 도전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④ 청중의 공감 유도를 위해 비약과 반전의 방법이 쓰였다.
- ⑤ ‘멋Jean 은수, 은수야~ 너 참 멋진 Jean을 입었구나!’와 같은 표현이 쓰였다.

274. [서술형] ㉡에 담긴 말뚝이의 의도와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각각 서술하시오.

275. ㉢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반박
- ② 호응
- ③ 회유
- ④ 협박
- ⑤ 비난

276. ㉠~㉢을 말뚝이 재담 구조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다 - 나 - 가 - 라
- ④ 다 - 라 - 가 - 나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⑤ ㉠ - ㉡ - ㉢ - ㉣

재박11국어상]276) 답 ④

예 ㉠는 말뚝이의 변명, ㉡는 양반의 안심, ㉢는 양반의 위엄과 말뚝이의 조롱, ㉣는 양반의 호통에 해당한다. 따라서 ㉠ - ㉡ - ㉢ - ㉣로 배열하는 것이 적절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원 ㉠취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 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나]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예,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생원 동생, 한 귀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총’자, ‘못’잘세.

서방 아, 그 운자 벽자(僻字)로군. (한참 꺽꺽거리다가) 형님, 한 마디 들어 보십시오. (영시조로) “짚세기 앞총은 형 갓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덜못이라.”

[다] 생원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방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 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龍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부르게.

서방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 임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277. 위 글에서 양반을 비하하는 주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뚝이의 직설적인 공격
- ② 패러디를 통한 우회적 비판
- ③ 자기 폭로에 의한 권위 실추
- ④ 서민과의 대조를 통한 허구성 제시
- ⑤ 유사 음운의 반복을 통한 언어 유희

278. [서술형] [A]에서 양반들의 시조와 말뚝이의 민요를 제시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하십시오.

279. [서술형] ㉦의 역할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십시오.

280. ㉣과 같이 말뚝이가 소리를 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분위기에 침취해서
- ② 혼자 있기 심심해서
- ③ 기쁜 마음에 신이 나서
- ④ 잘난 체하는 양반들의 모습이 못마땅해서
- ⑤ 양반들에게 재주를 자랑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서

[천재박11국어상]280) 답 ④

예 양반들이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 문자로 노는 모습이 못마땅한 말뚝이가 서민들이 흔히 부르는 소리 한 가락을 불러 양반들의 시조나 서민들의 민요나 그 수준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으며, 서민들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81.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 양반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
- ② ㉡ : 문자 생활을 한다는 우월감을 과시하고 있어.
- ③ ㉢ : 양반의 무지와 허세가 폭로된다.
- ④ ㉣ : ‘화형제(和兄弟)’라는 유교적 이념이 실천되고 있어.
- ⑤ ㉥ :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사건이 예상된다.

[천재박11국어상]281) 답 ④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천체박] 5단원 추가

상5(종합) 문학과 전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 위 증즐가 大平聖代(대평 성덕)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大平聖代(대평 성덕)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大平聖代(대평 성덕)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大平聖代(대평 성덕)

- 작자 미상, <가시리>

[나]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282. [가]와 [나]를 대상으로 평론을 쓰고자 한다. 작가의 의도를 고려할 때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헤어지는 연인들의 서러움
- ② 헤어지는 연인들의 처절한 비애
- ③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여성의 원망
- ④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여성의 정한
- ⑤ 이별의 상황에 대처하는 적극적 여성의 자세

28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구나 후렴구가 나타난다.
- ②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이다.
- ③ 3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이 형성된다.
- ④ 시적 상황을 이끄는 주체는 시적 화자이다.
- ⑤ 경어체를 통해 청자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284. [나]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늘 이에 산화(散花) 붙어
 색쫄본 고자 너는
 고든 막스미 命(명)스 브리옵디
 彌勒座主(미륵 좌주) 되셔와.

- 월명사, <도술가>

- ① [나]는 <보기>에 비해 형식이 자유롭다.
- ② [나]와 <보기> 모두 종교적 색채가 두드러진다.
- ③ [나]와 달리 <보기>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나]와 <보기> 모두 산화 공덕의 모티프라는 전통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⑤ [나]는 개인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노래인 반면, <보기>는 사회적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래이다.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85. <보기>를 참고할 때, ㉠과 <보기>의 ‘서사’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德(덕)이란 곰빅에 받죽고, 福(복)이란 림빅에 받죽고
德(덕)이어 福(복)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 작자 미상, <동동>

위 노래는 ‘동동’이라는 고려 가요의 ‘서사’ 부분이다. ‘동동’은 국문학사상 최초의 월령체 노래로, 송도(頌禱)의 성격을 지닌 ‘서사’와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는 1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노래는 시상이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각 연마다 나타내는 주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한 작가의 일관된 정서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서사’는 나머지 12연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 ①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작품의 창작에 개입했을 것이다.
- ② 고려 가요의 이면적 주제는 ‘덕(德)과 복(福)이 충만한 태평성대의 구가’였다.
- ③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미 없는 여음구가 후렴구로 발달하는 고정을 보여 준다.
- ④ 구전되던 민요 형태의 노래가 궁중에 흘러들어 궁중 속 악으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 ⑤ 각 연을 나누면서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의 위치에 변화가 있었다.

286. ㉡을 가정적 이별의 상황으로 볼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을 눈앞에 둔 화자의 간절함이 부각되고 있다.
- ② 입을 향한 화자의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형상화하였다.
- ③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 ④ 한 번 이별한 후 재회한 화자가 그 경험에 대해 회고하고 있다.

⑤ 화자보다 더 간절한 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가정형을 사용하였다.

287. [서술형] ㉢이 가리키는 대상과 그 의미를 화자와 관련지어 서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나]의 3연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축루낙시(燭淚落時) 민루락(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의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나] “암행 어사 출도(出道)야!”

외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 초목 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문 서문 출도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공형 들라!”

외는 소리, 육방(六房)이 뉘을 잃어,

“공형이오.”

등채로 휘닥딱

“애고 중다.”

“공방, 공방!”

공방이 포진 들고 들어오며,

“안 하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등채로 후닥딱

“애고, 박 터졌네.”

좌수, 별감 뉘을 잃고, 이방, 호방 실혼(失魂)하고, 삼색 나졸(三色羅卒) 분주하네.

[다]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 보소. 인궤(印櫃) 잃고 파
줄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宕巾)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小盤)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
서지니 거문고요, 깨지느니 북, 장고라. 본관이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새앙쥐 눈 뜨듯 하고 내아(內衙)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
여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줄 달려
들어 후닥딱

[라]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
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 수의(繡
衣) 사또 들조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 바람 분
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남기 눈이 운들 변
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요.”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 제 천만 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 작자 미상, <춘향전>

288. 위 글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주된 방법으로 적절
한 것은?

- ① 인물의 심리 묘사
- ② 인물의 외양 묘사
- ③ 인물의 대화와 대사
- ④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해설
- ⑤ 서술자에 의한 편집자적 논평

289. 위 글에서 착안하여 <보기>와 같은 시를 썼을 때, 그 효
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모진 춘향이 그 밤 새벽에 또 까무러쳐서는
영 다시 깨어나진 못했었다. 두건은 올렸건만
도련님 다시 뵈어 한은 풀었으나 살아날 가망은 아주
끊기고

온몸 푸른 맥도 핵 풀려 버렸을 법
출도 끝에 어사는 춘향의 몸을 거두며 울다
“내 변가(卞苛)보다 잔인 무지하여 춘향을 죽였구나.”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 김영랑, <춘향>

- ① 변 사또보다 포악한 이몽룡의 성품이 부각된다.
- ② 춘향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성이 더욱 강화된다.
- ③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애뜻한 마음이 뚜렷해진다.
- ④ 사랑을 위해 죽음을 택한 춘향의 행동이 더욱 숭고하게
드러난다.
- ⑤ 작품 속의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290. 위 글을 영화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 ① 해미 : 양반들이 허둥대는 장면을 빠른 장면으로 처리하
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 ② 성태 : 관소리적인 성격을 살리기 위해 변사와 같은 목
소리를 음향 효과로 써도 좋을 것 같아.
- ③ 유진 :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 춘향이 수청을 요구하
는 어사또를 믿음직하게 바라보고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 ④ 미란 : 한시 부분을 낭독할 때는 시가 쓰여진 것을 클로
즈업하고 낭독하는 목소리를 음향 효과로 넣으면 효과적
일 것 같아.
- ⑤ 준혁 : 향단이와 춘향이의 대화 장면이 아니라 춘향이가
일방적으로 향단이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향단이를
꼭 등장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291. [나]의 전체적인 서술상 특징과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은?

	서술상 특징	효과
①	자연물에 인격 부여	긴박감 조성
②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좁힘
③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도망치는 모습 실감 나 게 묘사
④	호흡이 짧은 어구. 문장 나열	긴박감 조성
⑤	호흡이 짧은 어구. 문장 나열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좁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92. [서술형] [다]를 판소리의 분위기를 살려 창으로 읊을 때, 어울리는 장단을 <보기>에서 골라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보기

엇모리장단, 중모리장단, 진양조장단, 자진모리장단

29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7언 절구의 한시이다.
- ② ㉠은 은유와 대구가 쓰였다.
- ③ ㉡은 관습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쓰였다.
- ④ ㉠과 ㉡ 모두 사회적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⑤ ㉠과 ㉡ 모두 인물의 심정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술질을 활활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밧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켠켠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쪼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왔습니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字)로 오련각(五聯閣)과 입구(口)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壯版房)이라. 화문석(花紋席) 찻다 펴고 부벽서(付壁書)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유

[B] 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 제구(文房諸具) 볼작시면 웅장 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룡(函籠), 반단이, 셋별 같은 놋요강, 놋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왔습디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 에다 축여 왔다 그리 하엿소.

양반들 (합창) 꿀물 에다 축여 왔다네. (굿거리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 (새처 안에 앉는다.)

[나] 생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예.

생원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C] 말뚝이 그놈의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랩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디다.

생원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 엿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㉞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 들었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생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생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생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29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사의 대답성이 드러난다.
- ② 희극적인 구조를 근본으로 한다.
- ③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가능하다.
- ④ 조선 전기 평민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 ⑤ 사건의 전개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295. 위 글의 ‘말뚝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언변과 변죽이 좋다.
- ② 느그럽고 예의바르다.
- ③ 도전적이고 저항적이다.
- ④ 활달하고 능청스럽다.
- ⑤ 재치 있고 기지가 넘친다.

296. [서술형] [가]를 바탕으로 말뚝이 재담 구조를 순소대로 서술하고, 이 구조는 <보기>의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

보 기

연행에는 다양한 언어적 관습과 표현 특성이 나타난다. 연행자는 청중의 고감을 유도하기 위해 ‘강조와 과장, 집중과 함축, 비약과 반전, 긴장과 이완’ 등의 방법을 쓴다.

29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장과 익살이 드러난다.
- ②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가 혼용되어 있다.
- ③ 대구 표현과 동일 어휘가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난다.
- ④ 화자 자신의 명칭에 접미사를 붙여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 ⑤ 열거를 통해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여 긴장감이 떨어진 다.

298. 다음 중 [B]에 쓰인 표현 방식과 유사한 것은?

- ① 길동이 재배 하직하고 문을 나서매 운산(雲山)이 첩첩하여 지향(指向)없이 행하니 어찌 가련치 않으리오.
- ② 춘향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 임 오시니 나는 아니 죽네. 좋을씨고 좋을씨고, 어사또 할 말 없어 듣기만 하는 구나. 다른 가객 몽중가는 옥중에서 어사 보고 수다를 떠하는데 이 사설 짓는 이는 신행길을 차렸으니 좌상 처분 어떠한지.
- ③ 장독 뒤에 은신하고 동정을 살펴보니 후원에서 사람 소리 은은히 들리거늘 가만히 엿보니 춘향 어미 소리로다. 황토로 단을 묻고 정화수 한 동이를 소반 위에 받쳐 놓고 그 앞에 가 꿇었디어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 ④ 심청이 여짜오되, / “빌어 온 밥이나마 자식(子息)의 정성(精誠)이니 설워 말고 잡수시오.” / 좋은 말로 위로(慰勞)하여 기어이 먹게 하니, 날마다 얻어 온 밥 한 쪽박에 오색(五色)이라, 흰밥, 콩밥, 팔밥이며, 보리, 기장, 수수밥이 갖가지로 다 있으니, 심 봉사 집은 끼니 때마다 정월 보름 쇠는구나.
- ⑤ 우리 둘이 인연 맺던 부용당(芙蓉堂)에 나를 누이고 서방님 속옷 벗어 입혀 주고 나를 묻어 주되, 신산(新山) 구산(舊山) 다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선대감(先大監) 제절하(除節下)에 은근히 묻어 주고, 정조 한식(正朝寒食), 단오, 추석, 선대감 시제(時祭) 잡순 후, 주과포혜(酒果脯醢) 따로 차려 놓고 술 한 잔 부어 들고, 나의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무덤 위에 올라서서 발 툑툑 세 번 구르고, ‘춘향아’ 부르시고, 청초(靑草)는 우거진디 앓었느냐 누었느냐?

299. [서술형] [C]를 통해 알 수 있는 취발이의 상징성을 외모, 힘, 당대 서민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나]의 말뚝이의 마지막 대사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300. ㉠과 같은 표현 방식이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난간 이마 주게턱 웅케눈에 개발코, 상통은 과녁 같고 수염은 다 모즈러진 귀알 같고
- ② “검은 소로 밭을 가니 킁킁하지 아니한지?” / 농부 대답하되, / “그러게 밝으라고 벼를 달았지요.”
- ③ 일자 운(一字韻)을 달아 울 제, 일편단심(一片丹心) 먹은 마음 일각삼추(一刻三秋) 같사오니 일시(一時)라 못 잊겠소.
- ④ 다섯을 딱 붙이니, 오륜(五倫)의 제일강령(第一綱領) 오행(五行) 중에 으뜸이라. 오매불망(寤寐不忘) 우리 낭군(郎君) 잊을 가망 바이 없소.
- ⑤ 이엿사나 이여도사나 이엿나나 이여도사나 /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솔솔 가는 건 솔남의 배여 / 잘잘 가는 건 잡남의 배여 어서 가자 어서 어서

301. [서술형] ㉡에 드러나는 춤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3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양반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한다.
- ② ㉣ :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형상화하였다.
- ③ ㉤ : 양반의 횡포를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 ④ ㉥ : 당시 배금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 :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과 통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삶과 죽음의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가나넋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나]

뒤편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뒤편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론 저승으로 떠나가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뒤편카노 뒤편카노
썩어서 동아 밧줄은 삭아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카노 뒤편카노 뒤편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필력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론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론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튀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303. [가]와 [나]와 시적 상황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
니, / 고혼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러갔구나!
- ② 산그늘 길게 늘어 / 붉게 해는 넘어가고, // 황혼과
함께 /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 삶은 오직 갈수록 쓸
쓸하고, /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 ③ 눈물 아롱아롱 / 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밟으신 길은 / 진
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 흰 옷깃 여며 여며 가
옵신 임의 /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
- ④ 이 비 그치면 / 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꽃밭 속 / 처녀
애들 짝하고 새로이 서고 // 입 앞에 타오르는 / 향연(香
煙)과 같이 /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겠다.
- 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
름이여! / 불려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 끝
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304.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시간과 공간의 교차를 축으로 시상
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규칙적인 리듬감을 통해 안정적인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가]는 역설적인 표현을, [나]는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
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객관적 상관물을, [나]는 감정 이입의 대상을 활
용하여 화자와 대상의 추억들을 연결하고 있다.

- ⑤ [가]는 정서의 집약에 한 단어에 압축되어 나타나고,
[나]는 정서의 심화를 반복과 점층의 표현을 통해 드러
내고 있다.

30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비판적인 현실 인식이 두드러진다.
- ③ 사랑하는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 나타난다.
- ④ 세련된 표현 기교와 뛰어난 서정성을 지닌 작품이다.
- ⑤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306.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가지에 나고’로 보아, 시적 대상은 화자의 혈육임을
알 수 있어.
- ② ‘바람’을 삶과 죽음을 가르는 힘이라고 볼 때, ‘이른 바
람에’는 누이의 요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 ③ ‘떨어질 앞’에서 앞이 떨어지는 것은 앞이 죽는다는 것
을 의미하니까 죽은 대상, 즉 누이를 가리키는 말이야.
- ④ ‘가는 곳 모르온저’에는 누이의 가는 곳을 알 수 없어서
체념해 버리고 마는 화자의 절망감을 읽을 수 있어.
- ⑤ 이승을 의미하는 2행의 ‘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세상
을 의미하는 9행의 ‘미타찰(彌陀刹)’과 의미상 대립하고
있어.

307. [가]를 감상한 후 <보기>를 지은 것이라고 할 때, <보 기>의 지은이가 [가]에서 받았을 영향으로 적절한 것 은?

보 기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내 남아 밭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획득해야지.
- ② 이상향을 설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드러내야지.
- ③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주술적으로 승화시켜야지.
- ④ 의문형 종결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부각해야지.
- ⑤ 사별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적 태도를 나타내야지.

308. [서술형] [나]에서 ‘상황’의 전환이 드러나는 연과 상황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는 구절을 찾아 쓰고, 각각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309. [서술형] ㉠과 <보기>의 ㉡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때, [가]와 <보기>에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서술하시오.

보기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른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苦惱)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山茶花)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상5(서술형) 문학과 전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 성덕)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 성덕)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 성덕)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 성덕)

- 작자 미상, <가시리>

[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다] **말뚝이** (가운데썸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라]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가나잇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나]

뭐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뭐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가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락카노 뭐락카노
썩어서 동아 밧줄은 삭아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락카노 뭐락카노 뭐락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펴려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310. [가], [나]와 <보기>를 문학적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십시오. [10점]

보기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 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닷곤딕 아즐가 닷곤딕 쇼성경 고희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괴시란딕 아즐가 괴시란딕 우러곰 좇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즈문 히를 아즐가 즘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大洞江)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림난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넬 비예 아즐가 넬 비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 타 들면 아즐가 빅 타 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311. [다]는 <보기>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서술하시오. [10점]

보기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조건>

- 인물 간의 갈등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
- 말뚝이의 태도 변화에 담겨 있는 의미를 고려할 것
- [다]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관련시킬 것

312. <보기>를 참고하여 [라]와 [마]에 나타나는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되, 그러한 이미지가 각 작품에서 지니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10점]

보기

일반적으로 시에 사용되는 하강적(下降的) 이미지의 시어들은 죽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하강적 이미지는 모두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 운동에서 비롯된다. 이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에서 오는 슬픔과 허무 등을 환기시킨다.

<조건>

<보기>의 설명은 [라]와 [마] 중 하나에만 해당하며, 나머지 하나는 반대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점을 참고하여 서술할 것.

[천체박]6-1 보고하기

6(1) 보고하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찰 실험 보고

주하나(학생)

지렁이 똥을 이용한 방울 토마토 기르기

보고 내용의 개관

제가 발표할 실험의 주제는 지렁이 똥을 이용한 방울토마토 기르기입니다. 지렁이는 신기하게도 땅과 작물에 좋은 퇴비를 만들어 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좋은 퇴비가 되는 똥을 배설하는 지렁이를 활용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기록하는 것이 이 실험의 주 내용입니다.

[1] 개관 : ① 실험의 주제와 내용을 알려 줌.(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② 지렁이가 퇴비를 만든다는 말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함.

세부 내용

1. 실험의 목적

이 실험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렁이의 똥으로 만들어진 퇴비가 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생태¹⁾ 관찰을 해 봄으로써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2] 세부 내용 : 실험의 세 가지 목적

2. 실험의 방법과 절차

• 실험 기간과 방법

실험은 방울토마토 모종²⁾을 화분에 심은 후 지렁이를 화분 속에 넣으면서 시작됩니다. 토마토의 열매가 빨갭게 익을 때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데, 토마토가 익으면 한 번의 관찰 기간이 마무리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모듬을 이루어서 흙과 지렁이의 상태는 어떤지, 방울토마토의 이파리와 열매의 개수는 몇 개인지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화분에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주면 지렁이가 그 음식을 먹고 똥을 싸고, 그 똥이 발효³⁾가 되어서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즉 지렁이 똥으로 만들어진 퇴비로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익은 방울토마토를 관찰 분석하여 실험의 결과를 얻습니다.

[3] 세부 내용 ① : 실험 기간과 방법에 대한 설명

• 지렁이의 서식 환경

실험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렁이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죽거나 화분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건조한 곳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렁이가 사는 화분의 흙은 언제나 촉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흙에 물을 자주 주어야 하고, 화분을 벌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체온에 지렁이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렁이에게 먹이를 줄 때는 장갑을 꼭 껴야 합니다.

- 주하나(학생), <관찰 실험 보고>

[4] 세부 내용 ② : 지렁이의 서식 환경에 대한 설명

[어휘 풀이] 1) 생태 -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 2) 모종 - 옮겨 심으려고 가꾼, 벼 이외의 온갖 어린 식물. 3) 발효 -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따위를 생기게 하는 작용.

313.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써야 한다.
- ② 목적 지향성이 강한 글이므로 보고문의 목적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③ 효과적인 전달이 중요한 글이므로 상징과 비유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간결하고 간명한 표현을 써야 한다.
- ⑤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위 실험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실험은?

- ① 오리를 이용한 벼농사 짓기
- ② 개 썰매를 이용해 겨울철 이동하기
- ③ 개를 이용한 방법 효과 알아보기
- ④ 소나무를 태운 연기로 모기 쫓기
- ⑤ 미꾸라지를 이용한 모기 유충 없애기

315. 위 보고서를 참고했을 때, 지렁이의 서식 환경으로 적절한 곳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그늘이 없는 맨땅
- ② 언제나 물이 흐르는 계곡
- ③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모래밭
- ④ 사람의 발길이 단지 않은 자갈밭
- ⑤ 이끼가 많고 습하며 그늘진 진흙 땅

316. [서술형] 위 실험의 목적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지렁이 먹이 주기

지렁이의 서식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먹이입니다. 지렁이는 채소 껍질이나 과일 껍질 등을 아주 잘 먹습니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종이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렁이는 농약이 묻어 있거나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기가 많은 음식은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잘 씻기지 않는 오렌지 같은 과일은 주지 않아야 하고 반찬처럼 염분이 많은 것은 씻어서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1] 세부 내용 ③ : 지렁이 먹이 주기



• 지렁이가 퇴비를 만드는 과정

지렁이는 음식도 먹고 음식이 묻어 있는 흙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소화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먹은 음식의 양분을 다 섭취¹⁾하지 못하고 똥으로 배출합니다. 지렁이가 먹고 싸고 하는 동안

땅은 기름지게 변합니다.

[2] 세부 내용 ④ : 지렁이가 퇴비를 만드는 과정

• 방울토마토 화분에 거름주기

퇴비는 지렁이의 먹이가 있는 부분의 흙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을 고르게 섞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방울토마토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세부 내용 ⑤ : 거름주기

• 방울토마토 기르기와 수확

방울토마토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양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가지치기²⁾를 해야 합니다. 가지가 너무 많으면 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밑의 줄기는 20cm 정도 본가지만 남겨 두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결순³⁾을 따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까 튼실한 방울토마토가 열렸습니다.

[4] 세부 내용 ⑥ : 방울토마토 기르기와 수확

3. 실험의 결과 및 의의

• 실험의 결과

빨갭게 익은 열매를 수확하여 시장에서 산 토마토와 당도⁴⁾를 비교해 보니 시장에서 산 토마토의 당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장의 토마토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달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 주하나(학생), <관찰 실험 보고>

[5] 세부 내용 ① : 실험 결과 - 지렁이를 이용한 방울토마토 재배 실험 결과

[어휘 풀이] 1) 섭취 - 생물체가 양분 따위를 몸속에 빨아들이는 일. 2) 가지치기 - 식물의 겉모양을 고르게 하고 웃자람을 막으며, 과실나무 따위의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겉가지 따위를 자르고 다듬는 일. 3) 결순 - 풀이나 나무의 원줄기 곁에서 돋아나는 순. 4) 당도 - 음식물에 들어 있는 단맛의 탄수화물 양을 그 음식물에 대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것.

317. 지렁이의 먹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 껍질
- ② 머리카락
- ③ 젓갈류의 반찬
- ④ 손톱이나 종이류
- ⑤ 사람이 먹다 남긴 밥

318. 지렁이 똥이 방울토마토의 퇴비로 적절한 이유는?

- ① 지렁이는 아무 음식이나 섭취하기 때문에
- ② 지렁이가 주로 방울토마토 밭에 살기 때문에
- ③ 지렁이가 다른 동물들의 배설물을 찾아가며 먹기 때문에
- ④ 지렁이가 소화력이 좋지 않아 많은 양분을 똥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 ⑤ 방울토마토는 지렁이 똥 외에 다른 퇴비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319. ㉠에 담긴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방울토마토는 당도에 의해 상품성이 좌우된다.
- ②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때에는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당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도가 높다.

- ③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때에는 흙을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당도가 높아진다.
- ④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당도가 높은 양질의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다.
- ⑤ 지렁이의 똥을 이용한 방울토마토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것에 비해 상품성이 월등히 뛰어나다.

320. [서술형] 지렁이가 방울토마토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실험의 의의

우리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싱싱하고 몸에 좋은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렁이는 일주일에 3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렁이는 쓰레기통으로 갈 음식물의 양을 줄여 주었고, 그 지렁이의 똥이 발효되어 생긴 퇴비로 키운 토마토는 당은 적게 함유하면서 단맛은 강한 유기농¹⁾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세부 내용 ② : 실험의 의의 - 유기농 방울토마토 재배 및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를 모두 이룸.

질의·응답

1. 지렁이를 만질 때 징그럽지 않았습니까?

➡ 저희가 돌보는 지렁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보통 지렁이와는 다릅니다. 굵기가 이쑤시개만 하고 길어도 손가락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그럽지 않습니다. 귀여워요.

2. 매일매일 기록하려면 바쁘지 않았나요? 쉬는 시간도 짧고 점심 시간도 밥 먹기 바쁘잖아요.

➡ 저희는 정해진 요일 점심 시간 때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날에는 밥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는 제 방울토마토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 주하나(학생), <관찰 실험 보고>

[2] 질의·응답 : 실험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청중의 질문과 답

[어휘 풀이] 1) 유기농 -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아니하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 방식.

321. 위 실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실험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심도 있는 주제를 드러내었다.
- ③ 실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 ④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⑤ 보고서 형식에 맞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322. 위 실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나날이 기록하였나요?
- ② 이러한 실험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③ 실험자는 원래 지렁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나요?
- ④ 실험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⑤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의 당도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323. [서술형] 위 실험의 의의를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관찰 실험 보고

주하나(학생)

㉠

보고 내용의 개관

제가 발표할 실험의 주제는 지렁이 똥을 이용한 방울토마토 기르기입니다. 지렁이는 신기하게도 땅과 작물에 좋은 퇴비를 만들어 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좋은 퇴비가 되는 똥을 배설하는 지렁이를 활용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기록하는 것이 이 실험의 주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

1. 실험의 목적

이 실험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렁이의 똥으로 만들어진 퇴비가 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생체 관찰을 해 봄으로써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 실험의 방법과 절차

• 실험 기간과 방법

실험은 방울토마토 모종²⁾을 화분에 심은 후 지렁이를 화분 속에 넣으면서 시작됩니다. 토마토의 열매가 빨갭게 익을 때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데, 토마토가 익으면 한 번의 관찰 기간이 마무리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모듬을 이루어서 흙과 지렁이의 상태는 어떤지, 방울토마토의 이파리와 열매의 개수는 몇 개인지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화분에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주면 지렁이가 그 음식을 먹고 ①똥을 싸고, 그 똥이 발효가 되어서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즉 지렁이 똥으로 만들어진 퇴비로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익은 방울토마토를 관찰 분석하여 실험의 결과를 얻습니다.

• 지렁이의 서식 환경

실험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렁이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②지렁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죽거나 화분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건조한 곳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렁이가 사는 화분의 흙은 언제나 촉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흙에 물을 자주 주어야 하고, 화분을 벌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체온에 지렁이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렁이에게 먹이를 줄 때는 장갑을 꼭 끼야 합니다.

• 지렁이 먹이 주기

지렁이의 서식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먹이입니다. 지렁이는 채소 껍질이나 과일 껍질 등을 아주 잘 먹습니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종이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렁이는 농약이 묻어 있거나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기가 많은 음식은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잘 씻기지 않는 오렌지 같은 과일은 주지 않아야 하고 반찬처럼 염분이 많은 것은 씻어서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 지렁이가 퇴비를 만드는 과정

지렁이는 음식도 먹고 음식이 묻어 있는 흙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소화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먹은 음식의 양분을 다 섭취하지 못하고 똥으로 배출합니다. 지렁이가 먹고 싸고 하는 동안 땅은 기름지게 변합니다.

• 방울토마토 화분에 거름주기

퇴비는 지렁이의 먹이가 있는 부분의 흙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을 고르게 섞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방울토마토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방울토마토 기르기와 수확

방울토마토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양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③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가 너무 많으면 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밑의 줄기는 20cm 정도 본가지만 남겨 두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결순을 따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까 튼실한 방울토마토가 열렸습니다.

3. 실험의 결과 및 의의

• 실험의 결과

빨갭게 익은 열매를 수확하여 시장에서 산 토마토와 당도를 비교해 보니 시장에서 산 토마토의 당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④시장의 토마토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달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 실험의 의의

⑤우리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싱싱하고 몸에 좋은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렁이는 일주일에 3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렁이는 쓰레기통으로 갈 음식물의 양을 줄여 주었고, 그 지렁이의 똥이 발효되어 생긴 퇴비로 키운 토마토는 당은 적게 함유하면서 단맛은 강한 유기농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응답

1. 지렁이를 만질 때 징그럽지 않았습니까?

➡ 저희가 돌보는 지렁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보통 지렁이와는 다릅니다. ⑥굵기가 이쑤시개만 하고 길어도 손가락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그럽지 않습니다. 귀여워요.

2. 매일매일 기록하려면 바쁘지 않았나요? 쉬는 시간도 짧고 점심 시간도 밥 먹기 바쁘잖아요.

➡ 저희는 정해진 요일 점심 시간 때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날에는 밥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는 제 방울토마토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 주하나(학생), <관찰 실험 보고>

324.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신속성과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 ②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주제를 바꿀 수 있다.
- ⑤ 필요에 따라 조작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

325. 위와 같은 글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
- ② 정보를 다루는 글이므로 사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목적 지향성이 강한 글이므로 글쓴이는 보고문의 목적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④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을 써야 한다.
- ⑤ 독자나 청중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등의 자료 제시는 삼가야 한다.

326.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실험 관찰한 것을 옮겨 적는다.
- ② 일반적으로 ‘보고 내용의 개관-세부 내용-질의·응답’의 형식을 띤다.
- ③ 보고할 대상의 특성과 상관없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일관되게 유지한다.
- ④ 위와 같은 글은 실험의 목적과 절차, 실험 과정 그리고 실험 결과와 궁금한 점 등을 기록한다.
- ⑤ 사건 취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는 ‘현장 상황, 사건의 원인과 결과, 사건의 처리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작성한다.

327. 위 글을 쓸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 : 서두 부분에 실험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중들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② 청수 : 또 다른 실험자들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언급해 줘야겠어.
- ③ 하연 : 보고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구적이고 현학적인 어휘들을 사용해야겠어.
- ④ 용석 : 실험 결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겠어.
- ⑤ 영주 :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렁이의 배설물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328. 위 실험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ㄱ. 직접 생체 관찰을 통한 깊이 있는 자연의 이해
- ㄴ. 방울토마토의 당도를 높이기 위한 재배 방법 강구
- ㄷ.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강구
- ㄹ. 방울토마토 재배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 ㅁ. 지렁이의 똥으로 만들어진 퇴비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 탐구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3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려고 ‘배설을 하고’라는 표현 대신 쓰였다.
- ② ㉡ : 지렁이를 키울 때 지렁이를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 : 양분을 열매까지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④ ㉣ : 위 실험을 통해 재배한 방울토마토가 시장의 것보다 품질이 더 좋음을 말하고 있다.
- ⑤ ㉤ : 지렁이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친숙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청중을 배려하고 있다.

330. ㉡에 들어갈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의 배설물과 식물의 성장
- ② 지렁이 똥을 이용한 방울토마토 기르기
- ③ 지렁이의 서식 환경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 ④ 성공적인 방울토마토 재배를 위한 방법 연구
- ⑤ 지렁이 똥의 성분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연구

331. ㉣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일거양득(一舉兩得)

滿開(만개) : 끝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② 일사천리(一瀉千里)
- ③ 일어탁수(一魚濁水)
- ④ 일조일석(一朝一夕)
- ⑤ 일희일비(一喜一悲)

332. [서술형] 위 실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을 때, ㉠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보고 내용의 개관	보고할 실험의 주제와 주 내용을 설명 - 지렁이 똥을 이용한 방울토마토 기르기
세부 내용	1. 실험의 목적 2. 실험의 방법과 절차 - 실험 기간 : 실험 기간은 모종을 화분에 심은 후 지렁이를 화분 속에 넣으면서 부터 토마토가 익을 때까지 - 실험 방법 : ㉠ - 지렁이의 서식 환경 : 지렁이가 사는 화분의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하며, 지렁이에게 먹이를 줄 때는 장갑을 끼야 함. - 실험의 절차 : 지렁이 먹이 주기 - 지렁이가 퇴비를 만드는 과정 - 방울토마토 화분에 거름주기 - 방울토마토 기르기와 수확 3. 실험의 결과 및 의의 - 실험의 결과 : 시장의 토마토에 비해 당도는 낮았지만 달고 맛있게 느껴졌음. - 실험의 의의 : 유기농 방울토마토 재배 및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를 모두 이룸.
질의·응답	실험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

333. 위 실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한다고 할 때, 그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시된 보고문의 가본 틀은 유지하자.
- ② ‘질의·응답’에서 예상되는 질의 내용을 더 보강해서 준비하자.
- ③ ‘보고 내용의 개관’에서 ‘실험 주제’와 ‘실험의 내용’을 나누어 전달하자.
- ④ 청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므로 자료는 더 추가하지 말자.
- ⑤ ‘세부 내용’에서 실험 절차와 관련된 정보들을 과정의 전개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전달하자.

334. 위 글을 청중을 달리하여 보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치원생 : 보다 쉽고 기초적인 수준의 사실만을 전달하고,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 그림이나 캐릭터 등을 활용한다.
- ② 고등학생 : 이 실험의 기본 원리를 생물 시간에 배웠던 유사한 내용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례에 응용하여 제시한다.
- ③ 생물 전공자 : 이러한 유기농법의 기원과 장단점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 ④ 농업 종사자 : 이러한 재배 방법의 장점을 부각시켜 보다 널리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도표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이용하여 심도 있게 접근한다.
- ⑤ 가정주부 : 최근 농산물의 유해성을 강조하여 미래 사회에는 가정에서 식품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해야 함과 이러한 재배 방법이 대안임을 강조한다.

335. [서술형] 위 글을 참고하여 지렁이에게 적절한 서식 환경을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336. [서술형] 위 글을 참고하여 지렁이의 배설물에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천체박]6-2 보도하기

6(2) 보도하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나친 빛은 공해



진행자 : 어지러운 네온사인 불빛과 무절제한 조명으로 인해 서울의 야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연속 보도 '서울의 빛', 오늘은 야경의 모범 도시로 불리는 요코하마와 파리의 야경을 서울의 야경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처음 - 문제 제기 및 보도 내용 소개



기자 : 야간 경관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일본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는 일본 최초로 지난 1986년부터 ㉠도시 야간 경관¹⁾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 불빛도 관리 대상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미나토 미라이 21' 지구는 거리에 간판이 거의 없으며 불빛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나오요키/요코하마 시 수석 디자이너 : 빛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밤 9시나 10시 이후에는 불빛을 약하게 하고 심야에는 불을 끄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 파리 시는 샹젤리제 거리의 연말연시 가로수 조명을 올해부터 푸른빛의 ㉡엘이디(LED)²⁾ 전구로 교체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친환경성을 중시한 선택입니다. 전력 사용량도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마드리드/파리 시 도시 계획국장 : ㉢하향 조명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어두운 밤하늘을 보존하고 있으며 전력 소모량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2] 종간 ㉠ - 요코하마, 파리의 야경 관리의 우수성과 각 행정 담당자와의 인터뷰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기자 : 서울의 밤거리 풍경입니다. 상가 지역의 네온사인 이 뿜어내는 강한 불빛은 공해에 가깝습니다. 대형 전광판 불빛도 눈을 자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면 낮에 유지하던 빛의 세기, 휘도³⁾를 낮춰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가로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란 불빛은 도시의 색을 왜곡하고 물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노란 나트륨등과 백색 등 아래에 각각 서 보았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윤곽을 비교한 결과, 백색 등이 더 선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영걸/서울시 디자인 본부장 : 환경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밤에도 ⊕낮과 유사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운전자들도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중간 ② - 서울 야경의 문제점과 행정 담당자와의 인터뷰 제시

기자 : 갈수록 야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의 불빛 하나하나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공공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나친 빛은 공해>

[4] 끝 - ‘공공의 빛’이 되어야 할 야경

[어휘 풀이] 1) 경관 -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2) 엘이디(LED) - 발광다이오드. 접합부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금속 간 화합물 접합 다이오드. 소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의 빛을 얻을 수 있으며, 전자 제품에서의 문자나 숫자 표시 따위에 쓴다. 3) 휘도 - 광원(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

337. 위 기사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목 : 전체 기사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 ② 전문 : 기사의 핵심 내용과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장 취재 : 모범 사례 현장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인터뷰 : 기사 내용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 행정 담당자의 인터뷰를 삽입하고 있다.
- ⑤ 마무리 :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338. 위와 같은 뉴스를 보도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뉴스 가치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향성 :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수록 뉴스 가치가 높다.
- ② 시의성 : 사건을 취재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가 없을수록 뉴스 가치가 높다.
- ③ 흥미성 :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줄수록 뉴스 가치가 높다.
- ④ 저명성 : 보도 대상인 인물 또는 단체가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뉴스 가치가 높다.
- ⑤ 근접성 :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 혹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질수록 뉴스 가치가 높다.

339. [서술형] 위 기사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십시오.

340. 위 방송 보도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각 국가 및 도시의 야경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조명 기술의 척도가 된다.
- ② 서울시가 야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보다 뒤쳐지는 경제력 때문이다.
- ③ 프랑스 파리는 세계 패션의 중심인 도시이기 때문에 야경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 ④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야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 ⑤ 서울의 야경에 문제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관련 규정 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을 들 수 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341. 위 방송 보도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의 말과 영상을 삽입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모범이 되는 도시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군.
- ③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군.
- ④ 외국의 도시와 대조되는 서울의 야경을 보여 주며 그 문제점을 시민 의식에서 찾고 있군.
- ⑤ 진행자의 말로 보도의 핵심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관심을 환기하고 있군.

342.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나친 빛은 공해

진행자 : 어지러운 네온사인 불빛과 무절제한 조명으로 인해 서울의 야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연속 보도 ‘서울의 빛’, 오늘은 야경의 모범 도시로 불리는 요코하마와 파리의 야경을 서울의 야경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야간 경관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일본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는 일본 최초로 지난 1986년부터 도시 야간 경관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 불빛도 관리 대상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미나토 미라이 21’ 지구는 거리에 간판이 거의 없으며 불빛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나오요키/요코하마 시 수석 디자이너 : 빛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밤 9시나 10시 이후에는 불빛을 약하게 하고 심야에는 불을 끄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 파리 시는 샹젤리제 거리의 연말연시 가로수 조명을 올해부터 푸른빛의 엘이디(LED) 전구로 교체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친환경성을 중시한 선택입니다. 전력 사용량도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마텍/파리 시 도시 계획국장 : 하향 조명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어두운 밤하늘을 보존하고 있으며 전력 소모량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자 : 서울의 밤거리 풍경입니다. 상가 지역의 네온사인이 뿜어내는 강한 불빛은 공해에 가깝습니다. 대형 전광판 불빛도 눈을 자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면 낮에 유지하던 빛의 세기, 휘도를 낮춰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가로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란 불빛은 도시의 색을 왜곡하고 물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노란 나트륨등과 백색 등 아래에 각각 서 보았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윤곽을 비교한 결과, 백색 등이 더 선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영걸/서울시 디자인 본부장 : 환경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밤에도 낮과 유사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운전자들도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 갈수록 야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거리의 불빛 하나하나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공공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나친 빛은 공해>

343.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복잡하고 자세한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
- ②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소리를 보도에 포함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③ 전달 내용과 화면이 동시에 비치기 때문에 현장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④ 보도하는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와 음악의 조화를 통해 보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⑤ 글이 아닌 시청각적 영상으로 전달되므로 내용을 되풀이해서 보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

344.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매체에 따라 그 전달 방식이 달라진다.
- ③ 사실성, 신속성, 정확성을 중요시한다.
- ④ 공적 장르의 글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 ⑤ 작성자의 주관적인 성향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작성한다.

滿開(만피)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345. 위 기사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목 : 전체 기사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 ② 전문 : 무절제한 조명이 서울의 야경을 망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체 기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장 취재 : 야경 모범 사례의 현장을 직접 취재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④ 인터뷰 : 기사 내용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 행정 담당자의 인터뷰를 삽입하고 있다.
- ⑤ 마무리 : 사실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에게 맡기고 있다.

346. [서술형] 위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가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서술하십시오.

3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사 말미에 기자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 ② 야경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의 야경 담당자와 인터뷰하여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서울의 빛’이라는 큰 테마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내용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일본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도시를 비교하여 동양의 야경이 서양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다른 외국 도시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서울 야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야경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48. 위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각 도시의 야경 상태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	야경의 상태
①	일본 요코하마	경제적, 친환경적
②	일본 요코하마	엘이디 사용으로 인한 색 왜곡
③	프랑스 파리	장기적, 체계적 관리
④	대한민국 서울	디자인 중시, 환경 친화성
⑤	대한민국 서울	관리 소홀, 도시의 색 왜곡

349. <보기>는 보도 내용을 결정하는 뉴스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위 보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뉴스 가치란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뉴스를 공표하기 전에 많은 보도 자료 가운데 어떤 자료를 최종 공표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치 척도를 말한다. 이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중요성과 흥미성이 있다. 이중 중요성의 요소에는 다시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등이 있다.

- ① 기자의 관심 분야를 살려 보도하는 것은 흥미성과 관련된다.
- ② 지하철 노조 파업과 같이 그 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수록 영향성이 높게 나타난다.
- ③ 근접성에는 지리적 근접성과 심리적 근접성이 있는데, 자신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을 ‘지리적 근접성’이라고 한다.
- ④ 뉴스의 보도가 지연되어 그 시의성을 잃게 되면 그것은 곧 뉴스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에 각 언론에서는 일초라도 빨리 보도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다.
- ⑤ 유명 인사나 연예인의 사생활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뒤 이를 신문이나 잡지사에 고액으로 팔아넘기는 파파라치는 보도 대상의 저명성과 관련이 깊다.

350. 위 보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도시의 멋을 느끼는데, 굳이 친환경적인 조명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 ②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왜 하필 조명 문제만 언급을 했을까? 오히려 교통 문제나 주택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 ③ 굳이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찾을 필요 없이

야경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다른 도시의 야경과 비교했다면, 개선 방안을 찾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 ④ 해외의 모범 사례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어. 오히려 우리만의 멋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 ⑤ 프랑스 파리에서 엘이디를 선택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우리도 어서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서 더욱 좋은 품질의 조명 기기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35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취재하여 시청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 ②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시작하고 있다.
- ③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의 멘트와 영상으로 보도를 시작하여 현장감을 잘 살리고 있다.
- ④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스튜디오에서 기자의 목소리를 빌어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352. [서술형] <보기>는 기자 수업을 받은 한 인턴 기자의 메모이다. 이를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을 본문에서 찾아 옮겨 쓰시오.

보 기

리드만 잘 써도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리드를 잘 쓰면 편집 기자의 입장에서든 유용할 것이다.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면 리드 쓰는 연습을 하라는 선배의 말을 기억해야겠다. 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넣고 나머지 내용은 과감히 빼 버린 다음 그 다음 본문에 넣는 것이 좋다. 또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짧고 쉬우며 명확한 구어체로 써야 한다.

[천체박]6-3 식사문쓰기

6(3) 식사문 쓰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봄빛이 눈부신 계절입니다. 만물이 새 기운을 얻고 일어서는 이 좋은 시절에 ‘숲 살림 국민운동’ 창립 8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참가하신 숲을 사랑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¹⁾로 바쁘신데도 오늘의 이 행사를 위해 오신 산림청장님과 관계 연구 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 들어가는 말 - 식의 목적 제시 및 감사 인사

‘숲은 희망이다.’ 라는 원대한 기치²⁾ 아래 꾸준히 힘써 온 숲 살림 국민운동 본부 임원진과 운영 위원들, 회원들 사무처 직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오늘을 뜻깊게 맞았습니다. 무한한 생명력과 영험³⁾함으로 인간 생활을 받쳐 주고 있는 자연, 그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은 곧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도와주는 동반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숲 살림 국민운동’ 이 시작된 지 불과 8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성을 우리 생활에 연결시켜 왔고, 당대만이 아니라 먼 후손들에게까지 더욱 윤택한 생태 환경을 물려주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2] 단체의 업적 소개 - ‘숲 살림 국민운동’의 현황

근래 엘니뇨 현상⁴⁾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때 아닌 폭설이나 대홍수 등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구의 산소통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 지대의 훼손 등 과도한 자연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집중적인 산림녹화 정책을 범국민운동으로 펼침으로써 녹화 정책이 실시된 지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조림(造林)⁵⁾ 정책이 성공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관심이 도시에만 집중되어 숲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림지의 성장목이 잘 자라도록 때맞춰서 솎아주기 와 가지치기를 해 주지 않아 나무가 정상적으로 쓰임새 있

게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숲의 물 저장 능력이 저하되어 야생 동식물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업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잘 가꾸어진 숲은 다목적 댐과 맞먹는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연간 약 15조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게 하며, 연 240억 톤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유엔(UN)에서는 2020년경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 열심히 숲을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공기를 맑게 하고 지구 온난화 진행도 어느 정도 막아 주기도 하므로 숲을 잘 가꾸는 일은 우리 국토뿐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3] 상황 제시 - 세계의 환경 변화와 우리 나라의 물 부족 가능성 경고

우리의 노력은 이제 산의 숲 가꾸기에서 학교의 숲, 마을의 숲, 도시의 숲으로 확대되어 살기 좋은 생활권을 조성하는 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공서에서는 담을 없애고 나무를 심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35만 평 규모의 가족공원 ‘서울 숲’을 만들었습니다. ㉡‘난지도 하늘 공원’, ‘노을 공원’ 이 이루어졌고 ‘용산 가족 공원’이 조성되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산림 포럼’과 ‘평화의 숲’에서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북한의 나무 심기를 지원하는 등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단체의 성과 - 살기 좋은 생활권 조성 사업으로의 확산

이러한 국가 발전 계획에 연결되는 엄청난 일들이 의욕적으로 진행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숲 살림 국민운동’을 창설하여 주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 기업, 성금을 내고 자원 봉사를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숲 살림 국민운동’ 은 제2의 도약기⁶⁾로 들어서려 합니다. ㉤녹색 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고 국내외 협력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 원대한 계획을 담은 ‘숲 살림 2020’ 중장기 계획서를 오늘 발표합니다.

[5]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 - ‘숲 살림 2020’ 선포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숲 살림 국민운동’은 순수한 숲 운동 녹색 환경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고 우리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숲 살림 국민운동’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후란, <숲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6] 마무리 인사말 - ‘숲 살림 국민운동’의 미래에 대한 다짐과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어휘 풀이] 1) 공무 -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 혹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 2) 기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태도나 주장. 3) 영험 - 사람의 기원으로 되는 신기한 징험. 4) 엘니뇨 - 해양학·기후학에서,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페루 해류 속에 몇 년에 한 번 이상 난류가 흘러드는 현상. 5) 조림 -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따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함. 6) 도약기 -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시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5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식 행사를 위해 쓴 글이다.
- ② 숲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③ 청중들의 무관심을 암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④ 도입부에서 계절 인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⑤ 그 동안의 단체의 업적과 전망을 함께 언급하며 행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35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분별한 환경 파괴는 지구 반대편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② 인간은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 ③ 자연은 무한한 생명력과 영험함으로 인간 생활을 받쳐주고 있다.
- ④ 친자연적인 삶은 곧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한 삶이기도 하다.
- ⑤ 엘니뇨 현상이나 때 아닌 폭설 등 기상 이변은 인간이 만들어 낸 재해이다.

355. 우리 나라 숲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 240억 톤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
- ② 1960년대 이후부터 정책적으로 빠르게 조성 되었다.

- ③ 조성은 빠르게 되었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했다.
- ④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 ⑤ 국가적 관심이 도심에만 집중되어 숲에 대한 관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56. [서술형] 위 글에 제시된 숲의 기능을 쓰시오.

357. 위와 같은 글의 유형과 그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환송사 : 축하 의식이나 회합에서 참석자나 하객이 주최자의 식사에 대한 답사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② 취임사 :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는 의식이나 회합에 관련된 식사문으로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쁨을 담아야 한다.
- ③ 추도사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을 위로 하는 한편, 고인의 업적이나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일화 등을 소개한다.
- ④ 축사 : 재직 중 협조해 준 상관과 부하에 대한 감사, 석별의 아쉬움, 후임자와 상관 및 부하의 건강과 행복 축원, 끝인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 ⑤ 이임사 : 참석자들과 구성원에 대한 인사, 전임자의 공로 칭찬, 앞으로의 포부 및 복무 방침 천명, 동료와 부하에 대한 당부, 전임자의 앞날 축원, 끝인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358. ‘숲 살림 국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도심의 숲 가꾸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 ② 전국의 학교와 관공서의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비판하며 담장을 없앴다.
- ③ 중국과 몽골뿐 아니라 북한에도 나무 심기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영향권을 넓혀 가고 있다.
- ④ 이 단체는 국내의 숲 조성뿐 아니라 수자원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 방지도 노력해 기울이고 있다.
- ⑤ 과거의 업적을 토대로 사회 각계의 사람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이익까지 창출해 내는 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359.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③ ㉠
④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숲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가] 봄빛이 눈부신 계절입니다. 만물이 새 기운을 얻고 일어서는 이 좋은 시절에 ‘숲 살림 국민운동’ 창립 8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참가하신 숲을 사랑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로 바쁘신데도 오늘의 이 행사를 위해 오신 산림청장님과 관계 연구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숲은 희망이다.’ 라는 원대한 기치 아래 꾸준히 힘써 온 숲 살림 국민운동 본부 임원진과 운영 위원들, 회원들 사무처 직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오늘을 뜻깊게 맞았습니다. 무한한 생명력과 영험함으로 인간 생활을 받쳐 주고 있는 자연, 그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은 곧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도와주는 동반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 ‘숲 살림 국민운동’ 이 시작된 지 불과 8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성을 우리 생활에 연결시켜 왔고, 당대만이 아니라 먼 후손들에게까지 더욱 윤택한 생태환경을 물려주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 근래 엘니뇨 현상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때 아닌 폭설이나 대홍수 등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구의 산소통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 지대의 훼손 등 과도한 자연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집중적인 산림녹화 정책을 범 국민운동으로 펼침으로써 녹화 정책이 실시된 지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조림(造林) 정책이 성공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관심이 도시에만 집중되어 숲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조림지의 성장목이 잘 자라도록 때맞춰서 속아주기와 가지치기를 해 주지 않아 나무가 정상적으로

쓰임새 있게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숲의 물 저장 능력이 저하되어 야생 동식물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업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잘 가꾸진 숲은 다목적 댐과 맞먹는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 연간 약 15조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게 하며, 연 240 억 톤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유엔(UN)에서는 2020년경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 열심히 숲을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공기를 맑게 하고 지구 온난화 진해도 어느 정도 막아 주기도 하므로 숲을 잘 가꾸는 일은 우리 국토뿐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라] 우리의 노력은 이제 산의 숲 가꾸기에서 학교의 숲, 마을의 숲, 도시의 숲으로 확대되어 살기 좋은 생활권을 조성하는 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공서에서는 담을 없애고 나무를 심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35만 평 규모의 가족공원 ‘서울 숲’을 만들었습니다. ‘난지도 하늘 공원’, ‘노을 공원’ 이 이루어졌고 ‘용산 가족 공원’이 조성되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산림 포럼’과 ‘평화의 숲’에서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북한의 나무 심기를 지원하는 등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발전 계획에 연결되는 엄청난 일들이 의욕적으로 진행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숲 살림 국민운동’을 창설하여 주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 기업, 성금을 내고 자원 봉사를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마] ‘숲 살림 국민운동’ 은 순수한 숲 운동 녹색 환경 운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고 우리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숲 살림 국민운동’ 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후란, <숲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360. 위와 같은 종류의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청중의 일시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②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가 명쾌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 ③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미사여구를 구사하여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 ④ 행사의 성격에 잘 맞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행사의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 ⑤ 누구나 듣기 쉽고 공감하기 쉬운 어투로 작성하여 청중을 앞에 두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36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체의 업적을 소개하여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② 계절과 관련된 인사로 글을 시작하여 친근함을 주고 있다.
- ③ 단체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청중을 고려하여 단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도입부에서 내외빈에 대한 인사와 함께 행사의 목적을 밝힘으로써 글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⑤ 단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미래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청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62. 위 글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 ①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조림 정책에 성공하였군.
- ② ‘숲 살림 국민운동’과 관련된 관공서의 관리 및 관계자들을 청중으로 하고 있네.
- ③ 많은 숲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를 덜어 낼 수 있겠어.
- ④ 국내뿐 아니라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군.
- ⑤ ‘숲 살림 국민운동’은 우리나라의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야.

36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숲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숲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는 필자의 뜻이 담겨 있다.
- ② ㉡ : 제목과 연계하여 행사의 성격과 함께 글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 ③ ㉢ : 자연을 함부로 훼손할 경우 그 대가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옴을 경고하고 있다.
- ④ ㉣ :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 숲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적인 이익에 있음을 알려 준다.

364. [서술형] 살기 좋은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한 ‘숲 살림 국민운동’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365. 위 글을 읽고 난 후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엘니뇨 현상 같은 자연 재해는 인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군.
- ② 학교나 관공서의 담을 없애고 나무를 심은 것은 권위주의적이었던 공무원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군.
- ③ 우리나라는 녹지를 잘 갖추고 있으니 양질의 목재를 수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겠군.
- ④ 숲을 조성하는 일은 일부 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관계 기관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겠군.
- ⑤ ‘숲 살림 2020’의 내용을 보니 이 단체는 그 동안의 결과에 만족하며,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2020년까지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군.

366. <보기>의 내용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보기

이제 ‘숲 살림 국민운동’은 제2의 도약기로 들어서려 합니다. 녹색 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고 국내외 협력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 원대한 계획을 담은 ‘숲 살림 2020’ 중장기 계획서를 오늘 발표합니다.

- ① [가]의 뒤
- ② [나]의 뒤
- ③ [다]의 뒤
- ④ [라]의 뒤
- ⑤ [마]의 뒤

367. [서술형] 위 글을 참고하여 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368. [서술형] 위 글의 주제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천체박] 6단원 추가

상6(종합) 표현과 전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렁이의 똥을 이용한 방울토마토 기르기

보고 내용의 개관

제가 발표할 실험의 주제는 지렁이 똥을 이용한 방울토마토 기르기입니다. 지렁이는 신기하게도 땅과 작물에 좋은 퇴비를 만들어 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좋은 퇴비가 되는 똥을 배설하는 지렁이를 활용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기록하는 것이 이 실험의 주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

1. 실험의 목적

㉡이 실험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렁이의 똥으로 만들어진 퇴비가 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생태 관찰을 해 봄으로써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2. 실험의 방법과 절차

· 실험 기간과 방법

실험은 방울토마토 모종을 화분에 심은 후 지렁이를 화분 속에 넣으면서 시작됩니다. 토마토의 열매가 빨갛게 익을 때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데, 토마토가 익으면 한 번의 관찰 기간이 마무리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모듬을 이루어서 흙과 지렁이의 상태는 어떤지, 방울토마토의 이파리와 열매의 개수는 몇 개인지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화분에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주면 지렁이가 그 음식을 먹고 똥을 싸고, 그 똥이 발효가 되어서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즉 지렁이 똥으로 만들어진 퇴비로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익은 방울토마토를 관찰 분석하여 실험의 결과를 얻습니다.

· 지렁이의 서식 환경

실험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렁이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죽거나 화분바깥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건조한 곳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렁이가 사는 ㉢화분의 흙은 언제나 축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흙에 물을 자주 주어야 하고, 화분을 별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체온에 지렁이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렁이에게 먹이를 줄 때는 장갑을 꼭 끼야 합니다.

· 지렁이 먹이 주기

지렁이의 서식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먹이입니다. 지렁이는 채소 껍질이나 과일 껍질 등을 아주 잘 먹습니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종이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렁이는 농약이 묻어 있거나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잘 씻기지 않는 오렌지 같은 과일은 주지 않아야 하고 반찬처럼 염분이 많은 것은 씻어서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 지렁이가 퇴비를 만드는 과정

지렁이는 음식도 먹고 음식이 묻어 있는 흙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소화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먹은 음식의 양분을 다 섭취하지 못하고 똥으로 배출합니다. 지렁이가 먹고 싸고 하는동안 땅은 기름지게 변합니다.

· 방울토마토 화분에 거름주기

퇴비는 지렁이의 먹이가 있는 부분의 흙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을 고르게 섞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방울토마토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방울토마토 기르기와 수확

방울토마토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양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가 너무 많으면 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밑의 줄기는 20cm 정도 본가지만 남겨 두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결순을 따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까 튼실한 방울토마토가 열렸습니다.

3. 실험의 결과 및 의의

· 실험의 결과

빨갛게 익은 열매는 수확하여 시장에서 산 토마토와 당도를 비교해 보니 시장에서 산 토마토의 당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장의 토마토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달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 실험의 의의

우리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싱싱하고 몸에 좋은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렁이는 일주일에 3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렁이는 쓰레기통으로 갈 음식물의 양을 줄여 주었고, 그 지렁이의 똥이 발효되어 생긴 퇴비로 키운 토마토는 당은 적게 함유하면서 단맛은 강한 유기농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 · 응답

1. 지렁이를 만질 때 징그럽지 않았습니까?

→ 저희가 돌보는 지렁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보통 지렁이와는 다릅니다. 굵기가 이쑤시개만 하고 길어도 손가락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그럽지 않습니다. 귀여워요.

2. 매일매일 기록하려면 바쁘지 않았나요? 쉬는 시간도 짧고 점심 시간도 밥 먹기 바쁘잖아요.

→ 저희는 정해진 요일 점심 시간 때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날에는 밥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는 제 방울토마토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369. 위 실험의 절차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 ① 지렁이를 화분 속에 넣는다.
- ② 지렁이의 똥을 비료로 사용한다.
- ③ 다 익은 토마토를 관찰, 분석한다.
- ④ 방울토마토 모종을 화분에 심는다.
- ⑤ 흙과 지렁이의 상태를 매일 기록한다.

370.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질문으로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실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용어를 최대한 구사하고 있다.
- ④ 보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학문적인 용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있다.
- ⑤ 실험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유사한 연구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371. 위 글을 참고하여 지렁이의 서식 환경을 조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 ① 땅의 습도
- ② 먹이의 양
- ③ 흙의 색깔
- ④ 화분의 크기
- ⑤ 작물의 종류

372. [서술형] 위 글을 토대로 지렁이의 똥이 퇴비가 되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373. 위 글의 짜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고 내용의 개관	
㉡ 세부내용	1. 실험의 목적
	2. ㉢ 실험의 방법과 절차
	3. ㉣ 실험의 결과 및 의의
㉤ 질의·응답	

- ① ㉠ : 보고할 실험의 주제와 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② ㉡ : 독자들이 실험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다.
- ③ ㉢ : 실험 방법과 주의 사항을 자세히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 : 위 실험은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것에도 성공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⑤ ㉤ : 실험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시간으로 최대한 공격적인 자세로, 발표자가 당황하여 스스로 오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滿開(만피)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37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적 쉽고 친숙한 어휘를 선택하였다.
- ② ㉡ : 실험의 목적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불분명하다.
- ③ ㉢ : 지렁이는 건조한 곳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④ ㉣ : 지렁이의 먹이는 특별히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다.
- ⑤ ㉤ : 양분이 불필요하게 분산되지 않고 열매로 집중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375. ㉡의 내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와 속담을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삼고초려(三顧草廬) - 꿩 먹고 알 먹는다.
- ② 일거양득(一舉兩得) - 님도 보고 뽕도 탄다.
-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 ④ 조삼모사(朝三暮四) - 마당 쓸고 동전 줍는다.
- ⑤ 일석이조(一石二鳥)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376. 위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강돈 : 지렁이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알아 봐야겠어.
- ② 현아 : 일반적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방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 ③ 관순 :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보다 효능이 좋은 농약이나 비료를 찾아봐야겠어.
- ④ 재현 : 지렁이 똥이 아닌 가지치기가 실험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증명하겠어.
- ⑤ 향진 : 어떤 종류의 지렁이가 가장 몸집이 큰지 조사해 봐야겠어.

377. <보기>의 질문에 대해 위 글의 글쓴이가 작성했을 댓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Q : [아기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O^/~

↳A : [큰 토마토] 햇별이 잘 들어야 꽃이 잘 필니다. 꼭 햇별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키우세요.

..... ①

↳A : [지렁이 똥] 지렁이와 함께 키워 보세요. 지렁이가 토마토 나무의 시든 잎을 먹어서 깨끗하게 재배할 수 있어요. ②

↳A : [농사 달인] 가지치기도 무척 중요해요. 밑의 줄기는 20cm정도 분가지만 남겨 두고 자르고, 가지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결순을 따 줘야 해요. ③

↳A : [유기농 짱] 요즘엔 유기농 재료로 만든 비료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비료들을 충분히 뿌리면 당도 높은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어요. ④

↳A : [일석이조] 아무래도 퇴비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죠. 먹다 남은 음식쓰레기들을 땅에 뿌려주시면 땅에서 썩으면서 흙의 양분을 풍부하게 만들어 줘요. ⑤

378.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방울토마토의 당도와 껍질 색깔과의 관계는?
- ② 지렁이의 종류에 따른 방울토마토 재배 효과는?
- ③ 화분의 흙을 골고루 잘 섞어 주어야 하는 이유는?
- ④ 지렁이를 이용한 재배법을 대신 할 수 있는 동물은?
- 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방울토마토가 몸에 더 좋은 이유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나친 빛은 공해

㉠**진행자** : 어지러운 네온사인 불빛과 무절제한 조명으로 인해 서울의 야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연속 보도 ‘서울의 빛’ 오늘은 야경의 모범 도시로 불리는 요코하마와 파리의 야경을 서울의 야경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야간 경관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일본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는 일본 최초로 지난 1986년부터 도시 야간 경관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 불빛도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관리 대상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미나토 미라이 21’ 지구는 거리에 간판이 거의 없으며 불빛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나오요키 / 요코하마 시 수석 디자이너 : 빛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밤 9시나 10시 이후에는 불빛을 약하게 하고 심야에는 불을 끄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 파리 시는 상젤리제 거리의 연말연시 가로수 조명을 올해부터 푸른빛의 엘이디(LED) 전구로 교체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친환경성을 중시한 선택입니다. 전력 사용량도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마텍 / 파리 시 도시 계획 국장 : 하향 조명을 사용하는 원칙을 세우고 어두운 밤하늘을 보존하고 있으며 전력 소모량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자 : 서울의 밤거리 풍경입니다. 상가 지역의 네온사인 이 뿜어내는 강한 불빛은 공해에 가깝습니다. 대형 전광판 불빛도 눈을 자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면 낮에 유지하던 빛의 세기, 휘도를 낮춰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가로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란 불빛은 도시의 색을 왜곡하고 물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노란 나트륨 등과 백색 등 아래에 각각 서 보았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윤곽을 비교한 결과, 백색 등이 더 선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영걸 / 서울시 디자인 본부장 : 환경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밤에도 낮과 유사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운전자들도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 갈수록 야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의 불빛 하나하나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공공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79. 다음 방송 보도문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위 글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성	내용
제목	기사 전체 내용을 압축
전문	기사의 첫 부분으로 기사 전체의 핵심과 방향을 유도함.
본문	전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 현장 취재, 인터뷰 등

- ① 제목 : ‘지나친 빛은 공해’라는 제목을 통해 서울 야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보도 전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전문 : 진행자의 첫 멘트 부분에 해당하며, 보도의 핵심과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 ③ 현장 취재 : 보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모범 사례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인터뷰 :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을 인터뷰하여 기사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마무리 :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 아래 친환경적인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80. 위 보도가 시청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사라고 가정할 때, 제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①이곳에 와 보니 서울 거리에서 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야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과 비교하면 ②서울의 야경은 무분별하게 빛의 낭비만 심할 뿐 보기도 좋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알아보니 ③이곳은 예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④도시의 테마에 맞추어 통일감 있게 조명을 설치해서 서울의 그것보다 화려하면서도 예술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기자님께서 이곳의 야경을 직접 보신 다음 서울 야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취재를 통해 밝혀 주신다면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곳 말고도 예전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봤는데, ⑤그쪽의 야경 또한 서울의 그것과는 달리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야경도 변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381.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 : 뉴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언급함으로써 시청자가 뉴스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② ㉡ :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생동감 있게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 ③ ㉢ : 뉴스의 신뢰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당위성이 드러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 : 뉴스의 흥미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청자가 다양한 나라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⑤ ㉤ : 기자가 의도하는 문제 해결 방향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382. <보기>는 ‘서울의 야경’에 대한 또 다른 신문 기사이다. <보기>의 기자가 위 글의 기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서울의 밤은 아름답다 다양한 장소에서 즐기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밤이 되면 빛에 휩싸인 서울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너무나 예쁜 그대’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점점이 박힌 도로, 서울이 뿜어내는 불빛을 수면 위로 튕겨 올리는 한강, 늦게까지 불이 꺼질 줄 모르는 마천루가 즐비한 시내의 야경은 화려하다. 모두가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주택가의 야경도 아름답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듯한 가로등이 은은한 빛을 풍긴다.

서울의 야경을 어디에서 감상하는 게 좋을까. 높이 올라갈수록 야경은 아름답다.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남산의 ‘N 서울 타워’에서는 서울 어디나 다 보인다. 야경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는 케이블카 이용을 권한다.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 천천히 멀어져가는 서울의 밤이 근사하다. 유람선이나 한강 교량 위의 카페에서 보는 서울 한강변의 야경 또한 매우 아름답다. 한강 교량 24곳 중 올림픽 대교, 청담 대교, 영동 대교 등의 경관 조명이 켜진 모습을 한강에 반사되어 그야말로 예술 작품 속에 들어온 느낌을 갖게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한강 교량 전망썬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실려 있다.

가벼운 등산도 괜찮다면 서울이나 인근 산에 올라가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은 봄마다 낮에는 개나리, 밤에는 야경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출사족들의 야경 촬영지로 1순위를 달리는 곳이기도 하다. 불 밝힌 한강과 시내가 한눈에 보여 산에 오른 보람이 느껴진다. 또 다른 명소는 경기도 남한산성 서문에 올라서면 서울 전체가 거대한 화폭의 그림처럼 확 펼쳐진다.

- ① 서울의 야경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접근하려 한 것

은 아닌지요? 서울에도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② 전문가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기자로서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 ③ 해외의 야경만 예찬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의 도시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 ④ 우리의 조명 기술도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것이면 모두 훌륭하다는 그릇된 판단은 자칫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 ⑤ 같은 대상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비록 전력 낭비가 좀 되더라도 화려한 야경을 통해 관광 사업이 발달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3. 위 글과 신문 기사문인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나친 빛은 공해 어지러운 네온사인 불빛과 무절제한 조명으로 서울의 야경 망가져

서울의 야경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야경과 비교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의 야경은 삭막한 도시를 영화 속 풍경처럼 낭만적으로 바꿔 준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성탄절 야경은 곧 그 도시의 이미지이자 관광객을 끄는 매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어떨까. 상가 지역의 네온사인이 뿜어내는 강한 불빛은 공해에 가깝다. 거리에 가득한 대형 전광판 불빛도 눈을 자극하기는 마찬가지다. 밤이 되면 낮에 유지하던 빛의 세기, 휘도를 낮춰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가로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란 불빛은 빛을 주변 스펙트럼의 좁은 영역으로 방사하여 노란색이 아닌 물체에 대한 우리의 색 인식을 왜곡하고 물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한다. 실제로 노란 나트륨등과 백색 등 아래에서 같은 사물의 윤곽을 비교한 결과, 백색 등이 노란 나트륨등보다 더 선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지 않는 노란 나트륨등은 자칫 운전자의 시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높다.

야경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요코하마의 사정은 어떨까. 요코하마는 일본 최초로 지난 1986년부터 도시 야간 경관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간판 불빛까지도 관리 대상이다. 바다를 메워 만든 ‘미나토 미라이 21’ 지구는 거리에 간판이 거의 없으며

불빛도 화려하지 않다. “빛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밤 9시나 10시 이후에는 불빛을 약하게 하고 심야에는 불을 끄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나오요키(요코하마시 수석 디자이너)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 파리는 상젤리제 거리의 연말 연시 가로수 조명을 올해부터 푸른빛의 엘이디(LED) 전구로 교체했다. 화려함보다는 친화성을 중시한 선택이다. 전력 사용량도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마텍(파리 시 도시 계획국장)은 “하향 조명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어두운 밤하늘을 보존하고 있으며 전력 소모량도 조절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는 것이 올바른 야경 조성의 길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야경은 문화의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장식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바라보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실체는 있으나 이미지가 없는 도시, 요리에 비교하면 음식을 있되 맛과 냄새를 느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도시의 야경은 ‘빛의 역사’와 ‘서민 정서’를 바탕으로 도시의 맥락을 알기 쉽게 드러내는 일련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찬란한 빛의 문화가 꽃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① 위 글과 <보기> 모두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되었다.
- ② 위 글의 전문 역할을 <보기>에서는 부제가 하고 있다.
- ③ 위 글은 <보기>에 비해 보다 길고 복합적인 문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위 글은 <보기>와 달리 영상으로 제작되어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일 수 있다.
- ⑤ 위 글에 비해 <보기>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보다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숲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김후란

[가] 봄빛이 눈부신 계절입니다. 만물이 새 기운을 얻고 일어서는 이 좋은 시절에 ㉠'숲 살림 국민운동' 창립 8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참가하신 숲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로 바쁘신데도 오늘의 이 행사를 위해 오신 산림청장님과 관계 연구 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 ㉡'숲은 희망이다.' 라는 원대한 기치 아래 꾸준히 힘써 온 숲 살림 국민운동 본부 임원진과 운영 위원들, 회원들, 사무처직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오늘을 뜻깊게 맞았습니다.

무한한 생명력과 영험함으로 인간 생활을 받쳐 주고 있는 자연, 그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을 곧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도와주는 동반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숲 살림 국민운동' 이 시작된 지 불과 8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성을 우리 생활에 연결시켜 왔고, 당대만이 아니라 먼 후손들에게까지 더욱 윤택한 생태환경을 물려주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래 엘니뇨 현상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때 아닌 폭설이나 대홍수 등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구의 산소통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 지대의 훼손 등 과도한 자연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집중적인 산림녹화 정책을 범국민운동으로 펼침으로써 녹화 정책이 실시된 지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조림정책이 성공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관심이 도시에만 집중되어 숲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림지의 성장목이 잘 자라도록 때맞춰서 솎아주기과 가지치기를 해 주지 않아 나무가 정상적으로 쓰임새 있게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숲의 물 저장 능력이 저하' 되어 야생 동식물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업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잘 가꿔진 숲은 다목적 댐과 맞먹는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연간 약 15조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하며, 연 240억 톤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유엔(UN)에서는 2020년경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 열심히 숲을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공기를 맑게 하고 ㉣'지구 온난화 진행'도 어느

정도 막아 주기도 하므로 숲을 잘 가꾸는 일은 우리 국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라] 우리의 노력은 이제 산의 숲 가꾸기에서 학교의 숲, 마을의 숲, 도시의 숲으로 확대되어 살기 좋은 생활권을 조성하는 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공서에서는 담을 없애고 나무를 심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35만 평 규모의 가족 공원 ‘서울 숲’을 만들었습니다. ‘난지도 하늘 공원’, ‘노을 공원’이 이루어졌고 ‘용산 가족 공원’이 조성되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산림 포럼’과 ‘평화의 숲’에서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북한의 나무 심기를 지원하는 등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제 ‘숲 살림 국민운동’은 제 2의 도약기로 들어서려 합니다. 녹색 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고 국내외 협력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 원대한 계획을 담은 ㉮『**숲 살림 2020**』 중장기 계획서를 오늘 발표합니다.

[마] ‘숲 살림 국민운동’은 순수한 숲 운동, 녹색 환경 운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고 우리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숲 살림 국민운동’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84. [가]~[마]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글의 취지를 살려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을 향한 계절 인사를 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② [나] : 자연을 사랑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여 단체의 성격을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다] : 단체가 오늘의 기념 행사를 맞이하기까지 이룬 다양한 업적을 나열하여 행사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 ④ [라] : 단체의 사업이 나날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과시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 ⑤ [마] :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약속과 함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385. 위 글의 예상 청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

- ① 환경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 ② 환경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 ③ 지금까지 단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던 사람들이다.
- ④ 숲 조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 ⑤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환경 운동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386. [서술형] 위 글을 참고하여 ‘숲’을 제대로 가꾸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예상하여 서술하시오.

387. 『**숲 살림 국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숲 살림 2020’ 이라는 기치 아래 꾸준히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 ② 1960년에 창립되어 30년 동안 꾸준히 산림녹화를 위한 범 국민운동을 펼쳐 왔다.
- ③ 무분별한 토목 공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 ④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관심을 두고 숲 조성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⑤ 순수한 환경 관련 단체로 시작했지만 활동이 진행되면서 학교나 관공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압력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388. 위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선: 특정 단체의 창립 기념행사를 위한 글인 만큼 예상 독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
- ② 진영: 연설문과 유사하지만 설득이 목적이 아닌 의식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고 있어.
- ③ 소리: 기념사에 들어가야 할 행사의 목적 및 의의와 하객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담겨 있어.
- ④ 민정: 기념행사를 위한 글로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있어.
- ⑤ 세희: 청중들을 대상으로 숲 조성의 의의와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389. 위 글을 참고하여 학교 축제 때 학생 회장으로서는 축하 연설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찬: 위 글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삽입해야겠어.
- ② 수은: 위 글과 달리 학교 행사 중에 하는 연설이니까 좀 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어.
- ③ 예지: 위 글과 달리 청중이 학생이므로 보다 교육적인 내용을 강화하여 훈계하듯이 연설해야겠어.
- ④ 동운: 위 글처럼 자축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행사가 축제인 만큼 보다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어조로 이야기해야겠어.
- ⑤ 민환: 위 글과 유사하게 그 동안의 학생 회장으로서의 업적을 열거하고 앞으로 임기 동안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해야겠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간디 추도사

[가] 위대한 인물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스하게 감싸 안아주면서 밝게 비추어 주셨던 ㉠태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이제 우리는 추위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위대한 인물과 유명 인사는 자신의 모습을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본뜬 기념물로 남기지만, 그분이 평생 동안 지녀 오신 신성한 영혼은 수백만 인도인의 가슴속에 새겨진 채 삶의 작은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에게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 말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칭송할 입장이 아닐뿐더러 그분의 뜻을 충분히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노동과 노력과 희생정신을 요구하셨을 때, 그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말로만 떠들어 대는 행위는 그분에게 누를 끼칠 따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희생정신 수준을 널리 고양시키셨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분의 삶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표정에 항상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교육하셨던 현재 세대들의 태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서 제시한 노선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을 숭배하는 한사람의 인도인에 의해 그분은 쓰러지셨습니다.

[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역사는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러한 평가를 내리기에겐 때가 아직 이릅니다. 살아 계셨던 위대한 인물이 지금은 사라지셨다는 사실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한순간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제는 앞길이 그다지 어둡지 않다는 사실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그곳에 지피신 불꽃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불꽃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은 암흑으로 뒤덮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미약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지피 주셨던 불꽃으로 다시 한 번 이 땅을 환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인도의 역사를 상징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인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인 현재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서 온갖 형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을 상실해 버린 채 마음과 영혼이 무기력해지는 상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야말로 가장 커다란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아주 조만간에 끝장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 그분은 가셨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허탈감과 절망감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가 이처럼 위대한 인물과 함께 지냈다는 뿌듯한 마음이 그러한 감정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앞으로 수백 년이나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우리의 시대에 신과 다름없는 분이 이 땅에 살아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고, 그분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성스러운 땅을 걸을 수 있었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뜻을 기리고 따르도록 합시다.

390. [가]~[마]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간디의 죽음
- ② [나] : 인도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원할 간디
- ③ [다] : 간디의 죽음을 대하는 인도인들의 겸허한 자세
- ④ [라] : 간디의 죽음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 ⑤ [마] : 간디의 뜻 계승을 통한 희망적 국가의 건설 주장

391. 위 글에 나타난 지은이의 태도나 정서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간디의 업적과 인품을 예찬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② 간디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자연물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 ③ 슬픔을 억제하고 현실과 싸워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청중이 자신의 뜻대로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⑤ 새로운 지도자로서 간디가 없는 인도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강조하고 있다.

392.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추도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라를 위해 독립을 구하고, 민족을 위해 자유를 쟁취하니, 위대하도다! 이 사람은 흥멸(興滅)을 거듭하며 의(義)를 취해 인(仁)을 이루었다. 고단함에서 절개가 보이며 역사속에서 바른 기운이 빛난다.”

- 장제스, <김구 추도사>

- ① 생애에 걸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위해서만 쓴다.
- ② 반드시 길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이루어진 산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어려운 한자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여 글의 격을 높이

는 것이 좋다.

- ④ 엄숙한 분위기로 작성하여 죽은 이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 좋다.
- ⑤ 죽은 이의 삶을 예찬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쓰는 것이 좋다.

393. 다음 중 화자의 태도가 위 글과 가장 유사한 작품은?

- ① 열치매 / 나타난 달이 / 흰구름 좇아 떠감이 아닌가? / 새파란 내(川)에 / 기랑의 모양이 있더라. / 이로 냇가 조약에 / 낭이 지니시던 / 마음의 끝을 따르려다. / 아으, 잣(栝)가지 높아 / 서리를 모르올 화랑의 장이여!

- 충담사, <찬기과랑가>

- ② 생사(生死)길은 /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 /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 /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 도(道)닭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③ 오늘 이에 ‘산화’의 노래 불러 / 뿌리온 꽃아, 너는 / 곧은 마음의 명을 심부름하옵기에 / 미륵 좌주를 모셔라!

- 월명사, <도술가>

- ④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너도 주인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중(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

- 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 / 고혼 폐혈관이 찢어진 재로 /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394. 위 글과 <보기>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간디(1869.10.2~1948.1.30)는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 차별에 대한 투쟁으로 유명해졌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에 대해 반영·비협력 운동 등의 비폭력 저항을 전개하였다. 이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79세가 되던 해에 반(反)이슬람 극우파인 한 청년의 흉탄에 쓰러졌다.

- ① 많은 나이로 인해 젊은 인도인들의 지지를 받는 데에는 실패했으며 결국 암살까지 당하였다.
- ②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죽음으로써 인도인들에게 독립의 의지를 증명하였다.
- ③ 인도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정신적 지주로 사망 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인도인들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 ④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인도인들에 대한 반감이 높았으며 그에 대한 철저한 외면을 통해 빈민들의 울분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 ⑤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였던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인도인들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잃었고 결국 영국의 지배에 복종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 않는 한 협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힌두교 성전에도 나와 있고, 나도 인도의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극한 경의를 표하지만 반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힌두교 성전은 부정과 정의 사이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진리와 허위 사이에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협력이란 단지 정부가 여러분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경우에 한해 의무인 것이며, 정부가 여러분의 명예를 보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빼앗아 갈 때는 비협력하는 것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협력주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 ① 폭력을 절대 행사하지 말고, 영국 정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한다.
- ② 인도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하여야 한다.
- ③ 최우선적으로 영국과의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 ④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도 건설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협력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⑤ 부당한 영국 정부가 인도를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비협력하여 자주적인 인도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95. <보기>는 간디의 연설문 중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내가 동포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명예심을 가지고 있는 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숭고한 전통의 후손들이자 수호자들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한, 여러분이 협력 거부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요, 우리의 현 정부처럼 매우 부당하게 되어 버린 정부에 협력하는 것도 위헌입니다. 나는 영국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영(反英)주의자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정부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에 반대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부정을 초래하는 한 정부가 나를 그들의 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간주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쟁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내키지 않아 하는 손길과 펜대로부터 우리의 자존심을 억지라도 빼앗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천체박] 7-1 법정 쟁점을 다룬 글

상7(1)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대의 변화와 호주제

[1] ㉠ **호주제, 폐지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아빠는 金씨, 새아빠는 李씨, “그럼 난 李씨”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 문제가 곧 풀릴 전망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미리 살펴본다.

[1] **호주제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2] #1. 남편과 사별 후 아들 데리고 재혼했는데…….

- 아들에게 새아빠 성(姓) 줄 수 있어

올해 35세의 김모(여) 씨는 28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7년 동안 안 해 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다행히 아이가 별 탈 없이 잘 자라 주었고 열심히 산 덕분에 내년쯤이면 작은 옷 가게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에는 착한 남자를 만나 새 가정도 꾸리게 됐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던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성큼 다가섰다.

하지만 그동안 호주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아들 녀석과 남편이 이마를 맞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얻는 듯 행복하다가도 둘이 친부자 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듯 아팠기 때문이다.

다행히 호주제가 폐지돼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있게 됐다.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2] 사례1 [문제점] 자녀의 성씨 문제로 인한 재혼 여성의 고통 [해결 방안] 아이에게 새아빠의 성(姓)을 줄 수 있도록 함.

39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②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 ③ 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전망하였다.
- ④ 시대에 따른 제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
- 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적 맥락을 제공해 주었다.

397. [2]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호주제의 문제점은?

- ①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된다.
- ② 전통 사상이나 미풍양속을 해친다.
- ③ 변화된 가족 형태와 조화되기 어렵다.
- ④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 ⑤ 우리 고유의 관습이 아닌 일제의 잔재이다.

39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신문 기사문 전체의 표제에 해당한다.
- ②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짐작하게 해 준다.
- ③ 의문문의 형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 ④ 기사의 핵심을 압축하여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 ⑤ 독자들이 해결책을 찾도록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399. [2]의 김모 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옷 가게를 차릴 만큼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 ② 착한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 ③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주제로 인한 마음고생이 해결되었다.
- ④ 가정 법원에서 현재 남편과 아이를 합법적인 가족으로 허가해 주었다.
- ⑤ 서류에서 현재 남편과 아들이 친부자 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400. [서술형] 안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 #2. 갓난아기가 호주라니? 모자(母子) 가정의 대표는 아기?

- 남성 중심의 관습에서 벗어나

삼 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 씨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었다. 호주 제도에 따라 갓 태어난 아기가 가정의 호주로 등록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갓난아기가 호주로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웠을 뿐더러 실질적인 가장을 법적인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호주제에는 구시대적 관념도 자리 잡고 있었다. 여자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구시대적 윤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모와 자녀는 모두 개인 호적을 갖게 되므로 이 씨와 같은 모자 가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법의 모순을 해결된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존재로 보아 온 관념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3] 사례2 [문제점] 모자(母子) 가정의 대표를 사내아이로 삼는 모순 [해결 방안] 개인 호적을 갖게 함.

[4] #3. 친정 부모님 모시는 딸,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다?

- 결혼한 딸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남동생 둘을 둔 만딸 심 씨는 결혼 후에도 치매를 앓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오 년 동안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을 한 여자는 법적으로 친정 가족에 속하지 않고 시댁이나 남편의 가족에 속하게 된 호주제 때문이었다.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금 상속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반면 법적으로 심 씨의 가족에는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은 시부모와 시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이와 같이 비현실적인 법적 가족 개념이 사라진다. 함께 살고 부양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심 씨도 아버지를 모시는 실질적인 부양자로, 그리고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사례3 [문제점] 현실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법의 비현실성 [해결 방안] 결혼한 딸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함.

40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객관적이 사실을 토대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 ② 제도의 문제점과 폐지 후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 ③ 제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균형적으로 제시하였다.
- ④ 현상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서술하였다.
- ⑤ 사례를 먼저 제시하여 현상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402. ㉠의 근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주제가 호주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어서
- ② 호주제가 모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서
- ③ 호주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어서
- ④ 호주제가 갓 태어난 아기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어서
- ⑤ 호주제가 호주의 역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어서

403. [서술형] [3]에 나타난 ㉡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십시오.

404. [4]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심 씨는 구시대적인 관념으로 부당함을 겪었다.
- ② 심 씨는 친정아버지와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 ③ 심 씨는 법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 ④ 심 씨는 비현실적인 법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 ⑤ 심 씨는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가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405.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호주제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 ① 일방적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② 개인적
- ③ 비합리적
- ④ 구시대적
- ⑤ 남성 중심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 헌법 재판소의 주요 결정 내용

1. 다수의 의견 : ‘헌법 불합치’

○ 헌법과 전통의 관계

[1] ㉠헌법은 국가 사회의 최고 규범이므로 가족 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가족법이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 규범을 사회 현실과 괴리시킨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1] 가족법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

[2]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 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전래의 가부장적인 혼인 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다.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혼인과 가족 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2] 헌법에 담겨 있는 혼인과 가족 제도의 가치 규범

[3]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 질서, 인류의 보편 가치, 정의와 인도 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족 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가 가족 제도에 관한 헌법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된다. 전래의 가족 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제9조(“전통”, “전통문화”)를 근거로 그 가족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헌법 제9조의 “전통”, “전통문화”의 개념

○ 호주제의 위헌성

[4]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이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족을 직계 비속 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이다. 달리 말하면 남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이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이다. 이는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4] 호주제의 개념과 의의

40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 제9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 ② 헌법은 제정 당시엔 남성 중심적 질서를 토대로 하였다.
- ③ 가족 제도가 헌법의 이념과 충돌한다면 헌법이 우선이다.
- ④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전통과 전통문화에 대한 규정이 있다.
- ⑤ 현행 헌법은 전통과 전통문화를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삼고 있다.

407. 위 글에서 헌법과 전통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 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가족 제도는 전통을 따라야 한다.
- ③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다.
- ④ 잘못된 가족 제도는 수정해야 한다.
- ⑤ 전통과 전통문화를 재조명해야 한다.

408. ㉠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자의 궁극적인 주장이다.
- ② 필자의 주장에 깔린 전제이다.
- ③ 필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이다.
- ④ 필자가 수용하는 현실적 한계이다.
- ⑤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409.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묵인(默認)
- ② 용납(容納)
- ③ 인용(認容)
- ④ 차용(借用)
- ⑤ 허용(許容)

410. 위 글에서 가족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411. [서술형] 헌법의 위상을 중심으로 “전통”, “전통문화”가 가족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 호주제는 호주 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 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은 ㉠현실적 가족 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숭조(崇祖) 사상, 경로 효친, 가족 화합과 같은 전통 사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 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5] 호주제의 남녀 차별성

[6] 호주제는 남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특정한 가족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다. 이로써 호주제는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제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6] 호주제의 비인간성

[7] 오늘날 가족 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을 권위주의적으로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도 사회의 분화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 부부와 그들의 전혼 소생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적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늘고 있다. 설사 호주제가 전래의 가족 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 관계와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호주제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

[7] 가족 관계 다변화에 따른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 헌법 불합치 결정의 선택

[8]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 대상 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을 편제하게 되어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 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 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 대상 조항들을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8]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택한 이유

412. 위 글의 궁극적인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주제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 ② 호주제는 전통 가족 제도의 핵심이다.
- ③ 호주제는 남녀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④ 호주제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 ⑤ 호주제를 통해 전통 사상을 발전시켜야 한다.

413. 호주제가 폐지한 후에 일어날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현실과 법의 모순이 해결된다.
- ②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이 해소된다.
- ③ 전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된다.
- ④ 가족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다.
- ⑤ 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에 대해 재고하게 된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41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상황이 법률적 가족 관계를 부정함.
- ② 가족 관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함.
- ③ 현실적 모순이 법률적 가족 관계를 변화시킴.
- ④ 현실적 가족 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 ⑤ 현실적 가족 생활이 법률적 이념을 추구하지 않음.

415. [서술형]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416. [서술형] 호주제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 소수 의견의 일부 : ‘헌법 합치’

[9]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고대 이래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 혈통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계 혈통주의의 존립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다. 이는 일제 잔재로서의 색채를 불식하고 우리 고유의 관습으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서 혼인과 가족 관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족법의 영역에서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전통 가족 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

[10]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전통 가족 제도의 핵심인 부계 혈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의 계승을 위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아내의 남편 호적 입적 원칙, 자녀의 부가(父家) 입적 원칙 및 호주 승계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호주제가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의 분가, 호주 승계 권의 포기** 등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0]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호주제

417. 위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조문과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온다.
- ②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근거한다.
- ③ 이유나 근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
- ④ 함축적 의미의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 ⑤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418. ‘호주제’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일제의 잔재로서의 성격은 없다.
- ③ 부계 혈통주의의 존립을 위한 제도이다.
- ④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이 반영된 것이다.
- ⑤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지 않는다.

419. 위 글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족법보다 양성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이 우위에 있다.
- ② 전통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 ③ 가족 제도에 관한 가족법의 전통적인 성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④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 ⑤ 호주제를 폐지하더라도 전통 사상과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다.

4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득이하게 신분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②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 ③ 일방적인 호주 승계와 다른 방식으로 호주가 되는 제도이다.
- ④ 호주의 지위에 관해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다.
- ⑤ 호주제의 일반적인 원칙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421. [서술형]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소단원 평가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남편과 사별 후 아들 데리고 재혼했는데…….

- ㉡아들에게 새아빠 성(姓) 줄 수 있어

올해 35세의 김모(여) 씨는 28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7년 동안 안 해 본 일 없이 닳지는 대로 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다행히 아이가 별 탈 없이 잘 자라 주었고 열심히 산 덕분에 내년쯤이면 작은 옷 가게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에는 착한 남자를 만나 새 가정도 꾸리게 됐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던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성큼 다가섰다.

하지만 그동안 호주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아들 녀석과 남편이 이마를 맞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얻는 듯 행복하다가도 둘이 친부자 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듯 아팠기 때문이다.

다행히 호주제가 폐지돼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있게 됐다.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가 현재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1] 사례1 [문제점] 자녀의 성씨 문제로 인한 재혼 여성의 고통 [해결 방안] 아이에게 새아빠의 성(姓)을 줄 수 있도록 함.

[나] 삼 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 씨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었다. ㉣호주 제도에 따라 갓 태어난 아기가 가정의 호주로 등록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갓난아기가 호주로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웠을 뿐더러 실질적인 가장을 법적인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호주제에는 구시대적 관념도 자리 잡고 있었다. 여자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구시대적 윤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모와 자녀는 모두 개인 호적을 갖게 되므로 이 씨와 같은 모자 가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법의 모순을 해결된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존재로 보아 온 관념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2] 사례2 [문제점] 모자(母子) 가정의 대표를 사내아이로 삼는 모순 [해결 방안] 개인 호적을 갖게 함.

422. 위 글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주제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 ② 호주제가 폐지되기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리한다.
- ③ 호주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폐지 후 사회 변화를 전망한다.
- ④ 호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⑤ 호주제와 관련하여 실생활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다.

423. 위 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준 : 김모 씨와 이 씨처럼 호주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 ② 미림 : 맞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 같아.
- ③ 효선 : 호주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아.
- ④ 지우 : 호주제의 문제점이 해결되면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 같아.
- ⑤ 주영 : 특히 사람들이 점점 더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4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기사와 내용을 압축하여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 : 호주제 폐지 이후의 효과를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 ③ ㉢ : 가정 법원에서 재혼 가정을 정식으로 허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 ④ ㉣ :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남자만이 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 :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개인 호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425. ㉢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삼종지도의 구시대적인 윤리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② 모자 가정이 가진 특수성 인정
- ③ 현실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 ④ 우리 사회에 있는 남성 중심의 관습
- 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당한 상황

426. [서술형]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글에 나타난 호주제의 문제점을 100자 이내로 비판하시오.

보기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친정 부모님 모시는 딸,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다?
- 결혼한 딸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남동생 둘을 둔 만딸 심 씨는 결혼 후에도 치매를 앓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오 년 동안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을 한 여자는 법적으로 친정 가족에 속하지 않고 시댁이나 남편의 가족에 속하게 된 호주제 때문이었다.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금 상속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반면 법적으로 심 씨의 가족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시부모와 시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이와 같이 비현실적인 법적 가족 개념이 사라진다. ㉠함께 살고 부양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심 씨도 아버지를 모시는 실질적인 부양자로, 그리고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사례3 [문제점] 현실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법의 비현실성 [해결 방안] 결혼한 딸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함.

[나]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

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 질서, 인류의 보편 가치, 정의와 인도 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족 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가 가족 제도에 관한 헌법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된다. 전래의 가족 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제9조(“전통”, “전통문화”)를 근거로 그 가족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헌법 제9조의 “전통”, “전통문화”의 개념

[다]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이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족을 직계 비속 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이다. 달리 말하면 남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이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이다. 이는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3] 호주제의 개념과 의의

[라] 오늘날 가족 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을 권위주의적으로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도 사회의 분화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 부부와 그들의 전혼 소생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적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늘고 있다. 설사 호주제가 전래의 가족 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 관계와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호주제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

[4] 가족 관계 다변화에 따른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42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② 표제와 부제를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 ③ 사례를 통해 호주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였다.
- ④ [나]~[라]의 주장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제공해 준다.
- 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려 준다.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4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과 법적인 가족 관계가 일치하게 된다.
- ② 심 씨가 연금 상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③ 결혼한 딸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④ 호주제가 폐지되어 나타난 바람직한 현실의 변화이다.
- ⑤ 시부모를 모시더라도 법적인 가족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429. [나]~[라]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다.
- ②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 ③ 단순명료한 내용 전개로 이해가 쉽다.
- ④ 이유나 근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
- ⑤ 범조문을 인용하여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430. [나]~[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가족 제도는 전통과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 ② 전래의 가족 제도는 요즘 시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 ③ 우리나라의 헌법은 전통적 가부장적 제도와 연관성이 있다.
- ④ 가족 제도가 다변화하면서 가장의 책임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 ⑤ 호주제는 실용적이지만 헌법의 이념에 어긋나므로 폐지해야 한다.

431. [서술형] [나]~[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에 나타난 호주제의 문제점을 30자 이내로 비판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이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족을 직계 비속 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이다. 달리 말하면 남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이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이다. 이는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1] 호주제의 개념과 의의

[나] 호주제는 호주 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 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은 현실적 가족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2] 호주제의 남녀 차별성

[다] 호주제는 남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특정한 가족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다. 이로써 호주제는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3] 호주제의 비인간성

[라]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고대 이래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 혈통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계 혈통주의의 존립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다. 이는 일제 잔재로서의 색채를 불식하고 우리 고유의 관습으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서 혼인과 가족 관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족법의 영역에서 **④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전통 가족 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

[마]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전통 가족 제도의 핵심인 부계 혈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의 계승을 위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아내의 남편 호적 입적 원칙, 자녀의 부가(父家) 입적 원칙 및 호주 승계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호주제가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임의 분가, 호주 승계권의 포기 등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5]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호주제

432.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는가?

- ① 호주제, 왜 지켜지지 않는가?
- ② 호주제, 우리의 전통문화인가?
- ③ 호주제,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 ④ 호주제,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 ⑤ 호주제, 개념과 특징이 무엇인가?

433.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반인의 통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두 관점과 그 근거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 ③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434. 호주제 유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
- ② 가족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 ③ 전통적 가족 문화를 훼손해선 안 된다.
- ④ 호주제는 일방적인 신분 관계를 형성해 준다.
- ⑤ 호주제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

435. 위 글에서 <보기>의 내용과 가장 대립되는 문단은?

보기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 질서, 인류의 보편 가치, 정의와 인도 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족 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가 가족 제도에 관한 헌법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된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436.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계적
- ② 사회적
- ③ 부정적
- ④ 합리적
- ⑤ 합법적

437. [서술형] 위 글과 같은 헌법 소원이 생긴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호주제는 호주 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 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은 현실적 가족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송조(崇祖) 사상, 경로 효친, 가족 화합과 같은 전통 사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 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1] 호주제의 남녀 차별성

[나] 호주제는 남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특정한 가족 형태를 일방적으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규정·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다. 이로써 호주제는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제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호주제의 비인간성

[다] 오늘날 가족 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을 권위주의적으로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도 사회의 분화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 부부와 그들의 전혼 소생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적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정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늘고 있다. 설사 호주제가 전래의 가족 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 관계와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호주제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

[3] 가족 관계 다변화에 따른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라]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전통 가족 제도의 핵심인 부계 혈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의 계승을 위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아내의 남편 호적 입적 원칙, 자녀의 부가(父家) 입적 원칙 및 호주 승계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호주제가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임의 분가, 호주 승계권의 포기 등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호주제

438. 다음은 위 글의 쟁점에 대하여 정리한 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쟁점1	입장	호주제는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한다.	호주제는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①
	근거	호주제는 남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다.-----②	호주제는 실질적으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쟁점2	입장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다.-----③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았다.
	근거	호주제는 특정한 가족 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④	호주제는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⑤

■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 대상 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을 편제하게 되어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 관계를 공식·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 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 대상 조항들을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439. [서술형] <보기>는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십시오.

440.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즘 다양화된 가족의 형태를 반영해서 내린 결론이야.
- ② 여성이라도 가정의 역할을 한다면 호주가 될 수 있겠어.
- ③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서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
- ④ 가족을 위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 자체로 더욱 존중하게 될 것 같아.
- ⑤ 기존의 호적 체계처럼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이 호적을 갖게 될 거야.

441. [서술형]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반론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보 기

혼인과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서 혼인과 가족 관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족법의 영역에서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전통 가족 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재박] 7-2 종탑 아래에서

상7(2) 종탑 아래에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세 주장¹⁾ 뒷골목에 살고 있었다. 유명한 술도가를 옆구리에 끼고 산다 해서 특별히 득 볼 것도, 해될 것도 없었다. 날만 궂을라치면 주장 건물 전체가 모주망태²⁾로 흠뻑 취해서 문벃내³⁾를 펄펄 풍기듯 찌든 막걸리 냄새를 사방에 퍼뜨리는 바람에 비위가 많이 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집에 따로 유감이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에밥⁴⁾이었다. 별이 좋은 날 만세 주장에서는 도로 가에 명석을 여러 개 나란히 펴 놓고 술밑으로 쓸 엄청난 양의 지에밥을 말리곤 했다. 입에 넣고 씹기 딱 알맞을 만큼 꼬들꼬들 마른 상태에서 단내를 확확 풍기는 그 고두밥⁵⁾이 배끓는 아이들을 환장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명석 근처에 가까이 다가갈 적마다 뱃속에서 회가 동하는⁶⁾ 바람에 참말이지 미칠 지경이었다.

[1] 만세 주장 뒷골목의 풍경

[나] 목구멍 안쪽에서 마구 고무래질⁷⁾하는 것 같은 유혹을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한 줍씩 지에밥을 슬쩍하다가 주장 일문인 짝눈이 아저씨한테 들켜 경을 치기⁸⁾ 일쑤였다. 나 역시 짝눈이 아저씨한테 붙잡혀 두 차례나 혼뽀⁹⁾를 당했다. 서로 뻥치 얼굴을 아는 이웃지간이라서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처지였다. 지에밥을 명석 위에 고무래 펴 때 사용하는 고무래 자루를 휘두르며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도 그악스레 뒤쫓아 올 성심은 그 성미 고약한 일꾼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영악스러워질 필요가 있었다. 짝눈이 아저씨가 짝눈을 한껏 지릅뜨고 주로 감시하는 쪽은 학교가 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었다. 주장을 사이에 두고 학교와는 반대 방향에서 하룻길의 아이들 행렬을 거슬러 움직이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고무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려면 학교에서 집으로 향할 때 부러 가까운 길을 두고 시내 쪽으로 먼 길을 에돌아가는¹⁰⁾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다.

[2] '나'는 지에밥을 슬쩍하기 위해 시내 먼 쪽으로 에돌아가.

[다] ㉡내가 그 계집애를 맨 처음 본 것은 봄별이 다량하게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 ㉢명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날도 하룻길에 일부러 네거리 하나를 더 지나 ㉣먼 길을 에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3] 지에밥을 슬쩍하기 위해 시내 먼 쪽으로 에돌아가는 '나'

[어휘 풀이] 1) 주장 - 술 파는 곳. 술도가. 2) 모주망태 - 술을 늘 대중없이 많이 마시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3) 문벃내 - 술 취한 사람의 입에서 나는 냄새. 4) 지에밥 - 참쌀이나 맷쌀을 물에 불려서 시루에 찐 밥. 5) 고두밥 - 아주 되게 지어 고들고들하게 지은 된밥. 6) 뱃속에서 회가 동하는 - 뱃속에 있는 회충이 제 먼저 요동을 칠 정도로 입맛이 당기는. 7) 고무래질 - 고무래 따위로 무엇을 퍼거나 그르모는 일. 8) 경을 치기 - 호된 꾸지람이나 나무람을 듣거나 벌을 받다. 9) 혼뽀 - 단단히 혼내는 일. 10) 에돌아가는 - 곧바로 가지 않고 피해서 멀리 돌아가다.

44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변잡기(身邊雜記)를 기록한 글이다.
- ②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한 글이다.
- ③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심하게 받는 글이다.
- ④ 자신의 감정을 음악성 있게 표현한 글이다.
- ⑤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의 글이다.

44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에밥이 비위 상하는 냄새를 냈기 때문에
- ② 지에밥을 먹고 배가 아픈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 ③ 지에밥을 먹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 ④ 지에밥을 지키는 짝눈이 아저씨가 매우 무서웠기 때문에
- ⑤ 지에밥을 말리기 위해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444. [서술형] '나'가 학교에서 집으로 향할 때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간 이유를 서술하시오.

445. ㉡을 보고 '나'가 생각했음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오늘은 지에밥을 말리는 날이군.
- ② 짝눈이 아저씨가 정말 부지런하군.
- ③ 짝눈이 아저씨가 오늘도 아이들을 혼내고 있군.
- ④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매우 복잡하겠군.
- ⑤ 오늘은 무서운 짝눈이 아저씨를 피해 가야겠군.

446. [서술형] ㉔를 고려할 때, ㉕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청 담벼락을 따라 길게 잇대어 세워 놓은 게시판이 큼지막한 벽보들로 더덕더덕 도배되어 있었다. 벽보에는 최근의 ㉔¹⁾들이 주먹 덩이만 한 붓글씨로 짤막 짤막하게 적혀 있어 지나가던 행인들을 게시판 앞에 한참씩 붙들어 세워곤 했다. ‘국군 1사단 평양 입성²⁾’, ‘국군과 유엔군 청천강 ㉕³⁾도하’, 압록강 향해 진격 중’, ‘중공군 참전 사실 밝혀져’ 따위 새로운 소식들을 내가 차례로 접하게 된 것도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만세 주장 고두밥을 훔쳐 먹기로 작정한 날은 덤으로 최근의 전황에 접하는 날이기도 했다.

[1] 전쟁과 관련된 소식들이 가득한 시청 앞 게시판

[나]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한창이었다. 국군 또는 유엔군 몇 사단이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괴군 몇 개 연대를 ㉖⁴⁾했고, 무슨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몇 개 사단을 ㉗⁵⁾시켰다는 등등의 내용을 담은 벽보들이 게시판에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1·4 후퇴⁶⁾를 거쳐 전쟁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일추 되돌아와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㉘⁷⁾ 상태에 빠져 있었다. 빼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 북괴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나자빠진다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㉙⁸⁾ 속내를 나는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

[2] 게시판 벽보의 내용과 전쟁 상황

[다] 낡은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눌러쓴 꽤 유식해 보이는

아저씨가 곁에서 소리 내어 벽보를 읽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그 아저씨에게, 섬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다.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라고 아저씨가 시원스레 대답했다. 그럼 궤멸은 또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다. 아저씨는 잠시 땀을 흘리더니만, 겨우 씨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때려잡는 거라고 일러 주었다. 언젠가 벽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말들의 뜻을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부터 버럭 내면서, 쥐방울만 한 녀석이 그런 건 알아서 얻다 쓰려고 묻느냐고, 욕설이나 다른 상스러운 말이니깐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사정없이 욕박지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3] 벽보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

[어휘 풀이] 1) 전황 - 전쟁의 실제 상황. 2) 입성 - 적이 있던 도시를 함락하고 들어가 점령함. 3) 도하 - 강이나 내를 건넌. 4) 섬멸 - 모조리 무찔러 멸망시킴. 5) 궤멸 -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짐. 6) 1·4후퇴 - 한국전쟁 시 중공군의 참전에 따라 연합군이 대규모로 퇴각한 사건. 7) 교착 - 어떤 상태가 굳어 조금도 변동이나 진전이 없음.

4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다.
- ② 게시판의 벽보는 전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나’는 벽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사람들은 전쟁에 관한 단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⑤ ‘나’는 전황 소식을 알기 위해 먼 길을 돌아 집으로 가고 있다.

448. ㉙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게시판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 ② 게시판의 내용이 너무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기 때문에
- ③ ‘나’가 알고 있는 사실과 게시판의 내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 ④ ‘나’는 나이가 어려 전쟁의 비극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 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믿고,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449.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는 ‘나’의 물음에 일부러 화를 내고 있다.
- ② ‘아버지’는 ‘나’가 물어본 단어들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 ③ ‘나’는 예전부터 벽보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의 뜻을 궁금해 했다.
- ④ ‘나’는 자신을 억박지르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 ⑤ ‘나’의 물음에 답하는 ‘중절모 쓴 아저씨’와 ‘아버지’의 태도는 대조된다.

450.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전쟁의 실제 상황.
- ② ㉡ : 강이나 내를 건넌.
- ③ ㉢ : 모조리 무찔러 멸망시킴.
- ④ ㉣ :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짐.
- ⑤ ㉤ : 서로 만나 싸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시청 앞을 떠나 시공관 네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곧바로 익산 군청이었다.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개비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 다음 차례가 익산 군수 관사¹⁾이기 때문이었다.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파발총같이 타타타타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1] 관사 앞 철책에 장난을 치려고 나뭇개비를 찾음.

[나] 관사 철책에 나뭇개비를 막 갖다 대려다 말고 나는 갑자기 손놀림을 멈췄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행하니 드러내 보이던 정원에서 인기척²⁾이 났다. 나하고 동갑 또래로 보이는 계집애였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한 손에 하얀 고무공을 쥔 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괴상야릇한 자세로 도로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계집애가 황금빛 잔디밭 위로 하얀 공을 도르르 굴리면서 말했다.

“㉡나비야! 나비야!”

[2] 관사 정원에서 괴상야릇한 자세로 걸어오는 소녀를 발견함.

[다]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구르기를 멈추었다.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만한 자리였다. 뜬금없이 웬³⁾ 나비 타령인가 의아해서 나는 계집애의 행동거지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때였다.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정원수 가지에서 잔디밭 위로 햇숨⁴⁾ 뭉치처럼 사뿐히 내려앉더니만 공을 향해 달려왔다. 고양이는 철책 너머에 버티고 서 있는 웬 낯선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갑자기 달음질을 멈추었다.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뽕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 아이라고 단정해 버렸다.

[3] 소녀의 행동거지를 주의 깊게 살펴봄.

[라] 그리고 서울내기⁵⁾들은 제아무리 똑똑한 척해 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멀쩡한 고양이를 나비라 부르다니, 그렇다면 팔랑팔랑 공중을 날아다니는 진짜배기 나비는 대관절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올단 말인가?

“거기 누구 ……”

뭔가 수상쩍은 낌새를 챘는지 계집애가 내 쪽을 멀뚱멀뚱 건너다보며 위 아랫입술을 연방 달막거렸다⁶⁾. 계집애의 행동을 훑쳐보다 들킨 것이 창피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계집애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제때 제때 따라잡지 못했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4] 소녀가 인기척을 느끼자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

[어휘 풀이] 1) 관사 -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 주어 살도록 지은 집. 2) 인기척 -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 3) 웬 - 웬 : ○, 웬 x. 4) 햇숨 - 그해에 새로 난 솜. 5) 서울내기 -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이르는 말. 6) 달막거렸다 - 말할 듯이 입술이 자꾸 가볍게 열렸다 닫혔다 하다.

45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않는 것은?

- ① 고양이는 ‘나’를 경계하고 있다.
- ② 계집애는 군수의 관사에 살고 있다.
- ③ ‘나’는 집에 가는 길에 동일한 장난을 자주 쳤다.
- ④ ‘나’는 서울내기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 ⑤ ‘나’는 계집애의 괴상야릇한 자세를 비웃고 있다.

452. ‘㉠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악어 : 악어새
- ② 남성 : 여성
- ③ 어린이 : 사람
- ④ 증거 : 판결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⑤ 중학교 : 고등학교

453. 계집애와 ‘나’가 생각하는 ㉠이 지칭하는 대상을 차례대로 쓰시오.

454.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집애가 수줍음이 많음을 암시한다.
- ② 계집애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 ③ 계집애가 ‘나’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④ ‘나’의 부끄러움에 대해 배려하는 계집애의 모습을 암시한다.
- ⑤ ‘나’와 계집애가 앞으로 심한 갈등 관계에 놓일 것임을 암시한다.

455. [서술형] ‘나’가 군청 입구에서 나뭇개비를 찾느라 두리번거린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456. [서술형] ‘나’가 계집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기 누구?”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답박질¹⁾을 놓기 시작했다.** 당달봉사²⁾다!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장님이란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만세 주장 지에밥을 훔쳐 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애의 그 희고도 곱상한 얼굴이, 그 화사한 옷맵시가, 어딘지 모르게 굵뜨고 어설픈 보이던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줄

곧 떠나지 않았다.

[1] 소녀가 눈뜬장님임을 발견하고 놀라 달음박질침.

[나] 이튿날 나는 학교가 과하기 무섭게 곧장 익산 군수 관사로 달려갔다. 관사 정원에서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계집애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부자연스런 자세로 거리를 재기 위함인 듯 몇 발짝 조심스레 건다가는 공을 잔디밭 위로 도르르 굴렀다.

“나비아! 나비아!”

아마도 철책 너머 낮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 듯 나 비관 높은 정원 수 가지들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냐옹냐옹 울어 대기만 했다. 공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 거의 정확히 떨어 있었다. 나는 통탕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철책 틈새로 손을 넣어 공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계집애를 향해 던져 주었다. 공이 발치 가까이 떨어지는 순간 계집애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2] 다시 소녀를 찾아가서 공을 던져 줌.

[다] “거기 누구?”

“㉡**사람이여.**”

“아, 어제 바로 그 애!”

㉢**계집애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뿐만 아니라.

“난 널 알아. 나이는 나랑 비슷해.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애야.”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얼굴 못생긴 것까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바람에 나는 가슴 복판이 뜨끔 쭈셨다. 계집애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지 않은 정상적인 자세로 걷는다고** 철책까지 다다르는데 반나절은 족히 걸리는듯했다.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 그냥 괜히 해 본 소리야”

못생긴 게 사실이라고 나는 하마터면 실토정³⁾할 뻔했다. 생기다 만 얼굴 같다고 모두들 나를 놀려 대곤 했으니까.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3] 소녀가 ‘나’에 대해 정확히 알아맞침.

[어휘 풀이] 1) 답박질 - 급히 내려감. 2) 당달봉사 -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 3) 실토정 - 사정이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함.

45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집애가 화를 낼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에
- ② 지에밥을 훔쳐 먹으려던 계획이 탄로났기 때문에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③ 계집애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 ④ 자신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부끄러웠기 때문에
- ⑤ 익산 군수 관사에서 열정거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크게 혼나기 때문에

458. 위 작품을 희곡으로 고칠 때, ㉠의 지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심하라는 듯이
- ② 날카로운 목소리로
- ③ 매우 놀란 목소리로
- ④ 상대를 비웃는 목소리로
- ⑤ 상대를 잘 알고 있다는 듯

459. [서술형] ㉠에서 추론할 수 있는 계집애의 심리를 서술 하시오.

460. ㉠과 같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 ② 지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 ③ ‘나비’에게 공을 던져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 ④ ‘나’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 ⑤ ‘나비’에게 던져 준 공을 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461. 계집애에 대한 ‘나’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기심
- ② 호감
- ③ 열등감
- ④ 놀라움
- ⑤ 경계심

462. [서술형] ‘나’가 익산 군수 관사 쪽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계집애를 만난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서술 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느그¹⁾ 아부지가 군수냐?”

얼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는 엉뚱한 데로 말머리를 돌렸다.

“군수가 뭔데?”

“니가 익산 군수 딸이난 말여.”

“익산 군수가 뭔데?”

군수 관사에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모르다니, 역시 서울내기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무지렁이²⁾들이라고 생각했다. 서울내기들한테는 잠자리면 무조건 다 그냥 잠자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실잠자리, 기생잠자리, 비단잠자리, 고추잠자리, 뽕장잠자리, 쌀잠자리, 보리잠자리, 밀잠자리, 말잠자리, 호랑잠자리 등등 가지각색의 수많은 잠자리가 세상에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바꾸³⁾들이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외갓집 식구들이 가자는 대로 그냥 여기까지 따라 왔을 뿐이야.”

계집애가 ㉣심드렁한⁴⁾ 어조로 중얼거렸다.

[1] ‘익산 군수’라는 말을 모르는 소녀

[나] “으쩌다가 ㉤그러코랴⁵⁾ 당달봉사는 되야 뿌렸다냐?”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간밤부터 줄곧 품어 나온 의문을 입 밖으로 불쑥 털어 냈다.

“당달봉사가 뭔데?”

역시 서울내기라서 별수가 없었다. 나는 당달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칠책에 바싹 달라붙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낄새가 퍼뜩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핵 돌려 관사 쪽을 살펴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유리창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어마 뜨거라 하고 나는 전날처럼 또 담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애, 애,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다보고 ㉦진동한동⁶⁾ 줄행랑을 놓았다.

[2] 노파의 무시무시한 눈초리를 느끼고 줄행랑을 놓음.

[다] 이튿날은 군수 관사 근처에 열썬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관사 쪽을 외면한 채 지낸 그 이틀 동안에는 만세 주장 앞길 명석 위에 널린 지에뻘을 봐도 뱃속의 회가 전혀 동하지 않았다. 서울 계집애의 그 새하얀 낄꽃⁷⁾이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바람에 그러잖아도 재

미를 못 붙여 애를 먹던 학교 공부가 한결 더 부실해졌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3] 소녀에 대한 '나'의 관심이 심화됨.

[어휘 풀이] 1) 느그 - '너', '너의'라는 의미의 전라도 방언. 2) 무지형이 -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3) 버꾸 - '바보'의 방언. 4) 심드렁한 - 마음에 탐탁하지 아니하여서 관심이 거의 없다. 5) 그러코롬 - '그렇게'의 전라도 방언. 6) 진동한동 - 매우 급하거나 바빠서 몹시 서두르는 모양. 7) 낯꽃 - 감정의 변화에 따라 얼굴에 드러나는 표시.

463. ㉠과 관련된 언어의 속성을 보여주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컴퓨터라는 물건이 생기면서 '컴퓨터'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다.
- ② 무지개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으로 이루어진다.
- ③ 에스키모는 '눈'을 가루 눈, 젖은 눈, 큰 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 ④ '나무'라는 식물을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라고 표기하고, 미국에서는 'tree'로 표기한다.
- ⑤ '어리다'는 말은 옛날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464. [서술형] '나'가 계집애에게 군수의 딸이냐고 물은 의도가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465. 위 작품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때, ㉠뒤에 이어질 '계집애'의대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음에 또 놀러와.
- ② 왜 갑자기 뛰어 가니?
- ③ 우리 외할머니는 무섭지 않아.
- ④ 나랑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가.
- ⑤ 당달봉사가 무슨 뜻인지 말해줘야지.

466.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 ② ㉡ : 바보.
- ③ ㉢ : 심각한.
- ④ ㉣ : 그렇게.
- ⑤ ㉤ : 매우 급하거나 바빠서 몹시 서두르는 모양.

467. [서술형] '나'가 군수 관사에 얼씬하지 않은 동안 지에 밥을 보더라도 뱃속의 회가 전혀 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를 동안이 내 인내심의 한계였다. 좀이 쑤서서¹⁾ 더 버티지 못하고 나는 사흘 만에 또다시 군수 관사를 찾아갔다. 정원에는 아무도 안 보였다. 나비란 놈도 안 보였다. ㉠하얀 고무공 하나만이 잔디밭 한가운데 동그마니 놓여 있을 따름이었다. 한참 더 기다려 보다가 관사 안에 아무런 기척도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무척이나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내 퇴로²⁾를 우묵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차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였다. 내가 또 달아나려 하자 노파가 갑자기 내 팔을 덥석 붙들었다.

[1] 이를 동안 참다가 다시 군수 관사를 찾아감.

[나] “넌 혼내 주려는 게 아니다. 아가, 겁낼 것 없다.”

할머니는 문존³⁾한 말씨로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우리 명은이, 지금 병원에 있다. 그저께 밤부터 갑자기 신열⁴⁾이 났고 헛소리가 우심⁵⁾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 노파한테 단단히 붙들려 있던 내 팔이 갑자기 자유로워졌다.

“나는 명은이 외할미다. 우리 명은이 말동무가 돼 줘서 고맙구나. 명은이 는 아마 내일쯤 퇴원할 게다.”

일단 되찾은 팔을 또다시 뺏길까 봐 나는 뒷짐을 진 채 명은이 외할머니의 말에 무턱대고 고개를 주억거렸다⁶⁾.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집이 어디냐?”

나는 대충 만세 주장계를 어림하고는 턱짓으로 그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명은이 외할머니가 대뜸 앞장을 섰다.

“나랑 같이 가 보자.”

[2] '명은이 외할머니'와의 대화

[다] 집까지 가는 동안 명은이 외할머니는 별의별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물었다. 이름은? 나이는? 부모님은? 형제자매는? 전쟁 때문에 혹시 불행을 당한 가족이나 일가친척은?

“건호야, 학교 끝나면 우리 관사에 자주 놀러 와도 괜찮다. 그 대신 너한테 신신당부할 게 있다. 우리 명은이 듣는 데

서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단다.”
 첫째, 부모 이야기. 둘째,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셋째, 장님 이야기.

“더군다나 당달봉사 같은 말은 아주 좋지 않은 말이니까 우리 명은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 않도록 단단히 입조심해야 된다. 알겠냐?”

나는 ㉠ **햇햇 달아오른 낮꽃**을 들키지 않으려고 부러 두어 발짝 뒤로 치켜서 걸었다. 명은이 외할머니는 만세 주장 뒷골목까지 나랑 동행해서 기어이 우리 집을 확인한 다음에야 발길을 돌렸다.

- 윤홍길, <중탐 아래에서>

[3] ‘명은이 외할머니’가 금기한 세 가지 내용

[어휘 풀이] 1) 종이 썬서서 - 마음이 들뜨거나 초조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다. 2) 퇴로 - 뒤로 물러날 길. 3) 문존한 - 성질이 차분한. 4) 신열 - 병으로 인하여 오르는 몸의 열. 5) 우심 - 더욱 심함. 6) 주억거렸다 - 고개를 앞뒤로 천천히 끄덕거리다.

46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계집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 ② 계집애는 ‘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다.
- ③ ‘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신중한 성격이다.
- ④ ‘나’는 매사에 참을성이 없어 자주 낭패를 보는 편이다.
- ⑤ 갈등 양상이 ‘나’와 계집애와의 갈등에서 ‘나’와 노파의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469. [서술형]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70. ‘명은이 외할머니’의 행동 중 그 의도가 가장 다른 것은?

- ① ‘나’의 집을 확인하기 위해 나섬.
- ② ‘나’에게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물어봄.
- ③ ‘나’에게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알려 줌.
- ④ ‘나’에게 ‘명은’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줌.
- ⑤ ‘나’에게 당달봉사라는 말이 좋지 않은 말임을 말해 줌.

471. ㉠처럼 ‘나’의 얼굴이 달아 오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은’의 비밀을 알고 몹시 당황했기 때문에

- ② 이전에 당달봉사라는 말을 ‘명은’에게 했기 때문에
- ③ 이제는 ‘명은’과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 ④ ‘명은’의 집과 대조되는 ‘나’의 집을 보여 주는 것이 쑥스럽기 때문에
- 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명은이 외할머니’가 집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건호야!”

대문간에 막 발을 들여놓으려는 나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다시 불러 세웠다.

“우리 명은이, 참 불쌍한 아이다. 제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처참하게 죽는 꼴을 두 눈 번히 뜨고 지켜본 아이다. 그날부터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 봤다면서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는, 아주 몹쓸 병에 걸려 버렸단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낫는, 아주 고약한 병이란다.”

[1] ‘명은’이 눈이 먼 이유

[나] ㉠ **눈물 구덩이에 풍당 빠져 허우적대는 눈동자**로 명은이 외할머니는 내 얼굴을 간신히 건너다보았다. 때깔이 고운 한복 차림에 기품¹⁾이 넘쳐 나던 명은이 외할머니의 모습이 한순간에 와르르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마땅히 그래야만 될 성싶어 나는 덮어놓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만 되풀이했다. ㉡ **명은이 외할머니가 내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우리 명은이한테 말동무라고는 세상천지 달랑 고양이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단다. 앞을 못 보게 된 뒤로 우리 명은이가 고양이 말고 사람을 말동무로 삼은 건 건호, 니가 맨 처음이란다.”

[2] ‘나’와의 만남이 ‘명은’에게 갖는 의미

[다]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 **피란**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 **수복**²⁾ 직후부터 신광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사찰인 딸고만이 아버지가 힘차게 울려 대는 종소리에 이끌려 나는 주일 아침에 신광 교회로 향했다.

[3] 교회에 가는 ‘나’

[라] 주일 학교 ㉤ **반사**³⁾의 지시에 따라 나는 예배 도중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복 ㉥ **피란민** 출신으로 중앙 시장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는 홀아비 반사는 매주 공과 공

부가 끝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모조리 고백 할 것을 어린 제자들에게 강요하곤 했다. 전에는 만세 주 장 ㉠지예밥을 훔쳐 먹은 죄와 어찌다 길에서 주운 돈을 주전부리에 사용한 죄 따위가 내 고백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명은이를 만난 후 당달봉사라는 나쁜 말을 사용 한 죄 하나가 내 기도 속에 덧붙여졌다.

- 윤홍길, <종답 아래에서>

[4] '명은'에게 '당달봉사'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나'

[어휘 풀이] 1) 기품 - 인격이나 작품 따위에서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 2) 수북 - 잃었던 땅이나 권리 따위를 되찾음. 3) 반사 - 교회 학교의 선생. 4) 주전부리 -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음식.

472. 위 글에 나타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은'이 말을 건넌 최초의 말동무이다.
- ② '명은'에게 일어나 과거 일을 알게 된다.
- ③ 이모의 전도로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닌다.
- ④ 매주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린다.
- ⑤ 주일 학교 반사를 진심으로 존경하여 지시에 따른다.

47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명은이 외할머니'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 ② '명은이 외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음을 보여준다.
- ③ '나'의 눈에 비친 '명은이 외할머니'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 ④ '명은이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
- ⑤ '명은'에 대한 '명은이 외할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

474. '명은이 외할머니'가 ㉡과 같은 행동을 보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또 도망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 ② '나'에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 ③ 금기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 ④ 슬픈 감정이 너무 북받쳐 참을 수 없어서
- ⑤ '나'가 자신의 말을 정말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475. ㉠~㉡중,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말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476. [서술형] ㉡에 담긴 '나'의 심리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주일 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신광 교회에서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갔다. 명은이에게 건넨 ㉠선물을 장만하기 위해서였다.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앞 못 보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서울내기 계집애한테 일깨워 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1] '명은'을 위해 전황에 대한 소식을 준비하는 '나'

[나]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며 철책 앞에서 서성거리는 참인데 관사 현관문이 빠끔히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난생 처음 익산 군수 관사 안으로 주뻗주뻗 발을 들여놓았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낮은 구조의 양옥집 거실을 통과하는 나를 액자 속의 이승만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명은이가 들어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명은이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나비란 놈이 나를 보더니만 나옹 소리와 함께 냅뽀 책상 위로 튀어 오르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명은이는 얇고 보드라운 차림이불¹⁾로 턱밑까지 가린 채 반듯한 자세로 드러누워 있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보다 더욱 새하얗고 전보다 더욱 예뻐 보였다. 멧쩍고 쭉스러운 나머지 나는 펜스레 히죽히죽 웃기부터 했다. 명은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좇아²⁾ 머리를 움직거렸다.

[2] '명은'의 집으로 들어가는 '나'

[다] “재미있는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놀다 가거라.”

명은이 외할머니가 잣알이 동동 뜬 수정과 그릇과 과자가 수북이 담긴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 온 선물 보따리

를 다짜고짜 풀어 놓기 시작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원수³⁾를 유엔군 총사령관 직에서 해임⁴⁾한 소식부터 먼저 전했다. 연이어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미군 3사단이 연합 작전으로 북괴군 1군단을 포위해서 1개 연대를 섬멸한 소식을 숨차게 전했다.

- 윤흥길, <중탐 아래에서>

[3] ‘명은’에게 최근의 전황을 전하는 ‘나’

[어휘 풀이] 1) 차렷이불 - 숨을 얇게 두어 지은 이불. 2) 좇아 - · 좇다 - 추구하다. 눈길을 보내다. · 쫓다 - 몸을 움직여 뒤따라가다.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 3) 원수 - 장성 계급의 하나. 대장의 위로 가장 높은 계급. 4) 해임 -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

477.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성격 묘사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③ 주인공의 공간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 ④ 효율적인 배경 묘사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⑤ 사회와 인물간이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478. 위 글을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 ④ 독자는 서술자의 제한된 눈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 ⑤ 인물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상황을 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7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일에만 줄 수 있는 것이다.
- ② 물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이다.
- ③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있다.
- ④ ‘명은’에 대한 ‘나’의 배려가 담긴 것이다.
- ⑤ 전쟁 상황에 대한 소식을 ‘명은’에게 전하는 것이다.

480. [서술형] 주일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나’가 시청으로 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481. [서술형] 전황을 ‘명은’에게 전해 줌으로써 ‘나’가 시골 뜨기라고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명은이 너, 섬멸이 무슨 말인지 알어? 몰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여.”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동그라졌다¹⁾. 명은이의 ㉠그같은 반응을 이룰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리들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욱더 신멸을²⁾에 고부라졌다³⁾. 내친김에 나는 미군 9군단이 ‘철의 삼각지⁴⁾’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궤멸시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은이 너, 궤멸이 무슨 뜻인지 알어? 몰르지? 씨만 빼놓고 몽땅 다 때려잡는다는 뜻이여.”

“㉡과자 안 먹니?”

“뭣이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명은이는 헬썩하게 핏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그 때껏 숨어 있던 속눈썹이 기다랗게 드러났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쟁반 위의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들이기⁵⁾ 시작했다.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다.

[1] ‘나’가 전황을 전하지 화내는 ‘명은’

[나]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기력을 되찾아 이튿날 또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다. 나를 피해 정원수 위로 숨어 버린 나비를 대신해서 얼른 공을 집어 명은이에게 돌려준 다음 나는 득의에 찬 목소리로 그날 치의 ㉢전물을 전했다.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60여 시간 사투⁶⁾ 끝에 중공군을 무찌르고 적성 고지를 사수⁷⁾했디야.”

시청 앞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 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읊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손아귀에서 스트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떨어졌다.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서울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2] 이튿날 또 다시 ‘명은’에게 최근 전황을 전하는 ‘나’

[다] “중부 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⁸⁾하고 대승을 거두었다야.”

“㉞듣기 싫단 말야! 제발 그만두란 말야!”

명은이가 쇠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잔디밭에 퍼더버리고⁹⁾ 앉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¹⁰⁾ 사태에 별안간 어안이 병병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꼴도 보기 싫어! 가 버려! 가란 말야!”

- 윤홍길, <중담 아래에서>

[3] ‘나’가 계속해서 전황을 전하지 심하게 화를 내는 ‘명은’

[어휘 풀이] 1 회동그라졌다. - 갑자기 휘둘리어 넘어져 구르다. 2) 신히름 - 신이 나는 대로 싹껏 함. 3) 고부라졌다. - 무엇에 열중하다. 4) 철의 삼각지 - 북위 38도 북쪽 중부에 있는 김화, 철원, 평강을 연결하는 삼각지대. 군사 요지로 한국 전쟁 때 치열한 격전지였음. 5) 겉터들이기 -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휘몰아 돌이다. 6) 사투 -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거나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움. 7) 사수 - 죽음을 무릅 쓰고 지킴. 8) 격퇴 - 적을 쳐서 물리침. 9) 퍼더버리고 -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편하게 뻗고. 10) 돌발 - 뜻밖의 일이 갑자기 일어남.

482. [가]에 나타난 ‘나’의 말하기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태도를 이해하면서 말하고 있다.
- ② 자기 과시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③ 객관적 사실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이야기 하고 있다.
- ④ 부끄러움으로 인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몸 상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483. ㉠과 관련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전인수(我田引水)
- ② 풍전등화(風前燈火)
- ③ 우화등선(羽化登仙)
-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 ⑤ 수구초심(首丘初心)

484. ㉡에 담긴 ‘명은’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 ②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
- ③ ‘나’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마음
- ④ 외할머니의 성의를 무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 ⑤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

485. [서술형] ㉢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나’와 ‘명은’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486. ㉢과 ㉞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a | b |
|----------|--------|
| ① 수동적 표현 | 능동적 표현 |
| ② 객관적 표현 | 주관적 표현 |
| ③ 간접적 표현 | 직접적 표현 |
| ④ 긍정적 표현 | 부정적 표현 |
| ⑤ 자의적 표현 | 타의적 표현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 손으로 제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은이는 거꾸 쇠꼬챙이 소리를 질러 댔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금하게¹⁾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부리나케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²⁾를 그토록 버르잡어³⁾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의 돌맹이를 발부리로 힘껏 걷어차 버렸다.

[1] 영문을 모른 채 관사에서 쫓겨 돌아오는 ‘나’

[나]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 낸 것은 집에 거반⁴⁾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세가지 당부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2]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나’

[다]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나는 하루 동안 관사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 안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관사 언저리를 줄곧 배회하고 있었다. 꼴도 보기 싫다고 명은이가 지르던 췌소리가 내 귓바퀴를 끊임없이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 땀을 흘렸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결국 다음 날 해 질 녘에 관사를 또다시 찾아가고 말았다.

[3] ‘명은’을 다시 찾아가는 ‘나’

[라] 저녁놀에 물든 발그레한 낮꽃으로 ㉠명은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도카니⁵⁾ 서 있었다. 손에 공이 쥐여 있고 곁에 나비란 놈은 알짱거리고 있었지만 공놀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릴없이⁶⁾ 먼산바라기⁷⁾가 되어 언제까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명은이 모습을 나는 철책 밖에서 한참이나 몰래 지켜보았다.

- 윤홍길, <종답 아래에서>

[4] 무기력한 ‘명은’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나’

[어휘 풀이] 1) 해맑게 - 조금 하얗고 깨끗하다. 2) 성깔머리 - 거친 성질을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를 낮잡아 부르는 말. 3) 버르잡어 - 파서 헤치거나 크게 벌려 놓다. 4) 거반 - 거지반. 거의 절반. 5) 오도카니 - 작은 사람이 낮이 나간 듯이 가만히 한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 6) 하릴없이 -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7) 먼산바라기 - 먼 곳만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일. 또는 늘 그런 사람.

487. 위 글에 나타난 ‘나’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은’의 뜻밖의 반응에 매우 당황했다.
- ② 자신이 관사에서 쫓겨나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 ③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명은’에게 화가 났다.
- ④ ‘명은’에게 화가 나서 게시판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명은’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488. ‘명은’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과 같이 반응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 ② 재미가 없는 지루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 ③ 사람을 죽이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 ④ 매일 같이 비슷한 이야기만 되풀이했기 때문에
- ⑤ ‘나’의 자랑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489. ㉡과 같은 ‘나’의 행동에 대해 충고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 상황에 너무 무관심하구나.
- ② 누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면 어떡해?
- ③ ‘명은’이 잘 산다고 너무 주눅든 것 아니야?
- ④ ‘명은’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아봐야지!
- ⑤ 좋아한다는 네 생각을 ‘명은’에게 확실히 말해!

490. ‘명은’이 ㉢과 같은 태도를 보인 이유를 추측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녁놀의 기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 ② 나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 ③ ‘나’를 보지 못하여 친구 없이 지내는 외로움 때문에
- ④ ‘나’의 이야기를 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 ⑤ 저녁 공기를 쉼의 일이 공놀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데엥, 하고 묵중하게 울렸다. 한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쉴 참을 거친 후 텅그렁 땡, 텅그렁 땡, 연달아 기세 좋게 울렸다. 명은이는 느닷없는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광 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저녁놀에 함뿍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 모습에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리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삼일 종¹⁾이여.”

나는 철책 밖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그제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명은이가 화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했다.

[1] 종소리를 듣는 ‘명은’에게 말을 거는 ‘나’

[나] “나비야! 나비야!”

하마터면 잇을 뻔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줄곧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은이는 공을 잔디밭 위로 도르르 굴리면서 부산을 떠는 시늉을 했다. 겨냥이 지나쳐 공은 철책 밑을 통과해서 내 발치까지 데굴데굴 굴러 왔다. 나는 공을 주워 철책 안으로 던졌다.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니?”

거기 누구, 하고 묻는 대신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때맞춰 관사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꾸짖음 반 반가움 반의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잔뜩 낮꽃을 붉힌 채 나는 관사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서 정원으로 나갔다.

[2] 쑥스러워하면서 ‘명은’의 집으로 들어가는 ‘나’

[다] “삼일 종이 뭔데?”

“수요일에 치는 종이며,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삼일 예배라고 불러. 저것은 초종²⁾이여. 한참 있다가 재종³⁾을 칠거여.”

명은이한테 미안해 하던 참에 나는 도롱태⁴⁾ 굴리듯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없이 지껄었다.

“어머나, 견호 너 교회 다니니?”

“영. 딸고만이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여. 명은이 너, 딸고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만이 아버지는…….”

야트막한 언덕 위 신광 교회 종탑 밑에서 종 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 속을 연방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저씨의 양바튼한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다섯 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 준 이름이 딸고만이였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3] ‘삼일 종’ 이야기가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로 이어짐.

[어휘 풀이] 1) 삼일 종 - 수요일 예배에 치는 종. 2) 초종 - 첫 번째 치는 종. 3) 재종 - 두 번째 치는 종. 4) 도롱태 - 사람이 열거나 끌게 된 간단한 나무 수레.

491. 위 글에서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 ② ‘명은’에게 사람에 대한 희망을 안겨 준다.
- ③ ‘나’가 ‘명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④ ‘나’와 ‘명은’으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접하게 된다.
- ⑤ ‘나’와 ‘명은’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492. ㉠을 통해 알 수 있는 ‘명은’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 ② ‘나’와 예전처럼 말동무하길 바란다.
- ③ ‘나’를 다시 만나 쫓느라 쉬고 있다.
- ④ 이전의 ‘나’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하였다.
- ⑤ 관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나’를 한심하게 여긴다.

493. [서술형]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를 ‘꾸짚음 반, 반가움 반’으로 맞이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494. [다]에 나타난 ‘나’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② 준비한 말을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 ③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 ④ 공동 관심사를 찾아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이 아는 바를 떠벌리듯 표현하고 있다.

495. [서술형] ‘나’의 ‘삼일 종’에 대한 말과 ‘전황’에 대한 말이 ‘명은’의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딸내미 이름을 그러코롬 영터리없이 지어 놓으면 요담번엔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다야.”

명은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아,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내기 지지배를 웃게코롬 맨들었다! 나는 ㉠**들**의**양양**¹⁾해서 낫이야 신이야²⁾ 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렸다.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 치는 걸 보면 너도 아매 배꼽을 잡고 웃을 거여.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알어? 키는 나 보담 쪼끔 더 크고, 머리는 홀러딩 뱃겨지고…….”

말을 하다 말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명은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에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다.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저녁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딸고만이 아버지 애길 계속해 봐”

㉢**명은이가 잔디밭 위에 아무렇게나** ㉣**떠벌리고**³⁾ **앉으면**서 재촉했다. 나도 덩달아 명은이 앞에 펍석 주저앉았다.

[1]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명은’

[나] 딸고만이 아버지는 정말 ㉤**괴짜**⁴⁾였다.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곤 했다. 마치 종 줄의 일부분인 양

㉔ **양바툼한**⁵⁾ 몸집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으리만큼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곤두박질치기를 되풀이하면서 힘차게 종소리를 울려 대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종 치는 일이 거반 끝나 갈 무렵쯤 되면 그는 자기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들어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조무래기들 가운데서 딱 한 명만 골라 딱 한 차례만 종줄을 잡아당기는 영광을 안겨 주곤 했다. ㉕ **그악스레**⁶⁾ 뒤쫓아 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놀려 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대개 특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2]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한 설명

[다] “딸고만이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앞을 못 보는 명은이가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를 본단 말인가?

“눈엔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은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광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 윤홍길, <종답 아래에서>

[3] ‘나’와 ‘명은’이 신광 교회에 가기로 함.

[어휘 풀이] 1) 득의양양 -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냄. 2) 녀이야 신이야 -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마구 털어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퍼벌하고 - 걸모양을 꾸미지 아니하다. 4) 괴짜 - 괴상한 짓을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5) 양바툼한 - 찰막하고 딱 바라져 있다. 6) 그악스레 - 끈질기고 억척스러운 데가 있게.

496.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은’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 ② ‘나’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 ③ ‘나’와 ‘명은’을 더욱 가깝게 해 준다.
- ④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를 밝게 조성한다.
- ⑤ 인물의 회화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497.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행동에 실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나’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 ③ ‘나’의 말실수에 대한 걱정이 쓸데없음을 알게 한다.
- ④ ‘나’와 ‘명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나’와 ‘명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498. 종 치기 전후의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존경함 → 부러움
- ② 놀림감 → 성실함
- ③ 부러움 → 놀림감
- ④ 성실함 → 존경함
- ⑤ 놀림감 → 감탄함

499. ㉔~㉕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냄.
- ② ㉔ : 걸모양을 꾸미지 않고.
- ③ ㉔ : 괴상한 짓을 잘하는 사람.
- ④ ㉔ : 체구가 크고 듬직한.
- ⑤ ㉔ : 끈질기고 억척스럽게.

500. [서술형] 종 치는 일에 대한 ‘딸고만이 아버지’의 태도를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주일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은 굼땡이 걸음처럼 더디 흘러갔다.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은이와 나는 ㉔ **딸고만이 아버지가 초종을 울릴 시간에 맞추어 관사를 출발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관사에서 신광 교회까지 평상시보다 곱절 이상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 학교 ㉕ **반사한 테서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명은이에게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1] ‘나’와 ‘명은’이 신광 교회로 가는 과정

[나]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 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칙녕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칙녕쿨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 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었다.

[2] 백마가 종을 울린 이야기

[다]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짹 움켜쥐면서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열김¹⁾에 말갈망²⁾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칩시다 맘속으로 소원을 빌으면은 그 소원이 죄다 이뤄진디야.”

[3] ‘명은’에게 누구든 종을 칠 수 있다고 허세부리는 ‘나’

[라] 마침내 신광 교회 입구로 들어섰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 모습은 교회 근처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인 양 높고 가파른 돌계단이 우리 앞을 떡하니 막아섰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명은이를 단단히 부축한 채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4] 교회에 도착해 돌계단을 오르는 ‘나’와 ‘명은’

[어휘 풀이] 1) 열김 -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얼얼떨떨한 상태. 2) 말갈망 - 자기가 한 말의 뒷수습.

501. ㉠과 같이 행동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회에 도착할 시간을 알리는 종이므로
- ② ‘명은’이 종 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해서
- ③ ‘명은’이 종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싶어 해서
- ④ ‘명은이 외할머니’가 허락한 시간이 그때 즈음이라서
- ⑤ ‘명은’이 종 치는 저녁 교회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502. 위 글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에게 흥미 있는 이야기를 제공한다.

- ② 인물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 ④ 작품의 주제와 맞물려 주제를 형상화한다.
- ⑤ 인물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503. 백마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마는 부당하게 버림을 받았다.
- ② 종소리는 백마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었다.
- ③ 동물에 빗대어 주제를 드러내는 우화이다.
- ④ 은혜와 그 보답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 ⑤ 백마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종을 울렸다.

504.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회의 종소리의 특정 의미를 부여한다.
- ② ‘명은’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도록 한다.
- ③ 백마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명은’에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한다.
- ⑤ 백마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505. ‘나’가 ‘명은’과 신광 교회로 가기로 약속한 주일 저녁을 몹시 기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돌계단을 다 오르자 비긴 저녁 햇살을 듬뿍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웅장한 석조 교회당이 시야를 그득 메웠다. 우리는 종탑 앞에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교회당 뒤편 사택¹⁾ 쪽에서 딸고만이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1] 종탑 앞에서 때를 기다리는 ‘나’와 ‘명은’

[나] “딸고만이 아부지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나는 명은이에게 귀엣말로 가만히 속삭였다. 길게 뻗은 교회당 건물 옆구리를 따라 통로에 깔린 자갈을 밟으며 딸고만이 아버지가 걸어왔다. 명은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로 저 벽저벽 다가오는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저녁 햇살을 함빡 뒤집어쓴 딸고만이 아버지의 민머리²⁾가 앞전구³⁾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바르게 꾸뻑 인사를 올렸다. 딸고만이 아버지는 나를 금세 알아보았다. 그러나 낯선 얼굴인 명은이 쪽에 짙은 눈길을 던졌을 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범생처럼 구는 나를 거들떠도 안 보면서 그는 되우 빠저⁴⁾ 대는 걸음걸이로 종탑에 다가섰다. 그는 몸에 익은 솜씨로 종탑 쇠기둥을 타고 뽀르르⁵⁾ 위로 기어오른 다음 아이들 손이 닿지 않을 높직한 자리에 매어 놓은 종 줄을 밑으로 풀어 내렸다. 그가 굵은 밧줄을 힘차게 아래로 잡아당기자 종탑 꼭대기 그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낫종이 한쪽으로 휘우뚱⁶⁾ 기울어졌다. 또 한차례 줄을 잡아당기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낫종이 휘우뚱 넘어갔다. 오른쪽, 왼쪽, 번차례로 기울어지기를 두 번, 세 번…….

[2] 종을 울릴 준비를 하고 줄을 잡아당기는 ‘딸고만이 아버지’

[다] “인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여.”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데앵,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둔중한⁷⁾ 종소리에 놀라 명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껌싸게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딸고만이 아버지의 양바튼한 몸집은 어느새 종 줄과 한 몸을 이루어 ㉠철 새 없이 허공을 오르락내리락하
느라 발바닥이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싸대
기를 사정없이 갈겨 댔다. 나는 명은이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댔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했다. 기다란 종소리의 중동을 딱 잘라 동강을 내었다가 다시 이어붙이기를 되풀이하는 그 장난이 명은이 얼굴에 발갱게 꽃물이 배게끔 핏기를 돌우었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3]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함.

[어휘 풀이] 1) 사택 - 직원을 위하여 그 기업체나 기관에서 지은 살림집. 2) 민머리 - 정수리까지 벗어진 대머리를 이르는 말. 3) 앞전구 - 갓 따위의 가리개에 없는 전구. 또는 전선 끝에 달려 있는 맨전구. 4) 빠저 - 알미를 정도로 매우 우쭐거리며 자랑하다. 5) 뽀르르 - 자그마한 사람이나 짐승이 부리나케 달려가거나 쫓아가는 모양. 6) 휘우뚱 - 사람이나 물체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양. 7) 둔중한 - 소리 따위가 매우 무겁고 무딘.

506. 종소리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흔들림 → 느린 종소리 → 빠른 종소리
- ② 흔들림 → 빠른 종소리 → 느린 종소리
- ③ 느린 종소리 → 흔들림 → 빠른 종소리
- ④ 느린 종소리 → 빠른 종소리 → 흔들림
- ⑤ 빠른 종소리 → 흔들림 → 느린 종소리

507. [나], [다]에 나타난 ‘명은’의 심리 변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기심 → 긴장 → 실망 → 두려움
- ② 긴장 → 호기심 → 놀람 → 즐거움
- ③ 놀람 → 기다림 → 즐거움 → 실망
- ④ 실망 → 기다림 → 호기심 → 즐거움
- ⑤ 기다림 → 호기심 → 즐거움 → 긴장

508. [A]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활용한 것은?

- ① 너무 놀라 간이 콩알만해졌다.
- ② 산더미 같은 파도가 와 우리 앞을 덮쳤다.
- ③ 이름 모를 들꽃이 나를 보고 수줍게 웃는다.
- ④ 사회에, 나라에, 세계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
- ⑤ 우리가 보호한 산은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509. [서술형]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510. ㉡에 나타난 심상이 드러난 것은?

- ① 푸른 하늘, 향긋한 꽃내음
- ② 달빛 같은 늑대의 울음소리
- ③ 차가운 기운에 잠에서 깨었다.
- ④ 달콤한 사랑은 쓴 사랑과 함께 한다.
- ⑤ 응원단의 함성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건공중¹⁾에 둥둥 떠 있던 딸고만이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 새 슬그머니 땅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종 치는 작

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 줄 잡아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하는 중이었다. 나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딸고만이 아버지**가 아닌 ㉢**사찰 아저씨**를 향해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띄워 보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아침이었다. 사찰 아저씨 아닌 딸고만이 아버지는 결국 나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딱 한 차례 종 줄을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풀지 않은 채 매정하게 종 치기를 끝내 버렸다. 주일마다 뒤통무늬를 밟고 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그악스레 놀려 댄 지난날들이 여간만 후회되는 게 아니었다.

[1] 종 치는 작업이 마무리됨.

[나] 아쉬움을 달랠 요량으로 나는 얼른 고무신을 벗어 들었다. 여태껏 늘 해왔던 방식에 따라 나는 바야흐로 저녁하늘 저 멀리 사라지려는 마지막 종 소리를 고무신짝 안에 양껏 퍼 담았다. 그런 다음 껍싸게 고무신짝을 명은이 컷바퀴에 찰싹 붙여 주었다. 그러자 명은이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가득 번져 나기 시작했다. 어미 종은 이미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고무신짝 안에는 새끼 종이 담겨 아직도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종이 꿀벌처럼 잉잉거리면서 대고 명은이 귀를 간질이고 있을 것이었다.

[2] 고무신에 마지막 종소리를 담아 '명은'의 컷바퀴에 붙여 주는 '나'

[다] 왔던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호사스런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여 있어서 ㉣**관사까지 걷는 시간이 조금 전보다 절반 이하로 짧게 느껴졌다**. 명은이는 흥분한 기색을 여간해서 감추지 못했다. 관사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명은이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객쟁이 서울 계집애 입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나오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3] '명은'이 '나'에게 고맙다고 함.

[라] “건호야.”

일껏 내 이름을 불러 놓고도 명은이는 한참이나 더 땀을 들인 다음에야 가까스로 뒷말을 이었다.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

참으로 난처한 순간이었다. 틀림없이 집 안 어느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명은이 외할머니를 의식하면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예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결국 명은이 손을 끌어다 내 얼굴에 대 주었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아 버렸다. 촉촉이 땀에 젖은 손이 내 얼굴 윤곽을 천천히 더듬어 나가기 시작했다. 명은이는 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신중히 어루만졌다.

[4] '명은'이 '나'의 얼굴을 만짐.

[마] “얼굴이 아주 잘생겼구나. 나한테 얼굴을 보여 줘서 고마워.”

난생 처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핫핫 달아오르는 뺨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도망치다시피 관사 앞을 떠나 버렸다. 관사로부터 멀어지자 나는 경중경중 땀걸음²⁾을 놓기 시작했다. 비록 서투른 숨씨나마 회파람을 후익후익 날리면서 나는 신나게 집으로 향했다.

- 윤홍길, <종답 아래에서>

[5]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나'

[어휘 풀이] 1) 건공중 - 반공중, 2) 땀걸음 - 땀다시피 빠르게 걷는 걸음.

51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명은'을 즐겁게 해 주었다.
- ② '나'는 '딸고만이 아버지'에게 아침을 했다.
- ③ '나'는 다른 아이가 종을 치게 되어 아쉬웠다.
- ④ '나'는 '명은'의 칭찬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 ⑤ '나'는 '딸고만이 아버지'를 놀린 것을 후회했다.

512. ㉣의 구체적인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의 장난을 용서해 주는 일
- ② '딸고만이 아버지'가 사찰 아저씨를 데리고 오는 일
- ③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에게 종 칠 기회를 주는 일
- ④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소리를 한 번 더 들려 주는 일
- ⑤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의 존경어린 인사를 받아 주는 일

513. [서술형] ㉡와 ㉢의 관계와 대상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서술하십시오.

51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종소리의 여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 ② 돌아갈 때는 지름길로 갔기 때문에
- ③ 한 번 갔던 길이라 익숙했기 때문에
- ④ 시간이 늦어 걸음을 재촉했기 때문에
- ⑤ 내리막길이라 걸음이 빨라졌기 때문에

515. ‘나’에 대한 ‘명은’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장난에 즐거워하였다.
- ② ‘나’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다.
- ③ ‘나’에 대한 친근감이 더욱 커졌다.
- ④ ‘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실망했다.
- ⑤ ‘나’와 종소리를 듣고 감동을 느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 온 것은 신광 교회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다시 만나자마자 명은이는 나를 붙잡고 ㉠**엉뚱깡뚱한** 소리를 했다.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 줘. 내 손으로 종을 쳐 보고 싶어.”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만이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여!**”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청을 ㉢**모지락스레**¹⁾ 거절했다. 하지만 명은이는 나한테 ㉣**검질기게**²⁾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치고**³⁾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 보고 싶어.”

“종은 쳐서 뭇 헐라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1] 종을 치게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는 ‘명은’

[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 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른 아님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소리를 지껄인 일이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알었다고. 알었다니께.”

연방 ㉥**도리머리**⁴⁾를 하는 내 마음과는 판판으로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잘도 흘러나왔다. 끝끝내 명은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2] ‘명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

[다] “일요일은 절대로 안 되야. 수요일도 절대로 안 되야.”

“그럼 언제?”

보이지도 않는 눈을 반짝 빛내면서 명은이가 대답을 재촉했다. 예배 모임이 없는 평일이라면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기도 했다.

“목요일 밤중이라면 혹간 몰라도…….”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3] 목요일 밤중에 종을 치기로 정함.

[어휘 풀이] 1) 모지락스레 - 보기에 억세고 모질게. 2) 검질기게 - 성질이 s 행동이 몹시 끈덕지고 질기게. 3) 비라리치고 - 구구한 말을 하여 가며 남에게 무엇을 청하고. 4) 도리머리 -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싫다거나 아니라는 뜻을 표시하는 것.

5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명은’은 동화 속의 백마를 흉내 내고 싶어 한다.
- ② ‘나’는 ‘명은’의 부탁에 대해 마음과 말을 달리하고 있다.
- ③ ‘나’는 ‘명은’이 종을 쳐 보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 ④ ‘명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딸고만이 아버지’다.
- ⑤ ‘나’는 ‘명은’에게 설득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다.

517. ㉠의 근본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종은 누구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 ② ‘딸고만이 아버지’의 성격이 고약하므로
- ③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를 잘 때리므로
- ④ ‘나’와 ‘딸고만이 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 ⑤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종을 칠 수 없으므로

518.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 ② ㉢ : 억세고 모질게.
- ③ ㉣ : 바짝 다가서며.
- ④ ㉤ : 구구한 말을 통해 무엇을 청하고.
- ⑤ ㉥ : 아니라는 의미로 머리를 좌우로 흔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519. [서술형] ‘명은’이 종을 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다음을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맘속으로 소원을 빌으면은 그 소원이 죄다 이뤄진디야.”

520. [서술형] ‘나’가 ‘명은’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던 이유를 추측하여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목요일 낮이 지나갔다.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 왔다. 명은이는 시내 산보를 구실 삼아 외할머니한테 밤마을¹⁾을 허락받았다. 어둠길을 나서는 우리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관사 밖 길가까지 따라 나와 걱정스런 얼굴로 배웅했다. 앞 못 보는 외손녀를 걱정하는 백발 노파의 마음이 신광 교회까지 줄곧 우리와 동행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1] ‘나’와 ‘명은’이 신광 교회로 향함.

[나] 명은이 손을 잡고 신광 교회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온몸은 사뭇 떨렸다. 지레 흥분이 되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맘에 흠뻑 젖은 명은이 손 또한 달달 떨리고 있었다.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짜듯 모자라는 용기를 빨끈 쥐어짜다.

[2] ‘나’와 ‘명은’이 신광 교회 돌계단을 오름.

[다] 신광 교회는 어둠 속에 고자누룩²⁾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려는 엄청난 짓거리에는 어울리게끔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나는 종탑 가까이 명은이를 잡아끌었다. 괴물처럼 네 개의 긴 다리로 일어서는 철제의 종탑이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하고 있었다.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기³⁾ 직전의 순간처럼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해 댔다. 그런 다음 딸고만이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종탑 쇠기둥을 타고 뽀르르 위로 기어 올라 철골에 매인 밧줄을 밑으로 풀어 내렸다.

[3] 종탑 위로 올라가 밧줄을 풀어 내리는 ‘나’

[라] “꼭 붙잡고 있어.”

명은이 손에 밧줄 밑둥을 쥐여 주고 나서 나는 양팔을 높이 뻗어 밧줄에 다 내 몸무게를 몽땅 실었다. 그동안 늘 보아 나온 딸고만이 아버지의 종치는 숨쉴을 흉내 내어 나는 죽을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종탑 꼭대기에 되뚝 없던 거대한 낫종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첫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얼얼하게 전해져 왔다. 마치 한㉠풀줄기⁴⁾에 나란히 매달려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두 마리 딱따개비⁴⁾처럼 명은이 역시 밧줄에 제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통으로 건공중을 오르내리는 동작에 어느새 눈치껏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 코끝에 흑흑 끼어있는 명은이의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⁵⁾로 미루어 명은이가 시방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너끈히⁶⁾ 짐작할 수 있었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4] 온 힘을 다해 종의 밧줄을 잡아당기는 ‘나’와 ‘명은’

[어휘 풀이] 1) 밤마을 - 밤에 이웃이나 집 가까운 곳에 놀러 가는 일. 2) 고자누룩 - 한참 떠들썩하다가 조용하게. 3) 자맥질하기 -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다. 4) 딱따개비 - 딱따기. 메뚜기과의 곤충. 5) 단내 - 몸의 열이 몹시 높을 때, 입이나 코 안에서 나는 냄새. 6) 너끈히 - 무엇을 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521. 위 글의 주된 내용 전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대화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③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전개하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 표현하며 전개하고 있다.
- ⑤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대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전개하고 있다.

522. 위 작품을 영화로 만들 때 감독의 요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밤마을을 나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명은이 외할머니’는 두 사람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세요.
- ② ‘나’와 ‘명은’은 서로 손을 잡고 어두운 밤길을 다른 사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람의 눈을 피해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세요.

- ③ 돌계단을 오를 때 ‘나’와 ‘명은’은 긴장감이 묻어나도록 표정 연기를 해 주세요.
- ④ 중탑 아래 도착하면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을 연기하세요.
- ⑤ 중탑 아래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연기하세요.

523. ㉠에서 ‘나’가 생각한 ‘명은’의 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종소리에 기뻐 웃는 모습
- ② 힘들어서 땀이 나간 모습
- ③ 힘들지만 온 힘을 다하는 모습
- ④ 소원을 이루었다는 환희의 모습
- ⑤ 누가 올지 몰라 불안해 하는 모습

524. ㉠~㉣의 원관념을 찾아 쓰시오.

- ㉠ :
- ㉡ :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원 빌을 준비를 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데엥,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그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가 힘들었다. 일단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기세 좋게 울려 대는 종소리에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1] 기세 좋게 울려 대는 종소리

[나]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은이를 채근하는 한편 나도 맘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를 잠시 귀먹쟁이¹⁾로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명은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절굿공이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찧을 적마다 늦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부르르 진저리²⁾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 댔다.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을 대로 붙어 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다.

[2] 종소리와 함께 소원을 비는 ‘나’와 ‘명은’

[다] 한창 종 치는 일에 고부라져³⁾ 있었던 탓에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되알지게⁴⁾ 엉덩이를 한방 걷어채고 나서야 양바툼한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듯한 고향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떼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주먹질과 밧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마구잡이 매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 주기 위해 ㉢나는 양다리를 가새질러⁵⁾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한테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 대는 두 아이를 혼잣손으로 좀처럼 떼어 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 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별안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때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이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땡그렁 땡…….

- 윤홍길, <중탑 아래에서>

[3] ‘명은’의 울음소리를 태운 종소리가 하늘로 올라감.

[어휘 풀이] 1) 귀먹쟁이 - ‘귀머거리’의 방언. 2) 진저리 - 차가운 것이 몸에 닿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에, 또는 오줌을 누 뒤에 으스스 또는 몸짓. 3) 고부라져 - 무엇에 열중하여. 4) 되알지게 - 힘주는 맛이 나 역짓손이 몹시 세게. 5) 가새질러 - 어긋매개어 엇갈리게 하여.

525. [서술형] 다음을 참고하여 ㉠와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짜듯 모자라는 요기를 발끈 쥐어짜다.

52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 ② ‘딸고만이 아버지’에게 크게 혼날 것이므로
- ③ ‘명은’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 ④ ‘딸고만이 아버지’로부터 ‘명은’을 지키려고
- ⑤ 지금 놓으면 종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527. [서술형] ㉠을 통해 알 수 있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가진 역학의 양면성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528. ㉡의 의미를 ‘명은’의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히 파악한 것은?

- ① 전쟁으로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
- ② 전쟁으로 부정부패가 판치는 사회
- ③ 전쟁으로 고통받는 절망적인 사회
- ④ 전쟁으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 ⑤ 전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하는 사회

529. ㉢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줄임표 속에서 강한 여운을 느낄 수 있어.
- ② 텅그렁거리는 종소리가 나에게도 들리는 것 같아.
- ③ ‘명은’의 울음이 섞여서 ‘명은’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
- ④ 종소리가 잦아지면서 ‘명은’의 울음도 그치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 같아.
- ⑤ ‘명은’이 눈을 뜨게 되지는 못하지만 ‘명은’에게는 희망을 주는 소리인 것 같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비야! 나비야!”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구르기를 멈추었다.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만한 자리였다. 뜬금없이 웬 나비 타령인가 의아해서 나는 계집애의 행동거지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때였다.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정원수 가지에서 잔디밭 위로 헛숨 뿜치처럼 사뿐히 내려앉더니만 공을 향해 달려왔다. 고양

이는 철책 너머에 버티고 서 있는 웬 낯선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갑자기 달음질을 멈추었다.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뽀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 아이라고 단정해 버렸다.

[나] 그리고 서울내기들은 제아무리 똑똑한 척해 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멸절한 고양이를 나비라 부르다니, 그렇다면 팔랑팔랑 공중을 날아다니는 진짜배기 나비는 대관절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옳단 말인가?

“거기 누구…….”

뭔가 수상쩍은 낌새를 챘는지 계집애가 내 쪽을 멀뚱멀뚱 건너다보며 위 아랫입술을 연방 달막거렸다. 계집애의 행동을 훑쳐보다 들킨 것이 창피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계집애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체페체페 따라잡지 못했다.

[다] “거기 누구?”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답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당달봉사다!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뜯장님이란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만세 주장 지에밥을 훑쳐 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애의 그 회고도 곱상한 얼굴이, 그 화사한 옷맵시가, 어딘지 모르게 곱뜨고 어설피 보이던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줄곧 떠나지 않았다.

[라]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60여 시간 사투 끝에 중공군을 무찌르고 적성 고지를 사수했디야.”

시청 앞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 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읊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손아귀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떨어졌다.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서울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중부 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하려고 대승을 거두었다야.”

“㉠듣기 싫단 말야! 제발 그만두란 말야!” <중략>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맑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부리나케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버르집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의 ㉡돌맹이를 발부리로 힘껏 걷어차 버렸다.

[마]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 낸 것은 집에 거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세 가지 당부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시청 앞 계시관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5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명은’은 앞을 볼 수 없는 처지이다.
- ② ‘나’는 벽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명은’에게 전하였다.
- ③ ‘나’는 외모 때문에 ‘명은’을 서울 아이라고 생각했다.
- ④ ‘나’는 지에밥을 훔쳐 먹으러 가던 길에 ‘명은’을 만났다.
- ⑤ ‘명은’은 ‘나’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5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나’와 계집애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 ② ㉡ : ‘계집애’가 당달봉사인 것에 놀란 ‘나’의 심리가 드러난다.
- ③ ㉢ : 사람들에게 전할 소식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 ④ ㉣ : ‘나’의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명은’의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 관사에서 쫓겨난 ‘나’가 화풀이하는 대상이다.

532. [서술형] ㉠과 ㉡을 통해 ‘명은’이 겪었을 일을 유추하여 평서형의 문장으로 30자 이내로 쓰시오.

533. [라]에서의 ‘명은’의 정서와 가장 관계 깊은 시어는?

- ① 심중에 남이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

- ②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르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르닐니리

- 한하운, <보리피리>

- ③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컷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 박인환, <목마와 숙녀>

- ④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 ⑤ 꿈에서 마악 돌아와
꿈의 이슬에 촉촉이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 정한모, <나비의 여행>

534. [서술형] 위 글에서 ‘나’가 ‘명은’에게 가지는 감정의 변화를 [가]~[마]의 각 단계별로 차례대로 서술하시오.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대문간에 막 발을 들여놓으려는 나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다시 불러 세웠다.

“우리 명은이, 참 불쌍한 아이다. 제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치참하게 죽는 꼴을 두 눈 번쩍 뜨고 지켜본 아이다. 그날부터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 봤다면서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는, 아주 몸쓸 병에 걸려 버렸단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낫는, 아주 고약한 병이란단다.”

눈물 구덩이에 풍당 빠져 허우적대는 눈동자로 명은이 외할머니는 내 얼굴을 간신히 건너다보았다. ㉣때깅이 고운 한복 차림에 기품이 넘쳐 나던 명은이 외할머니의 모습이 한 순간에 와르르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마땅히 그 래야만 될 성싶어 나는 덮어놓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만 되풀이했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내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우리 명은이한테 말동무라고는 세상천지 달랑 ㉤고양이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단다. 앞을 못 보게 된 뒤로 우리 명은이가 고양이 말고 사람을 말동무로 삼은 건 ㉥건호, 니가 맨 처음이란단다.”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나] [앞부분의 줄거리] 일제의 지용에 나갔다가 한쪽 팔을 잃은 만도는 전쟁터에서 돌아올 진수가 무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를 만나 충격에 빠진 채 아들과 함께 귀가한다. 개천 독 ㉦외나무다리 앞에서 만도는 진수에게 업하라고 한다.

만도는 등을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자아, 어서!”

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할 끼다.”

했다.

- 하근찬, <수난시대>

535. [가]와 [나]의 공통점만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ㄱ. 서술자의 시점이 일치한다.
- ㄴ. 등장인물의 고통이 해소될 가능성이 드러난다.
- ㄷ. 등장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의 원인이 드러난다.
- ㄹ. 장애를 지닌 인물이 등장한다.
- ㅁ.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 ④ ㄴ, ㄷ, ㄹ
- ⑤ ㄱ, ㄹ, ㅁ

53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은이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다.
- ② ‘명은이 외할머니’의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③ ‘나’의 감정 변화를 ‘명은이 외할머니’에게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 ④ 자신을 야단치는 ‘명은이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반감이 드러나 있다.
- ⑤ ‘명은이 외할머니’는 ‘명은’에게 닥친 고통에 진심으로 마음아파하고 있다.

537. [서술형] [나]가 전쟁 후에 쓰인 소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지 30자 이내로 쓰시오.

538. [서술형] ㉥에서 진수가 느꼈을 심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십시오.

539. ㉠~㉥중, 작품의 전개상 [나]의 ‘만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 ① ㉠
- ② ㉡
- ③ ㉢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④ d
⑤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 보고 싶어.”

“종은 쳐서 뭇 헐라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소리를 지껄인 일이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중략>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 대는 두 아이를 혼잣손으로 좀처럼 떼어 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맞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 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별안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때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이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 텅그렁 텅 텅그렁 텅 텅그렁 텅…….

- 윤홍길, <종탑 아래에서>

[나]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뒤통을 테이

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 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 최인훈, <광장>

5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다.
- ② [가] :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가 드러난다.
- ③ [나] : 설득하는 말하기가 주로 나타난다.
- ④ [나] :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나타난다.
- ⑤ [나] : 설득을 받는 자는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541. <보기>에서 각각 ‘나’와 ‘명은’에 대응되는 소재를 찾고, 그 의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보 기

옛날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 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칙녕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칙녕쿨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 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었다.

54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빠른 종소리로 전환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긴 여운을 남김으로써 감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③ 종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 ⑤ 종소리를 완전히 끝맺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한다.

543. [나]의 장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능한 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 ② 새로운 정보를 분석적으로 전달한다.
- ③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공감한다.
- ④ 엄포를 놓으며 상대방의 선택을 강요한다.
- ⑤ 객관적인 근거를 대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한다.

544. [서술형] [가]의 ‘명은’의 입장에서 [나]의 ‘명준’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천체박] 7단원 추가

7(종합) 맥락과 이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올해 35세의 김모(여) 씨는 28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7년 동안 안 해 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다행히 아이가 별 탈 없이 잘 자라 주었고 열심히 산 덕분에 내년쯤이면 작은 옷 가게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에는 착한 남자를 만나 새 가정도 꾸리게 됐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던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성큼 다가섰다.

하지만 그동안 호주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아들 녀석과 남편이 이마를 맞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얻는 듯 행복하다가도 둘이 친부자 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듯 아팠기 때문이다.

다행히 호주제가 폐지돼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있게 됐다.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가 현재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1] 사례1 [문제점] 자녀의 성씨 문제로 인한 재혼 여성의 고통 [해결 방안] 아이에게 새아빠의 성(姓)을 줄 수 있도록 함.

[나] 호주제는 남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특정한 가족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다. 이로써 호주제는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제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호주제의 비인간성

[다]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고대 이래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 혈통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계 혈통주의의 존립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다. 이는 일제 잔재로서의 색채를 불식하고 우리 고유의 관습으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 관계를 규

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서 혼인과 가족 관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족법의 영역에서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전통 가족 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

[라]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전통 가족 제도의 핵심인 부계 혈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의 계승을 위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아내의 남편 호적 입적 원칙, 자녀의 부가(父家) 입적 원칙 및 호주 승계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호주제가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임의 분가, 호주 승계권의 포기 등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4]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호주제

545. 기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했을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 만난 아빠는 착한 사람입니다.
- ② 저는 곧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 ③ 7년 동안 엄마와 함께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 ④ 현재의 성은 돌아가신 아빠의 성을 따른 것입니다.
- ⑤ 이제 우리 집의 호주는 명백히 새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546. ㉡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②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
- ③ 현실과 모순되는 법의 폐쇄성
- ④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547. [나]~[라]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 ② 판단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 ③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이유나 근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⑤ 제도를 변화시켜 바람직한 변화를 얻고자 했다.

548. [서술형] [가]에서 알 수 있는 [나]~[라]의 견해가 등장한 사회적 맥락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549. [서술형] ㉠에 대한 반론을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550. [다]의 핵심 쟁점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은 도식적인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 ② 전통보다 헌법의 이념이 더 우위에 있다.
- ③ 호주제는 현행법이기 때문에 전통이 아니다.
- ④ 가족법에서 전통적 요소는 일체의 잔재이다.
- ⑤ 반드시 전통적인 것이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551. [라]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주제는 헌법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호주제는 가족법의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 ③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가족 제도이다.
- ⑤ 호주제는 헌법에 부합하는 가족 제도로서 존치되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까치의 낙성연에 찾아간 비둘기는 갖은 행패 끝에 까치를 죽게 한다. 이에 못 새들이 비둘기를 묶어 보라매 사또에게 인도하나 비둘기의 행패가 두려워 아무도 올바른 증언을 못하므로 사또는 마을의 원로인 두꺼비를 관아로 소환한다.

<중략>

㉠**접 동지** 일어나 절하고 다시 여쭙오되,

“이 늙은 것이 남의 원통한 일을 어찌 조금이나 속이리이까?” 신은 근본 길짐승이오나 나이 많은 연고로 두민이니, ㉡**까지** 낙성연에 참석하여 본즉, 모든 날짐승을 다 청하였으되, 오직 비둘기를 청치 아니하였기로 괴이히 여겼삽더니, 원근 까치와 ㉢**비둘기**가 혐의 있삽던데 마침 비둘기 지나가는 것을 까마귀가 청하여 말석에 참예하고 비둘기가 이르되, ‘금일은 봉황 대군의 국기일인데 풍악이 불가하다.’ 하온즉, 까치 분하여 취중에 비둘기를 책하여 가로되, ‘남의 잔치에 왔으면 음식이나 주는 대로 먹고 갈 것이지, 청치 아니한 데 와서 묻지 아니하는 말을 하느냐?’ 하되, 모든 객이 그 말이 옳다 하거늘, 비둘기 무료하여 가로되, ‘저놈이 제 잔치에 왔다하고 날더러 욕하는 것이 구태여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에 팽두이숙(烹頭耳熟)이라 하였으니, 제 객인들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국기일에 풍류 연락이 만일 알려지면 중죄를 당할 것이니 돌아감이 옳다.’ 하온즉, 결국한 까치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비둘기에 달려들어 건어찰 적에 수만 장 높은 가지에서 허전(虛傳)하여 떨어져 죽으니, ‘나로 인하여 죽는구나.’라 하였고, 연후 비둘기가 정범(正犯)이 되었나이다.”

하되, ㉣**군수** 그 말을 듣고 돌려보내 후,

“이 일을 어찌할꼬?”

하니, ㉤**책방 구진**이 너물을 받았던 고로 이때에 아뢰되, “나도 염담하온즉 비둘기 애매할지 분명하더이다. 성정이 조급한 까치 성급히 제 곁에 질려 죽고 못 갠 것을 애매한 비둘기로 정범을 삼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아니하리오?”

말할 적에 앵무새 여쭙오되,

“비둘기의 처가 소녀이 사촌이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사또님은 굽어살피옵소서.”

하며 애걸하니, 군수 즉시 회살 보장(報狀)을 올린 후, 정범을 잡아들여 국문하니 비둘기 울며 아뢰되,

“이 몸이 근본 충효를 본받고자 하여 사서삼경과 외가서

를 많이 보았으니, 족히 육십사과를 짐작하오며 충효를 효측하옵더니 근년 정월에 신수(身數)를 본즉, 근년 수가 불길하와 ‘관재 구설수가 있으니 연락하는 곳에는 가지 말라.’하는 것을 무심히 알았삽더니, 까치 낙성연에 우연히 지나옵다가 이 지경을 당하오니, 오는 수는 면하기 어렵다는 말이 옳사오며, 일전에 어려운 줄을 알지 못한 단 말이 옳사이다. 저 암까지 사리도 알지 못하고 이 몸을 모함하였사오니, 이 몸의 사생은 명철하신 사또 처분에 있사오니 아뢰올 말씀없나이다.”

[A] 하거늘, 군수 청파에,
 “감영 보장의 회신을 기다려 걸쳐하리라.”
 하고 엄수하였더니, 일일은 보장이 회신하였거늘 드디어 걸쳐하되, 모든 증인들은 풀어 주고 정범은 곤장 세 대에 방출하거늘, 비둘기 기빠하며 춤추며 하는 말이,
 “큰 죄를 면키 어렵단 말은 허언이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옳도다.”
 하며 의기양양하며 돌아가는지라.

[라]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호주제

552.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을 의인화하여 관직과 성격을 부여하였다.
- ②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인간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 ④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서술하였다.
- ⑤ 사건의 빠른 전개보다는 주로 사안에 대한 인물들의 의견이 교환되었다.

553.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비둘기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교활한 인물이다.
- ② ㉡ : 자신의 잔치에서 죽은 인물이다.
- ③ ㉢ : 재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인물이다.
- ④ ㉤ : 까치의 죽음을 공정하게 조사하는 인물이다.
- ⑤ ㉥ : 실세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인물이다.

554.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여 상대의 논리를 제압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능력과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은근히 비난하고 있다.
- ④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과장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 ⑤ 운이 좋지 않아서 사건에 연루된 안타까운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555. [서술형] 위 글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간략히 쓰시오.

556. [서술형]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튿날 나는 ㉠**학교가 과하기 무섭게 곧장 익산 군수 관사로 달려갔다.** 관사 정원에서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계집애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거리를 재기 위함인 듯 몇 발짝 조심스레 걷다가는 공을 잔디밭 위로 도르르 굴렸다.

“나비아! 나비아!”

아마도 철책 너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 듯 나 비판 높은 정원수 가지들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나옹나옹 울어 대기만 했다. 공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 거의 정확히 떨어 있었다. 나는 통탕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철책 틈새로 손을 넣어 공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계집애를 향해 던져 주었다. 공이 발치 가까이에 떨어지는 순간 계집애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 “건호야, 학교 끝나면 우리 관사에 자주 놀러 와도 괜찮다. 그 대신 너한테 신신당부할 게 있다. 우리 명은이 듣는 데서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단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첫째, 부모 이야기. 둘째,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셋째, 장님 이야기.

“더군다나 당달봉사 같은 말은 아주 좋지 않은 말이니까 우리 명은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 않도록 단단히 입조심해야 된다. 알겠냐?”

㉠나는 **햇햇 달아오른 낮꽃을 들키지 않으려고** 부러 두어 발짝 뒤로 처져서 걸었다. 명은이 외할머니는 만세 주장 뒷골목까지 나랑 동행해서 기어이 우리 집을 확인한 다음에야 발길을 돌렸다.

[다] “명은이 너, 섬멸이 무신 말인지 알아? 몰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여.”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동그라졌다**. 명은이의 그같은 반응을 이틀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욱더 신떨음에 고부라졌다. 내친김에 나는 미군 9군단이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궤멸시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은이 너, 궤멸이 무신 뜻인지 알아? 몰르지? 씨만 빼놓고 몽땅 다 때려잡는다는 뜻이여.”

“과자 안 먹니?”

“뭇이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명은이의 헬썩하게 ㉢**뭇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그때껏 숨어있던 속눈썹이 기다랗게 드리났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쟁반 위의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들이기 시작했다.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다.

[라]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놓니, 첫째 걸어댕기기에 불편해서 툭 죽겠심더.”

“야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제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러까예?”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땡 기메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대겠나, 그제?”

“예”

557.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글이다.
- ② 시간, 공간 등에 제약을 심하게 받는 글이다.
- ③ 갈등의 전개 및 해소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글이다.
- ④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 있는 일을 기록한 글이다.
- ⑤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글이다.

558. [가]~[다]에 등장하는 ‘나’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기심이 많다.
- ② 눈치가 빠르지 않다.
- ③ 자기 과시욕이 있다.
- ④ 감정적이기보다는 논리적이다.
- ⑤ 부끄럼을 많이 타며 매우 순수하다.

559.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다]에는 인물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④ [라]에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나], [라]는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560. [나]와 [라]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드러난다.

- ② 인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이 드러난다.
- ③ 작품 속 인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다.
- ④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복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드러낸다.

56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가 익산 군수의 관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 ‘계집애’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부자연스럽게 걷고 있다.
- ③ ㉢ : 이전에 ‘나’가 ‘계집애’에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새로운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져 있다.
- ⑤ ㉤ :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2. [서술형] [다]에서 ‘명은’의 말을 따라 과자를 먹는 ‘나’의 행동을 언어의 의미 중심으로 비판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갓난아기가 호주라니? 모자(母子) 가정의 대표는 아기?

- 남성 중심의 관습에서 벗어나

삼 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 씨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었다. 호주 제도에 따라 갓 태어난 아기가 가정의 호주로 등록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갓난아기가 호주로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웠을 뿐더러 실질적인 가장을 법적인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호주제에는 구시대적 관념도 자리 잡고 있었다. 여자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구시대적 윤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모와 자녀는 모두 개인 호적을 갖게

되므로 이 씨와 같은 모자 가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법의 모순을 해결된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존재로 보아 온 관념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1] 사례2 [문제점] 모자(母子) 가정의 대표를 사내아리로 삼는 모순 [해결 방안] 개인 호적을 갖게 함.

[나] 친정 부모님 모시는 딸,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다?

- 결혼한 딸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남동생 둘을 둔 만딸 심 씨는 결혼 후에도 치매를 앓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오 년 동안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을 한 여자는 법적으로 친정 가족에 속하지 않고 시댁이나 남편의 가족에 속하게 된 호주제 때문이었다.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금 상속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반면 법적으로 심 씨의 가족에는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은 시부모와 시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이와 같이 비현실적인 법적 가족 개념이 사라진다. 함께 살고 부양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심 씨도 아버지를 모시는 실질적인 부양자로, 그리고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사례3 [문제점] 현실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법의 비현실성 [해결 방안] 결혼한 딸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함.

[다] 헌법은 국가 사회의 최고 규범이므로 가족 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가족법이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 규범을 사회 현실과 괴리시킨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3] 가족법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

[라]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 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전래의 가부장적인 혼인 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다.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혼인과 가족 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4] 헌법에 담겨 있는 혼인과 가족 제도의 가치 규범

[마] 오늘날 가족 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을 권위주의적으로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도 사회의 분화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 부부와 그들의 전혼 소생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적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늘고 있다. 설사 호주제가 전래의 가족 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 관계와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호주제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

[5] 가족 관계 다변화에 따른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56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마] 모두 똑같은 법률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다.
- ② [가], [나]는 [다]~[마]의 결정을 내리게 된 맥락을 제공해 준다.
- ③ [가], [나]는 [다]~[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 ④ [가], [나]는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다]~[마]는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다.
- ⑤ [가], [나]는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다]~[마]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564. [가]의 이 씨와 [나]의 심 씨가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씨 : 당신도 나와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당한 처지에 놓여 있군요.
- ② 심 씨 : 그래요, 저도 당신처럼 호주로 등록되지 못하여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답니다.
- ③ 이 씨 :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길 거예요. 이제 곧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 ④ 심 씨 : 정말이에요? 호주제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어요.
- ⑤ 이 씨 : 네, 하지만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겁니다.

565. [서술형] [다]~[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호주제가 필요한 이유를 헌법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서술하시오.

- (1) 헌법적인 측면 :
- (2) 사회적인 측면 :

566. 다음 중 ‘㉠ : ㉡’의 관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인사 : 목례
- ② 필기구 : 연필
- ③ 문학 : 소설
- ④ 대학교 : 고등학교
- ⑤ 공휴일 : 일요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문간에 막 발을 들여놓으려는 나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다시 불러 세웠다.

“우리 명은이, 참 불쌍한 아이다. 제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처참하게 죽는 꼴을 두 눈 번히 뜨고 지켜본 아이다. 그날부터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 봤다면서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는, 아주 몸쓸 병에 걸려 버렸단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낫는, 아주 고약한 병이란다.”

눈물 구덩이에 풍당 빠져 허우적대는 눈동자로 명은이 외할머니는 내 얼굴을 간신히 건너다보았다. 때깔이 고운 한복 차림에 기쁨이 넘쳐 나던 명은이 외할머니의 모습이 한 순간에 와르르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마땅히 그래야만 될 성싶어 나는 덮어놓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만 되풀이했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내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우리 명은이한테 말동무라고는 세상천지 달랑 고양이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단다. 앞을 못 보게 된 뒤로 우리 명은이가 고양이 말고 사람을 말동무로 삼은 건 전호, 니가 맨 처음이란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였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란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직후부터 신광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 한창 종 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되알지게 엉덩이를 한방 걷어차고 나서야 양바튼한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듯한 고향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떼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주먹질과 밧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마구잡이 매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 주기 위해 나는 양다리를 가세질러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 대는 두 아이를 혼잣손으로 좀처럼 떼어 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 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별안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때웃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이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땡그렁 땡…….

[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 리 이국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

리고 떠나 버리렵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톡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 하고 웃겠지.

56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다]에는 모두 인물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인물이 속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③ [나]와 [다]에는 모두 등장인물들이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④ [가]에서는 등장인물에 의해 상황이 제시되지만, [나]에서는 서술자에 의해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⑤ [나]에서는 인물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다]에서는 형식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568. 위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 [다]는 모두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인공의 외면 세계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가], [나], [다]는 모두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자가 섬세하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가], [나], [다]는 모두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 ④ [가], [나]는 작품 속 서술자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었고, [다]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서술자가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지만, [다]는 서술자가 사건의 외적 상황만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569. 위 소설들을 연극으로 공연하려고 한다. 배우들이 연기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은’ 역 : 힘껏 종을 올리다가 갑자기 여리고 순수한 울음을 터뜨리도록 연기해야겠어.
- ② ‘건호’ 역 : 순진하고 순수한 소년이지만 따뜻한 마음씨와 함께 악착같은 면모도 엿보이도록 해야겠어.
- ③ ‘명은이 외할머니’ 역 : 처참한 일을 겪은 한 많은 노인의 느낌을 살리도록 표정 연기에 중점을 뒀어.
- ④ ‘딸고만이 아버지’ 역 : 종을 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이지만 악인이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표현해야겠어.
- ⑤ ‘명준’ 역 : 큰 절망을 지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소극적인 목소리 연기에 힘써야겠어.

570. [서술형] [나]와 [다]에 제시된 문학적 해결 방안과 그것이 가진 의미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571. [서술형] [나]에서 세 사람이 종을 함께 치게 된 이유를 서술하시오.

572. <보기>의 백마와 [가], [나]의 ‘명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기사에게 버림받은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 놓은 종탑이었다. 백마는 배고픔에 못 이겨 종탑을 휘회 감고 올라간 칙닝쿨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 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돌림이 보살펴 주었다.

- ① 백마와 ‘명은’은 모두 억울한 사연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 ② 백마와 ‘명은’은 모두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종을 치게 된다.
- ③ 백마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명은’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상처를 받았다.
- ④ 백마와 ‘명은’은 모두 자신의 소원을 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종을 치게 된다.
- ⑤ 백마는 칙닝쿨을 뜯어 먹어서 종을 올리지만 ‘명은’은 악착스럽게 줄에 매달려서 종을 울린다.

573. ㉠의 ‘울음’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시어는?

- ①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 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 김수영, <풀>

- ② 아아 하늘, 하늘에다 나를 맡기고 싶다. 구름처럼 안기고 싶다. 서러울 때는 하늘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순하게 훌훌 느껴 **울고** 싶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이해인,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

- ③ 갈대는 저를 흔다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도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 ④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574. [서술형] ‘명은’에게 ㉠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상3(1) 국어의 역사

1) 답 ③

㉠ 선사 시대에는 문자가 없어 음성·몸짓 언어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가] 그림에서처럼 그림을 통해 생각을 전달하려 했으므로 이 시기 언어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2) 답 즉각적인 의사소통은 음성 언어나 몸짓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기록을 남겨야 하니 위 그림처럼 바위나 나무 등 자연물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택했을 것 같아.

3) 답 문자가 없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었으므로 한자를 빌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차용했을 것이다.

㉡ 한자를 차용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항이다.

4) 답 ⑤

㉢ 한자를 빌려 인명과 지명을 우리말식으로 표기했다. ㉣ ① 입말은 음성 언어이고, 글말은 문자 언어이다. 즉, 음성 언어인 우리말은 있지만, 글말인 우리 문자가 없었다. ② 한자의 소리를 빌려 이름을 표기했다. ③ 한자의 뜻을 빌려 이름을 표기했다. ④ 우리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야 했다.

5) 답 ⑤

㉣ ㉠에서 음차와 훈차의 선후 관계는 알 수 없다. ㉣ ① ‘素那’는 ‘희다 소’와 ‘어찌 나’의 결합이다. 이 중에서 소리인 ‘소’와 ‘나’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② ‘金川’은 ‘쇠 금’과 ‘내 천’의 결합인데, 뜻인 ‘쇠’와 ‘내’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③ ‘素那’와 ‘金川’은 표기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로 발음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④ ‘소나’라는 한 사람을 ‘素那’로 표기할 수 있고 ‘金川’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6) 답 [학생1]은 ‘수령’, ‘뽕’라는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한자의 소리인 ‘밤’과 ‘골’을 나타내기 위해 ‘骨’을 썼기에 이는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쓴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학생2]는 ‘밤’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인 ‘栗(밤나무 울)’과 고을이라는 뜻을 지닌 ‘州(고을 주)’를 찾아 썼기에 이는 한자의 뜻을 빌려 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7) 답 ④

㉤ 한자를 차용한 고유 명사 표기는 한자의 음으로 읽다가 차츰 한자의 뜻을 빌려 지명을 표기함에 따라 ‘湍骨’ → ‘栗州’로 표기하게 되었을 것이다. ㉣ ① ‘栗州’는 ‘밤 울’과 ‘고을 주’ 중에서 뜻인 ‘울’과 ‘주’를 표기한 것이다. ② ‘湍骨’은 ‘수령 밤’과 ‘뽕 골’ 중 소리인 ‘밤’과 ‘골’로 읽은 경우이다. ③, ⑤ ‘밤골’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湍骨’과 ‘栗州’를 모두 쓸 수 있었다.

8) 답 ‘길동군(吉同郡)’은 원래 표기로 소리를 빌려 쓴 경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영동군(永同郡)’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永(길다 영)’자는 ‘길’이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영동군(永同郡)’은 뜻을 빌려 쓴 것이다.

9) 답 ‘길동군(吉同郡)’은 소리를 빌려 쓴 경우이고, ‘영동군(永同郡)’은 뜻을 빌려 쓴 경우이다. 그런데 ‘길동군(吉同郡)’이라는 표기가 ‘영동군(永同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초기에는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쓰다가, 이후 표의 문자인 한자의 특징을 활용하여 뜻을 빌려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갔음을 알 수 있다.

10) 답 ①

㉥ ‘서울’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京’이다.

11) 답 ③

㉦ ‘永同郡’은 뜻을 빌려 썼으므로 ‘한자어’에 해당하고, ‘吉同郡’은 음을 빌려 썼으므로 고유어에 해당한다. ㉣ ① ‘吉同郡’을 ‘永同郡’으로 바꾸었으므로 ‘吉同郡’이 먼저 있었던 지명이다. ④ ‘吉同郡’의 ‘吉’은 한자의 음을 빌린 것이므로 한자의 음이 ‘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쓸 수 있다. ⑤ ‘永同郡’의 ‘永’은 ‘길다’는 뜻을 빌렸으므로 ‘길다’는 뜻을 가진 모든 한자로 대신할 수 있다.

12) 답 고유어인 ‘길동군’을 한자어인 ‘영동군’으로 바꿈으로써 한자어와의 경쟁에서 고유어가 밀려나게 되었다. 그 결과 고유어들이 사멸하고 한자어가 범람하게 되었다.

㉧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13) 답 ⑤

㉨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 어순과 다른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 ① 어미나 조사가 생략된 문장에 해당한다. ② 한자의 뜻만을 빌려 와 쓴 우리말 어순이 반영된 문장에 해당한다. ③ 내용상 두 사람이 하늘에 맹세한 서약문임을 알 수 있다. ④ <임신서기석>의 문장 형식을 ‘서기체’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차자 표기 체제에 속한다.

14) 답 위 문장의 해석으로 볼 때, 불필요한 의미의 한자가 없는 것을 보면 모든 한자의 뜻을 빌려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리를 빌려 적은 한자는 없고 모두 뜻을 빌려 적었다.

15) 답 임신서기석의 한문은 국어의 문장을 국어의 어순대로 적어 그 뜻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뜻과 소리 둘 중에 뜻만을 빌려 썼기에 고유 명사 표기에 비해 일관적인 형식이라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 문장의 의미만 살려 썼지 조사나 어미 등을 표기할 수 없어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6) 답 ① 국어의 문장을 우리말의 어순대로 표기했다. ② 한자의 음과 뜻 중 뜻만 차용하여 고유 명사 표기에 비해 일관적인 형식이다.

㉩ <임신서기석> 표기의 의의를 묻는 문제이다.

17) 답 <임신서기석>과 <서동요>는 모두 한문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우리말 어순에 따라 적었는데, <임신서기석>은 조사와 어미를 표기하지 못했지만 <서동요>는 조사와 어미까지 표기하였다.

㉪ ‘서기체’ 표기와 ‘향찰’ 표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18) 답 ②

㉫ <서동요>는 향찰로 표기한 향가로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했고, 형식 형태소인 어미나 조사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했다. ㉣ ① <서동요>는 참요로 민요나 동요처럼 불리던 것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③ <서동요>는 향가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어순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④ <서동요>는 형식상 4구체 향가이며, 성격상 참요에 해당한다. ⑤ <서동요>는 역사적 인물인 백제 무왕과 선화 공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노래이다.

19) 답 ④

㉬ ‘隱’은 한자의 음을 빌려 읽은 음차식 표기이며 이와 같이 문법적 요소인 조사를 표기한 것은 ④이다.

20) 답 主

㉭ 향찰의 표기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기 위한 문제이다.

21) 답 • 소리를 빌려 쓴 글자 - 善, 化, 公, 主(첫번째), 隱, 只, 良, 古, • 뜻을 빌려 쓴 글자 - 主(두번째), 他, 密, 嫁, 置.

22) 답 소리를 빌려 쓴 글자는 ‘善花公主’와 같이 선화공주의 이름을 말하기 위한 것, ‘隱(은)’이나 ‘古(고)’와 같이 조사이거나 ‘只(지)’, ‘良(량)’과 같이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국어에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글자는 소리를 빌려 쓴 것이다. 반면, 국어에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글자는 뜻을 빌려 쓰고 있다. 즉,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 주는 조사나 어미 등의 글자는 소리를 빌려 썼고,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 주는 어간 부분의 글자는 뜻을 빌려 썼음을 알 수 있다.

23) 답 향찰은 한자의 소리 또는 뜻 중, 한쪽만을 사용하지 않고 한자의 음과 뜻을 선택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는 표기이다. 또한 어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조사, 어미 등 문법적 요소까지 표기한 것으로 보아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을 수 있도록 고안해 낸 표기 체계이다. 24) 답 먼저 향찰로 표기된 글을 읽을 때 각 글자가 소리를 빌려 쓴 글자인지, 뜻을 빌려 쓴 글자인지 단번에 구분할 수 없어 의미를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불편할 것 같다. 다음으로는 향찰로 표기

하고자 할 때, 국어의 소리와 상응하는 한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표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25) 답 ④

해 근대 국어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갑오개혁까지를 가리킨다.

26) 답 ①

해 ‘素那’와 ‘金川’은 같은 사람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한 것이다. ㉠ ② 표기는 달랐지만, 당시 사람들은 ‘素那’와 ‘金川’을 같은 소리로 말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素那’는 한자의 음을, ‘金川’은 뜻을 빌린 것이다. ⑤ ‘素那’와 ‘金川’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역적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27) 답 모두 차자 표기로 우리말은 있으나 이것을 표기할 문자가 없었던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해 차자 표기의 공통점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28) 답 ③

해 ‘곰나루’는 ‘곰 웅(雄)’, ‘나루터 진(津)’이므로 ‘웅진’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 ①, ⑤ 경덕왕의 조치로 고유어가 한자어에 밀려서 오늘날 국어의 어휘 중 한자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② 경덕왕의 조치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에서 고유어가 쇠퇴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④ ‘吉同’은 우리말 표기이고, ‘永同’은 한자로 된 중국식 지명이다.

29) 답 [라]와 [마]는 비록 한자를 빌려 썼지만, 한문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우리말 어순에 따라 적은 주체적인 면모가 보인다. 그러나 위 글은 고유어를 버리고 중국식 지명을 모방하였으므로 주체성을 상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해 차자 표기 방식의 주체성을 묻는 문항이다.

30) 답 [라]는 한자로 문장이 구성되었지만, 중국식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으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결합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해 ‘항찰’ 표기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항이다.

31) 답 ③

해 ‘若(만약)矣(예)此(이)事(일)乙(을)失(여기)面(면)’이 된다. ㉠ ① 若(만약)隱(은)此(이)事(일)乙(을)失(여기)如(다) ② 若(만약)矣(예)此(이)事(일)乙(을)失(여기)古(고) ④ 若(만약)此(이)隱(은)事(일)乙(을)失(여기)面(면) ⑤ 若(만약)此(이)事(일)乙(을)失(여기)隱(은)다

32) 답 ⑤

해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우리나라 현실음이 아니라, 중국의 원음에 가까운 이상적인 한자음에 해당한다. ㉠ ① 위 글은 자주, 애민, 창조, 실용의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뚜렷이 드러난다. ② 방점을 사용하여 성조(음의 높낮이)를 나타내었다. ③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와 우리말을 병행하여 표기하였다. ④ 받침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를 원칙으로 삼았다.

33) 답 ‘나랏말싸미’는 우리나라의 말을 가리키고, ‘문장’은 한자를 가리키므로 대조적으로 사용되었다.

해 대조적으로 사용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34) 답 ④

해 ④ ‘라와’는 ‘~보다’라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① ‘올세라’의 ‘세라’는 ‘~할까 두렵다’는 뜻이다. ② ‘다이’는 ‘~답게’라는 뜻이다. ③ ‘노피곰’의 ‘곰’은 ‘알말의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로 ‘높이높이’의 뜻이다. ⑤ ‘수이’는 ‘수비>수이>쉬’가 되므로 ‘쉽게’라는 뜻이다.

35) 답 ②

해 방점이 한 개이므로 거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아니라, 높은 소리이다. ㉠ ① ‘뿌메’는 ‘ㅂ’계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③ ‘뿌메’를 분석하면, ‘ㅂ(어간)+음(명사형 어미)+에(조사)’이 된다. ④ ‘ㅂ’의 ‘ㅡ’는 음성 모음인데, 명사형 어미 ‘-음/-음’ 중에서 모음 조화를 지켜 ‘-음’이 사용되었다. ⑤ ‘뽀메’로 끊어 적지 않고, ‘뿌메’로 이어 적었다.

36) 답 ②

해 ⑥는 기본형이 ‘스뫼디’이다. 이것을 ‘스뫼디’로 표기했으므로 받침

표기는 8중성법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구개음화가 일어나려면 ‘스뫼디’가 되어야 하는데 ‘스뫼디’로 표기했으므로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 ① ‘달아’는 현대 국어에서 ‘달라’가 되므로 ‘ㄹ=형’ 활용을 하고 중세 국어에서는 ‘ㄹ=형’ 활용을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대체로 두음법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르고자’가 아니라 ‘니르고저’가 된 것이다. ④ ‘스름’은 평순 모음화이다. ⑤ ‘ㅎ고저’의 ‘저’는 이중 모음이고, 현대 국어에 이르러 ‘하고자’가 된 것으로 보아 단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37) 답 ① 의미의 축소 - 말쌈미, 노미 ② 의미의 이동 - 어린, 어엿비.

해 의미의 변화 유형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38) 답 ‘세종어제훈민정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배경이 드러나 있다. 첫째는,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인식으로, 이는 세종 대왕의 자주 정신을 보여 준다. 둘째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이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으로, 세종 대왕의 애민 정신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고 쉽게 쓰게 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중시한 실용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39) 답 글자의 왼쪽에 찍힌 점은 ‘방점’이라고 한다. 이는 음의 고저(높낮음)를 나타내는 성조를 표시한 것으로, 중세 국어 시기에는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의 네 가지가 있었다. 점이 없는 경우는 평성으로 낮은 소리를 나타내며, 점이 하나인 경우는 거성으로 높은 소리를 나타낸다. 점이 두개인 경우는 상성으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나타낸다. 이때음절의 발음상 장음이 된다. 종성이 ‘ㄱ, ㄷ, ㅂ, ㅅ’인 음절의 소리는 빨리 끝을 닫는 소리로 각각 점이 없거나 하나, 둘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모두 입성이라 하며, 이는 소리의 높낮이와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성조는 현대 국어에 와서는 소멸되었으나 장단음은 남아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중세 국어의 상성이 현대 국어에 와서 장음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상성은 장음이었다는 것이다.

40) 답 ①-ㄷ, ②-ㄷ, ③-ㄷ, ④-ㄷ, ⑤-ㄷ, ⑥-ㄷ

41) 답 비교나 기준, 예.

42) 답 • 어-린 - 어리석은. • :어엿비 - 가엾게, 불쌍히. • 어여뻐 - 예쁘게.

43) 답 ④

해 ‘굴으샤디, 얼굴이며 아니흠이, 몸을, 몸이며, 머리털이며’ 등 끊어 적기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 ① ‘부모의’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고 있다. ② ‘닐러’는 ‘ㄹ=형’ 활용이다. ③ ‘몸을, 비르소미오, 일흠을’ 등에서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이 나타난다. ⑤ 15세기에 쓰였던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더 이상 쓰지 않고, ‘공주, 증주’ 등으로 쓰고 있다.

44) 답 ‘비르소미오’는 ‘비룻(어간)+음(명사형 어미)+이오(어미)’이다. 어간 ‘룻’의 모음 ‘ㅡ’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 ‘음’이 와야 하는데 모음 조화의 혼란으로 인해 ‘음’이 왔다.

해 명사형 어미 ‘-음/-음’의 혼란 현상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45) 답 ⑤

해 ㉠은 ‘술ㅎ’으로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뒷말과 연결될 때 ‘ㅎ’ 음이 살아나서 ‘술온’이 아니라 ‘술흔’이 된 것이다. ⑤ ‘불쾌한’의 ‘不快’는 한자음으로, ‘ㅎ 종성 체언’이 아니다. ㉠ ① 암ㅎ+닭 → ‘암닭’, ② 수ㅎ+것 → 수컷, ③ 안ㅎ+밖 → 안팎, ④ 휘ㅎ+바람 → 휘파람.

46) 답 ①

해 언어 자료의 변화가 보이는 것은 언어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는 역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 ② 언어의 사회성, ③ 언어의 추상성, ④ 언어의 분절성, ⑤ 언어의 자의성.

47) 답 음운 면에서 ‘병, ㅁ, ㅌ’ 등의 소실 문자가 생겨나고, 문법적으로는 명사형 어미 ‘-음/-음’의 혼란이 나타났으며, 받침 표기로는 분철이 확대되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16세기 국어의 전반적 특징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48) ㉮ 고대 국어는 원시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전기 중세 국어는 고려 시대부터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 후기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근대국어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갑오개혁까지, 현대 국어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나뉜다.

㉮ 국어의 역사를 시대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49) ㉮ ㉮

㉮ 제시된 <소학언해>의 내용은 ‘효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출장임상(出將入相)’은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뜻으로, 문무를 다 갖추어 장상(將相)의 벼슬을 모두 지냄을 이르는 말로 ‘효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① ‘부자유친(父子有親)’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를 이른다. ②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 효도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③ ‘반포지효(反哺之孝)’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사친이효(事親以孝)’는 ‘아버이를 효도로써 섬긴다’는 뜻이다.

50) ㉮ • 내용 - 효의 시작과 끝. • 가치관 -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성리학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51) ㉮ ① ‘병’ 소실. ② ‘해로운, 받조온’. ③ 비르소미오, ④ 명사형 어미 ‘음/음’ 혼란. ⑤ 비르소미오, ㄴ초미니라. ⑥ 말춤. ⑦ ‘ㅎ’가 쓰인 단어가 없음.

52) ㉮ ㉮

㉮ ㉮ 어두 자음군의 사용 : ‘ㄷ-들’, ‘父:부-母:모ㅅ’, ㉮ 방점의 사용 : ‘나-랏말싸-미’, ‘굴우-샤-되’, ㉮ 8중성법사용 : ‘스ㅅ-디’, ‘받초-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가]는 ‘中東國-국-예달-아文문字-중-와-로’ 등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지만, [나]에서는 ‘孔-공-子-조-을-중-子-조-다-려’ 등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가]에서는 ‘ㅅ-메’에서 모음 조화를 철저히 지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서는 ‘-몸-을’ 등에서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3) ㉮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창조 정신, 실용 정신

㉮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묻는 문항이다.

54) ㉮ [가]의 ‘달아’는 ‘ㄹㅇ형’ 활용을 하고, [나]의 ‘닐러’는 ‘ㄹㄹ형’ 활용을 한다.

㉮ 15세기와 16세기의 활용형의 변화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55) ㉮ ㉮

㉮ ‘받조-온’의 ‘받’은 받침이 ‘ㄷ’로 끝나므로 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점이 없으므로 높은 소리가 아니다. 점을 하나 찍고 높은 소리는 거성이다. ㉮ ① ‘敵:강-하’의 ‘강’은 상성이므로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이다. ② ‘나-랏’의 ‘나’는 점이 없으므로 평성이다. 따라서 낮은 소리이고, ‘랏’은 점이 하나 있으므로 거성이고, 높은 소리이다. ③ ‘:말-싸-미’의 ‘말’은 상성이므로 현대 국어에서는 장음이 된다. ④ ‘잘-하-는’의 ‘잘’은 점이 없으므로 낮은 소리인 평성이 된다.

56) ㉮ ‘얼굴’은 원래 ‘형체, 형태’의 뜻이었으나 ‘안면’의 뜻으로 바뀌었으므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것이다.

㉮ 의미의 변화 중,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경우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57) ㉮ ㉮

㉮ ‘말싸미’의 경우 ‘일반적인 말’에서 ‘말의 높임말’로 쓰였으므로 범위가 줄어든 경우이다. 따라서 의미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 ㉮ ㉮ ㉮는 ‘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 의미의 이동이 된다. ㉮ ㉮는 ‘보통 사람’ < ‘남자’의 비속어 → 의미의 축소가 된다. ㉮ ㉮는 ‘많다’ < ‘어떤 행위를 하다’ → 의미의 이동이 된다. ㉮ ㉮는 ‘불쌍하게’ < ‘애쓰게’ → 의미의 이동이 된다.

58) ㉮ ㉮

㉮ ① ‘붉은’의 경우 ‘붉’의 ‘ㄹ’ 음성 모음 뒤에 ‘은’의 ‘ㄹ’ 음성 모

음이 왔으므로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 ㉮ 받침의 ‘ㄹ’은 어두 자음군이 아니라, 겹받침이다. ③ ‘붉은’이 원순 모음이고 ‘붉은’은 평순 모음이므로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④ ‘붉근’은 이어 적기, ‘붉은’은 끊어 적기이다. ⑤ 15세기 중세 국어의 받침 표기는 이어 적기 방식이므로 ‘붉근’이라 표기했을 것이다.

59) ㉮ ㄱㅎ, ㄴㅎ며

㉮ 재음소화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60) ㉮ ‘물밀푼’은 거듭 적기, ‘물밀푼’은 ‘ㅌ’ 대신 ‘ㄷ’으로 표기했으므로 8중성법, ‘물밀푼’은 ‘ㄷ’ 대신 ‘ㅌ’으로 표기했으므로 7중성법, ‘물밀푼’은 ‘ㅌ’이 ‘ㄹ’ 모음 앞에 아닌데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으므로 ‘과도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단어에 나타난 음운 현상에 대해 묻기 위한 문항이다.

61) ㉮ ㉮

㉮ ㉮는 ‘보다’라는 뜻의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62) ㉮ ㉮

㉮ ㉮는 ‘숯불빛’에서 ‘숯불빛’이 되었으므로 원순 모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63) ㉮ 회오리 방 → 큰 정반 → 수레박회

㉮ ‘해’를 비유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64) ㉮ ㉮

㉮ ㉮에 사용된 표현 방식은 활유법이다. ㉮ ① ‘A는 B이다’의 형식이므로 은유법이다. ② ‘피, 뺨, 살’은 부분으로 전체인 ‘신체’를 나타내므로 대유법이다. ④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대답을 원하지 않고 강조하는 설의법이다. ⑤ 앞뒤 구절이 모순이 일어나는 역설법이다.

65) ㉮ ㉮

㉮ ㉮는 ‘해’를 ㉮~㉮는 ‘해 주변의 붉은 기운들’을 가리킨다.

66) ㉮ ㉮

㉮ 색채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였지만 추상적인 관념적 어휘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직유법을 많이 사용하여 일출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일출의 광경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가사 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등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를 드러내고 있다. ③ 방, 정반, 수레바퀴, 구슬, 하늘 등의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여 일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후보식 구성’으로 일출 전부터 일출 후까지 해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67) ㉮ 재음소화란 하나의 음소를 두 개의 음소로 쪼개어 표기하는 방식이다. 거센소리는 ‘예사소리’에 ‘ㅎ’이 결합된 소리로 가령, ㄱ+ㅎ=ㅋ, ㄷ+ㅎ=ㅌ, ㅈ+ㅎ=ㅊ, ㅂ+ㅎ=ㅍ 등이다. 이는 거센 소리들이 모두 예사소리로부터 온 것으로 여겨 과도하게 음운을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 ‘재음소화’가 쓰인 이유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68) ㉮ ① 하늘을, 나를, 보는, -거늘. ② 처엄 (비교 : 처엄 - 15세기). ③ 붉기, 통낭정기. ④ 회오리방, 수레박회. ⑤ 붉듯붉듯, 번듯번듯. ⑥ (없음) ⑦ 것출, 물밀출. ⑧ 뵈듯, 뵈히.

69) ㉮ ㉮

㉮ 국문을 알아보기 힘든 이유로 세로 쓰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어 적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70) ㉮ ㉮

㉮ ㉮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므로 ‘본말전도’가 가장 적절하다.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④ 목불식정(目不識丁) : 아주 간단한 글자 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마노임을 이르는 말. ⑤ 다다익선(多多益善) :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이라는 뜻.

71) ㉮ ㉮

㉮ ㉮의 ‘국문’은 각국의 자기 나라 글자를 의미한다. ㉮ 나머지 ㉮,

㉮, ㉮, ㉮는 우리나라의 글자를 의미한다.

72) ㉮ ㉮

㉮ 개요에 있는 ‘㉮ 해결 방안’인 ‘국문 사용 교육 강화’의 내용은 위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73) ㉔ 중세 국어와 마찬가지로 ‘ㅅ’계 합용 병서, 음가가 소실된 ‘ㅅ’의 표기, 부분적 이어 적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㉔ 독립신문에 남아 있는 중세 국어의 표기상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74) ㉔ ㉕

㉔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표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길 열어’가 적절하고 부제는 표제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하므로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를 사용해 읽기가 쉬워’가 적당하다.

㉔ ① 위 글에서는 ‘국한문 혼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한글이 한문보다 우수한 것은 맞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내용은 위 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한문의 어려움을 극복한 표제는 맞지만 부제가 전체 내용 중 일부의 내용에만 해당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맞춤법’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5) ㉔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독립신문에서는 띄어쓰기 의식이 덜 발달되어 있고, 단어의 개념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어절 단위의 띄어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불완전하여 주관적으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독립신문의 띄어쓰기의 한계에 대해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76) ㉔ 국문이 한문보다 우수한 이유는 배우기가 쉽고, 우리글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문을 알아보기 힘든 이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이며 국문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서툴러서이다.

㉔ 국문의 우수한 점과 읽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문항이다.

77) ㉔ 국문은 한문과 달리 상하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조선 인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이며, 배우기 쉬운 글이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78) ㉔ • 어법 - ① 평서형 문장 종결 방식의 차이. (예 : -라) (비교 : 현대 국어 -‘다’) ② 명사형 종결 어미가 많다. (예 : -춤이라, 드물미라, 잘못봄이라, -됨이라) ③ 의문형 문장 종결 방식의 차이. (예 : 무어신고하니) ④ 한문의 영향을 받은 표현. (예 : 고로, -ㄴ즉) ⑤ 한문 문장의 구조를 직역한 어투. (예 : 아니쓰고[不用]) • 표기법 - ① ㅅ계 합용병서 아직 사용 (예 : 세여, 짜닭, 쏏시니) ② ‘ㅅ’ 아직 사용. (음운 소멸, 표기만 유지). (예 : 잇느, 흐고) ③ 재음소화 표기. (예 : 뇨흔) ④ 거듭 적기 표기. (예 : 쏏시니) ⑤ 부분적 연철 표기가 남아 있다. (예 : 일그니) ⑥ 목적격 조사 사용의 혼란. (예 : 빅스을, 말마디을) (비교 : 백사를, 말마디를) ⑦ 띄어쓰기 의식이 덜 발달되었다. (예 : 우리신문, 아니쓰고, 쓰느거슨)

79) ㉔ ㉕

㉔ 의고적인 표현인 ‘고로, -ㄴ즉’과 ‘不用’을 번역한 ‘아니쓰고’는 [나]에만 해당된다. ㉔ ① [가]에서는 ‘봏흐며’, [나]에서는 ‘ 뇨흔’ 등에서 재음소화 표기가 나타난다. ② [가]의 ‘밋출’, [나]의 ‘쏏시니’ 등에서 7종성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봏기 통낭하기’, [나]의 ‘봏기’, ‘알어보기’ 등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봏은’, ‘갓출’, [나]의 ‘짜뉘에’, ‘쏏느’ 등에서 끊어 적기와 거듭 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80) ㉔ ‘올나’는 ‘ㄹㄴ’ 형 활용인데, 15세기 국어에서는 ‘올아’가 되어 ‘ㄹㅇ’ 형 활용이 되었으며 현대 국어에서는 ‘올라’가 되어 ‘ㄹㄹ’ 형 활용이 된다.

㉔ 용언의 활용형의 변화를 묻는 문항이다.

81) ㉔ ㉕

㉔ [나]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주의’가 사해동포주의(박애주의)인 것을 확인할 수 없다. ㉔ ①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느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창간사이다. ② ‘우리 주의를 미리 말소하여’라고 하여 독립신문의 논조(論調)를 미리 밝히고 있다. ③ [나]에서 ‘그부인이 한문은 잘하고도 다른것 몰으느 귀족 남자 보다 뇨흔 사름이 되느 법

이라’에서 ‘우리 주의’는 남녀 평등 사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⑤ ‘독립신문’이 한글 전용으로 표기하는 것은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82) ㉔ ㉕

㉔ ‘ 뇨고’는 재음소화가 아니다. 만약 재음소화 표기라면 ‘ 뇨코(뇨+ 뇨+고)’가 된다.

상3(2) 한글의 독창성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83) ㉔ ㉕

㉔ 차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온전히 적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84) ㉔ ㉕

㉔ ㉔는 향찰 표기법, ㉔는 서기체 표기법, ㉔는 구결 표기법이다.

85) ㉔ ㉕

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법은 ‘훈민정음’에서,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종성의 제자 원리이다. ㉔ ① 7종성법(七終聲法) 종성 ‘ㄷ’과 ‘ㅅ’이 구별되지 않아 ‘ㅅ’으로 통일하여 ‘ㄱ, ㄴ, ㄹ, ㅁ, ㅂ, ㅅ, ㅇ’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근대국어에서 많이 쓰였다. ② 8종성법(八終聲法)은 종성으로 쓰인 여덟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이르는 말이다. ③ 초성독용8자(初聲獨用八字)는 최세진의 ‘훈몽자회’의 규정으로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의 8자는 초성에만 쓰인다는 규정을 말한다. ④ 8종성가족용(八終成可足用)은 훈민정음 해례의 종성해에서 종성에 쓰는 글자는 팔종성으로 충분하다는 받침 표기법이다.

86) ㉔ 한자는 날글자들이 모두 뜻을 지닌 음절(표의)문자이고, 훈민정음은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음운(표음) 문자이다.

87) ㉔ ㉕

㉔ 초성의 기본글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인데, 그중 ‘ㄱ, ㅅ’은 안울림 소리이다. ㉔ ①, ④ 초성과 종성은 현대 국어의 자음에 해당하고, 종성은 모음에 해당한다. ②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들 때, ‘상형’의 원리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 ③ 훈민정음의 글자 수는 초성 17개, 종성 11개이다.

88) ㉔ ㉕

㉔ 우리말에 대한 연구는 우리말이 중국과 다른 점을 연구한 것이므로, 그것을 만들어 낸 것은 ‘창조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89) ㉔ ㉕

㉔ 합용 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으로, ‘ㄴㅅ’, ‘ㄴㅈ’, ‘ㄹㅁ’, ‘ㄹㅂ’, ‘ㄹㅅ’, ‘ㄹㅈ’ 따위인데, 현대 국어의 어두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㉔ ① 초성을 나란히 쓰는 것은 ‘병서법’에 해당한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형여[하여]’, ‘혈물[썰물]’ 같은 각자 병서가 사용되었다. ⑤ 각자 병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처럼 같은 자음 두 글자를 나란히 붙여 쓰는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된소리에 해당한다.

90) ㉔ ㉔는 연서법으로, 순경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순음자 밑에 ‘ㅇ’을 이어 써서 ‘몽’, ‘봉’, ‘풍’, ‘뽕’로 표기하였으나, 소실되어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91) ㉔ ㄱ, ㅋ, ㅇ,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ㅎ, ㅎ, ㅇ, ㄹ, ㄹ, ㄹ

92) ㉔ ㉕

㉔ 위 글은 훈민정음 초성의 상형에 대한 설명이다. ㉔ ① 세종 대왕의 애민 정신은 위 글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③ 훈민정음의 초성의 세계가 신비한가는 위 글과 관련이 없다. ④ 훈민정음의 초성의 소릿값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위 글의 내용과는 벗어난 비약적 내용이다.

93) ㉔ ㉕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예 ① ㉠은 입술소리로, ㅂ, ㅃ, ㅍ이 해당된다.

94) 답 초성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발음이 되는 곳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95) 답 ㅅ, ㄴ, ㄹ, ㅇ, ㄷ, ㄱ, ㅈ

96) 답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였다는 것은 초성(자음)이 발음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제자 원리의 과학성을 입증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제외한 다른 문자에서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97) 답 ㉡

예 기본자(상형자)에 획을 더해 만든 해당 가획자는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 ㉡ ① 초성의 상형자는 ‘ㄱ, ㄴ, ㄹ, ㅅ, ㅇ’ 기본자에 해당한다. ② 초성의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이므로 기본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 ③ 상형자보다 소리가 세어진 것이 가획자라고 할 수 있다. ④ 상형자와 가획자는 모두 초성이므로 자음의 제자 원리에 속한다.

98) 답 ‘ㅇ(옛이음)’은 ‘ㅇ’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ㅇ’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이고, ‘ㅇ(옛이음)’은 어금닛소리이다.

99) 답 ㉡

예 ‘ㄱ’의 가획자는 ‘ㅋ’ 하나뿐이다. ㉡ ②~⑤ ‘ㄴ’은 ‘ㄷ, ㅌ’, ‘ㄹ’은 ‘ㄷ, ㅌ’, ‘ㅍ’은 ‘ㅈ, ㅊ’, ‘ㅇ’은 ‘ㅎ, ㅎ’으로 모두 두 개씩 있다.

100) 답 ㉡

예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와 상관 없이 기 때문에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다고 할 수 없다. ㉡ ① 이체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이므로 가획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체자는 모두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현대 국어의 유성음에 해당한다. ④ 가획자는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어진 것이지만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와 상관 없이 기 때문에 가획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⑤ 가획자와는 획을 더한 뜻이 달라 구별하여 ‘이체’라고 한 것이다.

101) 답 ㉡

예 ㉡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다. ‘朝鮮正字·정’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우리나라 현실음이 아닌 중국식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다. ㉡ ① ‘小學 論語 孟子를 강하노라’는 ‘노걸대언해’의 문장으로 한자음을 적지 않아서 알 수 없다. ② ‘孔·공자·지 曾子·조’는 모두 우리나라 한자음이다. ④ ‘直·딕’은 우리나라 한자음으로 다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⑤ ‘父·부모·모’는 우리나라 한자음이다.

102) 답 ㉡

예 중성은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에 방해 받지 않고 목청이 떨려서 소리가 나는 유성음이다. ㉡ ① 중성은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기 때문에 초성과 달리 어디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 모양을 상형하기 어렵다. ② 중성도 초성과 마찬가지로 기본자는 상형한 것이다. ③ 기본자를 합성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103) 답 ㉡

예 ‘ㅅ’는 이중 모음이 맞지만, ‘ㅅ’와 ‘ㅅ’는 기본자가 아닌 초출자이다.

104) 답 ㉡

예 ‘ㅣ’ 모음은 중성 모음이지만, 대체로 음성 모음과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 ㉡ ① 소리를 깊게 낸다는 것은 목안 깊숙한 곳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후설 모음이다. ②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므로 중설 모음이다. ③ 소리가 얕다는 것은 입 가까이 소리 나는 전설 모음을 말한다. ④ ㉡는 혀를 오그려서, ㉢는 혀를 조금 오그려서 발음하므로 각각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

105) 답 ㉡

예 ‘방점’이 있다고 해서 가독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과학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방점의 경우, 우리말 표기에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16세기 말엽부터 사용되지 않았다. ㉡ ①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한다. ② 음절 단위로 적되, ‘우리말’을 ‘ㅇㅌㅌㅣㅌㅌㅌ’처럼 풀어 쓰지 말라는 뜻이다. ③ 풀어 쓰면 글을 읽을 때 모아서 쓴 것보다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④ 가독성을 고려하여 음절 단위로 한데 모아서 적으면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으므로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106) 답 입성은 매우 촉박하고 급하게 끝나는 소리인데, ‘ㅇ, ㄴ, ㄹ, ㅇ, ㅌ, ㅌ’은 울림소리여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성이 될 수 없다.

107) 답 국어와 로마자 모두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음운 문자이다. 그러나 국어는 음운들 간에 변별 자질을 갖춘 자질 문자이지만, 로마자는 변별 자질이 없으므로 자질 문자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어는 음절단위로 쓴 음절 문자인데, 로마자는 음절의 뚜렷한 구별이 없다.

108) 답 ㉡

예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입말과 글말이 일치하지 않아 이원화된 언어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① 한자가 우리말을 적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음운 이론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소리 문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훈민정음은 우리 말소리를 적을 수 있는 음운 문자이므로 우리말에 맞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쓴 것은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9) 답 ㉡

예 음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이다.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는 ‘음성’에 해당한다. ㉡ ① ‘ㅂ, ㄱ, ㄷ, ㅌ’에 의해 뜻이 구별되므로 자음은 음운에 해당한다. ② ‘ㅅ, ㅆ, ㅈ, ㅊ’에 의해 뜻을 구별되므로 모음도 음운이다. ③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변별되므로 소리의 장단도 음운이라고 한다. ⑤ ‘울음소리, 기침 소리, 재채기’ 등은 음향으로 자연계의 소리이며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기 어렵다.

110) 답 ㉡

예 낱말의 형태와 음절의 형태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가령, 낱말의 형태는 ‘깊은 연못이’지만, 음절의 형태는 ‘기쁜 연무리’가 되므로 일치하지 않는다. ㉡ ① ‘나는’은 2음절인데, 모음의 수도 2개이다. ③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이므로 우리말은 항상 음절 단위로 마디를 이루어 발음한다. ④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모음을 ‘성절음(成節音)’이라고 한다. ⑤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이므로 글자 수와 음절 수는 일치한다. 가령, ‘나는’의 경우는 2글자, 2음절이다.

111) 답 ㉡ 우리말은 음절이 발달되어 있어서 음운 문자가 아니면 우리말을 온전히 적을 수 없다. 따라서 음운 문자가 아닌 낱말 문자인 한자는 우리말을 온전히 적을 수 없다.

112) 답 ㉡

예 [마]는 초성을 쓰는 방법 중, 병서와 연서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병서와 연서의 장점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113) 답 ㉡

예 ‘병’은 초성 17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수병’처럼 한자음이 아닌, 국어에 사용되었다. ㉡ ① 훈민정음 초성 17자에는 전탁음인 된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ㅎ, ㅌ, ㅇ’은 소실되어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④ ‘ㅎ, ㅇ’은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어의 음운 단위에서는 형식적인 자음에 해당한다. ⑤ 조음 위치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등으로 초성을 나눌 수 있다.

114) 답 한자와 국어는 모두 무엇인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상형의 원리라고 할 수 있지만,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상형한데 반해, 한글은 발음 기관을 상형한 것이므로 차이가 있다.

115) 답 ㉡

예 자질 문자란 표음 문자의 일종으로, 조음 위치와 같은 음운의 자질이 반영된 문자 체계인데,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였기 때문에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즉, 음운 자질을 갖는 자질 문자이다. ㉡ ② 음운 문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문자를 말한다. ③ 음절 문자는 한 음절이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되어 나눌 수 없는 표음문자로 일본의 ‘가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림 문자는 회화 문자라고도 한다. ⑤ 표의 문자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해당한다.

116) 답 이체자인 ‘ㅇ, ㅅ, ㅈ’는 모두 울림소리들이다.

117) 답 ④

해 각자 병서 중 ‘ㄴ, ㄹ, ㅁ’ 등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다. 오 ① ‘뜰, 쑨’처럼 합용 병서는 어두 자음군으로 쓰인다. ② ‘병, 풍, 병, 땀’ 등의 연서법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③ 합용 병서는 현대 국어에서 모두 쓰이지 않는다. ⑤ 합용 병서는 ‘스게’, ‘브게’, ‘쑤게’로 나뉜다.

118) 답 ③

해 ‘ㅇ’의 대립적 음성모음은 ‘ㅡ’이며, ‘ㅣ’는 중성 모음에 해당한다. 오 ① ‘ㅣ’는 알은 소리로 전설 모음이며 입을 작게 벌려 발음하는 고모음이다. ② ‘ㅡ’는 소리가 깊으므로 후설 모음이며 입을 많이 벌려 발음하는 저모음이다. ④ ‘ㅇ, ㅡ, ㅣ’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성자이며 초출자를 만드는 데 쓰인다. ⑤ ‘ㅡ’는 중설 모음이며 입을 작게 벌려 발음하는 고모음에 해당한다.

119) 답 ‘ㅈ, ㅊ, ㅊ, ㅊ’의 제자 원리는 ‘ㄱ, ㅌ, ㅊ, ㅊ’에 ‘ㅇ’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대 국어의 소릿값은 ‘ㄱ, ㅌ, ㅊ, ㅊ’에 ‘ㅣ’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120) 답 ⑤

해 <보기>를 참조할 때,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서의 삼분법은 음운 문자와 음절 문자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오 ① 로마 알파벳은 한글과 마찬가지로 음운 문자이지만, 음절 문자는 아니다. ② 한글은 음운 문자이다. ③ 초성·중성·종성으로 반드시 나눌 수 없어도 로마 알파벳처럼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④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눈 것은 모아 적기의 이점이 있다.

121) 답 ③

해 한글은 한 문자가 한 음운과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이지, 자음과 모음이 대응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122) 답 세종 대왕이 발명한 가획 방식의 한글 자판 체계를 다른 나라가 먼저 표준화하여 사용료를 빼앗기는 것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므로 우리나라에서 휴대 전화의 한글 자판을 표준화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123) 답 ①

해 ‘사대주의(事大主義)’는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태도’로 외국어를 받드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상4(1) 규약문 읽기

124) 답 ③

해 규약의 목적은 제시되어 있지만 배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 답 ⑤

해 규약문은 사회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글이므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 ② 서비스 이용 절차 준수는 약관 내용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126) 답 ④

해 제2조 3항, 제5조 1항 등을 통해 약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오 ① 이용자의 이해 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제2조 2항) ② 기존 회원에게 약관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조 3항) ③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제2조 3항) ⑤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신청시 제공하는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다.(제5조 2항)

127) 답 ⑤

해 ㉠과 같은 방법에는 회사가 회원에게 약관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보하고, 회원의 이해 여부와는 관계없이 손쉽게 회원의 동의를 얻으려는 회사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약관의 내용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 편성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형식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으려는 회사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 오 ①,

②, ③, ④ 약관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전달하는 편의적 형태로서 회원이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기 쉬운 방법들이다.

128) 답 최소한

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막기 위해,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9) 답 ②

해 약관의 내용에,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오 ① 회원이 관계 법령보다 약관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④ 제9조 2항에 따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돌리고 있으므로 공정하지 않다. ⑤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양도나 증여가 가능하다.

130) 답 ④

해 제15조 2항에 제시된 3가지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사전 통보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 기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비정상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용 제한 기간이 결정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 답 ⑤

해 군 복무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는 제15조 2항에 명시된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오 ① 타인의 글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이용자에게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④ 일반 게시판이 아닌 고객 불만 게시판에 불만 내용을 남긴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132) 답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해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나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지칭하는 의미와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을 악용하여 회사는 회원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3) 답 ②

해 일반적으로 규약문에서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람사르 협약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한 문장에 나열한 긴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

134) 답 ③

해 제2조 1항에 채약 당사국은 습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그 경계를 지도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 ① 습지 선정은 채약 당사국이, 목록의 유지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② 습지 목록의 선정과 변경은 채약 당사국의 권리이다. ④ 습지의 변경 내용은 상설 사무국에 통지만 하면 된다. ⑤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채약 당사국의 의지나 적극성에 따라 보상 조치를 할 지가 결정된다.

135) 답 습지와 물새를 정의하여, 협약의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해 제1조에는 ‘습지’와 ‘물새’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규약 내용 전반에서 대상의 실체와 범위가 분명해지고 있다.

136) 답 ‘긴급한 국가 이익상’, ‘가능한 한’

해 ‘긴급한 국가 이익상’이라는 표현은 채약 당사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습지를 개발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또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은 습지 개발에도 불구하고, 채약 당사국이 그에 상응하는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체 자연 보호구를 설정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137) 답 ④

해 ‘긴급한 국가 이익’이 의미하는 범위나 사례 등을 규정하지 않아 채약 당사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오 ① 판단의 주체는 각 채약 당사국이다. ② 국가 안보나 재해 복구는 긴급한 국가 이익상의 문제가 맞지만, 이와 같은 사례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었다. ③ 다른 규약 주체에게 유리하지 않다. ⑤ 채약 당사국이 결정할 문제로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138) 답 ③

해 제6조 2항에 따르면, 정기 당사국 총회에서 각 채약 당사국의 분담금 비율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오 ① 습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단계의 사람들이 교육이 대상이다. ② '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말로, 당사국 총회의 권고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당사국 총회에 출석, 투표한 채약 당사국이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출석하지 않은 채약 당사국도 이들이 결정한 분담금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의무 불이행시 채약 당사국에 대한 제재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139) 답 ①

해 협약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한 것은, 습지나 물새 보호와 같은 환경 생태 보전은 인류가 항구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오 ② 협약의 의무 가입을 규정하지 않았다. ③, ④ 협약의 폐기 절차가 서면 통고에 불과해 지나치게 쉽고 단순하여 불합리하다. ⑤ 협약 폐기의 효력은 폐기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발생한다. 140) 답 만장일치

해 채약 당사국의 분담금 비율 결정 방식은 제6조 6항에 제시되어 있다. 141) 답 최소한 7개국이 협약에 가입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협약이 발효된다.

해 람사르 협약의 제10조 1항은 협약의 발효 시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142) 답 ③

해 '비준'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을 헌법상의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43) 답 ①

해 규약문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글이다. 따라서 규약문을 작성하기 전에 사용할 용어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오 ②, ⑤ 시평의 특징이다. ③ 규약문은 글쓰이의 견해가 제시되는 논설문의 종류가 아니다. ④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내용은 규약 주체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144) 답 ④

해 제2조 4항에 따르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145) 답 개인 정보 유출 시 회사의 보상 책임이나 방법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회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나 대책 등을 제시한 바 없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라는 조항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46) 답 제9조 1항은 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가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 회원의 의무 가운데 회사의 편의를 위해 설정된 조항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47) 답 ④

해 이 글은 주로 회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 ② 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가 회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규제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③ 회사의 개인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부 회원이 져야 한다. ⑤ 규약문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현실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148) 답 ④

해 제15조 1항에 따르면, 회원은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이용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진희와 같은 경우라도 진희는 이용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해 미리 납부한 서비스 요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는 있다. 오 ① 관련 인터넷 서비스 홍보 메일만으로 회사가 서비스의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③ 회사가 새롭게 마련한 할인 요금제는 회사의 명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 ⑤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49) 답 ①

해 '제반(諸般)'은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150) 답 ③

해 규약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규약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협약이 추구하는 목적을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오 ② 제1조에 '습지'와 '물새'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⑤ 일반적으로 규약문은 의미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용어들은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151) 답 ②

해 규약문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글로, 그 내용이 사회 공동체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152) 답 ②

해 제2조 1항에 보호해야 할 습지의 목록을 유지하는 것은 사무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 ⑤ 가능한 한 습지 자원의 상실을 보상하며, 대체 자연 보호구를 설정하는 것은 상응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53) 답 ⑤

해 람사르 협약에는 채약 당사국의 의무 불이행을 대비한 강제 사항이나 대응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 ① 채약 당사국은 목록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습지를 보호해야 한다. ②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채약 당사국이 협약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 ③ 람사르 협약에서 습지의 선정과 변경, 삭제, 축소 등 채약 당사국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야 한다. ④ '긴급한 국가 이익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막연하여 채약 당사국의 자의적인 판단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154) 답 ③

해 <보기>는 생태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크게 늘어난 채약 당사국의 이해 관계와 분담금 비율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맥락에서 분담금 비율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오 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총회 권고가 채약 당사국에 전달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② 전세계적인 생태 환경 변화와 습지 보전의 노력 정도에 따라 분담금 총액이 변화하게 되므로 분담금 비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④ 7개국은 협약이 발효될 수 있는 최소 가입국의 수이다. 현재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158개국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최소 기준을 상향시킬 필요는 없다. ⑤ 비준 절차 없는 가입서의 기탁을 채약 당사국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속단할 수 없다. <보기>에 따르면 협약 가입국의 증가와 주요한 원인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155) 답 협약의 폐기 절차가 지나치게 쉽고 단순하여, 습지의 생태 환경 보전이라는 협약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해 제11조 2항에 제시된 협약의 폐기 절차가 매우 쉽고 간단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

상4(2) 시평 쓰기

156) 답 ④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시평은 독자를 설득하는 논설문의 성격을 실용문이다. ㉮ ① 시평은 당시의 사회적 쟁점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글이다. ② 예상 독자인 동료 학생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문체와 표현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을 통해 글쓰이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휴대 전화 사용의 보편화, 대중화 등 사회, 문화적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157) ㉮ ②

㉮ 마지막 문단에 글쓰이의 핵심적 견해가 집약되어 있다. 글쓰이는 휴대 전화의 현명한 사용과 휴대 전화 사용 습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④ 휴대 전화가 장·단점을 지닌다는 점이 글쓰이의 궁극적인 견해는 아니다. 글쓰이는 휴대 전화의 단점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휴대 전화를 현명하게 사용하자는 것이 편리성과 위험성을 조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편리성과 위험성은 조화될 수 없는 속성이다. 158) ㉮ ⑤

㉮ 이 글은 1문단이 처음, 2, 3문단이 가운데, 4문단이 끝으로 구성된 3단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① 연역적 구성 방식은 2, 3문단에서 사용되었다. ③ 귀납적 구성 방식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일반적 원칙이나 사실을 도출하는 것이다. ④ 각 문단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159) ㉮ ②

㉮ 시평은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 ① 휴대 전화의 부작용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③ 글쓰이는 휴대 전화의 장·단점을 제시하여, 사회 문제를 편견 없이 공정하게 보고 있다. ④ 휴대 전화 사용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⑤ 글쓰이의 견해는 충분히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160) ㉮ 유추, 대조

㉮ [나]에서는 휴대 전화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앞서 언급한 ‘양날의 칼’을 유추의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또 [나]와 [다]에서는 휴대 전화의 양면적 속성을 대조의 방식으로 드러내었다. 161) ㉮ 동료 학생, 사용한 말투와 문체, 글의 내용과 표현 등을 고려해 볼 때 동료 학생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 사용된 표현이나 문체를 통해 예상 독자가 비슷한 또래의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162) ㉮ ①

㉮ 시평에는 당시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이의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② 시평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만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⑤ 글쓰이의 견해나 근거 등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163) ㉮ ③

㉮ 이 글은 자신의 견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평이므로 독자의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있지 않다. 164) ㉮ ⑤

㉮ [라]에는 [나], [다]에 제시되어 있는 휴대 전화의 양면적 속성이 정리되어 있으며, ‘휴대 전화를 현명하게 사용하자’는 글쓰이의 궁극적인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 ① [가]에 비교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가]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도구적 양면성이 제시되었고, [나]에서 휴대 전화의 양면성으로 구체화되었다. ③ 공통적 속성이 아니라 대조적 속성이 제시되었다. ④ [다]는 [나]와 대조적인 내용으로, [나]의 부연 단락으로 볼 수 없다. 165) ㉮ ④

㉮ 휴대 전화 의존도가 높은 사람의 유전적 특성은 이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이나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자료이다. 166) ㉮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공정해야 하고, 누구나 받아들

일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시평이 독자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성, 합리성, 명료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상4(종합) 언어와 상호 작용

167) ㉮ ⑤

㉮ [나]에서 규약 주체의 의무를 강제하는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계약 당사국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강제하지 못하여 협약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① 규약문은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한 글이다. ② ‘~안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다’ 등과 같은 단정적 진술을 사용하고 있다. ③ 규약문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간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④ [가]는 주로 규약 주체 중 회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보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168) ㉮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와 같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사의 자의적 판단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 규약문에 사용된 표현들은 정확하고 명료해야 한다. 규약문의 표현들이 애매모호한 경우 규약 주체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편파적인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169) ㉮ ⑤

㉮ 제15조 2항에 다른 이용자를 모욕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회 보편적으로 용인되거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 ① 제9조 1항은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하지 않다. ② 제9조 2항은 개인 정보의 관리와 책임, 부정 사용의 결과 등을 모두 회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이다. ③ 일반적으로 자신의 회원상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히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서비스 자체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이므로 계약 해지 절차를 온라인으로 제한한 것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170) ㉮ ④

㉮ 람사르 협약 제2조 5항에 보면, 습지의 변경과 관련된 조건으로 ‘긴급한 국가 이익’이라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국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의 규정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습지 개발 등이 가능하다. ㉮ ① 제1조 1항, ② 제2조 1항, ③ 제2조 1항과 2항, ⑤ 제2조 5항에 제시되어 있다. 171) ㉮ ④

㉮ ㉮ ‘동진’의 행위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 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도용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준’은 부정 사용 사실을 경찰청에 신고하고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 불만 사항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해당 인터넷 서비스 게시판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한 ‘두호’의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 ㉮은 회사가 사전 통보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는 해당하지만, 회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72) ㉮ ④

㉮ 람사르 협약에는 계약 당사국의 권한이나 권리가 매우 큰 데 비해 상실 사무국의 권리와 권한은 매우 작다. 따라서 협약의 목적을 효과

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약 당사국의 임무를 축소하고, 이를 관리하는 상설 사무국의 권한이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㉔** ① 협약문의 목적은 규약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용어를 풀어 쓸 필요가 없으며,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는 협약문의 특성상 용어에 대한 장황한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② 제2조는 습지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채약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므로, 협약의 대상을 규정한 제1조와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현 조항 내용에 이미 습지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⑤ 상설 사무국의 권한이나 관리의 기능 자체가 매우 작으므로 상설 사무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3) **답** ④

해 규약문은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공식적인 글로, 규약 주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글이 아니다. 174) **답** ②

해 제10조 1항의 내용은 협약의 가입국이 7개국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최초 7개국과 다른 채약 당사국 간의 국제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㉔** ① 채약 당사국은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을 제공해야 한다. ③ 당사국 총회에서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만장일치이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만장일치의 결정 방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비준 조건 없는 가입서를 제출한 경우, 국내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⑤ 한 당사국의 습지 개발로 인해 다른 한 당사국의 습지가 오염되고 습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두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175) **답** ①

해 제4조 1항의 내용은 채약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㉔** ②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채약 당사국의 의무 이행이 소홀해질 수 있다. ③ 제4조 2항에 ‘긴급한 국가 이익’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채약 당사국의 자의적 판단이나 행위가 가능해진다. ⑤ 협약의 폐기를 위해서는 채약 당사국이 기탁처에 협약의 폐기 의사를 서면 통고만 하면 된다. 176) **답** 제10관에는 일본인이 조선에 재류 중에 저지른 범죄나 조선 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일본국 관원이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국 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인에 대한 조선 내 치외법권의 인정은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보는 대표적인 근거이다. 177) **답** ②

해 강화도 조약은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㉔** ① 강화도 조약은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국가 간 협약이었다. ③ 일본인의 조선 해안 측량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④ 조선에서 발생한 일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치외법권을 인정한 부분이다. ⑤ 조선이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8) **답** ⑤

해 조선 내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일본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79) **답** ④

해 ‘명세히’는 ‘분명하고 자세히’라는 뜻이다. 180) **답** ③

해 [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휴대 전화와 관련된 시평으로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81) **답** ①

해 [가]에서는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있다는 인용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㉔** ② 휴대 전화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③ 중국과 우리나라

의 인재 등용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④ [가]에서는 휴대 전화가 편리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나]에서는 ‘인재 등용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들고 있다. ⑤ [가]는 휴대 전화의 장점과 단점을, [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재 등용 방식을 대조를 통해 설명하였다.

182) **답** 휴대 전화는 자신과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해 주지만, 정서 불안이나 정신 착란 등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해 휴대 전화의 양면성은 휴대 전화가 지닌 편리성과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휴대 전화의 어떤 점이 편리함을 주며, 또 어떤 점이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183) **답** ④

해 [가]는 휴대 전화와 관련된 시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접하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㉔** ① [가]에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휴대 전화 사용 습관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대한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시평의 목적은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다. ⑤ 시평은 글쓰기가 평소와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자 했던 생각을 쓰는 것은 아니다. 184) **답** ⑤

해 [가]는 휴대 전화 사용에 관한 원론적인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㉔** ② 현재의 내용 전개 방식이 산만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시평의 핵심적 논의가 가운데 부분에 등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휴대 전화 사용 습관과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과도한 내용이다. 185) **답** ④

해 우리의 인재 등용 방식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변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까 두렵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인재 등용 방식을 개혁하는 주요한 근거가 주변국들이 우리의 인재 부족 상황을 알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은 아니다. 186) **답** 당시의 사회적 문제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부족한 것이고,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은 신분과 과거로 인재 등용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다.

해 [나]의 내용을 읽고, 글쓰기가 문제 삼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187) **답** ②

해 조선 시대에 고위 공직자를 선발하는 데에는 과거 이외에도 가문이 크게 작용하였다. 188) **답** ⑤

해 [나]는 조선 시대의 불합리한 인재 등용 방식을 개혁하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나]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의 과거 제도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㉔** ③ ‘서얼’은 서자와 그 자손을 이르는 말로, 본문에 제시된 ‘참이 낳은 아들’ 또는 ‘천한 어머니를 가진 자손’으로 신분 때문에 등용할 수 없었던 계층이다. 189) **답** ④

해 권력을 잃은 선비는 지난 날 인재로 등용된 이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나]는 신분과 과거로 인재 등용을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권력을 잃은 선비는 신분과 과거가 아닌 당파 싸움으로 희생된 인물이다. **㉔** ② ‘호부호형’이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兄)을 형(兄)이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이를 하지 못하는 자식은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등용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③ 본문에 ‘두 번 시집간 자의 자손은 벼슬길에까지 못하게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상4(서술형) 언어와 상호 작용

190) ㉠ [가]의 제9조 1항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 제 15조 2항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그 행위의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인해 회사는 회원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회원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나]에서는 ‘긴급한 국가 이익’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국은 긴급한 국가 이익의 문제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해야 할 습지에 대한 개발과 파괴의 구설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계약 당사국과 협약 사무국, 다른 계약 당사국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191) ㉠ [가]와 [다]에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규약의 내용이 존재하는데, 규약 내용이 상대적으로 세력과 규모가 큰 규약 주체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규약문 자체가 사회적 상호 작용 수단 중 하나로 현실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2) ㉠ [라]의 글쓰이는 ‘휴대 전화를 현명하게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휴대 전화가 정서 불안이나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들고 있다. [마]의 글쓰이는 ‘신분과 과거로 제한된 인재 등용 방식을 개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첫째 신분과 과거로 인재 등용을 제한한 역사적 사례가 없다, 둘째 현재의 인재 등용 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다, 셋째 신분과 과거로 인재 등용을 제한하는 것은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93) ㉠ 시평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시평은 당대의 사회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셋째, 사회 참여와 민주적 토론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넷째,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 형성과 사회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5(1) 가시리 / 진달래꽃

194) ㉠ ④

㉠ [가]는 떠나는 임에 대한 서러움과 다시 돌아와 달라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① 2연과 3연에서 이별에 대한 전통적 여인의 수동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② “시용향악보”에는 ‘귀호곡(歸呼曲)’이라는 명칭으로 그 첫 연만 기재되어 전한다. ③ 후렴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⑤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언어의 사용은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징과도 통한다.

195) ㉠ ②

㉠ [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확인, 원망에 찬 하소연(기) - 허탈감과 슬픔(승) - 감정의 절제와 체념(전) -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결)’의 정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6) ㉠ 구전되다가 후대에 궁중의 악곡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되었다.

197) ㉠ ②

㉠ ‘염세적’이란 말은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화자는 자기희생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송고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있으므로 염세적인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여성적인 간절한 어조를 띠고 있다. ③ 4연에서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의 절제를 말함으로써, 한국 여인의 인종(忍從)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이별의 정한이라는 전통적 정서를 3음보의 민요적 율격에 담고 있다. ⑤ 3연에서 자기희생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송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198) ㉠ ⑤

㉠ ㉠ [나]의 화자는 슬픈 심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애이불비(哀而不悲)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별의 정한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9) ㉠ ⑤

㉠ [가]의 ‘설은 님’에서 ‘설은’의 주체는 임과 이별하는 시적 화자로, 임이 이별을 서러워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의 1연에서 임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별의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② [나]의 4연에서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절제하며 인고를 통한 정한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3연에서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그러면 임이 영영 떠나 버리지 않을가 염려하는 전통적 여인의 자세가 나타난다. ④ [나]의 4연에서 애이불비(哀而不悲)의 태도가 드러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임이 떠날 때 참으려 해도 눈물이 많이 흐를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00) ㉠ ④

㉠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별의 아픔을 감내하고 있다. ㉠ ① ‘가시리▽가시리잇고▽나눈▽’, ‘나 보기가▽역겨워▽가실 때에는▽’에서 나타나듯이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한다. ③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나]의 정서 표출 방식은 간접적이다. ⑤ [가]의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기원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인고의 의지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념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비관적 태도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201) ㉠ ④

㉠ 고려 가요의 운율은 3·3·2조의 3음보가 두드러지나, 음수율의 경우는 다소 가변적이다. ㉠ ① 구비 전승되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 궁중의 악곡으로 수용되었다. ②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으나, 작품에 따라 주제를 함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의 후렴구 역시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③ 고려 가요는 평민들의 노래이며, 고려 시대 귀족들의 노래는 경기체가이다. ⑤ 분연체는 고려 가요의 중요한 특징이나, 모든 작품에서 분연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과정’이나 ‘사모곡’ 등은 한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 ㉠ ③

㉠ ‘아름 따다’라는 시구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절대론적(내재적, 구조론적) 관점으로 감상한 것이다. ㉠ ①, ②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므로 효용론적인 관점에 해당한다. ④ 작품과 작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⑤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203) ㉠ ①

㉠ [나]의 3연에는 역설적 표현(사뿐히↔조려 밝고)이 쓰였고, ①에서는 ‘눈물’을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것’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시적 허용(나아중)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각 연의 1행은 2음보, 2행은 1음보, 3행은 3음보로 행에 따른 호흡의 속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리듬의 변화를 주고 있다. ③ 1연과 4연의 형태가 유사한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구성의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④ 1, 2, 4연의 마무리를 ‘~우리다’로 하고 있어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적 대상에 대해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귀뚜라미 울음소리로 인해 잠에서 깨어난 상황을 반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얇은 잠을 깨우는 존재(귀뚜라미)의 행위를 ‘**슬쁘리도**(알뜰하도)’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204) ㉠ ⑤

㉠ [나]의 화자는 3연에서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마지막 행을 통해 ‘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화자는 ‘~우리다’의 여성적 어조, 자기희생과 절제의 태도 등을 통해 전통적 여인임을 알 수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홍안’(절고 아름다운 얼굴)을 통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 ① [나]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지만, <보기>의 ‘새’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② [나]에서 ‘역겨워’는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보기>에서 ‘님’이 화자를 떠난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보기>의 ‘약수’는 임의 소식을 끊기게 만드는 장애물의 의미이지만, [나]의 ‘약산’은 향토성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이다. ④ [나]는 자유시, <보기>는 가사이므로 [나]가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보기>가 정형성을 가진다. 205) 답 ③

해 ㉠ 뒤에 이어지는 구절(선후면 아니 올세라.)을 통해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그러면 임이 영영 나를 떠나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해 ㉡ ① ㉡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음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이다. ② ㉢ ‘어찌’의 의미로, 강조의 표현이다. ④ ㉣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의 의미로, ‘-ㄴ세라’는 ‘~할까 두렵다’는 의미이다. ⑤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시-’이다. 여기에서 ‘-옵-’은 서술의 대상이 되는 ‘님’, 즉 목적어를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이다. 206) 답 ②

해 ㉤ ㉤는 구전되다가 후대에 궁중의 악곡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후렴구(여음구, 조흥구)로, 화자의 정서 및 분위기와 관계없이 악를을 맞추기 위해 삽입한 것이다. 해 ㉥ ① 후렴구 다음에 새로운 연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연(分戔)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③ 구전되다가 조선 시대에 궁중 악곡으로 수용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④ 매 연 끝에 반복됨으로써 형태적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한다. ⑤ ‘위 증줄가 大平聖代(대평성대)’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7) 답 ③

해 ㉦ ㉦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③의 밤 새 잠을 못 이루고 그리워한 ‘님’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해 ㉧ ①, ②, ④, ⑤의 ‘님’은 충성의 대상으로서 ‘임금’을 의미한다. 208) 답 ⑤

해 ㉨ ㉨는 ㉨를 통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분위기적인 요소이다. 209) 답 [나]의 ‘진달래꽃’과 <보기>의 ‘피꼬리’는 둘 다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 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고, [나]와 <보기>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에서 ‘이별의 정한’을 느끼고 있다.

상5(2) 춘향전

210) 답 ②

해 판소리게 소설은 오랜 세월을 걸쳐 구비 전승되다가 기록된 적층 문학으로 이본이 많다. ‘춘향전’은 40여 종의 필사본(筆寫本) 및 목판본(木版本)이 있고, 신작(新作), 개작(改作), 번역까지 합하면 100여 종 이상이 있다. 해 ㉡ ① 판소리로 불리던 것이 판소리게 소설로 정착하였다. ③ ‘춘향전’은 한글 소설이다. ④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춘향전’은 ‘완판본’으로 전라도 사투리가 쓰였다. ⑤ 인물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도 두드러진다. 211) 답 ③

해 [가]에서 이몽룡은 전라도 여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 오는 길에 농부들로부터 남원의 변 사또가 학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옥에 갇힌 춘향의 소식을 듣는다고 하였다. 해 ㉡ ①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모습이나 호화로운 생일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춘향은 ‘퇴기 월매’와 ‘성 참판’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④ 이몽룡은 걸인 행색을 하고 있으나, ‘사령들’을 부르는 말투나 태도는 여전히 양반의 모습을 하고 있다. ⑤ 이몽룡은 성격이 변모·발전하는 입체적 인물로, 전반부에서 보이던 철없는 모습을 버리고 후반부에서는 의지적이며 집념이 강한 모습을 보여 준다.

212) 답 [가]에는 수청 거부로 인한 ‘춘향’과 ‘변 사또’의 갈등이 나타나며, 이는 춘향이 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함으로써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 작품의 표면적 주제인 ‘변함없는 사랑과 굳은 정절’과 통한다.

213) 답 ②

해 [나]에서는 ①, ③, ④, ⑤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고, 본관의 말을 통해 대구, 열거, 반복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14) 답 ②

해 ㉡ ㉡, ㉢, ㉣은 어사또, 즉 이몽룡을, ㉤은 본관 사또, 즉 변 사또를, ㉥은 사령을 가리킨다. 215) 답 ②

해 ‘명관’은 ‘정치를 잘하여 이름이 난 관리’를 의미하나 ㉡에서는 변 사또가 명관이 아님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은 이몽룡이 걸인 행세를 하며 잔치에 참석시켜 줄 것을 부탁하자, 사령이 변 사또의 명령을 들먹이며 거절한 부분으로 굶주린 백성을 외면하는 변 사또가 명관이 아님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임이 떠나면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뜻을, 그와 반대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표현 하였다. 해 ㉥ ① 김용호의 ‘주막에서’로, 삶의 고달픔을 미각적 심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③ 윤동주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괴로웠던 사나이’면서 ‘행복한’이라고 한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④ 안도현의 ‘사랑’으로, 매미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여름이 뜨겁다고 표현하여 발상의 전환이 드러나 있다. ⑤ 이운악의 ‘오랑캐꽃’으로, ‘오랑캐꽃’을 ‘너’로 지칭함으로써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쓰였다. 216) 답 ㉢, ㉣, ㉤ / 고전 소설에서 작가가 작품 속에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이를 ‘편지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217) 답 ①

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행색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하대 받는 이몽룡을 본 운봉은 이몽룡에게 호의를 베풀어 생일잔치에 참석하게 한다. 해 ㉡, 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양반’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운봉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④ 이어지는 본관의 반응(본관은 말이 /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 하니 ‘마는’ 소리 훔입맛이 사납겠냐.)을 통해 운봉이 본관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18) 답 어사또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어색해진 잔치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어사또를 쫓아내기 위해서이다. 219) 답 ④

해 ㉢는 해학적 표현으로,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심리적 긴장이 이완된다. 해 ㉡ ① 본관 사또는 이몽룡이 잔치에 끼어드는 것이 못마땅하나 운봉의 뜻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다. ② ‘일단 생일잔치에서 실컷 먹고 나서, 본관을 벌하겠다.’라는 문맥적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볼품없는 사물 및 음식을 열거함으로써 본관 사또의 잔칫상과 대비되는 어사또의 상차림을 부각시키고 있다. ⑤ 이몽룡은 양행어사로서의 신분과 의도를 숨긴 채 작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20) 답 ⑤

해 춘향의 사랑과 정절은 표면적인 주제이다. 해 ㉡ ① 밝은 세상을 갈망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② 판소리 ‘춘향가’의 사설이 소설로 정착한 것이다. ③ ‘춘향전’의 근원 설화는 애정(愛情) 설화, 관탈 민녀 설화, 열녀 설화, 양행어사 설화, 신원 설화가 바탕이 되었는데, ‘지리산녀 설화’는 이 중 관탈 민녀(열녀) 설화에 포함된다. ④ 양반의 자제인 이몽룡과 기생의 딸인 춘향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221) 답 물색없는

해 ‘물색없다’는 ‘말이나 행동이 형편에 맞거나 조리에 닿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기는커녕, 운봉에게 어디를 다니냐며 책망하는, 본관 사또의 눈치 없는 성격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22) 답 ④

㉠ 어사 출도에 긴박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통해 긴장감이 고조된다. ㉡ ②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 초목 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에서 직유법, 과장법을 통해 양행어사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 문장 끝마다 ‘거동보소’를 반복하고 있다. ‘~보소’, ‘~하소’는 판소리 연행 시, 연행자가 관객에게 말을 건넌 관습에서 유래되어 판소리게 소설에도 나타나는 요소이다. ㉣ ‘어둠’의 의미는 탐관오리의 수탈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 옥에 갇힌 춘향의 처지를 의미한다.

223) 답 ④

㉠ ④는 판소리게 소설의 특징이긴 하나, [A]는 한시로 양반의 언어만 드러난다. ㉡ ①, ② 본관의 가령주구에 대한 어사또의 분노와 탄식의 감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 ‘술 - 피, 안주 - 기름, 촛농 - 눈물, 노랫소리 - 원망 소리’로 표현하여 은유법이 쓰였고,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구법이 쓰였다. ㉣ 어사 출도라는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예고하여 긴장감이 고조된다.

224) 답 ⑤

㉠ 운봉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관속들을 단속하는 내용으로, 확장적 문체를 활용한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난다.

225) 답 잔치 분위기를 여수선하게 만드는 운봉을 못마땅해 하는 본관의 심리가 드러나며, 운봉은 잔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둘러댄 것이다.

226) 답 ④

㉠ ‘본관이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새앙쥐 눈 뜨듯 하고 내아(內衙)로 들어가서’라는 부분에 어사 출도에 따른 본관 사또의 충격과 공포, 다급함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담력이 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서리, 역졸은 도망가는 수령들을 잡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나]에서 관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을 잃고 허둥대는 수령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다]의 ‘이 골은 대강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현화(喧譁)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사처(徙處)하라.’라는 문장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어사또의 깊은 효심과 존경심을 엿볼 수 있다. ④ [가]의 ‘안 하려던 공방을 하려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라는 공방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227) 답 ⑤

㉠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는 현재형 진술을 통해 현장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① [나]에서 어사 출도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수령들과 본관 사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휘닥닥’, ‘후닥닥’ 등과 같은 의성어가 사용되었다. ③ [가]와 [나]에서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도망치는 아전들의 모습을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④ [나]의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 보소’에 나타난다.

228) 답 관리로서 챙겨야 할 중요한 물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들고 가는 모습을 통해 관리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함을 풍자하고 있다.

229) 답 ⑤

㉠ ㉡은 언어유희가 쓰였으나, ㉢은 언어유희가 쓰이지 않았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라는 관습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① 사람의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 이름인 ‘갈비’가 음이 같은 것을 활용한,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② ‘막걸리’는 ‘마르스크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③ 이몽룡을 의미하는 ‘이부(李夫)’와 두 남편을 의미하는 ‘이부(二夫)’를 활용한,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④ 동음을 활용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230) 답 ③

㉠ ‘춘향전’은 판소리게 소설로, 서술자의 개입이 곳곳에 드러난다. 그러나 ㉡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인 위 글과는 거리가 멀다. ㉢ ① 양반의 언어와 서민의 언어가 혼용

되어 나타나는 언어의 이원화가 판소리게 소설의 특징이다. 특히 제시된 지문은 한자어가 많이 쓰여 양반의 언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 ② 절개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춘향, 능청스럽게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는 어사또의 연행을 통해 성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사건 전개가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⑤ ‘수절(守節)이 정절(貞節)이라’에서 유사 음운 반복을 통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231) 답 ④

㉠ ㉡은 ‘수를 놓은 옷’, ‘양행 어사가 입던 옷’의 의미를 지니며, ‘수의 사또’를 가리키기도 한다.

232) 답 ④

㉠ 어사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춘향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부분으로, 능청스러움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233) 답 ④

㉠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방법인 설의법이 쓰였다. ㉡ ①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춘향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② ‘충암절벽 / 높은 바위 / 바람 분들 / 무너지며,’와 같이 4·4조 4음보의 율격이 사용되었다. ③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에서 반어적 표현이 쓰였다. ④ ‘충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녹죽 푸른 남기’는 춘향의 절개를, ‘바람, 눈’은 시련,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 대조되는 어휘를 활용하여 각각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34) 답 남원 읍내에 부임한 변 사또가 수청을 요구하여 ‘나’(춘향)가 죽게 되었더니, 객사에 어사가 출도하여 ‘나’를 살리는구나. / ‘이화춘풍’은 ‘자두나무 꽃에 부는 봄바람’과 ‘이몽룡’을 뜻한다.

235) 답 ③

㉠ 위 글의 사상적 배경은 인간 평등 사상, 신분제 극복을 통한 사회 개혁 의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통한 자유 연애 사상, 정절을 중시하는 유교적 도덕 관념 등이다.

236) 답 ④

㉠ [나]는 서술자의 요약적 설명이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판소리로 연창할 때는 연행자의 아니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아니리’는 판소리 공연에서 음악적인 가락을 동반하지 않고, 구술로써 판소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듯 서술하는 부분을 말한다. 혹은 이야기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 청자가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즉 판소리의 서사적인 전개를 주로 담당하며 사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① ‘창’은 판소리의 전개에 있어서 이야기의 내용을 서술하기보다는 인물의 정서가 고양되었을 때 음악의 가락에 맞춰 높은 소리로 부르는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관객들의 정서적 긴장과 감흥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한다. 노래하는 내용에 따라서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따위에 맞춰 부른다. ② ‘발림’은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③ ‘너름새’는 ‘발림’의 다른 말이다. ④ ‘추임새’는 장단을 짚는 고수(북이나 장구 따위를 치는 사람)가 창 사이사이에 ‘얼씨구, 좋지, 잘한다, 그렇지’ 등의 소리로 흥을 돋우는 것을 말한다.

237) 답 ①

㉠ 춘향의 고통은 남원 민중들의 고통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춘향의 문제 해결을 통해 남원 민중들은 신명을 느끼게 된다. ㉡ ②, ③ 행복한 결말로 끝맺기 때문에 ‘불쾌함’, ‘좌절감’과는 거리가 멀다. ④ 독자들의 호기심이 해결되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⑤ 권선징악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현실에서 고통 받는 독자들의 희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38) 답 ①

㉠ ㉡은 ‘넓고 멀어서 아득함’의 의미이며, ㉢은 ‘그 부친보다도 재주가 뛰어남’의 의미로 쓰였다.

239) 답 고향을 떠나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240) 답 ②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독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시점은 1인칭 시점이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그 거리가 멀다. ㉯ ① 양반의 자제인 이몽룡과 퇴기의 딸인 춘향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③ 고전 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흔히 나타난다. ④ 표면적 주제는 양반의 욕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면적 주제는 서민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서민 예술로 출발한 판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게 된다. 판소리는 사실성이나 개연성보다는 청중의 흥미와 기호를 더 중시했다. 이에 따라 판소리 광대는 새로운 관객인 양반들의 기호에 맞추어 그들이 원하는 주제, 즉 당시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주제를 작품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⑤ 열녀 설화 또한 그 바탕이 되며, ‘춘향전’의 근원 설화는 다양하다. 241) ㉮ 옥 /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위해서 거쳐야 할 일종의 통과 의례적인 기능을 한다. 242) ㉮ ②

㉮ [가]에서 운봉은 심상치 않은 눈치를 채고 관속들을 단속하는 데 비해, 본관 사또는 ‘물색없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관은 바빠 움직이는 운봉의 행동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채기는커녕, 운봉에게 ‘어디를 다니냐’며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 ㉯ ① 운봉이 ‘아뽕썩, 일이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관속들을 단속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는 암행어사 출도 장면으로, 사건 진행이 빠르고 긴박한 장면에 쓰이는 자진모리장단이 어울리는 대목이다. ④ [가]의 ‘공방 불러 / 포진 단속, / 병방 불러 / 역마 단속’, [나]의 ‘서리 보고 / 눈을 주니 / 서리, 중방 / 거동 보소.’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의 ‘공방 불러 ~ 합번 단속’, [나]의 ‘서리 보고 ~ 청파 역졸 거동 보소.’에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난다. 243) ㉮ ③

㉮ ‘금준미추천인월 옥반가효만성고 축루낙시민루낙 가정고쳐원성고’와 같은 7언(7글자) 절구(4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①, ② 어사 출도를 암시하는 대목으로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예고하고, 극적 위기감을 조성한다. ④ 본관의 화려한 생일잔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관리들의 가혹한 정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⑤ 암행어사로서의 분노와 탄식이 드러나 있으며, 이는 학정 혹은 가렴주구에 대한 풍자로 볼 수 있다. 244) ㉮ ②

㉮ ㉠과 ㉡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목소리는 서술자의 목소리로,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 또는 상황에 대해 판단·평가를 내리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에서도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 ①, ③, ④, ⑤ 모두 ‘~니라’, ‘~더라’, ‘~지라’ 등이 쓰여 편집자적 논평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내용상 서술자의 평가나 판단이 드러나지 않고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없다. 245) ㉮ ④

㉮ [가]에서 관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인 인계와 병부를 잃고 다른 것들을 손에 들고 허둥대는 모습을 통해 관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함을 풍자하고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보다는 어사 출도로 경황 없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① 상식적인 기대를 깨뜨리며 엉뚱한 것을 들고 허둥대는 수령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당황하는 본관 사또의 모습을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 말하게 함으로써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어사 출도의 상황 속에서 혼비백산한 수령들과 본관 사또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당대 관리들의 허위성을 풍자하고 있다. ② 학정을 일삼던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을 당하고, 춘향과 어사또는 행복한 일생을 보내는 권선징악적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③ 후에는 양반들도 향유하였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판소리계 소설은 서민들의 욕구와 취향에 뿌리를 두고 있다. ⑤ 반드시 행여야 할 것을 행기지 못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 임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함을 풍자하고 있다. 246) ㉮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로 불리다가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된 후, 개화기에 신소설로 창작되었다. 247) ㉮ ⑤

㉮ 보여 주기 기법이란 인물의 외양이나 행동을 묘사하거나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법은 속도감 있는 전개와는 거리가 있다. [마]는 보여 주기 기법이 아니라 말하기 기법, 즉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 ① 4·4조의 운문체가 나타난다. ②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수청 들 것을 강요하는 어사또를 풍자하고 있다. ③ ‘추절’은 ‘변 사또의 학정(수청요구)’, ‘떨어지게 되었던니’는 ‘춘향이 죽을 위기’, ‘봄’은 ‘어사 출도’, ‘이화 춘풍’은 ‘자두나무꽃에 부는 봄바람, 이몽룡’을 의미하고 있어 비유적 표현이 쓰였으며, 앞부분은 절망적인 심리를, 뒷부분은 환희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라]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248) ㉮ ②

㉮ 어사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춘향을 시험하는 것은 그 절개를 확인함으로써 춘향에게 정절 부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249) ㉮ [마]에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는 내용과 퇴기의 딸이었던 춘향이 정절부인으로 신분 상승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변함없는 사랑과 정절(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여성의 굳은 정절)’이지만, 이면적 주제는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임을 알 수 있다.

상5(3) 봉산탈춤

250) ㉮ ⑤

㉮ 주제가 다른 각 과장들이 인과적으로 연결성 없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①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므로 무대 장소가 따로 필요 없다. ② 관객은 등장인물의 물음에 대답하고 장단을 맞추며 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③ ‘민중성, 비판성, 골계성, 축제성’은 민속극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가면극은 대사와 함께 춤과 노래가 발달되어 극적 갈등을 표현한다. 251) ㉮ ③

㉮ 양반 삼 형제의 외모는 그들이 비정상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기 위해 일부러 일그러뜨려 놓았지만, 복장은 양반이 갖추어야 할 복색을 하고 있다. ㉯ ① 제6 과장은 양반에 대한 풍자가 중심이 되는데, 이 풍자를 하는 인물은 하인인 말뚝이이다. ② 도련님의 행동은 양반의 체면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④ ‘병거지’는 하인이 쓰던 모자이고, ‘채찍’은 마부가 드는 것으로, 말뚝이의 신분이 마부임을 알려 준다. ⑤ ‘창웃, 쾌자, 복건, 부채, 장죽’ 등은 양반의 복색과 관련 있는 것들이다. 252) ㉮ ⑤

㉮ 바로 앞에 ‘쉬이’의 기능을 묻는 문제로, ⑤의 악공과 관객이 극에 개입하는 것은 서양 연극과 구분되는 전통극의 특징이기는 하나, ‘쉬이’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253) ㉮ ⑤

㉮ 극적 환상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비판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①, ③, ④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고정적인 서양 연극과 달리, 전통극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기에 연행자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② 연행자와 관객이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명 나고 친근한 놀이판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254) ㉮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255) ㉮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 말뚝이 재담 구조는 긴장과 이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56) ㉠ ①

㉠ 북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도록 집터를 짓는 방식, 여덟 팔자 모양의 지붕 모양, 건물이 배치된 모습을 늘어놓음으로써 극중에서 마부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인 말목이가 양반들보다 훨씬 더 유식하여 지적으로 양반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다]에서 ‘삼탈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예다 축축 축여놔습니다.’라는 대사는 양반에 대한 말목이의 조롱이 더 발전적인 형태를 띠면서 세련되어지는 것을 보여 준다. ③ ‘삼탈 같은 칼담배’는 거칠게 썬 담배로, 말목이의 대사를 듣고 화를 내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 품질이 좋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부벽서(付壁書)’는 벽에 붙어 있는 글로, 부벽서의 내용은 ‘담박녕정(澹泊寧靜)’,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 ‘인의예지(仁義광智)’, ‘효제충신(孝悌忠信)’이다. 이를 통해 양반의 허위의를 꼬집고 있지는 않다. ⑤ 양반 거처의 전형적인 형태, 즉 양반들이 집을 짓는 방식에 해당한다.

257) ㉠ ④

㉠ 악공은 등장 인물의 물음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극중에도 개입하여 극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 ㉡ ①, ②, ⑤ 관객과 악공은 기본적인 역할 외에, 말목이의 양반에 대한 조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여 말목이와 한편으로 극중에 참여,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 ③ 악공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258) ㉠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259) ㉠ ③

㉠ ‘내 이놈’이라는 호칭이나, 말목이의 역할을 규정하는 부분(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을 통해서 전형적인 주종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60) ㉠ ④

㉠ 양반들에 대한 비판은 양반 스스로의 폭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목이에 의한 비판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 평산에 동선‘령’이라.”라고 하여 ‘산’과 ‘영’의 운자를 맞추기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⑤ 지명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지었다고 칭찬하는 서방의 말에서 양반들의 학식과 교양이 허구적임을 폭로하는 계기가 된다. ③ 양반들의 전유물인 한시 짓기를 통해 양반 문화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61) ㉠ ②

㉠ 일정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으며, 공연하는 장소가 곧 극중 장소가 되는 전통극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262) ㉠ 평민들이 글자를 모르는 데 비해 양반들은 어려운 문자 생활을 한다는 유식함과 우월감을 과시하여 말목이의 조롱으로 실추되었던 권위를 회복하려는 의도이다.

263) ㉠ 양반들의 허구적인 학식과 교양 수준

㉠ ㉡은 ‘산’과 ‘영’이라는 운자를 맞추기는 하였으나 지명을 무의미하게 나열한 것으로, 양반들의 학식과 교양이 허구적임을 폭로하는 계기가 된다.

264) ㉠ ③

㉠ ㉡은 ‘구절’, 즉 ‘한 토막의 말이나 글’의 의미이다. ㉡ ① 항아리나 그릇 따위의 손잡이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② 모가 난 물건의 모서리를 이르는 말이다. ④ 돈의 큰 단위에 함께 붙는 적은 단위의 액수, 또는 부른 물건값보다 조금 더 붙이는 금액을 말한다. ⑤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 양 옆에서 듣는 기능을 하는 감각 기관을 말한다.

265) ㉠ ⑤

㉠ 말목이의 말을 통해 앞으로의 시대에 양반들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서민이나 신층 상인 계층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대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협동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서지 않겠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② 시대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말목이

와 낮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인 양반의 모습이 극적으로 대조되어 나타난다. ③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새로운 시대에 양반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서민이나 신층 상인 계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266) ㉠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 ‘전령’은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며, 샌님의 전령만이 취발이를 잡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극중 현실에 반영되는 사실성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양반의 권위가 아직 견재함을 말해 준다.

267) ㉠ ②

㉠ [가]에서 말목이가 취발이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과 말목이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취발이는 경제력 있는, 당시 급부상하고 있었던 신층 상인 계층임을 알 수 있다.

268) ㉠ ③, ④

㉠ ㉡은 양반들의 횡포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속한 표현을 통해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269) ㉠ ②

㉠ 겉으로는 청빈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양반들의 탐욕을 풍자하고 있다. ㉡ ① 아전인수(我田引水) :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좌고우면(左顧右盼) :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라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다. ④ 다다익선(多多益善) :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뜻이다. ⑤ 건물생심(見物生心) :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을 뜻하는 말이다.

270) ㉠ ④

㉠ 연행자의 말을 후대에 누군가(위 글의 경우는 ‘이두현’)가 채록하여 대본으로 전하고 있지만, 악공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악공은 극에 적합한 반주를 해 주고 연행자의 말을 받아 주거나 극에 적절히 개입하여 극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271) ㉠ ③

㉠ 말목이는 겉으로는 양반의 호통에 자신의 말을 바꾸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반어적인 변명일 뿐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의 의미인 ‘면충복배’와 통한다.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사필귀정(事必歸正)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이다. ④ 조령모개(朝令暮改) :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회자정리(會者定離) :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272) ㉠ ④

㉠ 그놈이 심(심)이 무량대각이요, 날랜이 비호 같은데,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등을 통해 취발이로 상징되는 상인계층의 세력형성을 파악할 수 있다. ㉡ ① 화폐의 유통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화폐에 대한 사고(배금주의적 사고방식)가 발달하였다는 것은 화폐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② 양반이 쓴 ‘전령’이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에서, 양반의 권위가 이전 시대에 비해 다소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견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말목이는 양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양반을 비꼬는 데 그치지만, 양반은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라고 말함으로써 그 횡포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273) ㉠ ②

㉠ ㉡은 ‘양반’의 뜻풀이를 통한 양반에 대한 조롱으로, 양반의 허위 의식을 폭로하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① ‘양반’의 뜻풀이를 통해 양반을 희화화시킴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비판하는 효과를 갖는다. ③ 양반을 비천한 것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통해 서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들의 양반에 대한 도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앞에서는 훌륭한 양반들의 관직명을 나열하고, ㉡에 와서 이를 뒤집어 버림으로써 ‘비약과 반전’의 기법을 사용하여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⑤ 동음에 의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274) 답 ㉠은 양반을 조롱하고 모욕함으로써, 양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은 양반들의 횡포를 단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비속한 표현을 통해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효과도 있다. 275) 답 ③

㉢ 말뚝이는 취발이를 잡아들이기보다는 취발이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양반들을 회유하고 있다. 276) 답 ④

㉣ ㉤는 말뚝이의 변명, ㉥는 양반의 안심, ㉦는 양반의 위엄과 말뚝이의 조롱, ㉧는 양반의 호통에 해당한다. 따라서 ㉣ - ㉥ - ㉦ - ㉧로 배열하는 것이 적절하다. 277) 답 ③

㉨ 서방과 생원은 자기 과시를 위해 시조 읊기, 운자 놀이, 파자 놀이를 하고 있으나, 그 결과물은 모두 형편없는 수준을 드러내고, 또한 결과물에 대해 칭찬해 주고 있어 자신들의 무지와 허세를 스스로 폭로하여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 ① 말뚝이 대사의 성격은 직설적인 공격과는 거리가 멀다. ②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인 패러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 양반들의 시조와 서민들의 민요가 대조를 이루기는 하지만, 이것은 [가]에 한정된 것으로 주된 방법은 아니다. ⑤ [다]의 파자 놀이로 제시된 내용이 유사 음운의 반복을 통한 언어유희에 가깝지만, [다]에 한정된 것으로 주된 방법은 아니다. 278) 답 ㉨ 양반이 읊는 시조나 말뚝이가 부른 민요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드러냄으로써 양반들의 허위적인 자기 과시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말뚝이의 민요는 서민들의 생활 정서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감정을 대변하고, 양반들의 문화와 다른 서민들만의 문화가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279) 답 ① 반주나 춤을 멈추게 한다. ②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③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④ 극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280) 답 ④

㉪ 양반들이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 문자로 노는 모습이 못마땅한 말뚝이가 서민들이 흔히 부르는 소리 한 가락을 불러 양반들의 시조나 서민들의 민요나 그 수준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으며, 서민들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81) 답 ④

㉫ ㉬는 생원의 형편없는 운자 놀이에 대한 서방의 반응이다. 서방은 형제간의 우애를 도모하기 위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운자 놀이가 실제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칭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양반들의 무지와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있다.

상5(종합) 문학과 전통

282) 답 ④

㉭ [가]와 [나]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 임과의 이별 상황이라는 점,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이별의 정한이라는 점, 화자가 여성이라는 점 등이 공통적이다. ㉮ ①, ② 서러움과 비애라는 공통된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인종의 자제로 기다림의 시간을 인고하는 전통적 여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며 체념하는 소극적 모습이 드러나 있다. 283) 답 ④

㉯ 시적 상황을 이끄는 주체는 시적 대상이다. 2, 3, 4연의 첫 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적 행위의 주체가 ‘님’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화자는 피동적, 종속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① ‘나’는 여음구와

‘위 증즐가 大平盛大(대평성되)’라는 후렴구가 나타난다. ② [가]는 고려 가요로, 고려 시대 때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 형태의 시가를 가리킨다. ③ ‘가시리V가시리있고V나노V’처럼 3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이 형성된다. ⑤ ‘-읍-’을 통해 객체인 ‘님’을 높이고 있다. 또한 ‘-쇼셔’라는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로 설정된 ‘님’을 높이고 있다. 284) 답 ②

㉻ <보기>에는 산화 공덕을 통한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지나, [나]에서는 산화 공덕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① [나]는 자유시, <보기>는 4구체 향가이므로, [나]가 <보기>에 비해 형식이 자유롭다. ③ [나]에서 ‘진달래꽃’은 시적 화자의 분신이나 의인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보기>의 ‘꽃’을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자연물에 인격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2연과 <보기>의 1, 2행에서 산화 공덕의 모티프가 드러난다. ⑤ [나]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화자의 개인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데 반해, <보기>는 산화 공덕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어 사회적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85) 답 ④

㉽ [가]와 <보기>는 모두 고려 가요로, 고려 시대 민간에서 향유되다가 조선 시대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었다. 그러한 흔적이 [가]에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후렴구에, <보기>에는 덕과 복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사’ 부분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의 후렴구와 <보기>의 ‘서사’ 부분은 작품 전체의 정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 286) 답 ②

㉾ ㉿를 가정적 이별의 상황으로 볼 때 아직 이별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별을 가정하여 화자의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87) 답 ㉾ ‘은’진달래꽃’을 가리키며, 임에 대한 사랑을 표상하기 위해 선택된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연에서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 즉 화자나 마찬가지로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라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288) 답 ③

㊱ 위 글에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은 [가]와 [라]이다. [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이몽룡의 성격이, [라]에는 절개를 중요시하는 춘향의 성격이 대화와 대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289) 답 ②

㊲ <보기>에서 결국 춘향은 모진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따라서 행복한 결말에서 비극적 결말로 작품의 결말이 바뀌는 효과가 나타난다. ㊳ ① 변 사또에 비해 이몽룡의 포악한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이몽룡은 춘향의 절개를 마지막으로 시험함으로써 춘향이 정열부인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기에, 다소 능청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⑤ 위 글이나 <보기>나 모두 제삼자가 춘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작품 속의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게 되면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290) 답 ③

㊴ 춘향은 이몽룡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몽룡을, 수청을 요구하는 변 사또와 같은 인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춘향이 이몽룡(여사또)을 믿음직하게 바라본다는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291) 답 ④

㊵ [나]에는 부분적으로 의인법, 설의법, 편집자적 논평이 쓰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호흡이 짧은 어구 혹은 문장을 나열하는 서술 방식이 쓰였다. 이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㊶ ②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쓰이는 경우,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서술자가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와 가까워지고 인물과는 멀어지게 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292) 답 [다]는 어사 출도로 긴박하게 달아나는 본관과 수령들의 모습
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이 빠르고 긴박한 장면에 쓰이는
자진모리장단이 어울린다.

293) 답 ④

해 ㉠은 변 사또의 학정에 고통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은 춘향의 변함없는 절개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은 사회적 차원, ㉡은 개인적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 ① 금준미주천인혈(斟樽美酒千人血) / 옥반가호만성고(玉盤佳
肴萬姓膏) / 촉루낙시민루낙(燭淚落時民淚落) / 가성고처원성고(歌聲
高處怨聲高)에서 보듯이 7글자의 4구로 이루어져 있는 7언 절구의 한
시이다. ③창상절벽 높은 바위, 청송녹죽 푸른 남기는 절개를 나타내는
관습적 표현이고, ‘바람, 눈’ 역시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관습적
표현이다.

294) 답 ④

해 조선 전기는 신분적 질서와 규범이 완고하게 지배하는 시대였다.
임진왜란·병자호란의 양란을 거치면서 신분제의 동요와 서민 의식의
성장이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선 후기의 평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95) 답 ②

해 양반의 호통에 말뚝이가 변명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
이는 것일 뿐이지 이면적으로는 양반을 조롱하는 반어적인 의미를 지
닌다. 따라서 말뚝이는 너그럽고 예의 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296) 답 말뚝이 재담의 구조는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
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으로 이루어진다. 말뚝이
재담의 구조는 긴장·갈등이 서서히 고조되어 ‘양반의 호통’ 부분에서 최
고조에 이르렀다가, ‘양반의 안심’ 부분에서 긴장이 이완되고 갈등이
일시적이나마 해소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보기> 중 ‘긴장과 이
완’의 방법과 관련이 있다.

297) 답 ⑤

해 [A]는 열거를 통해 몰아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실로, 긴장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해 ① 양반을 찾으려 안 가 본 대가 없다는
표현과 ‘바위 틈틈이, 모래 찰찰이, 참나무 겉겉이’ 등에서 알 수 있
다. ② 한자어와 일상어가 섞여 있다. ③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
이라,’에는 대구 표현이, 이후에 이어지는 표현이 ‘동여울 서구월’로
동일 어휘가 반복되고 있다. ④ ‘말뚝이님’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이
름에 높임 접미사 ‘-님’을 붙여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298) 답 ⑤

해 [B]에는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타나는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가 쓰였다. ⑤는 변 사또 생일잔치 전날 밤에 죽음을 예상한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건넨 당부로, 자신이 죽으면 땅에 묻고 제사 지
내 달라는 내용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299) 답 ‘취발이’는 얼굴이 붉은데, 이는 그만큼 힘이 넘치고 남성적
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취발이의 힘이 세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뚝이의 마지막 대사인 ‘돈
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야’를 통해 취발이가 경제적 능력을 갖춘 신
흥 상인 계층에 속하는 인물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발이
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힘(재력)을 가진 존재이며, 서민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취발이의 힘과 용맹이 대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당대 서민들의 생기가 대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00) 답 ①

해 ‘노새 원님’은 ‘노생원님(老生員-)’에서 착안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결국 하인인 말뚝이가 상전인 양반을 무른 메
주 밭듯 타고 다녔다는 뜻이 된다. ①은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함으로
써 풍자하고 있다. 해 ②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첫조각을 의미
하는 ‘벗’과 ‘별’의 발음상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③
숫자 1과 관련하여 ‘일’자, ‘일’편단심. ‘일’각삼추를 반복한 언어유희
에 해당한다. ④ 숫자 5와 관련하여 ‘오’륜, ‘오’행, ‘오’매불망을 반복

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⑤ ‘이엿사’, ‘여도사’, ‘술술’, ‘술남’, ‘잘
잘’, ‘잡남’ 등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301) 답 처음 시작을 춤으로 했듯이 춤을 통해 마무리를 하고 있다.

즉, 춤은 한 과정을 통일시켜 주는 구성 원리이다.

302) 답 ⑤

해 ‘가재는 게 편’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
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말뚝이와 생원은 형편이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뚝이가 생원에게 ㉠처럼 말한 의도는 겉
으로는 청빈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양반들의 탐욕과 비
리를 풍자하기 위해서이다.

303) 답 ①

해 [가]와 [나]의 화자는 혈육(동기)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혈육(자식)의 죽음을 재재로 한 ①과 시적
상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해 ②박두진의 ‘도봉’으로, ‘삶의 외로
움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으며, 인용된 부분에서는 시간
의 흐름에 따른 고독의 심화를 보여준 뒤, 내면 세계로 시선을 이동
하여 인간의 근원적 고독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③ 서정주의
‘귀족도’, ‘사별의 한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인용
된 부분에서는 ‘서역 삼만 리’와 ‘파촉(巴蜀) 삼만 리’라는 시어를 통
해 저승과 이승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보여 주고 있으며, ‘진달래꽃’
의 한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 전체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④ 이수복의 ‘봄비’로, ‘봄비 내리는 날의 애상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
으며, 인용된 부분에서는 그리움의 대상인 ‘임’이 죽은 상황을 ‘향연’
을 통해 애상적 정서와 함께 드러내며, 그 원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지랑이’를 통해 ‘꽃’과 함께 봄의 소생을 알리는 상승적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화자의 슬픔과 한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역
할을 한다. ⑤ 김소월의 ‘초혼’으로,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인용된 부분에서는 영탄과 반복을
통해 화자의 애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304) 답 ⑤

해 [가]는 9행의 ‘아아’를 통해 정서의 집약이 나타나고, [나]는 ‘워
락카노’의 점층적 반복과 ‘오나. 오나. 오나.’의 반복을 통해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해 ① [나]에는 공간의 설정을 통해 시
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가]와 [나]에서 시간과 공간의 교차를 축으
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는 규칙적인 리듬감이 형
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④ [가]와 [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다.

305) 답 ④

해 [가]는 10구체 향가로 가장 정제된 형식의 작품이다. 또한 뛰어난
비유를 통해 인간고의 종교적 승화를 노래하고 있어, ‘찬기파랑가’와
함께 세련된 표현 기교와 뛰어난 서정성을 지니는 작품으로 꼽힌다.
해 ①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세계로, 불교적 색채가 두
드러지는 작품이다. ②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으며, 비판적인 현
실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대상의 부재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대
상은 ‘사랑하는 임’이 아니라 자신의 혈육(‘누이’)이다. ⑤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는 점층적 강조 표현이 나
타나지 않는다.

306) 답 ④

해 ‘가는 곳 모르온저’는 죽은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평범한 서
술이다. 즉, 이승과는 다른 저승의 질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
지. 여기에서 화자의 특정한 정서를 읽어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307) 답 ⑤

해 [가]에서는 누이의 죽음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기>에서는 아내와 사별한 슬픈 상
황이지만 더욱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해
① 통사 구조의 반복은 <보기>에만 나타난다. ② [가]에서 ‘미타찰’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라는 극락의 세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의 괴리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 주술성은 향가의 특성으로, 현대시에는 이러한 특성이 약화되어 있다. ④ [가]는 ‘-잇고’를 통해 의문형 종결이 나타나기는 하나, <보기>는 ‘-네’로 담당한 진술을 하고 있다. 308) ㉠ ‘상황’의 전환이 드러나는 연은 6연이고,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는 구절은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이다. 즉, 화자는 시적 대상인 죽은 아우와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오냐. 오냐. 오냐.’라는 죽음에 대한 수궁을 통해 소통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이승과 저승은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바람’은 오히려 화자의 목소리를 아우가 있는 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여 이승과 저승이 연결된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309) ㉠과 <보기>의 ㉡는 모두 화자와 대상이 재회할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가]와 <보기>의 화자는 이승과 저승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끈이 여전히 이어져 있는 연속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죽음을 극복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게 하고, 자연스럽게 대상과의 재회를 꿈꾸게 하는 대응 양상을 갖게 한다.

상5(서술형) 문학과 전통

310) ㉠ [가], [나], <보기>의 시적 화자는 모두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별의 정한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즉, 세 작품의 주제는 모두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정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방식이나 시적 화자의 태도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기>의 화자는 생활의 터전도, 길쌈 베도 다 버리고 울면서 임을 쫓아가겠다며 이별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에 비해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임과의 재회를 기약하고 있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처럼 다시 돌아와 달라는 소망을 직설적으로 토로하지 않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내면화하고 있어, [가]의 화자보다 더 극한적인 감정의 절제와 자기 희생의 자세를 보여 준다라고 할 수 있다. 311) ㉠ [다]에 나타난 가장 큰 갈등은 신분의 우위와 낮은 시대의 사회 제도에 의지하여 그 우월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양반의 권위주의와, 그러한 양반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보는 성장된 서민 의식의 대면인 격인 말뚝이의 새로운 사고방식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은 매번 말뚝이의 반어적인 변명으로 잠정적인 해소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한바탕의 춤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듯 [다]에는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되, 엄밀하게 말해서 전면에서 부딪치는 첨예한 갈등이라는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다]가 풍자를 작품의 중요한 정신과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예한 갈등은 후면에 감춘 채 비공과 조롱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말의 양상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312) ㉠ [라]에는 ‘앞’이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는 <보기>에 나타나 있듯이 죽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승과 저승의 갈림에서 오는 슬픔과 허무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 하강적 이미지는 수직적 운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라]는 수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본다면 [마]는 수평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즉, 이승과 저승을 강기슭 이편과 저편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수평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6(1) 보고하기

313) ㉠ ③

㉠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글이므로 상징과 비유보다는 사전적 의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314) ㉠ ①

㉠ 위 실험은 농약이나 비료 대신 지렁이 똥을 퇴비로 사용하여 방울 토마토를 재배하는 실험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15) ㉠ ⑤

㉠ 지렁이는 건조한 곳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축축한 흙에서 서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316) ㉠ ① 친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의 강구 ② 지렁이 똥으로 만들어진 퇴비의 유용성 확인 ③ 직접 생태 관찰을 통한 자연의 심층적 이해 317) ㉠ ③

㉠ 염분이 많은 음식은 지렁이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318) ㉠ ④

㉠ 지렁이는 소화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먹은 음식의 양분을 다 섭취하지 못하고 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지렁이의 똥에는 많은 양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319) ㉠ ④

㉠ ①은 위 실험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려 주고 있다. 즉,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당도가 높은 양질의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20) ㉠ 자신의 똥을 통해 방울토마토에 영양분을 제공하여 달고 맛있는 방울토마토로 자라게 한다. 321) ㉠ ⑤

㉠ 위 글은 관찰, 실험한 정보를 보고서 형식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322) ㉠ ⑤

㉠ 위 실험은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의 당도를 비교하는 실험이 아니다. 323) ㉠ 몸매 좋은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동시에 일주일에 3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324) ㉠ ②

㉠ 위 글은 실험 결과를 보고하는 글로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①은 보도문에 해당한다. ③은 논설문에 해당한다. ④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주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실험 결과 보고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여야 한다. 325) ㉠ ⑤

㉠ 그림이나 사진, 도표, 그래프 등은 오히려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이다. 326) ㉠ ③

㉠ 보고할 대상의 특성에 따라 그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 327) ㉠ ③

㉠ 위 글은 학급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고문으로서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쉽고 친근한 어휘들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학적인 어휘들을 사용하는 것이 보고서의 수준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 328) ㉠ ②

㉠ 위 실험의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 지렁이의 똥으로 만들어진 퇴비가 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 그리고 직접 생태 관찰을 해 봄으로써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329) ㉠ ④

㉠ 본문에 시장에서 산 토마토의 당도가 더 높았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품질이 더 좋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330) ㉠ ②

㉠ 위 글은 지렁이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방울토마토를 농약 없이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실험 결과 보고서이다. ㉠ ①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목이다. 331) ㉠ ①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지렁이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한 번의 노력으로 두 개 이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뜻의 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일의 진행이 매우 빠름. ③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해를 입게 됨. ④ 하루 아침이나 하루 저녁과 같은 짧은 시일. 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

332) 답 모듬을 이루어서 흙과 지렁이의 상태, 방울토마토의 이파리와 열매의 개수를 매일 기록함.
333) 답 ④

㉮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렁이에 대한 거부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료, 일반적인 방울토마토 재배 방법을 설명한 자료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334) 답 ⑤

㉮ 가정에서 몇몇 작물들을 재배할 수는 있겠지만 미래 사회에 가정에서 식품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적은 견해이다.
335) 답 지렁이는 열에 약하고 건조한 곳에서는 살 수 없으므로 언제나 촉촉한 흙에 살아야 하며, 벌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이 좋다. 채소나 과일의 껍질, 밥과 반찬 등을 먹이로 주어야 한다.
336) 답 지렁이는 소화력이 약하여 음식물의 양분을 모두 섭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하므로, 그 양분이 그대로 배설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 녀석은 소화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먹은 음식의 양분을 다 섭취하지 못하고 똥으로 배출합니다.’라는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다.

상6(2) 보도하기

337) 답 ⑤

㉮ 위 기사는 주로 텔레비전 뉴스에서 쓰는 입체적 보도 방식을 취하고 있는 리포트 기사이다. 기자의 주관적인 논평이 삽입되는 칼럼 기사가 아니다.
338) 답 ②

㉮ 시의성이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보도하는 당시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339) 답 네온사인 불빛과 무절제한 조명으로 서울의 야경이 망가지고 있다.

㉮ 이 보도문은 공해 수준으로 변해 버린 서울 야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340) 답 ⑤

㉮ 관련 규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야경이 문제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이와 같은 현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41) 답 ④

㉮ 위 글은 서울의 야경을 보여 주며 그 문제점을 행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지적하고 있다.
342) 답 ④

㉮ ㉠, ㉡, ㉢, ㉣은 모두 지향해야 할 야간 조명의 사례라면, ㉤은 지양해야 할 사례이자 현재 서울의 야경이기도 하다. 즉, 친환경적인 야경을 지향해야 하지만 서울 야경은 노란 조명으로 인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게 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하고 운전자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343) 답 ①

㉮ 글이 아닌 시청각적 영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되므로 내용을 되풀이해서 보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한 번 듣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써야 한다.
344) 답 ⑤

㉮ 위와 같은 보도문은 작성자의 주관적 성향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사문은 매체에 수록되기 때문에 공적(公的) 장르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일기와 같이 사사

로이 쓰는 글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써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글이다. 따라서 기사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사문은 매체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불특정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이 기사문을 읽을지 알 수 없으므로 기사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 점을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45) 답 ⑤

㉮ 체계적인 관리 아래 친환경적인 변화가 요망됨을 제시하면서 보도를 마무리하고 있다.
346) 답 밤에도 낮과 유사한 이미지를 유지하여 편안함을 줄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야경을 의미한다.

㉮ ㉡의 ‘공공의 빛’이란 표현은 현재 서울의 야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대비되는 대안으로서의 빛을 의미한다.
347) 답 ④

㉮ 일본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도시는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야경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 ① 마지막 부분에 기자의 멘트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② 일본의 요코하마와 프랑스 파리의 야경 담당자를 인터뷰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기사 도입부에서 진행자의 멘트 중 ‘연속 보도’라고 언급되어 있다. ⑤ 서울 야경의 문제점을 모범 사례와 비교, 대조함으로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48) 답 ⑤

㉮ 대한민국 서울의 야경은 관리 소홀로 인해 도시의 색이 왜곡되어 공해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349) 답 ①

㉮ 뉴스 가치의 요소 중 흥미성이란, 특이하고 재미있는 기사들이 독자들의 흥미를 더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가 사람을 문 것보다는 사람이 개를 문 것이 뉴스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기자의 관심 분야보다 독자들의 관심 분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② 영향성 :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수록 뉴스 가치가 높다. ③ 시의성 :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보도하는 당시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다. ④ 근접성 :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 혹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낄수록 가치가 높다. ⑤ 저명성 : 보도 대상인 인물 또는 단체가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뉴스 가치가 높다.
350) 답 ③

㉮ 야경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건 면에서 차이가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오히려 외국보다 많은 부분에서 조건이 비슷하면서도 야경을 잘 갖추고 있는 국내의 다른 도시의 사례를 비교, 대조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351) 답 ③

㉮ [A]는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장면으로, 현장감을 한껏 살린 보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다. ㉯ 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시민들의 반응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현장이 아닌 그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일본의 거리를 취재한 것이다. ⑤ 스튜디오에서 음성을 더빙한 것이 아닌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말한 것이다.
352) 답 어지러운 네온사인 불빛과 무절제한 조명으로 인해 서울의 야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 ‘리드(전문)’는 신문의 기사, 논설 따위에서 본문의 맨 앞에 요지를 추려서 쓴 짧은 문장을 의미한다.

상6(3) 식사문 쓰기

353) 답 ③

㉮ 위 글은 한 단체의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한 식사문으로 청중들은 모두 그동안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거나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식사문의 내용은 단체의 창립 8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관심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54) 답 ②

해 위 글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55) 답 ①

해 우리나라 숲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숲은 연 240억 톤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하였다.
356) 답 ① 수자원을 확보하게 해 준다. ② 공기를 정화하고 지구 온난화 진행을 막아 준다.

해 7문단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본다.
357) 답 ③

해 식사문은 그 행사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구성 요소도 달라진다. 장례식에서 쓰이는 추도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내용을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오 ① 축하 ② 이임사 ④ 환송사 ⑤ 취임사에 해당한다.
358) 답 ③

해 이 단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돌려 환경 관련문제를 해결하려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오 ② 학교와 관공서의 담을 없애기는 했으나 그 이유가 권위주의적인 자세 때문은 아니었다.
359) 답 ⑤

해 ㉠~㉢과 달리, ㉡은 이 단체의 업적이 아닌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360) 답 ③

해 위 글은 행사에 쓰이는 식사문으로 청중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361) 답 ③

해 위 글은 단체의 창립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식사문으로 대다수의 청중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단체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청중이 대다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62) 답 ④

해 이 단체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화 방지는 물론 북한의 나무 심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363) 답 ⑤

해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이다. 경제적인 이익은 그에 따른 부차적인 이유일 뿐이다.
364) 답 ① 학교와 관공서의 담을 없애고 나무를 심고 있으며 가족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②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북한의 나무 심기를 지원하였다.
365) 답 ④

해 이 단체가 많은 숲을 조성하는 데에는 관계 기관이나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 ① 엘니뇨 현상이 아마존의 밀림 숲을 파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인류가 숲 조성에 더욱 힘쓰면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추정할 수 있다. ② 학교나 관공서의 담을 없애고 나무를 심은 것은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의식의 전환 때문이 아닌 보다 나은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이 단체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③ 세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녹지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목재 사업과 연결시키는 것은 주제와 상충하는 내용이다. ⑤ '숲 살림 2020'은 문맥상 2020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2020년까지의 목표를 담고 있는 계획이므로 2020년까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366) 답 ④

해 <보기>의 내용은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내용상으로 [라]와 [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67) 답 숲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종 기상 이변이나 물 부족 현상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숲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성하고 가꾸 주어야 한다.

해 [다] 부분에 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368) 답 '숲 살림 국민운동' 창립 8주년 기념과 지속적인 숲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

해 위 글은 '숲 살림 국민운동' 단체의 창립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식사문으로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숲 조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상6(종합) 표현과 전달

369) 답 ④

해 위 실험은 방울토마토 모종을 화분에 심은 후 지렁이를 화분 속에 넣으면서 시작된다. 그 후 주기적으로 화분에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주면 지렁이가 그 음식을 먹고 똥을 싸고, 그 똥이 발효가 되어서 만들어진 퇴비로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것이다. 방울토마토가 다 자란 후에는 이를 관찰, 분석하여 실험의 결과를 얻으면 된다.
370) 답 ②

해 위 글은 예상 청중이 학급 동료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쉽고 친근한 어휘를 사용하여 실험 보고를 하고 있다.
371) 답 ①

해 지렁이는 습도에 민감한 동물로 항상 흙이 촉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372) 답 지렁이는 소화력이 좋지 않아 많은 영양분을 똥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373) 답 ⑤

해 '질·응답'은 오류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험 보고의 내용 중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 혹은 실험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시간이다.
374) 답 ②

해 실험의 목적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하나의 실험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75) 답 ②

해 위 실험은 지렁이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어 친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한편, 양분이 많은 지렁이의 배설물을 퇴비로 사용하여, 심상하고 몸에 좋은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지렁이는 쓰레기통으로 갈 음식물의 양을 줄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렁이의 똥이 발효되어 생긴 퇴비로 키운 토마토는 당은 적게 함유하면서 단맛은 강한 유기농 열매를 맺어 한 가지 일로써 두 개 이상의 이득을 얻은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거양득(一舉兩得), 일석이조(一石二鳥), 꿩 먹고 알 먹는다, 님도 보고 뽕도 따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마당 쓸고 동전 줍는다 등이 이 상황에 어울린다. 오 ① 삼고초려(三顧草廬) : 인재를 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④ 조삼모사(朝三暮四) :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376) 답 ②

해 지렁이 똥을 이용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실험이므로 기본적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지렁이 똥을 이용하는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오 ① 지렁이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위 실험과 관련이 없다. ③ 위 실험의 목적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④, ⑤ 실험의 의도나 방향과 관련이 없다.
377) 답 ③

해 본문에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다. 오 ① 위 글의 글 쓰이는 지렁이가 있는 화분을 통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했기 때문에 헛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별이 충분히 드는 곳이 아닌 항상 촉촉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재배하였다. ② 지렁이와 함께 키운 것은 일치하지만 그 이유가 토마토 나무의 시든 잎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때문은 아니다. ④ 위 글의 글씨는 유기농 재료로 만든 비료가 아닌 지렁이 똥을 퇴비로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였다. 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화분에 넣은 것은 일치하지만 그것은 화분의 지렁이가 먹고 배설함으로써 퇴비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지 흙에서 자연적으로 썩어서 양분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378) 답 ③

해 지렁이 똥을 이용한 퇴비는 지렁이의 먹이가 있는 부분의 흙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울토마토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흙을 고르게 섞어 주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379) 답 ④

해 위 보도문은 모범 사례로 꼽힌 요코하마 시와 파리 시의 야경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일반인의 인터뷰는 사실성을 높여 줄 수는 있지만 신뢰도와는 관련이 없다.

380) 답 ④

해 일본 요코하마의 야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려하거나 통일감 있게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불빛의 밝기를 조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381) 답 ④

해 ㉠의 역할은 ㉡과 같다고 볼 수 있다.

382) 답 ①

해 위 글과 달리 <보기>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반면 위 글은 서울 야경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경향이 있다. 서울의 모든 야경이 아름답지는 않겠지만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야경이 있다고 <보기>의 기자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83) 답 ③

해 방송 보도는 실시간으로 영상과 소리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용을 놓치기가 쉽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요약된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반면, <보기>의 신문 기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자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에 용이하다. ㉠ 전달 매체와 상관없이 모든 보도문은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② 기사 전체의 핵심과 방향을 유도하는 '전문'의 역할을 신문 기사에서는 '부제'라는 상세한 제목으로 대신하여 본문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④ 활자 매체인 <보기>에 비해 동영상으로 전달되는 방송 보도가 현장감과 사실감이 높다. ⑤ <보기> 역시 지면의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 보도에 비해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적어 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기에 유리하다.

384) 답 ④

해 [라]는 단체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제2의 도약기로 들어서려는 단체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참석자들에게 이를 과시하려 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385) 답 ⑤

해 위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중은 숲 조성을 통해 환경 운동을 하는 이 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숲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에 참여했다고 해서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86) 답 ㉠

해 야생 동식물 생태계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폭설이나 대홍수 등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할 수 있고, 다목적 댐과 맞먹는 물 저장 능력이 사라지면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387) 답 ④

해 [라]의 첫 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단체의 활동이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까지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숲 살

림 2020'은 창립 8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기로 들어 서기 위한 중장기 계획서의 이름이다. ② [가]를 통해 위 글이 단체의 창립 8주년 기념식을 위한 기념사임을 알 수 있다. ③ 숲 조성을 하면 야생동물들에게도 이로울 수 있겠지만, 숲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무분별한 토목공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인지는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⑤ '압력 단체'란 자기들의 특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에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숲 살림 국민운동'이란 단체가 학교와 관공서의 담을 없애고 나무를 심는 활동을 펼치긴 했지만 이를 두고 '압력 단체'가 되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388) 답 ④

해 기념행사를 위한 글이지만 부분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논설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9) 답 ④

해 위 글은 단체의 창립 8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고,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은 학교 축제를 학생 회장으로 축하하는 상황이므로 두 행사 모두 축하하는 내용이 삽입되는 것이 옳다. 또한 단체의 창립 기념일은 다양한 내외빈이 참석하는 자리이고 청중의 절대 다수가 성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학교의 축제는 대부분의 청중이 또래인 학생들이므로 보다 밝고 고조된 분위기로 연설하여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학교 축제 행사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이야기가 된다. ② 학교 행사가 모두 엄숙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축제라면 다른 행사보다 고조된 분위기로 연설하는 것이 좋다. ③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지만 말하는 사람 또한 학생이기 때문에 훈계하듯이 연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축제에서 축하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음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고 계획을 언급하기보다는 축제의 흥을 살리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390) 답 ④

해 [라]는 인도에 희망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391) 답 ⑤

해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슬픔에 잠긴 인도인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부담감을 강조하여 드러낸다고는 할 수 없다. ㉠, ② 간디의 업적과 인품을 예찬하며, '태양'에 비유하여 간디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392) 답 ④

해 추도문은 장례식에서 읽혀지는 글이므로 죽은 이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엄숙한 분위기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반드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위해서만 쓰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라도 지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작성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보듯 반드시 긴 문장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으며 불필요한 미사여구는 오히려 글의 진실성을 해칠 수 있다. ③ 진솔한 표현으로 대상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반드시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쓸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글의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⑤ 과장된 표현보다는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393) 답 ①

해 화랑인 기파랑에 대한 예찬과 추모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위 글처럼 죽은 대상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바탕으로 대상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 ② 죽은 누이에 대한 애도, ③ 사회적 혼란의 조정, ④ 사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 ⑤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등의 태도가 나타난다.

394) 답 ③

해 ㉠은 간디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디는 뜻하지 않게 암살되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

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인도인들은 그의 뜻을 가슴에 품고 인도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그의 뜻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1]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였다고 <보기>에 언급되어 있으며 비록 반이슬람 극우파인 한 청년에 의해 암살되었지만 이것이 젊은 인도인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문 2]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간디는 갑작스럽게 암살당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인도인들에게 독립의 의지를 증명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 4] 위 글에서 '호화주택이 즐비한 지역이나 상류층이 사는 지역이나 번듯한 회의 석상이 아니라, 인도에서 가장 고통 받는 천민들이 살고 있는 모든 촌락과 집을 방문하시면서 인도 곳곳에 영향을 끼치셨습니다.'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이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인도인들에 대한 반감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빈민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었던 간디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더욱이 그러한 행동이 빈민의 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문 5] 위 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죽었지만 그의 뜻은 여전히 인도인들의 가슴에 남아 정신적인 지주로서 수많은 인도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395) [답 5]

[해] <보기>는 '비협력 운동'에 대한 간디의 연설문 중 일부이다. 이 '비협력 운동'은 영국에 의해 세워진 비정상적인 정부에 비폭력, 비협력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당한 영국 정부로부터 인도가 자주적으로 독립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문 1] 영국 정부의 지시에 비협력하다고 주장하였다. [문 2] 경제 발전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문 3] 영국과의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 정당하지 않은 영국 정부에 대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다. [문 4]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협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영국 정부에 대한 비협력을 주장하였다.

상7(1)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

396) [답 4]

[해] 이 글은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 후의 효과에 대하여 쓴 신문 기사이다. 시대에 따른 호주제의 변천 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1] 재혼한 여성의 아들과 새아빠의 성이 다른 호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 2] 남편과 사별 후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김모(여) 씨의 사례를 통해 호주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다.

397) [답 3]

[해] 남편과 사별하여 새 가정을 꾸린 김모(여) 씨의 사연은 변화된 가족 형태의 경우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398) [답 5]

[해] 호주제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호주제 폐지 후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표제이다. [문 1], [문 4] 전체 기사의 핵심을 압축하여 단적으로 표현한 표제에 해당한다. [문 2] 이 글이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 후의 효과에 대하여 쓴 기사임을 알게 해 준다. [문 3]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의문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을 유발하였다.

399) [답 4]

[해] 가정 법원에서는 재혼 가정의 아이가 새아빠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이다. 호주제와 무관하게 재혼 가정은 합법적인 가족이다.

400) [답] 아이가 현재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해] [2]에 제시된 호주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호주제가 폐지된 후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원인은 아들과 새아빠의 성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이제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아들이 새아빠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마음고

생이 해소된 것이다.

401) [답 3]

[해] 이 글은 사례를 통해 호주제가 가진 문제점을 보여 주고 그것이 폐지된 후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 글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 1] 이 씨와 심 씨의 사례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문 2] 현실과 괴리된 호주제의 문제점을 보여 주고 그것이 폐지된 후의 효과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문 4] 이 씨와 심 씨의 사례를 통해 현상을 제시하고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여성을 종속된 존재로 보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 5] 이 씨와 심 씨의 사례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알기 쉽게 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402) [답 3]

[해] 실질적인 가장인 엄마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가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갓난아이를 법적인 가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호주제가 남녀를 차별하기 때문이다.

403) [답]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가장인 이 씨를 법적인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 실질적인 가장과 법적인 가장의 괴리로 인한 모순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모자 가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법의 모순'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가장인 엄마를 호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404) [답 5]

[해] [4]에서 심 씨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친정아버지의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 가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심 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자가기 때문에 법적인 가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문 1], [문 2], [문 3] 심 씨는 삼종지도의 구시대적인 윤리가 반영된 호주제 때문에 결혼 후에 법적으로 시댁이나 남편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다. [문 4] 심 씨는 현실과 동떨어진 호주제로 인하여 아버지를 부양하면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연금 상속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405) [답 2]

[해]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을 가족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개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 1] 호주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족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문 3] 호주제는 현실의 가족 관계와는 동떨어진 제도이므로 비합리적이다. [문 4] 호주제에는 삼종지도의 구시대적인 윤리가 반영되어 있다. [문 5] 호주제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406) [답 3]

[해] [1]에서 가족 제도가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 규범을 사회 현실과 괴리시킨다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 1] [3]에서 가족 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어긋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문 2] [2]에서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기초로 선언하였다고 하였다. [문 3] [3]에서 "전통", "전통문화"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 5] [2]에서 현행 헌법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혼인과 가족 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407) [답 4]

[해] 이 글은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면 가족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헌법이 국가 사회의 최고 규범이므로 가족 제도가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408) [답 2]

[해] 이 글의 논리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滿開(만개) : 풀이 확실히 빠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전제1) 헌법은 국가 사회의 최고 규범이다.



(전제2) 가족 제도가 헌법의 우위로 벗어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헌법에 어긋나는 가족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전제는 논증(論證)에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명제(命題)이다. ㉠은 헌법에 어긋나는 가족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깔린 전제이다.

409) 답 ④

해 문맥적으로 가부장적인 혼인 질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인(容認)’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차용(借用)’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다는 의미로 거리가 멀다. ㉡ 묵인(默認): 모르는 채하고 슬며시 인정함. ㉢ 용납(容納):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 인용(認容): 인정하여 받아들임. ㉤ 허용(許容): 어떤 일을 막지 않고 그냥 받아들임.

410) 답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

해 [2], [3]에서 현행 헌법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혼인과 가족 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 규범이라고 하였다.

411) 답 헌법의 이념이 “전통”, “전통문화”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해 헌법에 어긋나는 가족 제도는 수정·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헌법과 전통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3]에서 전래의 가족 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 (“전통”, “전통문화”)를 근거로 그 가족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즉 헌법의 이념이 헌법 제9조인 “전통”, “전통문화”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412) 답 ①

해 이 글에서는 호주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 관계와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호주제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13) 답 ③

해 [5]에서 호주제를 폐지하여도 전통 사상과 미풍양속은 윤리적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전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된다고 볼 수 없다.

414) 답 ④

해 ㉠은 현실적 가족 생활과 가족의 복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415) 답 호주제는 특정한 가족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강요하여 개인을 가족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였다.

해 호주제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호주제가 특정한 가족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호주제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이다.

416) 답 신분 관계를 공시하고 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해 헌법 재판소에서 호주제 관련 법조항들의 효력을 즉각적으로 폐지하지 않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호주제의 위헌 결정을 선택하지 않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택한 이유는 공적 기록의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

417) 답 ④

해 이 글은 법률적 쟁점을 다룬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이다.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함축적 의미보다

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어휘와 전문적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 ① 법률적 논쟁은 법률에 기초하여 전개되므로 법조문이나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② 호주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③ ‘이는’, ‘—므로’, ‘—어서’ 등의 이유나 근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 ⑤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 담긴 법률적인 판결문이다.

418) 답 ⑤

해 [10]에서 호주제가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것이며, 임의 분가, 호주 승계권의 포기 등을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호주제가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 ①은 [10]에서 ②, ③, ④는 [9]에서 알 수 있다.

419) 답 ③

해 가족법의 전통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제시된 글의 입장이다.

420) 답 ①

해 ㉠은 호주제의 일방적인 신분 관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 ③, ④, ⑤ ㉠은 아내의 남편 호주 입적 원칙, 자녀의 부가 입적 원칙 및 호주 승계 제도와 같은 호주제의 일방적인 원칙에 따르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호주를 정하는 제도이다.

421) 답 남녀평등(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해 이 글을 바탕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주요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 호주제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호주제가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남녀평등(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422) 답 ③

해 제시된 글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존의 호주제가 왜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맥락을 제공하고 폐지 후 우리 생활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는 신문 기사이다. ㉡ ① 이 글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② 호주제로 인한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보여줬을 뿐 논의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호주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쓴 글이 아니다. ⑤ 호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폐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쓴 글이다.

423) 답 ③

해 이 글에서 호주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호주제의 폐지를 제시하였으므로, 해결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424) 답 ③

해 가정 법원에서는 재혼 가정을 허가해 준 것이 아니라, 재혼 가정의 아이가 새아빠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 ① 기사의 핵심을 압축하여 단적으로 표현한 기사문의 표제이다. ② 호주제 폐지 후의 효과를 압축하여 제시한 기사문의 부제이다. ④ 실질적인 가장인 이 씨는 여자가기 때문에 남자아이인 갓난아기가 호주로 등록된 것이다. ⑤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 개인 호적을 갖게 되어 현실과 법의 모순을 해결하게 된다.

425) 답 ②

해 ㉡는 모자 가정의 실질적 가장을 법적인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현실을 강조한 말이다. 따라서 모자 가정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 ①, ④ 이 씨가 법적인 가장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구시대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윤리가 호주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⑤ 갓난아기를 호주로 등록하는 상황은 실질적인 가장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滿開(만개):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426) ㉡ 호주제는 현실적인 가족 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였고, 여성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존재로 봄으로써 양성 평등의 원칙을 어겼다.

㉢ 헌법 제36조를 바탕으로 호주제를 비판해 보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존엄'이고 다른 하나는 '양성의 평등'이다. 호주제는 가족 관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인 가족 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였고, 여성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존재로 봄으로써 양성평등의 원칙을 어겼다.

427) ㉡ ③

㉢ [가]는 호주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호주제가 왜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맥락을 제공해 주는 신문 기사이다. ㉡ ① 신문 기사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② 표제인 '친정 부모님 모시는 딸,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다.'와 부제인 '결혼한 딸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를 통해 기사의 핵심을 압축하여 전달하였으며,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④ [가]는 [나]~[라]의 내용에 대한 맥락을 제공해 준다. ⑤ 쟁점이 되는 호주제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 주고 있다.

428) ㉡ ⑤

㉢ 실질적인 가족 관계가 법적인 가족 관계와 괴리되는 호주제의 문제점이 해결된 것이다.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시부모도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 ㉡ ① 실질적인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아 일치하게 된다. ② 호주제가 폐지되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연금 상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호주제가 폐지되면 결혼한 심 씨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④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긍정적인 변화이다.

429) ㉡ ③

㉢ [나]~[라]는 법률적 쟁점을 다룬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이 길고 복잡하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 ①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법률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법률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다. ④ '따라서', '이는', '-므로', '-어서' 등의 이유나 근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많이 쓰였다. ⑤ 헌법 제36조 제1항을 인용하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430) ㉡ ②

㉢ [라]에서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 관계와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호주제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 ① [나]에서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면 가족 제도는 전통과 문화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오늘날의 가족 관계가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⑤ [다]에서 호주제는 단순히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친다고 하였다.

431) ㉡ 호주제는 현실적인 가족 관계와 조화되지 못한다.

㉢ 제시된 글을 읽고 호주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의 심 씨는 실질적으로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호주제에서는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즉 호주제는 현실적인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32) ㉡ ④

㉢ 이 글은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밝힌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이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인의 존엄성을 해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 ① 호주제가 현실에서 잘 지켜지는지의 여부는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② 호주제가 전통문화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밝히기 위한 글이 아니다. ③ 호주제의 수정 방법이나 방향에 대하여 모색한 글이 아니다. ⑤ 호주제의 개념과 특징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다.

433) ㉡ ②

㉢ 이 글에는 호주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가], [나], [다]에는 호주제가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폐지하자는 주장과 그 근거가 제시되었고, [라], [마]에는 호주제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그 근거가 제시되었다. ㉡ ① 호주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밝힐 뿐 일반인들의 통념을 비판하지 않았다. ③ 상반된 입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④ 호주제에 대한 비판 입장과 옹호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지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한 글이 아니다. ⑤ 논의에 대한 종합이나 새로운 의견 제시는 나타나 있지 않다.

434) ㉡ ④

㉢ 일방적인 신분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호주제의 일방적인 신분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호주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435) ㉡ ④

㉢ <보기>는 헌법과 전통의 관계를 밝혔는데, 전통을 오늘날의 헌법 이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전통이 오늘날의 헌법 이념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전통의 성격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문단은 [라]이다. [라]에서는 도식적인 잣대로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36) ㉡ ①

㉢ 문맥적으로 봤을때 '기계적인', '무조건적인', '틀에 박힌', '단편적인'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전적으로 '도식적'이란 말의 의미는 사물의 본질이나 구체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창조적 태도 없이,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기계적으로 맞추려는 경향을 말한다.

437) ㉡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사람들과 존속하자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 호주제와 관련하여 헌법 소원이 왜 생겼는지 그 사회적 맥락을 추정해 보는 문제이다.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438) ㉡ ⑤

㉢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다는 입장의 근거이다.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라]에서 확인된다. 호주제가 가족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한 것일뿐만 아니라 임의 분가, 호주 승계권의 포기 등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439) ㉡ 신분 관계를 공시하고 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 헌법 불합치 판결의 의의를 묻는 문제이다. 위헌 판정을 하게 되면 신분 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440) ㉡ ②

㉢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므로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③ [다]에서 알 수 있다. ④, ⑤ [나]에서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을 편제하는 현행 호적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게 되어 개인을 중심으로 호적법이 개정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441) ㉡ 전통 사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호주제가 전통적 성격을 가졌다고 유지할 필요는 없다.

㉢ 대립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양측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족법을 수정하더라도 전통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할

滿開(만개) : 글의 황금 피라.

<http://blog.daum.net/hachunman>

수 있다.

상7(2) 종답 아래에서

442) 답 ⑤

해 이 글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는 소설이다. ㉠ 수필, ㉡ 논설문, ㉢ 희곡에 대한 설명이다.

443) 답 ③

해 '배굼은 아이들이 지에밥 냄새에 환장하였다'는 말을 통해 먹고 싶은 충동을 참기 힘든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②, ⑤ 본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짝눈이 아저씨가 무서운 이유는 고두밥을 훔쳐 먹다 걸렸을 경우이므로 ㉠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444) 답 하꽃길의 아이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지에밥을 훔쳐 먹기 쉬웠기 때문이다.

해 짝눈이 아저씨가 짝눈을 한것 지름뜨고 주로 감시하는 쪽은 학교가 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반대방향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짝눈이 아저씨의 눈을 피해 지에밥을 훔쳐 먹기 쉽다는 생각을 한다.

445) 답 ①

해 [가]에서 '별 좋은 날 만세 주장에서는 도로에 명석을 깔고 지에밥을 말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짝눈이 아저씨가 명석을 까는 것을 보고 오늘 지에밥을 말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지에밥을 훔쳐 먹기 위해 멀리 돌아올 결심을 하고 있다. ㉠ ② 짝눈이 아저씨가 일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나, '나'는 아저씨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보다는 '지에밥' 훔쳐 먹기에 더 관심이 있다. ③ 지에밥을 훔쳐 먹다 걸렸을 경우이다. ㉣ 지에밥을 말릴 때, 하꽃길이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나'의 관심사와는 관련이 없다.

446) 답 '나'가 계집애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 ('나'가 계집애를 만나게 되는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복선이다.)

해 '나'가 지에밥을 슬쩍하기 위해 먼 길을 에돌아감으로써 '계집애'를 만나게 된다.

447) 답 ⑤

해 '나'는 지에밥을 슬쩍하기 위해 시내 먼 쪽으로 에돌아가고 있었다. ㉠ ①, ② 계사판의 벽보는 전황 소식을 알려주며, 한국 전쟁이라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 ③ '벽보의 속내를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는 '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전쟁에 관한 정보들이 꾸준히 제공되어 사람들은 성명, 계열 등 전쟁에 관련된 잔인한 단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448) 답 ③

해 전쟁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벽보의 내용은 국군과 유엔군이 승승장구한다는 내용이라서 두 내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속내를 알 수 없었다.

449) 답 ②

해 '아버지'는 단어들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단어들을 어린 '나'가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단어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묵박지른 것이다.

450) 답 ⑤

해 '교착'이란 말은 어떤 상태가 굳어 조금도 변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음 문장에서 '빠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라는 문장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다.

451) 답 ⑤

해 이 글에서 '나'는 서울내기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비웃고 있으며, 화사하고 정갈한 모습과 괴상야릇한 자세 때문에 '계집애'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계집애는 익산 군수 관사에 살고 있다. ㉢ '나'는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따발총 소리 내기를 자주 했다.

452) 답 ④

해 '나'는 계집애의 화사한 차림과 정갈한 머리 모양을 통해 서울아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의 관계는 '판단 근거 :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관계는 '증거 : 판결'이다. ㉠ ① 공생 관계 ㉡ 반의어 관계 ㉢ 하위어와 상위어 관계 ㉤ 대등 관계

453) 답 고양이, 날아다니는 나비

해 소녀는 고양이를 '나비'라 부르고 있고, 소년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로 소녀의 말을 처음에 이해하였다.

454) 답 ②

해 계집애의 눈길에 '나'의 움직임을 제때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은 계집애가 앞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455) 답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 철책에 나뭇개비를 넣고 달려 따발총 소리가 나도록 하는 장난을 치기 위해서이다.

해 글의 첫 부분에서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따발총 소리 내기를 자주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뭇개비를 찾으려 한 이유는 이 장난을 하기 위함이다.

456) 답 계집애가 고양이를 고양이라 부르지 않고 '나비'라고 불렀다.

해 글의 끝 부분에 '서울내기들은 제아무리 똑똑한 척해 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볼 때 계집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은 고양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라 부른 것에 있다.

457) 답 ③

해 ㉠ 뒷부분을 보면 '나'는 계집애가 눈뜯장님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인다.

458) 답 ①

해 누구인지 물어보는 계집애에게 관심이 많던 '나'는 자신이 위험인 물이 아님을 먼저 알리고, 계집애에 대한 호기심을 풀고자 한다.

459) 답 계집애도 '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해 '나'를 다시 만났을 때, '계집애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라는 내용이나 '아, 어제 바로 그 애!'라는 부분을 통해 어제 일 이후로 계집애도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60) 답 ④

해 계집애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친해지기를 원한다. 따라서 계집애가 평소처럼 걷지 않는 것은 '나'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싫기 때문이다.

461) 답 ⑤

해 '나'가 소녀에게 공을 던져주며 다가가는 것으로 보아 경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62) 답 처음에는 지에밥을 훔쳐 먹기 위해 갔지만, 계집애를 만난 후로는 계집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게 되었다.

해 '나'는 지에밥을 훔쳐 먹기 위해 멀리 돌아 관사 쪽으로 가면서 우연히 계집애를 만나게 되고, 이후에는 그 계집애에 대한 관심 때문에 관사 쪽으로 돌아간다.

463) 답 ③

해 ㉠은 사람이 처한 기후나 자연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그에 맞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에스키모가 눈이 많이 내리는 자연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눈'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 적절한 예이다. ㉠ ①은 언어의 창조성, ㉡는 언어의 본질성, ㉢는 언어의 자의성, ㉤는 언어의 역사성의 예이다.

464) 답 '나'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에서이다.

해 '얼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는 엉뚱한 데로 말머리를 돌렸다.'라는 부분에서 '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465) 답 ③

해 소녀가 '나'를 급하게 부른 것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이다. 소녀는 '나'가 줄행랑을 놓은 이유를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외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66) 답 ③

해 '심드렁한'은 마음에 탐탁하지 않거나 거의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467) 답 '나'의 관심사가 지에밥에서 계집애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해 '나'는 항상 지에밥을 볼 때마다 그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는 '나'의 관심사가 '지에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관심이 '계집애'로 옮겨갔기 때문에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진 것이다.
468) 답 ①
해 '나'는 '계집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계집애'를 보기 위해 또다시 군수 관사를 찾아갔다. 오 ② 계집애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은 사실이나 '나'때문은 아니다. ③ '나'가 '명은이 외할머니'를 경계한 것은 이전에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를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쏘아보았기 때문이다. ④ '나'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것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집애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⑤ 이 부분은 '나'의 내면적 갈등이 중심이다.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469) 답 계집애가 집에 없음을 의미한다.
해 하얀 공은 계집애가 고양이와 놀며 항상 지니고 있던 물건이다. 이 공이 잔디밭에 놓여 있다는 것은 계집애가 지금 집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70) 답 ④
해 할머니는 '나'가 '명은'을 찾아왔음을 알고 '명은'이 지금 병원에 있음을 알려 준 것이며, 다른 행동들은 '명은'을 걱정하여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
471) 답 ②
해 '나'는 '명은'의 사정을 듣고 '명은'을 처음 만난 날 왜 당달봉사가 되었냐고 묻은 것을 부끄러워 하고 있다.
472) 답 ⑤
해 [라]의 반사가 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에서 '나'가 주일 학교 반사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73) 답 ①
해 '나'는 '명은'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거리는 '명은이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명은이 외할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된다.
474) 답 ②
해 고개를 끄덕이는 '나'의 손을 덥석 움켜쥐는 것은 눈이 먼 '명은'의 친구가 되어 준 '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475) 답 ①
해 '피란, 수복 직후, 피란민'은 '한국 전쟁'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 주는 단어들이다.
476) 답 '명은'에게 당달봉사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해 '나'는 '명은이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명은'에게 상처를 주는 '당달봉사'라는 말을 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477) 답 ③
해 '교회 - 시청 앞 - 명은이네 집'으로 공간 이동에 따른 내용 전개를 보인다.
478) 답 ⑤
해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의 '나'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해설 하고 있다.
479) 답 ①
해 '선물'은 앞을 못 보는 '명은'에게 전쟁 상황을 알려 주는 것으로, 주일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청 앞 게시판에는 항상 전황에 대한 소식이 게시되기 때문이다. 오 ② 전황을 전해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보 제공이라는 정신적인 것이다. ③ 선물을 주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알려 주는 것이다. ④ 선물은 앞을 못 보는 '명은'에게 전황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⑤ 선물 자체가 전황을 전해 주는 것이다.
480) 답 시청 앞 게시판에서 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어 앞을 보지 못하는 '명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해 시청 앞에는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는 전황에 관한 게시물이 있다. 따라서 시청으로 '나'가 간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명은'에게

전황을 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481) 답 서울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시골 사람은 아는 것이 적다.
해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상대로 보는 것은 서울 사람이 시골뜨기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82) 답 ②
해 '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483) 답 ①
해 '명은'의 반응을 '나'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아전인수(我田引水)'이다. '아전인수'는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오 ②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③ 사람의 몸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됨. ④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484) 답 ③
해 '명은'은 자꾸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에게 과자를 권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485) 답 '선물'은 벽보에 적힌 전황 소식을 의미하며, '나'에게는 앞을 못 보는 '명은'을 위한 마음이 담긴 것이지만, '명은'에게는 아픈 상처를 건드려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해 '나'는 게시판을 못 보는 '명은'을 위해 벽보의 내용을 들려주지만, '명은'은 이를 듣고 충격을 받아 괴로워하게 된다.
486) 답 ③
해 ㉠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보여 주는 간접적 표현이라면, ㉡는 직설적인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직접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 ㉠과 ㉡는 모두 '나'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은 '명은'의 심리를 드러내는 능동적, 주관적, 부정적, 자의적 표현들로 볼 수 있다.
487) 답 ④
해 '나'는 '명은'에게 전황 소식을 들려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전황 소식이 담긴 게시판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488) 답 ③
해 '명은'이 '나'에게 화를 낸 것은 '나'가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를 어기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야기를 '명은'에게 전하여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489) 답 ④
해 '나'는 '명은'이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른 채, 가라면 간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명은'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충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90) 답 ③
해 '명은'은 '나'를 보낸 후 또다시 혼자가 되는데, 이 쓸쓸함과 외로움 때문에 이전과 같이 공놀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491) 답 ③
해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명은'의 모습에서 '나'는 감동을 받고 '명은'에게 말을 걸게 된다. 오 ② '명은'이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삶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아니라, 흐름을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492) 답 ⑤
해 '명은'은 '나'를 책망하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 ① '명은'이 반가워하는 것은 '나'가 오지 않는 동안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친근감의 표현이다. ③ 자신이 화를 내서 '나'가 오지 않는 것이고, 계속 기다려 왔기 때문에 속스러워 한 말이다. ④ 다시 친근해지려 한다는 것은 이전의 '나'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493) 답 이전에 '명은'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꾸짖음과 '명은'과 다시 말동무가 되기 위해 찾아 온 것에 대한 반가움 때문이다.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를 꾸짖는 이유는 ‘나’가 이전에 ‘명은’에게 ‘죽음’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며, 반가워하는 이유는 ‘나’가 다시 ‘명은’의 활동무가 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이다.
494) ㉮ ①

㉮ ‘삼일 종’, ‘딸고만이 아버지’등 ‘나’는 ‘명은’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즉흥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② 미리 준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은’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즉흥적으로 말하고 있다. ③ 상대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공통 관심사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명은’이 궁금해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495) ㉮ 삼일 종은 ‘명은’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보이는 말이지만, 전황에 대한 소식은 ‘명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다.

㉮ ‘삼일 종’은 갈등을 겪은 ‘나’와 ‘명은’이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며, 전황은 죽음과 관련된 말로 ‘명은’에게 상처를 준다. ‘명은’의 입장에서 보면 삼일 종은 긍정적인 것으로 ‘명은’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반면 전황은 부정적인 것으로 ‘명은’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496) ㉮ ②

㉮ ‘딸고만이 아버지’는 ‘명은’이 관심을 갖는 대상으로 ‘나’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을 촉구하지는 않는다. ㉮ ③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서먹하던 사이가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로 인해 가까워지고 있다. ④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서 소설 전체 흐름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한다. ⑤ ‘딸고만이 아버지’의 모습을 회화화시켜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497) ㉮ ③

㉮ ㉮의 행동은 ‘나’의 말실수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나’가 ‘딸고만이 아버지’의 우스운 모습을 묘사하다가 ‘명은’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걱정이 쓸데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98) ㉮ ⑤

㉮ ‘딸고만이 아버지’는 종을 치지 않을 때는 그 모습 때문에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에는 존경의 대상이 되며, 이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찬탄을 한다고 하였다. ㉮ ②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해 아이들이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9) ㉮ ④

㉮ ‘앙바툼한’은 ‘잘막하고 딱 바라져 있는’이라는 뜻이다. 500) ㉮ ‘딸고만이 아버지’는 종 치는 일에 대해 강한 자긍심을 보이며, 종 치는 일을 매우 신성시하고 있다.

㉮ 종을 치는 동안 온 힘을 다하고, 공을 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끝난 무렵에는 아이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모습에서 ‘딸고만이 아버지’는 종 치는 일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1) ㉮ ②

㉮ ‘명은’이 종을 치는 딸고만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해서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을 치는 시간에 맞추어 교회로 갔다.

502) ㉮ ④

㉮ ㉮은 일반적인 교회 종소리에 소원을 들어주는 종소리의 의미를 부여하여 ‘명은’이 종을 치고 싶어하는 이유를 만들어 준다. ㉮ ① 단순히 흥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백마 이야기’를 빼도 소설의 주제 표현에 변화가 없어야 하지만, 이 이야기를 뺀다면 ‘명은’이 종을 치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503) ㉮ ⑤

㉮ 백마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에 최냉쿨을 뜯어 먹다 우연히 종을 울리게 된다. ㉮ ② 종소리를 듣고 성주가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 주는 것은 백마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다. ③ 인간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백마 이야기’로 바꾸어 돌려 말하고 있다.

504) ㉮ ①

㉮ 이전까지 교회 종소리는 종교적 의미의 종소리일 뿐이었으나, 백마 이야기와 이에 대한 ‘나’의 말은 평범한 교회 종소리에 소원을 이루어 주는 수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 ② ‘명은’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다. ③ 백마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와 그에 대한 보답이다.

⑤ 백마 이야기에 신빙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505) ㉮ 주말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은 궁뎅이 걸음처럼 더디 흘러갔다.

㉮ 시간의 흐름은 객관적인 것이라 항상 일정한 것인데, 이를 ‘궁뎅이처럼 흘러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흘러간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이유는 기다리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506) ㉮ ①

㉮ 처음에는 종이 흔들리다가 둔탁한 소리가 나고 이후 종소리가 빨라지고 있다.

507) ㉮ ②

㉮ ‘딸고만이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에 긴장하던 ‘명은’이 종이 울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첫 종소리에 놀란다. 이후 ‘나’의 장난에 즐거워한다.

508) ㉮ ④

㉮ 점층법을 사용하여 점점 빨라지는 종소리를 표현한 부분이다. ㉮ ① 과장법, ② 직유법, ③ 의인법, ⑤ 직유법,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509) ㉮ 종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하여 종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딸고만이 아버지’가 쉴 새 없이 허공을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것은 종이 그만큼 많이 흔들린다는 의미로, 종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510) ㉮ ②

㉮ ‘종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겨 댔다’라는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②는 ‘늑대의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달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표현이다. ㉮ ① ‘푸른 하늘’은 시각적 심상, ‘향긋한 꽃내음’은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만, 공감각적 심상처럼 어느 한 심상이 다른 심상에 의해 표현된 것이 아니다. ③ ‘차가운 기운’이라는 촉각적 심상, ④ ‘달콤하다’, ‘쓰다’라는 미각적 심상, ⑤ ‘함성’이라는 청각적 심상이 각각 나타난다.

511) ㉮ ③

㉮ ‘딸고만이 아버지’는 종을 치는 특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않은 채 매정하게 종 치기를 끝냈으므로, 다른 아이도 종을 치지 못했다.

512) ㉮ ③

㉮ ‘나’가 품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란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 순간에 종 줄을 잡아당기게 하는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 ①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는 일 자체를 바란 것이 아니라, ‘나’의 아침을 받고 종을 치게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513) ㉮ ‘딸고만이 아버지’와 ‘사찰 아저씨’는 동일 인물이며, 놀림의 대상으로 볼 때는 ‘딸고만이 아버지’라 부르고, 동경의 대상으로 볼 때는 ‘사찰 아저씨’라 부르는 차이가 있다.

㉮ ‘딸고만이 아버지’와 ‘사찰 아저씨’는 동일 인물이다. 다만, 놀림의 대상으로 볼 때는 ‘딸고만이 아버지’라 부르고, 동경의 대상으로 볼 때는 ‘사찰 아저씨’라 부르는 차이가 있다.

514) ㉮ ①

㉮ 교회에서 관사까지의 거리는 일정하지만, 종소리의 감동이 남아서 관사 까지 걷는 거리가 절반 이하로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515) ㉮ ④

㉮ ‘명은’은 앞을 보지 못하므로 ‘명은’에게 ‘나’의 얼굴을 본 것은 얼굴을 만진 것을 의미한다. ‘명은’은 ‘나’의 얼굴을 만지면서 ‘나’와 교감하고 있다.

516) ㉮ ⑤

㉮ ‘나’는 ‘명은’에게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명은’에 대한 애정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연민 때문에 ‘명은’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문 ①, ③] ‘명은’이 종을 치고 싶다고 한 것은 자신이 백마처럼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를 나 또한 알고 있다. ② 종을 치고 싶다는 ‘명은’의 부탁에 ‘나’는 도리머리를 하는 마음과 다르게 ‘알았다.’고 말을 한다. ④ ‘나’는 종을 치면 ‘딸고만이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거라며 걱정을 하고 있다.

517) [답 ①]

[해] 종은 누구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딸고만이 아버지’만 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을 칠 때마다 아이들은 ‘딸고만이 아버지’를 동경하고, 그가 주는 혜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문 ④] ‘나’와 ‘딸고만이 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아 ‘나’가 종을 칠 수 없다면, 다른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쉽게 종을 칠 수 있어야 하며, 종치는 ‘딸고만이 아버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518) [답 ③]

[해] ‘검질기게’라는 말은 ‘몹시 끈덕지고 질기게’라는 의미의 말이다. ‘명은’이 ‘나’에게 종을 치게 해달라고 조르는 부분에서 나온 단어임에 유의하여 그 의미를 유추하도록 한다.

519) [답] 종소리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생각에서, 자신이 종을 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 동화 속에서 ‘종소리’는 백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소원을 이루게 해 준다. 따라서 ‘명은’은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종을 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520) [답] ‘명은’의 사정을 이해하고, ‘명은’의 처지에 대해 연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 ‘나’는 ‘명은’의 부탁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명은’을 좋아하는 마음과 ‘명은’의 처지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521) [답 ③]

[해] 종을 치러 가는 과정에 ‘나’가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삽입하여 전개하고 있다. [문 ①] 대화 중심이 아니라 행동과 심리 묘사 중심이다. ② ‘나’와 ‘명은’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이다. ④ 특정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522) [답 ①]

[해] ‘나’와 ‘명은’은 몰래 종을 쳐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나’가 눈이 어두운 ‘명은’의 손을 잡고 어두운 방 길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문 ①] ‘명은’이 외할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배웅한다는 부분을 통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돌계단을 오를 때 손이 땀에 젖고 몸이 떨렸다는 부분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지 거듭 확인했다는 부분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종탑 꼭대기를 향해 연거푸 심호흡을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523) [답 ③]

[해] 숨결을 통해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지만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524) [답] ㉠ : 밧줄, ㉡ : 건공총을 오르내리는, ㉢ : ‘나’와 ‘명은’

[해] 종 치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풀줄기’의 원관념은 ‘밧줄’이며, ‘바람에 흔들리는’의 원관념은 ‘건공총을 오르내리는’이며, ‘두 마리 딱따개비’의 원관념은 ‘나’와 ‘명은’이다.

525) [답] ‘명은’이 소원을 이루도록 돕고자 하는 ‘나’의 희생적 태도가 드러난다.

[해] ‘명은’을 위하는 ‘나’의 행동에서 ‘명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길 바라면서 ‘명은’이 소원을 이루도록 돕고자 하는 ‘나’의 희생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526) [답 ③]

[해] ‘나’는 종을 계속 쳐야 ‘명은’의 소원이 종소리를 따라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527) [답] ‘딸고만이 아버지’는 ‘나’와 ‘명은’이 종을 울리는 데 방해가

되는 대상이자 ‘나’가 종을 울리는 데 도움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다.

[해] ‘딸고만이 아버지’는 종을 울리는 ‘나’와 ‘명은’에게 매타작을 하면서 종 줄에서 떼어내려다가 결국 밧줄에 함께 매달려 종을 치고 만다. 즉, ‘딸고만이 아버지’는 ‘나’와 ‘명은’이 종을 울리는 데 방해가 되는 존재이자, 함께 종을 치게 된 조력자이기도 하다.

528) [답 ③]

[해] ‘명은’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문 ②]의 ‘불신하는 사회’, ③의 ‘부정부패’, ④의 ‘목숨을 가깝게 여기는 사회’, ⑤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명은’의 상황과 관련 없는 것이다.

529) [답 ④]

[해] ㉠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긴 여운을 주는 결말이다. 종소리가 높이높이 솟구쳐 오른다는 표현을 통해 ‘명은’의 울음이 그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30) [답 ②]

[해] ‘벽보’의 뜻도 모르는 채 엉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벽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문 ①] [다] ‘당달봉사’, ‘논뜰장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나’는 계집애의 옷차림과 용모를 보고 서울 아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④ [다]에서 ‘나’가 ‘계집애’가 논뜰장님임을 발견하고 ‘만세 주장 지에발을 훔쳐 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명은이는 ‘듣기 싫단 말야!’라고 말하고 있다.

531) [답 ④]

[해] 굴러떨어진 공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는 ‘명은’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532) [답] 전쟁으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가족, 친구, 친지 등)을 잃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해] ‘명은’이 전황 소식을 듣고 ㉠과 같이 말한 것과 ‘명은’이 외할머니가 ㉡과 같은 당부를 한 까닭은 ‘명은’이 전쟁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이 죽어 고통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533) [답 ⑤]

[해] ‘명은’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온 ‘아가’의 정서와 유사하다. [문 ①] 세상을 떠나버린 소중한 사람으로, 그리움의 대상이다. ② 어린 시절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매개체이다. ③ 떠나버린 소중한 존재이다. ④ 봄과 같이 향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534) [답] [가]에는 ‘명은’에 대한 호기심, [나]에는 서울대기에 대한 비웃음, [다]에는 ‘명은’이 당달봉사인 것에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이 나타나며, [라]에는 자신의 호의를 무시한 ‘명은’에게 화가 났다가 [마]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해] ‘나’는 ‘명은’에게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다가 서울대기로 단정하고 비웃기도 하며, ‘명은’이 당달봉사인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한다. ‘나’는 자신의 호의를 무시한 ‘명은’에게 화가 났다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535) [답 ④]

[해] [가]에서 ‘명은’이 건호를 말동무로 삼은 점, [나]에서 만도와 진수가 함께 외나무다리를 건너 점에서 ㄴ을 짐작할 수 있다. ‘명은’은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본 뒤 시력을, 진수와 만도는 정용과 전쟁터에서 각각 다리 하나와 팔 하나를 잃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ㄷ과 ㄹ을 알 수 있다. [문 ㄱ.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는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이다. ㄴ.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둘 다 알 수 없다.

536) [답 ⑤]

[해] ㉠ 앞에서 ‘명은’이 외할머니’는 ‘명은’이 장님이 된 이유를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으므로, 손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37) [답] 전쟁 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막힌 어려움과 장애물을 의미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한다.

㉢ 전쟁 후 쓰인 소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도와 진수의 장애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뜻한다. ㉣은 이들에게 닥친 난관이므로, 전쟁 후 고통받는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장애물로 보아야 한다. 538) ㉢ 진수는 아버지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을 것이다.

㉣ 진수는 아버지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을 것이다. 539) ㉢ ㉤

㉢ ‘건호’는 ‘명은’이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라는 점에서, ‘만도’와 같이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인물이다. ㉣ ㉢과 ㉤는 ‘명은’이 전쟁 속에 잃어버린 가족으로, ‘명은’의 상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는 ‘명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는 인물이다. ㉦는 ‘명은’이 마음을 연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건호와 유사하나, 궁극적으로 ‘명은’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540) ㉢ ㉤ ㉥

㉢ 종을 울리는 것은 ‘명은’에게 삶의 희망을 주며, ‘나’는 ‘명은’이 종을 울리는 것을 돕고 있으므로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 ㉤ ‘나’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 ㉥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장교의 발화가 드러나 있다. ㉦ ‘명준’이 남과 북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드러나 있다. ㉧ 설득을 받는 ‘명준’은 설득자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 541) ㉢ ‘나’는 화냥쿨처럼 ‘명은’이 종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고, ‘명은’은 백마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다. 542) ㉢ ㉤

㉢ 종소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소설을 끝맺음으로써 종소리의 여운과 함께 소설의 감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43) ㉢ ㉣

㉢ 중립국을 ‘굴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으로 표현하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 ㉢ 간결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 중립국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있으나 분석적인 방식은 아니다. ㉥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려는 이유에 공감하고 있지 않다. ㉦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 주장하고 있다. 544) ㉢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려고만 한다.

㉢ ‘명은’은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종을 울리고 싶어하지만, ‘명준’은 현실도피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상7(종합) 맥락과 이해

545) ㉢ ㉤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아들은 새아빠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새아빠가 아들의 호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546) ㉢ ㉣

㉢ 새 가정이 꾸러져서 현실적으로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547) ㉢ ㉤

㉢ [다]와[라]는 호주제를 존치하자는 주장이므로 제도의 변화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 ㉢ 법조항 및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 호주제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쟁점으로 대립하고 있다. ㉥ 호주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나]~[라]와 같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이 만들어졌다. ㉦ 이는, -므로, -어서 등 이유나 근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548) ㉢ 호주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나 불편을 겪었다.

㉢ 제시된 신문 기사를 통해 호주제가 폐지된 사회적 맥락을 이해했

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자녀와 새아빠의 성이 다른 재혼 가정의 사례를 제시하여 기존의 호주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나 불편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549) ㉢ 호주제의 일반적인 신분 관계 규정은 가족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이며 그것을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은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보는 문제이다. 호주제의 일반적인 신분 관계 규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라]에서 밝히고 있다. 550) ㉢ ㉤

㉢ [다]는 호주제가 전통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은 전통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으므로 가족법이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하다. 551) ㉢ ㉤

㉢ [라]는 호주제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글로 호주제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라]의 결론 부분에는 이러한 [라]의 입장을 반영한 말이 적절하며, 호주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라]의 입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552) ㉢ ㉣

㉢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사건의 정황과 인물의 심리를 모두 서술하고 있다. 553) ㉢ ㉣

㉢ 보라매 군수는 비둘기의 뇌물을 받은 두꺼비의 거짓 진술을 믿고 까치의 죽음을 회살로 판단한 안이하고 무능한 인물이다. ㉣ ㉢ 두꺼비는 까치가 제 실수로 죽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였다. ㉤ 까치는 자신의 낙성연에서 비둘기의 악행으로 죽게 되었다. ㉥ 비둘기는 다른 이들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풀려나게 되었다. ㉦ 책방 구진은 비둘기의 뇌물을 받고 보라매 군수에게 비둘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554) ㉢ ㉤

㉢ [A]는 자신의 정월 신수(身數)가 안 좋아서 자신이 우연히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555) ㉢ 비둘기가 까치를 죽인 정범인지의 여부

㉢ 작품 속에서 어떤 문제로 법률적으로 대립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남편을 잃은 암까치는 비둘기에게 살해의 책임을 묻고자 하나, 비둘기의 편에 서 있는 인물들은 비둘기가 스스로 회살(실수로 죽음)된 것이라고 꾸며냄으로써 정범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556) ㉢ 관리와 관 주변 실세들이 결탁하여 지방행정을 좌지우지하던 부패한 사회였다. (힘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부패한 사회였다.)

㉢ 작품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유추해 보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관리와 관 주변 실세들이 결탁하여 지방 행정을 좌지우지하던 부패한 사회를 풍자·비판하고, 당대 서민들의 억울한 실정을 고발하고 있다. 557) ㉢ ㉣

㉢ 제시된 글은 소설로 인물의 내면적 혹은 인물간, 혹은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글이다. 갈등의 발생 및 전개, 그리고 그 갈등의 해소 과정을 제시한다. ㉣ ㉢ 설명문 ㉤ 회곡 ㉥ 수필 ㉦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558) ㉢ ㉣

㉢ [가]~[다]에서 ‘나’가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명은’에게 전황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무새처럼 보고 외운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 ㉢ [가]에서 ‘계집애’에 대한 호기심으로 ‘계집애’를 관찰하고 있다. ㉤ [다]에서 과자를 먹으라는 ‘명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은’이 자신의 이야기에 불편해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 ‘섬멸’, ‘계멸’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면서 ‘명은’의 반응을 우러름의 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음으로 이해할 만큼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보인다. ⑤ 쉽게 계집애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할머니의 말에 낮이 달아오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559) 답 ①

해 '나'라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나'라는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므로 작품 밖의 서술자라고 할 수 없다. 오 ② '명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나'가 '명은'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④ 동병상련이란 동일한 처지의 사람이 서로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이 작품에서 진수와 아버지는 모두 전쟁으로 인해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 ⑤ [나]는 '명은이 외할머니'의 이야기 [다]는 부자(父子)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560) 답 ②

해 [나]에서는 '명은'이 가지고 있는 금기어에 관한 문제 상황이 드러나며 [라]에서는 부자가 모두 불구가 되었다는 문제 상황이 드러난다. 오 ①, ③ [나], [라] 모두 아직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해소의 실마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부정적 사회의 모습이 일면 보이거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⑤ [나], [라] 모두 복선이 드러나지 않는다. 561) 답 ④

해 '명은'의 눈이 회동그라진 것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금기 중에 하나인 '죽음'과 관련된 말을 듣고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562) 답 '나'는 '명은'의 말의 숨겨진 의미를 간파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의미만 중시하여 행동하고 있다.

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나'는 '명은'이 한 '과자 먹어'라는 말의 숨겨진 의도인 '이야기를 그만하라'는 의미는 간파하고 '과자를 먹어라'라는 표면적 의미만 듣고 행동하고 있다. 563) 답 ⑤

해 [가], [나]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반면 [다], [라], [마]는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진 호주제 관련 판결의 내용이다. 호주제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전망이라 볼 수 없다. 오 ① 모두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이 있는 글이다. ② [가], [나]는 기존의 호주제가 왜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맥락을 제공해 준다 ③ [가], [나]는 기존의 호주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어떠한 점이 개선될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료로 적당하다. ④ [가], [나]는 신문 기사로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정보를 주고 있다. [다]~[마]는 논리적인 뒷받침을 통해 법률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564) 답 ②

해 심 씨는 호주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버지와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나 연금 상속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65) 답 (1)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는 헌법 이념에 맞지 않는다. (2) 호주제는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 관계와 조화되기 어렵다.

해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근거를 대고 있는지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는 문제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는 헌법 이념에 맞지 않는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호주제는 변화된 사회 환경 및 가족 관계와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호주제를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566) 답 ④

해 '헌법'은 '가족법'의 상위에 있으므로 '㉔ : ㉕'의 관계는 '상위 :

하위'의 관계이다. 반면 '대학교'와 '고등학교'는 연령상의 단계가 다른 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관계이다. 즉 '대학교'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아니다. 오 ① '인사'는 '목례'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② '필기구'는 '연필'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③ '문학'은 '소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⑤ '공휴일'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국경일, 명절 등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567) 답 ③

해 [나]에서 '명은'은 '종'을 침으로써 현실 상황에서 구원의 희망을 얻고 있지만, [다]에서 '명준'은 중립국을 택함으로써 현실도피적인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 ① [가]와 [다] 모두 인물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이 중심이 되어 있다. [가]에서 '명은'은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눈까지 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다]에서 '명준'은 한국 전쟁 당시 포로가 되어 남한과 북한 중 한 쪽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② [가], [다] 모두 한국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명은이 외할머니'에 말에 의해서 '명은'의 상황이 제시되었으나, [나]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명은'이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나'와 방해가 되는 '딸고만이 아버지'와의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다]에서는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남측 대표와 미군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568) 답 ④

해 [가],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작품 속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므로 친밀감을 준다. 반면 [다]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의 정황과 모든 등장 인물들의 내면을 서술해 준다. 오 ① 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 [다]와 모두 관련이 없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작품 속 서술자는 자신의 내면은 쉽게 드러낼 수 있지만 다른 인물들의 심리 묘사에는 제한적이다.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다]와는 관련이 없다. ⑤ [다]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사건의 내적인 면까지 서술하였다. 569) 답 ⑤

해 '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환영을 느끼고 절망적인 처지에 빠져 있다. 하지만 남측 대표들의 설득에 불구하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체념한 소극적인 목소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 ① 작품에서 '어린애를 닮은 듯한 명은의 울음소리'는 '명은'의 어리고 순수한 소원을 비유한 것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명은이 외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나'의 순진함이 잘 드러나야 하며, '명은'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가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딸고만이 아버지'의 발길질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명은'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도 표현되어야 한다. ③ '명은이 외할머니'는 전쟁 중에 자식을 잃고 장님이 된 손녀를 키우며 살고 있다. ④ '딸고만이 아버지'는 방해자이지만 종탑을 관리하는 인물로서 악한 인물이 되기보다는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평범한 인물이다. 570) 답 [나]의 문학적 해결 방안은 '나'와 '명은'이 종을 울리는 것인데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다]의 문학적 해결 방안은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현실도피적인 선택이다.

해 작품 속에 제기된 문학적 해결 방안을 파악하고 그 성격을 비교해 보는 문제이다. [나]에 제시된 문학적 해결 방안은 '나'와 함께 '명은'이 종을 울리는 것이다. [다]에 제시된 문학적 해결 방안은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교해 본다. 571) 답 소원을 빌기 위해 종을 치는 '명은'과 '명은'이 계속 종을 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나', 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말리려

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서로 엉키면서 함께 종을 치게 되었다.

㉮ 주인공의 행위를 방해하는 인물조차 함께 종을 치게 되는 장면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소원을 빌기 위해 종을 치는 ‘명은’과 ‘명은’이 계속 종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 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말리려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서로 엉키면서 함께 종을 치게 된 것이다.

572) ㉮ ④

㉮ 백마는 배고픔에 못 이겨 최냉쿨을 뜯어먹다가 우연히 종을 치게 되었지만 ‘명은’은 소원을 빌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종을 치게 되었다. 백마와 ‘명은’이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종을 친 것은 아니다. ㉮ ② 백마는 최냉쿨의 도움을 ‘명은’은 ‘나’의 도움을 받아서 종을 치게 된다. ③ 백마는 기사에게 버림받아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고, ‘명은’은 한국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인물이다. ⑤ 백마는 최냉쿨을 뜯어 먹는 방법으로 종을 울리지만, ‘명은’은 ‘나’와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치고 있다.

573) ㉮ ④

㉮ 백마는 배고픔에 못 이겨 최냉쿨을 뜯어먹다가 우연히 종을 치게 되었지만 ‘명은’은 소원을 빌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종을 치게 되었다. 백마와 ‘명은’이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종을 친 것은 아니다. ㉮ ② 백마는 최냉쿨의 도움을 ‘명은’은 ‘나’의 도움을 받아서 종을 치게 된다. ③ 백마는 기사에게 버림받아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고, ‘명은’은 한국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인물이다. ⑤ 백마는 최냉쿨을 뜯어 먹는 방법으로 종을 울리지만, ‘명은’은 ‘나’와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치고 있다.

574) ㉮ 명은의 소원이 하늘로 전해져 ‘명은’에게 구원의 희망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종소리’가 갖는 의미를 서술하는 문제이다. ㉮의 내용은 종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의미로 종소리는 ‘명은’의 소원이 담긴 것이므로 ‘명은’의 소원이 하늘로 전해져 ‘명은’에게 구원의 희망이 생겼음을 의미한다.